무릎 꿇은 금륜법왕

황용의 가슴은 놀라서 뛰었다. 그녀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때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곰곰이 생각했다.

(당황하지 말자. 내가 이막수와 숲을 나가 실력을 겨룬 것이 바로 조금 전이니 누군가 양아를 안아 갔다고 해도 반드시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황용은 숲속에서 제일 높은 나무에 기어올라가서 사방을 살펴보았다. 양양성 밖은 평탄한 평원으로 족히 10여 리를 볼 수 있었는데, 의심이 나는 어떠한 물체도 보이지 않았다. 이때는 몽고의 대군이 물러간 직후라 길가에 행인도 자취를 감추어 만약 누가 말을 타고 달렸다면 비록 멀리 떨어졌어도 반드시 보일 것이었다. 황용은 다시 생각했다.

(멀리 가지 못했다면 반드시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그녀는 등나무 가시 울타리 부근에 무슨 발자국이 남아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무엇을 끌고 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 무슨 야수가 달려들어 아기를 물고 갔다고는 볼 수 없었다.

(이 등나무 가시 울타리는 구궁팔괘의 방위에 따라서 펼쳤다. 그것은 우리 아버님이 스스로 만드신 것으로, 세상에 도화도의 제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비록 금륜법왕이 뛰어난 재주가 있지만 이 가시 울타리는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갈 수 없다. 설마 아버님이 오셨을까? ......아아, 낭패구나!)

갑자기 그녀는 수개월 전에 금륜법왕과 만나서 황급한 가운데 난석진을 펼쳐 저항했는데 그때 양과가 와서 구해 준 일이 생각났다. 일찌기 진법의 요체(要體)를 그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양과의 총명이 비할 데 없어서 하나를 가르치면 세 개를 깨우치니 비록 이 기문지술(寄門之術)에 정통하지는 못해도 이 가시 울타리는 황망한 중에 펼친 것으로 그 약점

을 간파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황용은 생각이 양과에게 미치자 머리가 어지러워지면서 더욱더 걱정이 되었다.

(부아가 그의 한 팔을 베었으니 그와 우리 곽씨 집안은 원한이 더욱 굳어졌다. 양아가 그놈의 손에 들어갔으니 그 목숨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놈이 비록 손을 써서 헤치지는 않는다고 해도 양아를 황야에 버린다면 이 아이의 목숨을 어찌 보존하겠는가?)

황용은 아기가 태어난 지 며칠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처럼 많은 재난을 겪는 것을 생각하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비록 그녀가 여러 번 변고를 겪었고 재주가 뛰어나다고 하지만 자식때문에 가슴을 태우는 평범한 여자가 어찌 아니겠는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양과의 길을 좇아 나섰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부근에서는 한 발자국의 흔적도 찾을 길이 없으니 더욱 답답했다.

(그가 비록 경공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어찌 이 진흙바닥에 희미한 발자국조차 남기지 않을 수 있단 말이냐. 설마 그가 공중으로 날아간 것은 아니겠지?)

그녀의 이러한 추측은 과연 틀리지 않았다. 곽양은 확실히 양과가 안고 갔다. 그가 가시 울타리를 출입한 것은 분명히 공중에서 날아오고 날아간 것이었다.

그날 저녁 양과는 창문 밖에서 황용이 곽정의 혈도를 누르고 딸을 내보내는 것을 보고 그 길로 성을 나와 멀리서 그들을 따라가며 이런 생각을 했다.

(곽백모, 당신의 딸이 내 팔을 잘랐는데 당신의 남편이 딸의 팔을 베지 못했으면 내가 가서 베겠소. 영원히 당신의 딸의 두 팔을 보존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오.)

황용과 곽부는 서로 이별해야 하는 슬픔 때문에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다. 이후 그녀가 조그만 마을에서 이막수와 만나고 두 사람이 서로 싸움을 벌이는 것 등을 양과는 숲 밖에서 지켜 보았다. 그들이 숲을 나서자 양과는 높은 나무에 뛰어 올라가 긴 덩굴을

꺾어 함께 이어서는 한 끝은 나무에 붙잡아 매고 다른 한 끝을 잡고서
허공에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두 발로 곽양을 허리를 끼었다. 그리고
왼손에 힘을 주어 당기자 몸은 이미 울타리 밖으로 떨어졌다. 왕용과 이
막수가 계속해서 동작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양과는 나뭇가지를 타고서
숲을 빠져나갔다. 땅에 내려서는 더욱 빨리 달려서 순식간에 마을로 돌
아왔다. 곽부가 길거리에 서서는 소홍마를 끌고 사방을 쳐다보며 엄마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는 두 발을 모아 몸을 달려서 홍마의
등을 올라탔다.

곽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 보자 말 위에 양과가 타고 있는 것
을 알고는 크게 당황해 <아!> 하는 소리를 지르며 급히 칼을 뽑아 들었
다. 소용녀의 숙녀검이 비록 매우 예리했지만 곽부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은 평소에 사용하던 검이었다.

양과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겁에 질린 눈빛을 보았다. 이때 만약 그
녀의 오른팔을 베려고 했다면 실로 손바닥을 뒤집기보다 쉬었지만 일이
워낙 다급해서 손을 쓰지 못했다. 양과는 흥, 하는 소리를 내며 오른쪽
팔 소매를 휘둘러 곽부의 장검을 감싸서 빼앗아 버렸다. 장검은 그녀의
손을 빠져나와서 벽에 부딪치고 땅에 떨어졌다. 양과는 왼손으로 말고삐
를 휘어잡고서 두 발로 말을 찼다. 소홍마는 앞으로 치달리며 먼지를 일
으켰다. 곽부는 놀라서 손발이 잠시 마비되었다. 잠시 후 천천히 벽 밑
에 가서 장검을 집어들었다.칼은 벽에 너무 심하게 부딪쳐서 이미 굽은
자처럼 휘어져 있었다.

부드러운 물건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원래 고묘파 무공의 정
수로 이막수가 사용하는 불진, 소용녀의 주대(綢帶) 등이 이러한 공부였
다. 양과는 이때 내력이 강하여 팔 소매를 한번 휘둘러도 실로 그 충격
은 굳센 칼이나 봉이 내리치는 것 같은 것이었다.

양과는 곽양을 안고서 한혈보마를 타고 북쪽으로 질주해 잠시 후 양
양을 지나 수십 리를 다시 달렸다. 이 때문에 황용이 비록 높은 나무 꼭
대기에 올라갔어도 결코 그의 그림자조차 볼 수가없었다.

양과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길 옆에 있는 나무들이 재빨리 뒤로 물러
나는 것을 보았다. 고개를 숙이고는 자기 품안의 곽양을 보았다. 그녀는
귀여운 모습으로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다.

(곽백모의 이 계집애를 나는 결코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내 팔을
자른 보복으로 삼겠다. 그러면 그들의 고통과 후회가 나보다 더 심하겠
지.)

얼마를 더 달리자 양과는 생각이 바뀌었다.

(양과, 아 양과야, 너는 풍류 남아로서 곽부의 미모를 보고는 골수에
사무친 그 큰 원한을 포기했다는 말이냐? 만약 너의 팔을 자른 사람이
남자였다면 네가 오늘처럼 그를 용서했을 것인가?)

한참을 생각하고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쓴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그는 자기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자신도 조정할 수 없었으며 똑똑히 알
지도 못했다.

2백여 리를 달리자 길가에 차츰 인가가 나타났다. 양과는 농가에서 양
이나 말의 젖을 얻어먹이면서 고묘로 돌아가고 있었다. 며칠 만에 그는
결국 종남산 아래에 이르렀다.

먼지처럼 옛 일이 생각나자 감개가 무량했다. 어느덧 길을 따라서 고
묘 앞에 이르렀다. <활사인묘(活死人墓)라 씌어진 큰 비석이 예전과 다
름없이 우뚝 솟아 있었다. 묘의 문은 이막수가 공격해 왔을 때 닫혀서
만약 묘에 들어가려면 땅 속에 흐르는 지하수를 뚫고 밀도(密道)를 통해
서 들어가야만 했다. 이때 그의 내공에 의한다면 밀도를 뚫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으나 곽양을 그 동안 어디에다 놓을지 몰라서 잠시 망설이고
있었다. 이 아기를 데리고 들어간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소용녀가 묘
가운데 있을 텐데 곽양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녀가 이 아기를 본다면 어
찌 가만히 두겠는가? 그래서 양과는 호주머니에서 과자를 꺼내서는 잘
씹어 곽양에게 몇번을 먹였다. 그는 고묘 옆에서 동굴을 찾아 곽양을 동
굴 안에 뉘고는 가시나무를 뽑아서 동굴 앞에 쌓았다. 고묘에 들어가서
소용녀를 만나든 못 만나든 간에 즉시 다시 나와서 이 아기를 데리고

가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가시를 쌓아 놓고 고묘로 들어가려는데 돌연 먼 곳에서 은은하게 칼이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니 그곳은 바로 중양궁이 있는 것이었다. 잠시 주춤거리는 순간 돌연 은륜이 소리를 내면서 하늘 나는 게 보였다. 이것은 바로 금륜법왕의 무기였다. 그는 호기심이 생겨 소리를 쫓아서 중양궁 뒤편에 있는 옥허동에 이르렀다. 바로 이때 소용녀는 전진오자의 한 동작인 칠성취회(七星聚會)와 금륜법왕의 공격을 앞뒤로 받아서 몸에 큰 상처를 입고 있었다.

양과가 만약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했다면 이러한 재앙에서 그녀를 능히 구했을 것이다. 천도(天道)는 예측할 수 없고 세상만사는 말하기 어려우니 어찌 모든 일이 사람의 뜻대로 되겠는가?온갖 길흉화복(吉凶禍福)이 종종 순간에 달려 있으니!

전진오자는 양과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 일이 더 복잡하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했다. 구처기가 큰소리로 외쳤다.

[우리 중양궁은 수도를 하는 곳인데 오는 여러분이 오셔서 소란을 피우니 도대체 무슨 까닭이오?]

왕처일은 얼굴 가득히 노기를 띠었다.

[용아가씨, 당신의 고묘파와 우리의 전진파가 비록 친분이 있었지만 이미 끊어진 지 오래인데 어찌 서역의 호인(胡人)과 사악한 무리들과 한패가 되어 우리의 제자들을 해치려 하는가?]

소용녀는 이미 중상을 입어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려고 그들과 말다툼을 할 겨를이 없었다. 전진교의 많은 제자들은 그녀가 칼로 윤지평을 찌르고 다시 조지경에게 상처를 주자 윤파, 조파 가릴 것 없이 모두 그녀를 적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소란 중에 지금까지의 진상을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양과는 왼손을 뻗어서 가볍게 소용녀의 허리를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용아가씨, 나와 함께 고묘로 돌아갑시다. 다른 사람들은 상대하지 마세요!]

[팔은 아프지 않느냐?]

양과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 몸에 퍼져 있는 정화의 독이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어?]

[몇 번 발작을 했지만 두려울 게 없어요.]

조지경은 소용녀의 칼에 상처를 입고 난 후, 계속 뒤에 숨어서 감히 나서지 못했다. 전진오자가 나서는 것을 보고는 모든 사장(師長)들이 조사를 하면 자신의 장교(掌教)자리가 허공에 날아갈 뿐 아니라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본래 성질이 급하고 도량이 적었을 뿐 결코 간사하고 사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단지 3 대 제자 가운데 자신의 무공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는데 장교의 자리가 윤지평에게 돌아가자 분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저질러 마침내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이때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결코 조용하게 끝날 것 같지 않자, 더욱 소란을 피워서 다섯 분의 사장들이 시비를 가리기 어렵게 만들고, 이 기회를 이용해 금륜법왕과 몽고 무사의 힘을 빌어서 전진오자를 제거하면 한 번 고생으로 평생 동안 편안함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양과가 오른팔을 잃고 왼팔로 소용녀를 부축하면 거의 속수무책인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여겨, 평생 가장 증오했던 사문을 배반한 이 제자를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옆에 있던 녹청독에게 눈짓을 하고 크게 소리쳤다.

[스승을 배반한 양과 이놈아! 두 분 조사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어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고 오만하게 구느냐?]

고개를 돌린 양과의 두 눈에 원망의 기운이 가득했다.

(용아가씨가 너희들 전진교의 도사놈에게 상처를 입었지만 오늘은 잠시 넘어가마. 그러나 뒤에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 주겠다.)

양과는 많은 도사들을 원망스럽게 한번 쳐다본 뒤, 소용녀를 부축해 자리를 옮겼다. 조지경이 말했다.

[받아라!]
하며 녹청독과 함께 칼을 뽑아 들고서 양과의 오른쪽 옆구리를 찌르려 했다. 조지경은 조금 전 칼에 찔렸으나 상처는 깊지 않았다. 양과의 끊어진 팔을 공격해서 그가 반격할 수 없는 것을 노렸다. 칼은 그가 평생 수련한 힘을 써서 찔렀으므로 바람소리가 났다.

구처기는 양과가 제멋대로 굴고 스승도 모르는 체하자 몹시 불만스러웠으나 곽정의 부탁과 그의 부친 양강과의 사도(師徒)의 정이 생각나서 말했다.

[지경아, 칼을 멈추어라!]

한편에 있던 마광좌가 큰소리로 지껄였다.

[이놈아! 부끄럽지도 않느냐? 부러진 팔을 공격하다니......!]

그는 원래 양과와 사이가 좋아 그가 위험에 직면함을 보고는 달려들어 구해 주려 했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고함만 지를 뿐이었다.

돌연 그림자가 번쩍 하더니 녹청독의 커다란 몸집이 으악, 하는 소리를 내면서 쿵, 하고 니마성의 몸에 부딪혔다. 니마성의 무공으로 보면 녹청독의 이 뜻밖의 충돌에 결코 몸을 부닥치지 않았겠지만 이미 그의 두 다리가 없는 관계로 그의 몸이 자기에게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손을 내밀어 막지 못하고 또 피할 수도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며 땅에 쓰러졌다. 니마성은 등이 땅에 닿기가 바쁘게 지팡이로 녹청독의 등을 후려치자 그는 곧 기절해 쓰러지고 말았다.

한편 양과는 이미 오른발을 내밀어서 조지경의 장검을 밟았다. 조지경은 힘을 다해서 칼을 빼려고 얼굴이 벌개졌지만 장검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원래 쌍검이 그에게 날아들자 양과는 오른쪽 빈 소매를 재빨리 휘둘러 단번에 녹청독을 쓰러뜨렸다. 조지경은 빈 소매를 휘두르는 힘이 대단함을 보고서 놀라 급히 천근추(千斤墜)를 사용해 자신의 몸을 굳건하게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동작으로 장검이 자연스레 아래로 처지자 양과는 발을 들어서 조지경의 칼을 발로 밟은 것이다. 그는 급류(急流)가

운데서 검술을 연마했는데, 물의 힘이 비록 강하다 해도 결코 그를 쓰러뜨릴 수 없었다. 조지경은 이때 자신의 칼이 마치 바위틈에 끼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온힘을 다해 칼을 잡아당겼으나 꼼짝할 리가 없었다. 양과는 쓴웃음을 지었다.

[조도장, 그때 대승관 곽대협의 면전에서 당신은 분명히 나의 사부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오늘 어찌 다시 사부 대접을 받으려고 하시오? 네, 좋습니다. 내가 과거에 당신을 사부라고 불렀던 인연으로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요.]

하는 말과 함께 오른발을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발밑의 힘은 돌연 종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조지경은 이때 온힘을 다해서 뒤로 당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이 허전해지자 칼자루가 자기의 가슴에 강하게 충돌했다. 이때 만약 상대방이 힘을 가해서 쳤다면 어찌할 도리 없이 단지 내력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지경은 가슴에 통증이 심해지며 피고 치솟자 눈앞이 어두워져 하늘을 쳐다보며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왕처일과 유처현은 칼집에서 칼을 뽑아들고 양과의 좌우를 공격했다. 돌연 한 사람의 그림자가 비스듬히 날아오더니 탕, 하며 두 자루의 검을 막았다. 이 사람은 바로 니마성이었다. 그는 녹청독에게 당해 넘어져 그를 쓰러뜨렸지만 아직 분함이 풀리지 않았다. 원인을 살펴보면 모두 다 양과 때문이었다. 그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뛰어들어 왼손의 지팡이로 왕과 유, 두 도사의 장검을 막고 오른손 지팡이로 양과와 소용녀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양과는 니마성의 무공이 대단해서 단지 빈 소매를 휘둘러서는 그의 강함과 부드러움이 섞여 있는 이 일격을 당해 내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이때 소용녀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양과에게 몸을 의지하고 비스듬히 서 있었다. 양과는 오른쪽 빈 소매를 휘둘러 소용녀의 가는 허리를 감아 자기의 앞가슴 오른쪽에 기대게 하고 왼손으로 등뒤에 있는 현철중검(玄鐵重劍)을 뽑아들었다.

찡, 하는 둔탁한 소리에 칼을 쥐었던 니마성의 손이 풀어지며 무엇인가 허공 중에 떴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지팡이였다. 이 10여근이나 되는 쇠지팡이가 하늘 높이 10여 장을 날았다가는 옥허동산 아래로 떨어졌다.

양과는 중검이 처음으로 적을 맞이해서 이처럼 위력을 발휘하자 속으로 매우 놀랐다.

니마성은 몸의 반쪽이 마비되었고 오른쪽 팔은 떨려서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비할 데 없이 용맹해 크게 소리를 지르고는 왼손의 쇠지팡이를 짚고서 몇장 뛰어올라서 양과를 내리쳤다. 양과는 자기의 칼의 강력(剛力)은 이미 시험해 보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유력(柔力)을 시험해 보고자 했다. 중검의 칼끝이 떨리더니 쇠지팡이에 달라붙었다. 이때 내력을 토해 내기만 하면 능히 니마성을 수장 밖으로 날려 버릴 수 있었다. 만약 암벽을 향해서 그를 날려 버린다면 반드시 그의 뼈와 근육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는 소용녀가 이처럼 중상을 입은 것을 보고는 화가 치밀어 이번 동작은 결코 사정을 봐 주리 않으려고 했다. 막 팔에다 내력을 토하려고 할 때 공중에 있는 니마성의 두 다리가 끊어진 것을 보고는 자기의 없어진 오른팔이 불현듯 생각나서 오히려 아래로 눌렀다. 쇠자팡이는 아래로 떨어져서 먼지를 일으키며 땅 속에 깊이 꽂혔다.

니마성은 쇠지팡이를 잡고 경공을 써서 땅에서 뽑으려 했지만 양과의 중검이 계속 누르자 마치 혈도를 눌린 것처럼 조금도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오늘 당신의 목숨만은 구해 줄 것이니 빨리 천축으로 돌아가시오.]

니마성은 사색이 된 얼굴로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상자와 윤극서는 이 뜻밖의 일을 보고서 1개월 만에 양과의 공력이 크게 진보한 것을 알았다. 또 니마성이 두 다리를 잃은 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음을 보았다. 윤극서는 몇걸음 다가서서 쇠지팡이를 땅에서

뽑아 니마성의 손에 넘겨 주었다. 니마성은 이것을 건네 받아 땅을 짚고서 멀리 뛰려고 하였으나 마비된 팔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쿠당탕, 하며 쓰러졌다.

소상자는 원래 다른 사람이 나쁘게 되는 것을 보면 적이건 친구이건 모두 기뻐하는 성미였다.

(저 천축의 난장이가 잘난 체하며 나에게 불복하더니 이것으로 끝장이구나. 지금 천하 고수가 모두 모였으니 함께 달려들어 양과를 잡는다면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양과, 이놈아! 넌 여러 번 왕자님의 큰일을 망쳐 놓았겠다! 빨리 덤벼라.]

양과는 이 말을 듣고 생각했다.

(용아가씨의 중상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눈앞에 강적이 많으니 다 죽일 수도 없고 빠져나가기도 곤란하구나.)

낮은 소리고 소용녀에게 물었다.

[상처는 어떠세요?]

[나를 안아 줘. 나......, 나는 오직......]

양과는 고개를 들어서 소상자를 쳐다보았다.

[덤벼라!]

현철검은 그의 몸에서 약 2척 정도 떨어져서 허리를 겨냥한 채 조용히 있었다. 소상자는 이 검이 투박하고 검으며 칼날이 매우 무딘 것을 보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놈의 검법은 본래 신속하고 변화가 무쌍해 대단하다. 그러나 이러한 보잘것없는 칼을 들고는 검법에 반드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어디서 이 같은 통화봉(通火棒)을 주워 왔느냐?]

하며 굳센 곡상봉으로 중검을 향하여 공격해들어왔다. 양과는 검을 쥐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는 내력을 칼에 집중시켰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칼과 봉이 교차하더니 곡상봉은 즉시 7,8조각이 나서 사방으로 흩어졌다. 소상자는 으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양과는 현철검을 뻗어서 왼쪽

으로 오른쪽으로 한 번씩 휘두르자 소상자의 두팔이 끊어졌다.

양과는 계속해서 녹청독, 조지경, 니마성 세 사람을 물리치자 옥허동 앞에 있던 뭇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이번에 또한 그가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단지 내력으로 소상자의 무기를 박살내자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자세히 몰라 서로 쳐다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의 무공은 정말로 사문(邪門)이구나!)

윤극서는 서장의 대상인으로 보물의 감별에 능했는데 양과가 니마성의 쇠지팡이를 날려 버리는 것을 보고는 매우 놀랐다.

(이같이 위력이 있는 검은 보통의 것이 아니다. 새까만 칼날 가운데서 은은히 붉은 빛이 나오니 현철로 만든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 현철은 천하의 귀한 것으로 한 냥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보통 칼이나 창 가운데 단지 반 냥만 섞어도 천하에 다시 없는 무기가 된다. 그가 어디서 이같이 많은 현철로 된 검을 찾았을까?만약 이 칼 전체가 모두 현철로 만들어졌다면 적어도 사오십 근은 될텐데 어찌 이처럼 민첩하단 말인가?)

사실 이 검의 무게는 64 근으로, 만약 이처럼 무겁지 않으면 양과의 내력이 비록 강하다고 해도 결코 이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소상자의 곡상봉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본 윤극서는 이 검이 신품(神品)임을 알았다. 그는 사람됨이 원래 크게 악하지는 않았으나 어려서부터 보석 장사를 해서 기이하고 값진 물건을 보기만 하면 호기심이 발동해서 동으로 사거나 빼앗거나 속이거나해서 그것을 얻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이때 양과의 중검을 보고 크게 욕심이 생겨 즉시 앞으로 나서서 금룡편을 휘둘러 칼을 감았다.

양과는 윤극서와 절정곡에 같이 갔다 왔고, 또한 그가 항상 웃으면서 겸손해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전혀 적대감을 품고 있지 않았었다. 자기의 중검을 감은 금룡편의 손잡이에 진주, 금강석, 백옥 등 귀한 보석이 박혀 있는 것을 보고서도 가만히 있었다.

[윤형, 당신과 나는 원래 아무런 감정도 없으니 빨리 금룡편을 풀어서

많은 보석들이 상하지 않게 하시지요.]

윤극서는 웃고 있었다.

[뭐라고?]

윤극서는 힘을 주어 뺏으려 했으나 양과는 꼿꼿이 서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 윤극서는 가까이 서서 이 검이 과연 현철로 만들었음을 똑똑히 보았다. 금강석은 천하에 가장 단단한 물건으로, 어떠한 단단한 물건과 부딪쳐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금룡편의 손잡이에 박혀 있는 금강석이 현철검을 스치고 지나갔으나 조그만 상처도 생기지 않았다. 이것을 본 윤극서는 오기도 생겼으나 상대방의 무공이 대단해서 만약 꾀로 그를 제압하지 못하면 그것을 뺏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가볍게 웃으면서 말했다.

[양형의 공부가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읍니다.]

공손하게 말하면서 왼쪽 손목을 뒤집자 돌연 싸늘한 빛이 번쩍 하면서 왼손에 있던 비수가 소용녀의 앞가슴을 향해 찔러 들어갔다.

그는 이 동작으로 소용녀를 해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양과가 소용녀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가 위험에 빠지면 반드시 그녀를 구하려 할 것이라 믿고, 이 틈을 이용해그의 보검을 뺏으려 했다. 양과가 이 광경을 보고는 과연 크게 놀랐다.

[검을 놓아라!]

하고 소리 지르며 윤극서는 온몸의 힘을 오른팔에 모아서 금룡편을 잡아당겼다.

<검을 놓아라!> 하는 소리에 양과는 검을 놓고 말았다. 검은 길고 비수는 짧아 중검은 세 사람의 가운데 위치해 비수가 소용녀에게 미치지 못하게 했다. 윤극서는 이 검이 매우 무거운 것을 알고 조심했지만 이처럼 맹렬하게 자기를 향해서 날아와 피하지 못하기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즉시 내력을 써서 두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자 펑, 하는소리와

함께 몇걸음 뒤로 밀려나 동백나무에 기대서야 멈추었다. 입가에는 비록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얼굴이 노랗게 되어 기쁨보다 슬픔이 앞섰다. 잠시 만에 오장육부가 마치 뒤집힌 것 같아, 감히 기를 운행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선 채 굳어 버린 것 같았다.

양과는 그에게 다가가서 현철검을 잡고 가볍게 떨치자 가벼운 소리가 나고 찬란한 빛이 번쩍이며 금은 보석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보석이 박힌 금룡편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것이었다.

[금륜법왕, 오늘 승부를 낼까요? 아니면 뒤로 미룰까요?]

금륜법왕은 그가 계속해서 니마성, 소상자, 윤극서 등 3대 고수를 모두 한 동작으로 물리치자 이 소년이 어찌 이 같은 무공의 진보를 이루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자기가 앞으로 나선다면 결코 그들 세 사람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승리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때 각지의 영웅들이 모였는데 그에게 겁을 먹고 도망친다면 그 어찌 창피하지 않겠는가?

(그의 한 팔이 없고 비록 왼팔이 매섭다고 해도 오른쪽에 반드시 약점이 있을 것이니 내가 계속 그쪽을 공격해서 시간을 끄는 거다. 그는 소용녀의 상처를 염려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급해질것이다.)

그는 옷을 단정하게 하고 금은동철연과 바퀴를 손에 들었다. 오늘의 일전은 목숨을 건 중요한 싸움이니 결코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걸어나갔다.

[양형제, 당신이 이같이 무서운 위력을 가진 신검을 구했으니 축하드리오! 당신의 이 신기하고 무서운 무기를 제가 당하지 못할까 두렵구만요.]

그는 이미 자기에게 승산이 없음을 알고는 변명의 여지를 남겨 두고자, 현철중검을 극구 칭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년이 재수 좋게 이러한 신품을 얻어서 자기를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소용녀는 양과의 품에 기대어 어렴풋이 금륜법왕이 무기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는 양과 혼자서 그를 당해 내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과아야, 내게 칼 한 자루만 쥐어 줘! 우리......, 우리......, 함께......, 함께 옥녀소심검법으로 그를 제압하자.]

양과는 가슴이 찡해지며 속삭였다.

[아가씨, 안심하세요. 과아 혼자서 상대할 수가 있어요.]

소용녀는 몸을 왼쪽으로 옮겨서 양과를 대신해 앞으로 오는 공격을 가로막으려 했다. 양과는 다시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소리 질렀다.

[아가씨, 우리 둘이 오늘 힘을 합쳐서 사악한 무리를 막으니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여한이 없습니다.]

현철검이 앞으로 향했다. 법왕은 감히 양과와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몇 걸음 물러섰다. 곧 윙윙, 하는 소리에 연륜이 날아왔다. 양과는 칼을 들고 베려고 했으나 연륜은 그의 뒤를 돌아서 법왕에게 돌아가니 벨 수가 없었다. 돌연 윙윙 슝슝,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금빛이 번쩍번쩍 은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5개의 바퀴가 다른 방향에서 일제히 날아왔다.

양과는 소용녀의 상처가 악화될까 봐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법왕이 5개의 바퀴를 한꺼번에 던져서 거짓 공격을 한 것이다. 이것은 양과를 시험해 보려 한 것이므로 오륜은 두 사람의 몸을 돌아 원을 그리며 돌아갔다. 그는 양과가 결코 칼을 들고 추격하지 않음을 보고서 그 이유를 알고 매우 기뻐했다.

(네놈이 감히 몸을 움직여서 소용녀의 상처를 악화시키지 못하는구나. 내가 멀리서 공격해도 이미 승리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상대방은 이미 팔도 하나 없고 또 부상자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원래 법왕의 신분으로는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오늘 같은 좋은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소용녀가 만약 상처를 치료해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한다면 대적할 수 없고, 설사 소용녀가 중상을 입고 죽는다고 해도 양과를 견제하기 힘드니 오늘 이 기회를 이용해 그들을 죽여서 후환을 없애리라 생각했다. 불공평한 것을 생각할 여유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을 뭇 사람들은 잘 알고서 법왕이 매우 비겁하다고 느꼈다. 이때 마광좌가 소리쳤다.

[스님 당신은 영웅이오, 아니면 깡패요?]

법왕은 못 들은 척 계속해서 오륜을 날리자 여전히 양과와 소용녀의 머리에 원을 그리며 돌아갔다. 오륜은 높게 낮게 똑바로 비스듬히 소리도 다르게 날아가자, 옆에서 구경하면 사람들은 눈앞이 어지러워 정신이 없었다. 돌연 마광좌가 <이크!> 하는 소리를 질렀다. 동륜이 비스듬히 날아가서 급히 원을 그리며 그의 정수리를 스쳤다. 머리의 피부가 찢겨서 피가 땅에 뚝뚝 떨어졌다. 마광좌는 고개를 들고서 큰소리고 욕하면서도 감히 앞으로 나서서 그와 맞서지는 못했다.

양과는 소용녀의 상처가 매우 깊어서 시간을 지체하면 치료의 기회를 잃을까 두려워 계속 초조해 했다. 법왕이 돌연 소리 질렀다.

[조심해라!]

돌연 5 개의 바위가 한곳에 모여서 두 사람에게 날아왔는데 이 진세는 마치 5 마리의 소가 진을 펼친 것 같았다. 양과의 온몸의 힘은 왼팔에 모여서 칼끝이 가볍게 떨렸다. 딩딩딩,하며 금.동.철의 2 륜에 검을 휘둘러 아래로 내리쳤다. 돌연 땅에서 먼지가 일어났다. 은륜과 연륜이 이미 칼에 맞아서 땅에 떨어졌다.

법왕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왼손으로 동륜을 쟉숫기고 금.철, 양륜을 들고서 양과의 정수리를 치려고 했다. 양과는 저항하지 못하고 현철검으로 그의 가슴을 향해 찔렀다. 검은 길고 바퀴는 짧아 바퀴가 양과의 머리에 채 닿기도 전에 검은 이미 법왕의 가슴 앞 반 척까지 이르렀다. 법왕은 즉시 물러났다. 양과에게 달려올 때 신속한 것처럼 물러날 때도 이를 데 없이 빨랐다. 이러한 동작은 확실히 무림 가운데 보기 드문 공부였다. 사람들은 이 같은 놀라운 기술에 함성을 질렀다.

[대단하구나!]

양과는 현철검을 곧 거두어들이며 이미 등뒤에서 기습해 온 동륜을 두 토막 냈다. 동륜의 두 조각이 채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시 검을 휘

둘러 두 조각의 동륜을 다시 네 조각으로 만들었다. 현철검을 비록 칼날이 무디었지만 그가 내력을 사용하면 끊지 못하는 물건이 없었다. 사람들은 법왕의 뛰어난 경공을 보고 갈채를 보냈는데, 다시 이 신검의 놀라운 위세를 보고는 더욱 놀라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순식간에 법왕의 오륜 가운데 2개가 망가졌는데 그는 전혀 기가 꺾이지 않고, 금.철 2개의 바퀴를 무수히 움직이며 용감하게 덤볐다. 양과가 칼을 세워서 찌르자 법왕은 몸을 숙이고 발을 움직여 피했으나 다시 금륜을 던지지는 않았다. 단지 그는 양과와 소용녀 두 사람의 주위를 돌면서 좌우로 공격을 했다. 양과의 현철검이 점점 느려졌지만 법왕이 아무리 동작을 바꾸어도 결코 그들 두 사람의 세 걸음 이내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 4,50여 동작을 펼치고 난 후 법왕의 쌍륜이 한곳에 모여서 소용녀를 치려고 했다. 양과의 현철검이 앞으로 나가며 금륜을 막았다. 두 사람의 내력이 두 가지의 무기에이미 토해져 있어 서로 부딪치자 순식간에 두 사람은 꼿꼿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다.

양과는 상대방과 부딪쳐 전해 오는 힘이 면면히 끊이지 않으면서 점차로 강해지자 매우 놀랐다.

(이 사람의 내력이 과연 심오하구나... 이미 서로 내력으로 상대하니 현철검의 위력을 전개할 방법이 없구나. 이 중대가리는 오래 단련해서 공력이 대단하니, 시간이 흐르면 내가 불리하다. 그를 가까이 끌어들여서 소매로 얼굴을 쳐야겠구나.)

그래서 그는 왼팔을 천천히 접었다. 두 사람은 원래 5척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점점 가까와져 5척에서 4척 반, 4척 반에서 4척으로 되었다.

법왕의 제차 달이파와 곽도는 계속 사부의 옆에 있다가 사부가 점점 우세해지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서 앞으로 몇걸음 나섰다. 달이파는 사부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곽도도 양과에게 암기를 사용하고자 했다. 그는 부채를 펴 들고 더위를 식히는 체했으나 사실은 때를 기다려 부채 속의 암기를 양과에게 발사하려 했다.

구처기와 왕처일은 그가 눈빛을 반짝이며 천천히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는 그가 손을 써서 사부를 도와 주려고 하는 것임을 알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

(양과가 우리 교와 비록 적이지만 대장부로 정정당당하게 이기든지든 단지 자기의 무공에 의해야 한다. 종남산이 어찌 이러한 사악한 무리가 날뛰도록 가만 놔 두겠는가!)

두 사람은 각자 장검을 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 일제히 곽도를 노려보았다. 구와 왕, 두 도인은 이때 백발을 휘날리며 오랫동안 현공을 연습해, 온 얼굴에 붉은 기운이 감돌았다. 또한 두 검에서는 무지개처럼 푸른색이 발하여 자못 위엄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곽도는 이에 놀라서 꼼짝도 못 했다.

(이 중대가리가 다시 반 척만 가까이 온다면 이 오른쪽 소매를 휘둘러야겠다. 비록 그를 죽이지는 못해도 기절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법왕은 그의 오른쪽 어깨가 돌연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보고 양과의 계획을 간파했다.

(네놈의 팔이 없어졌지만 옷소매는 남아 있어 여기에 힘을 주어 휘두르면 마치 부드러운 채찍과 같은 무기가 되겠지. 나는 네가 소매를 휘두를 때 왼팔의 힘이 적어지는 기회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마. 너는 반드시 중상을 입게 될 것이다.)

소용녀는 양과의 몸에 기대어 계속 멍청하게 있었다. 양과가 내력을 발휘해, 피가 빨리 돌며 온몸에 점차로 열이 나는 것을 알았다. 소용녀는 그의 얼굴에서 열기가 나는 것을 알고는 두 눈을 떴다. 그의 이마에 땀이 배어 있자 소매를 뻗어서 가볍게 몇번 닦아 주었다. 그의 태도가 신중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의 눈길이 가는 곳을 쳐다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법왕의 왕방울만한 두 눈이 매우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두눈에 흉악한 기운이 감돌도 있음을 보고는 급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으나 법왕의 두 눈은 더욱 가까와졌다. 소용녀는 양과와 서로 의지하고 있는데 이처럼 흉악한 눈이 옆에서 노려보자 몹시 불쾌했다. 그녀는 이때 법왕이 양

과와 싸우고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하고는 단지 이 중놈이 괘씸하다고 생각했다. 이때 그가 다가와서 이 달콤한 순간을 망쳐 놓을까 봐 품속에 손을 넣고 1개의 옥봉침을 꺼내서 천천히 법왕의 눈을 찌르려 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금침에는 독이 발라져 있었다. 보통 바늘로 눈을 찌르기만 해도 장님이 된다. 소용녀는 이때 다만 이 보기 싫은 커다란 두 눈을 없앨 생각이었지 결코 암기를 발사할생각은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중상을 입은 나머지, 손을 뻗을 때 아무런 힘이 없어서 매우 천천히 다가섰다.

그러나 법왕과 양과는 서로 꼿꼿하게 서서 이미 매우 긴박한 상황에 이르러 누구라도 조금만 움직여도 크게 불리하게 되었다. 소용녀가 금침으로 그를 찌르려 천천히 다가섰지만 법왕은 조금도 저항할 수가 없었다. 금침이 점차로 가까와져 2척에서 1척, 1척에서 반척에 이르자 법왕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쌍륜을 앞으로 내던졌는데 1개가 돌연 뒤로 뒤집혔다. 그러나 현철검의 강력한 힘은 마침내 모두 막을 수가 없었다. 그가 막 다리를 옮기자 몸이 흔들거리면서 무릎을 꿇고 결국 땅에 주저앉았다. 달이파와 곽도는 소리를 질렀다.

[사부님!]

양과는 계속해서 두 번 칼을 휘두르자 금륜과 철륜이 두 동강이 났다. 다시 두 걸음 나서며 법왕의 정수리를 향해서 칼을 내리쳤다. 법왕은 내식이 혼란해져 답답함을 느끼고 죽을 것같이 땅에 엎드려 저항할 힘이 없었다. 달이파는 황금저를 들고, 곽도는 부채를 펴서 일제히 현철검에 저항했다. 그러나 내리치는 칼의 힘이 맹렬해 달이파와 곽도 두 사람은 동시에 두 무릎에 힘이 빠지며 서 있지 못하고 땅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여전히 무기를 들고 필사적으로 맞섰다.

현철검의 힘이 점차로 강해지며 달이파와 곽도는 허리가 끊어지는 듯, 온몸의 근육이 소리를 내는 것을 느꼈다. 곽도가 외쳤다.

[사형, 당신 혼자서 잠시만 견디세요. 제가 우선 사부님을 구하고 다시 와 도와 드리지요.]

원래 두 사람이 힘을 합쳐도 견디기 어려운데 달이파 혼자 남아서 어찌 중검의 위력을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는 목숨을 버리며 사부를 지키려 했다.

[좋다!]

달이파는 있는 힘을 다해서 황금저를 뒤로 쳐들어 올렸다. 그들 두 사람은 대화를 티벳말로 해서 양과는 그 뜻을 잘 알 수 없었지만 황금저에 힘이 격중하는 것을 알고 다시 힘을 가해 눌렀으나 곽도는 이미 몸을 피해 나갔다.

곽도가 사부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꾀를 썼다는 것을 그가 어찌 알 수 있을까?

[사형, 제가 서장에 돌아가 열심히 무공을 연마해 십 년 후 이 양과란 놈을 찾아서 사부님과 당신의 원수를 갚아 드리지요!]
하고 말한 뒤 몸을 돌려서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다.

달이파는 사제에게 기만을 당하자 몹시 화가 났다. 그러면서 양과가 대사형의 전신으로 어찌 사부에게 이처럼 무정하고 의리가 없는지 생각하고 있었다.

[양형! 저의 목숨을 살려 주신다면 사부를 구하고 저 비열한 사제놈을 잡아서 처리한 후 다시 돌아와 양형의 분부를 받들겠읍니다. 그때는 저를 죽이든 살리든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겠읍니다.]

양과는 그가 중얼거리며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곽도가 위험에 처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이 달이파라는 사람이 사부에게 충의(忠義)가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 그의 비분 강개한 모습을보고 고개를 돌리자 애정이 가득한 소용녀의 눈이 자기를 보고 있음을 알았다. 잠시만에 모든 살기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세상의 은혜와 원한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되어 현철검을 들었다.

[자, 가시오!]

달이파는 몸을 일으켰으나 힘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해 온몸에 힘이 빠져 황금저를 잡지도 못하고 땅에 떨어뜨렸다. 그는 땅에 엎드려서 양

과에게 몇 번 절을 하고서 생명을 구해 준 데 대해서 감사했다. 이때 법왕은 땅에 앉아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달이파는 사부를 등에다 메고 큰 걸음으로 산을 내려갔다.

양과는 한 팔로 몽고의 6 대 고수를 크게 물리친 것이었다. 많은 무사들은 우두머리인 여섯 사람이 패하거나 다치는 것을 보고서 감히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부상을 입은 소상자, 윤극서 등을 부축하고 잠시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마광좌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양과 앞으로 다가와 엄지를 폈다.

[소형제,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마대형, 당신과 함께 다니는 이 무리들이 좋지 않으니 그들과 섞여서 함께 다닌다면 반드시 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쿠빌라이와 이별하고 고양으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소형제의 말이 맞습니다.]

그는 소용녀를 한 번 쳐다보았다. 그녀는 비록 중상을 입었어도 여전히 우아한 자태가 이루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왔다.

[당신은 새색시와 언제 결혼합니까? 내가 남아서 축하술을 먹을 수 있다면 매우 기쁘겠읍니다.]

그는 절정곡에서 처음으로 소용녀를 보았을 때 그녀가 <새색시> 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녀를 <새색시>로 불렀다.

양과는 쓴 웃음을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수백명의 도사를 살펴보았다.

[아, 아직 이 많은 도사놈들을 보내지않았지요. 제가 도와 드리지요]

양과는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1 대 1 로 싸운다면 이 도사놈들은 결코 내 적수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한 번에 덤벼들면 상황이 매우 흉악해지니 쓸데없이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지.)

[당신은 빨리 가시오. 나 혼자서 처리하겠소.]

마광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뜻을 알고는 박수를 쳤다.

[좋아요. 그 중놈이나 소상자 나부랑이들이 당신을 당해 내지 못했는데 이 도사놈들 가운데 무슨 쓸 만한 놈이 있겠읍니까? 소형제, 새색시. 저는 그만 갑니다.!]

그는 숙동곤을끌고 하하, 웃으며 사라졌다. 동곤이 땅에 끌리며 돌과 부딪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다가 점차로 멀어져 갔다.

양과는 중검으로 땅을 가리키며 방금 법왕과의 대결에서 너무 많은 힘을 썼다고 생각했다.

(금륜법왕, 소상자 등은 서로 마음에 병이 있어서 나와 싸울 때 하나씩 덤비며 모두가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취하려 했다. 만약 그들 여섯이 한꺼번에 덤볐다면 나는 결코 그들을 당해 내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나는 금륜법와과 내력을 겨루어 지게 되었는데 다행히 용아가씨의 금침 공격에 도움을 입어 생각지도 앟게 이기게 되었지. 전진의 뭇 도사들이 몸과 마음을 합쳐서 전진오자의 명령에 따르니 그들의 무공이 비록 법왕 등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나 굳게 힘을 합치게 되니 그 위력이 실로 아까 그들보다 훨씬 강해지게 되었다. 어쨌던 나는 이미 용아가씨와 함께 있게 되었으니 힘이 다할 때까지 싸우다가 같이 죽으면 그만이다.)

구처기가 낭랑하게 외쳤다.

[양과, 네 무공이 이 정도 경지까지 숙련되었으니 우리들은 한참 그에 미치지 못하겠구나. 그러나 이곳에는 수백 명의 도사가 있는데 네가 능히 이 포위망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양과가 눈을 들어 쳐다보니 사방에는 검광이 번뜩이는데 매 7명의 도사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 자신과 소용녀를 가운데에 두고 겹겹으로 에워싸고 있었다. 7명 중에 가장 뛰어난 무공을 지난 도사가 검을 모아 힘을 합치니 곧 1명의 일류 고수와 상대하는 격이 되었다. 이때 이미 양과의 전후좌우에는 수십 명에 상당하는 고수들이 검을 치켜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양과는 이때 이미 생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지라 <흥!> 하면서

한 걸음 나서자 즉시 7명의 도사들이 검을 세우고 가로막았다. 양과가 검을 세워 찔러 들어가니 7개의 검이 동시에 뻗쳐와서 가로막았다. 쨍, 하는 소리가 나면서 7개의 검이 모두 끊어져, 일곱 도사의 수중에는 칼자루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대단한 검의 위력은 구처기 같은 사람들도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었다. 왕처일이 외쳤다.

[선기, 요광! 뒤를 공격해라!]

양과는 그들이 어떻게 방향을 바꾸든 간에 상대하지 않으면서 다만 자신이 갖고 있는 신검의 위력에 의지해 밖으로 뚫고 나가리라 생각했다. 즉시 소용녀를 데리고 두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데 7명의 도사들이 되돌아서 가로막는 게 보였다. 그는 즉시 검을 휘둘러 비스듬히 쓸어서 공격해 들어갔다. 이 7명의 도사들은 검을 세워 가로막지 않고 신형(身形)을 재빨리 움직여 위치를 서로 바꾸면서 그의 몸 앞으로 스쳐 지나갔다. 7명 도사들이 설혹 진법에 익숙하여 그 신법이 민첩하다고는 해도 비명소리를 내며 그 중 2명의 도사는 이미 검에 이끌려, 1명은 허리를 다치고 1명은 다리가 부러져 땅에 나뒹굴었다.

이때 14자루의 장검은 이미 양과와 소용녀의 배후에서 7자루는 양과를, 7자루는 소용녀를 겨냥하고 있었다. 양과가 만약 검을 되돌려 뒤를 공격하면 비록 14자루의 검을 거의 물리칠 수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빗나가면 소용녀는 부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데 다시 7자루의 검이 소용녀의 오른편으로 찔러 들어왔다. 이렇게 되자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도 소용녀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 구처기가 손을 치켜들고 외쳤다.

[멈추어라!]

21자루의 장검이 검광을 번득이면서 양과와 소용녀의 몸으로부터 각각 몇 촌 되는 거리에 멈춰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용아가씨, 양과! 당신 두 사람과 나의 선배 사존과는 원래 서로 매우 깊은 인연이 있소. 우리 전진교가 오늘 다수에 기대어 이겨도 별로 훌륭

한 일이 못 되오. 더군다나 용아가씨는 몸에 부상까지 입었으니 말이오. 자고로, 원수는 맺지 말고 풀라고 하였소. 두 분께서는 돌아가 주시오.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는지 이제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어떻겠소?]

양과와 전진교와는 본래 아무런 원한이 없었다. 왕년에 학대통의 잘못으로 손노파가 부상을 입고 죽게 되자 학대통을 깊이 후회하며 자신의 목숨으로써 보상하려 했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난 일이다. 이번에 양과가 종남산에 오른 것은 단지 소용녀를 찾기 위해서 일 뿐 결코 전진교와 적이 되고자 함이 아닌지라 구처기가 이렇게 말하자 속으로 생각했다.

(용아가씨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급하기 이 도사들과 싸워서 승패를 다투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막 대답을 하려는데 소용녀의 눈빛이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낮은 소리로 물었다.

[윤지평은?]

윤지평은 등에는 바퀴를 얻어맞고 가슴에는 칼로 두 군데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지만, 즉시 죽지는 않고 동문 사제들에게 구출되어 한 구석에 뉘어져 있었다. 끊어질 듯 말 듯 가늘게 숨을 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윤지평은?> 하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이 네 마디 말은 매우 가볍게 말한 것이지만 그의 귀에는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들렸다. 어디서 힘이 치솟았는지 돌연 몸을 뒤집어 일으키고는 칼 숲 사이로 뛰어들며 외쳤다.

[용아가씨, 나 여기 있읍니다!]

소용녀가 잠시 그를 쳐다보니 도포에 선혈이 낭자하고 얼굴에는 혈색이 전혀 없는지라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과아야, 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몸을 더럽혔으니 설령 상처가 다 낫는다고 해도 오랫동안 너를 보살펴 줄 수가 없구나. 다만......, 다만 그는 목숨을 내걸고 나를 구해 주었으니 너는 더 이상 저 사람을 괴롭

히지 말아라. 이 모두는 내 팔자가 사납기 때문이다.]

윤지평은 소용녀가 <다만 그는 목숨을 내걸고 나를 구해 주었으니, 너는 더 이상 저 사람을 괴롭히지 말아라. 이 모두는 내 팔자가 사납기 때문이다> 하는 말을 듣고는 가슴이 칼로 도려 내는 듯이 아팠다. 일시의 욕망으로 인해 사리 판단이 흐려져 큰 일을 저질러 놓았으니, 자신은 소용녀를 하늘과 같이 받든다고 해도 그녀의 일생을 불행해져서 1백 번 죽어도 그 잘못을 속죄할 수 없었다. 윤지평이 돌연 큰소리로 외쳤다.

[사부님, 네 분 사백 사숙, 제자가 큰 죄를 지었으니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용아가씨와 양과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여러 도사들이 앞을 향해 세워 들고 있는 8,9자루의 장검을 향해 몸을 날리니, 몇자루의 검이 그의 몸을 꿰뚫어 그는 곧 죽고 말았다.

여러 사람들은 이러한 변고를 예측하지 못했던 까닭에 모두 놀라서 고함을 질렀다.

여러 도사들은 소용녀가 하는 말을 듣고 또한 윤지평이 죄를 인정하며 자살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로 그가 전진의 대계율을 어기고 비겁한 수단을 이용해 소용녀를 욕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진오자는 모두 계율을 엄하게 지키는 고사(高士)들인 까닭에 이번일의 잘못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는 크게 부끄러웠으나 어떤 말로 이러한 감정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구처기는 네 사형제를 한번 쳐다보고는 소리쳤다.

[검진(劍陣)을 풀어라!]

창창, 하는 소리가 계속 나면서 여러 도사들은 검을 거둬들여서 칼집에 꽂고는 그들에게 길을 열어 주려 했다.

마침내 밝힌 화촉(華燭)

양과는 여전히 오른손의 빈 소매로 소용녀의 허리를 끌어안아 그녀의 몸을 지탱해 주었다.

[우리 그만 가요!]

소용녀가 달콤하게 웃으며 나직이 말했다.

[지금 네 곁에서 죽으니 마음이......, 마음이 매우 편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이 난 듯 말했다.

[곽대협의 딸이 네 팔을 상하게 했으니 그녀가 너를 대할 면목이 없을 것이다. 그럼 누가 너를 보살피지?]

그녀는 이 일을 떠올리자마음이 더욱 난감해졌다.

[네가 외롭게, 홀로 아무도......, 돌봐 줄......]

양과는 그녀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을 보자 더욱 고통스러워졌다. 그래서 생각에 잠겼다.

(전에 이 종남산에서 그녀는 나에게 자신을 아내로 맞이하겠느냐고 물었었지. 그때 당황한 나머지 대답을 못해 그 후 얼마나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던가. 이제 시간도 얼마 없으니 필히 내 마음을 알려야겠군.)

양과는 갑자기 큰소리로 외쳤다.

[무슨 놈의 스승과 제자와의 도리냐? 무슨 놈의 순수한 결백? 우린 모두 상관치않아! 모두 개 같은 소리야!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 우리 두 사람은 조금도 외롭지 않고 조금도 불운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각부터 당신은 나의 사부가 아니야, 나의 아가씨도 아니야, 바로 내 아내야!]

소용녀는 기쁨에 넘쳐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지? 나를 기쁘게 해 주려고 일부러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

[진심이지 않고요. 내가 팔이 잘렸는데도 당신은 나를 더욱 사랑했어요. 당신이 어떤 재앙을 만난다 해도 난 당신을 더욱 사랑할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너와 나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사랑하겠어?]

수백 명에 달하는 중양궁의 도사들은 두 사람의 이 같은 밀어를 듣게

되자 모두들 낭패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계속되자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당혹한 빛을 감추지 못했고, 젊은이들은 마음이 뒤숭숭해졌다. 서로 쳐다보며 얼굴이 붉어진 사람들이 허다했다. 청정산인 손불이가 소리쳤다.

[너희들은 어서 중양궁을 떠나거라. 중양궁은 본시 청정한 곳이거늘 이곳에서 이처럼 예의에 벗어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양과는 듣고도 못 들은 척 소용녀의 두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당시 중양선사와 고묘파 조사할머니가 부부로 결합을 했어야 하는 건데. 무슨 놈의 예교 때문인지는 몰라도 결국 각자 한을 남기고 끝나버렸지요. 오늘 우리 두 사람이 중양조사의 사당 앞에서 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어 우리의 조사할머니의 한을 풀게 해 드려야겠어요.]

그는 본래 왕중양에 대해 그리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고묘 안에서 그가 남겨 놓은 유각을 수련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탄복하게 되어 후에는 매우 존경하게 되었다. 때로는 은근히 자신이 바로 그의 전인인 것처럼 느끼기도 했다. 소용녀가 한숨을 쉬며 그윽하게 말했다.

[과아야, 내게 이처럼 잘 대해 줘서 고마와!]

당시 왕중양과 임조영과의 관계를 전진오자들은 모두 자세히 알고 있었다. 비록 사부가 단호히 정을 끊은 것이 대단한 영웅대장부라고 존경은 했지만, 무학이 심오한 임조영이 아리따운 자태와 꽃다운 나이에 고묘 안에 묻혀 일생을 지낸 일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양과가 이 일을 끄집어내자 도사들 중 젊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 별 반응이 없었지만 나이든 이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손불이가 소리쳤다.

[선사께서 큰 지혜를 얻어 이 전진교를 창교하여 세우신 깊은 뜻을 어찌 네가 감히 추측이나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다시 헛된 망발을 계속한다면 내 검이 무정하다고 탓하지 마라.]

그녀는 전에 대승관영웅연회 석상에서 양과에게 장검을 주었는데 양과가 여러 사람 앞에서 그녀의 장검을 거절하고 받지 않아 크게 무안을

당했던 적이 있었다. 그녀는 비록 수도하는 몸이었지만 구처기나 왕처일처럼 마음이 넓지 못했다. 게다가 전진교의 존장이라는 그녀의 신분으로 새까만 후배에게 모욕을 당했으니 가슴속에 맺혀 있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한 그녀는 여자의 몸으로 여러 도인들과 함께 수련하다 보니 더욱 엄한 기품을 지니게 되었다. 양과가 겁도 없이 전진교의 모두가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는 사조상앞에서 식을 올리겠다는 소리를 듣게 되자 노기가 일어 참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양과와 소용녀, 두 사람이 그녀의 호된 질책에도 마이동풍 격으로 있자 그만 쉬익, 하고 장검을 뽑았다. 양과가 차갑게 그녀를 노려보며 깊이 생각했다.

(단지 너 혼자라면 내 적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일단 손을 쓰게 된다면 나머지 전진교인들이 수수방관하지는 않겠지. 그러나 난 지금 곧 소용녀와 식을 올려야만 된다. 만약 여기서 식을 올리지 못하고 중양궁 밖으로 나가 그녀의 몸이 만일 치료가 안 된다면 그녀는 한을 남긴 채 끝을 맞게 되지 않겠는가?네가 나보고 욕을 해 대지만 내가 욕을 먹은 것이 어디 오늘뿐이겠냐? 내 이미 중양사조상 앞에서 식을 올리겠다고 말하였으니 누가 뭐라 해도 하고야 말겠다.)

주위를 살펴보니 도사들의 절반이 벌써 손에 검을 쥐고 있었다.

[손도장(道長), 쫓아낼까요?]

손불이가 소리쳤다.

[어서 떠나라! 금후론 전진교와 고묘파는 일도양단(一刀兩斷), 영원히 얽힐 수 없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이다!]

양과는 길게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가로 저었다. 고묘 쪽으로 가는 오솔길을 두 발자국을 내디디며 서서히 현철검(玄鐵劍)을 어깨에 걸쳤다. 그는 소용녀를 부축해 안고 몰래 단전에 기를 모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앙천대소를 했다.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리자 모두를 깜짝 놀랐다.

그의 웃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돌연 소용녀를 내려놓더니 손불이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오른쪽 손목 위의 회종(會宗).지구(支溝)의 양 혈

도를 찍어 잡아챘다. 소용녀는 받쳐 주는 이가 없게 되자 비틀 하면서 넘어지려고 했다. 그러나 양과가 벌써 손불이를 끌고 소용녀의 몸 뒤에 바짝 기대섰다. 양과의 행동은 눈 깜짝할 새에 이루어져 손불이는 이미 그의 손 안에 잡힌 채 꼼짝달싹도 못했다. 구처기.손불이 등은 원래 방심할 수 없어 양과가 돌연 덤벼들 것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과가 병기를 챙긴 뒤 궁을 떠나려 했고 유일하게 남은 한쪽 손에는 소용녀를 안고 있으니 그가 물러나려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 모두들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장검을 치켜들었지만 손불이가 이미 적에게 잡혀 있어 아무도 공격해 들어오지 못했다. 양과가 나직이 말했다.

[손도장, 잘못을 용서하시오.]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며 소용녀와 함께 천천히 중양궁 후전으로 걸어갔다. 모두들 노기를 띤 채 뒤를 따랐지만 대응책이 없었다.

옆문을 통해 편전을 지난 뒤 회랑을 돌아 양과와 소용녀, 두 사람은 손불이를 끌고 끝내 후전에 다다랐다. 양과가 고개를 돌려 낭랑하게 말했다.

[모두들 밖에 서 계십시오. 누구든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오면 안됩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미 목숨을 내놓은지 오래 되었소. 만약 공격해 온다면 우리 두 사람은 손도장과 함께 동귀어진할 것이오.]

왕처일이 나직이 말했다.

[구사형, 어쩌지요?]

[꼼짝 말고 기회를 기다리자. 보아하니 손사매를 헤치지는 못할것일세.]

이들은 평생을 강호를 종횡하면서 위명을 떨쳤는데 생각지도 않게 말년에 이르러 새파란 애송이한테 견제를 당하게 되자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쓰게 웃을 도리밖에 없었다.

양과는 부들방석 하나를 끄집어 내어 손불이를 앉히고는 말했다.

[죄송합니다.!]

손을 뻗어 그녀의 등 위의 대추(大椎).신당(神堂) 양 혈도를 찍어 도

망치지 못하게 했다. 밖을 보니, 모두들 후전 밖에 서서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소용녀를 부축해 왕중양의 초상화 앞에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섰다.

초상화 속의 도인은 불과 30여 세의 나이로, 손에는 장검을 들고 풍채가 당당해 보였다. 초상화 옆에는 <활사인(活死人)이란 3자가 씌어 있었다. 초상화의 인물은 선이 드문드문했지만 영웅의기상이 어려 있었으며 상당히 잘생겼다. 양과는 어렸을 적 중양궁에서 무예를 익힐 때 이 초상화를 보았으므로 조사의 초상화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고묘 안에 있는 또 다른 왕중양의 초상화가 생각이 났다. 이것은 정면의 것이고 고묘 안에 있는 것은 뒷모습이었지만 필법이 똑같았다.

[이 그림도 조사할머니가 그린 것이죠?]

소용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어 보였다.

[우리 두 사람이 중양조사의 초상화 앞에서 식을 올리면 그림을 그린 조사할머니께서도 매우 기뻐하실 거야.]

양과는 2개의 부들방석을 초상화 앞에다 나란히 깔고 큰소리로 말했다.

[제자 양과와 제자 소용녀는 오늘 중양조사의 앞에서 부부가 됨을 약속했읍니다. 이는 전진교의 수백 명 도장들이 모두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는 방석 위에 꿇어앉았다. 양과는 소용녀가 여전히 서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식을 올리려면 당신도 어서 꿇어앉아요!]

소용녀는 두 눈이 빨개져 눈물을 떨구려 했다. 양과가 부드럽게 말했다.

[왜 가만 있지요? 이곳이 싫어요?]

소용녀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아니, 아니야!]

그녀는 잠시 있다가 말했다.

[나는 깨끗한 몸도 아니고, 또 곧 죽을 몸인데 너는 어째서......, 어째서 이처럼 내게 잘 대해 주는지......?]
하며 말끝을 흐린 소용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양과가 일어서서 그녀의 눈물을 소매로 닦아 주며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 설마 내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요?]
소용녀가 고개를 덜어 그를 바라보자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난 우리 두 사람이 백년해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당신의 은정에 보답해야지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만약 하느님이우리가 하루밖에 살 수 없게 한다고 해도 우린 부부가 되는 것이오. 단지 한시간만 살도록 해도 우린 부부인 것이오.]
소용녀는 그의 얼굴에 진실된 빛이 가득하고 눈빛에 무한한 정이 깃든 것을 보았다. 마음이 떨려 그들 어떻게 대해야 좋을지 몰랐다. 처연해 보였던 얼굴이 천천히 미소를 띄었고,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무한한 기쁨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얼른 방석 위에 무릎을 끊고 앉았다.
양과도 따라 꿇어앉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초상화에게 절을 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우리 두 사람은 비록일생을 외롭고 쓸쓸하게 지냈지만 오는 이 시각부터는 정말 행복에 넘칩니다. 과거의 고난스러웠던 일이나 장래에 단명해서 죽는다 해도 개의치 않겠읍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다. 양과가 나직한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다.
[제가 양과와 제자 소용녀는 서로 마음 깊이 사랑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고 현재도 미래에도 부부가 되길 원합니다.]
소용녀든 나직이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이 영원토록 부부가 되도록 조사님께서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손불이는 방석 위에 앉아 몸은 비록 움직일 수 없었지만두 사람의 말이나 태도를 자세히 보고 들을 수가 있었다. 비록 그들의 행동은 황당

무게했지만 두 사람 모두 밝고 깨끗해 지성에서 우러나온 말임을 느꼈다. 자신도 모르게, 젊은 시절 마옥과의 신혼 때의 정경이 떠올랐다. 그녀는 처음에는 얼굴에 노기를 띠고 있었으나 양과와 소용녀가 절을 마치고 일어섰을 때는 얼굴빛이 상당히 온화해졌다.

양과가 생각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은 이미 결혼을 했으니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다.)

하여 밖에 있는 도인들을 방비하던 마음이 순간 사라져 버렸다.

양과는 소용녀에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전진교의 반역 제자라는 것은 무림 안에선 모두 아는 사실이지요. 당신 역시 반역 제자이고.]

소용녀가 말했다. 그녀는 양과에 대한 말투도 이미 달라졌다.

[그래요, 사부께서는 남자를 제자로 맞이하지 말라고 했어요. 더더욱 시집은 가지 말라 했지요. 난 한 가지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 두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요.]

양과가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없을 것은 철저히 없어야 해요. 왕조사와 조사할머니는 영웅호걸로 우리들보다 백 배는 더 훌륭하지만 그들은 끝내 결혼하지 못했어요. 두 분 조사님께서 지하에서 우리가 결혼한 것을 아신다 해도 우리 두 사람이 잘못했다고는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그의 풍채는 매우 당당했다. 1백 년 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한 것이었다.

이때 갑자기 지붕 위에서 와지끈, 하는 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기왓장이 날리고 서까래가 부러졌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 뻥 뚫린 구멍에서 커다란 종이 손불이의 머리도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양과와 소용녀가 내전에 들어가 마음대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보자 전진교 도인들은 모두 격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유처현이 신음하더니 한 가지 묘안이 생각나 구처기.왕처일.학대통 세 사람에게 귓속말을 했

다. 세 사람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문하 제자들에게 몇 마디 당부를 하고 나서 양과.소용녀, 두 사람이 절을 하는 순간을 이용해 1천여 근이나 나가는 동종을 네 사람이 받쳐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종으로 정확히 손불이를 덮어씌우려고 했다. 네 사람의 무공은 대단해, 범종이 비록 상당히 무거웠지만 1촌의 오차도 없이 떨어뜨렸던 것이다. 손불이를 종 안에 덮어씌워 양과도 어찌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일제히 달려들어 그들을 잡아 낼 셈이었다.

양과는 종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속셈을 알았다. 즉각 현철검을 뽑아 벼락같이 밀어 버렸다. 땅, 하는 소리가 우웅, 하고 울려 퍼졌다. 검끝이 범종에 닿았을 때 이미 범종은 2척이나 옆으로 밀려났다. 양과의 검이 의외로 강해 이대로 떨어진다면 그대로 손불이를 압사시킬 판이었다.

네 사람은 지붕 위에서 자세히 보고 있다가 그만 비명을 질러 댔다. 양과에게 이처럼 대단한 신력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이제 곧손불이의 육신이 피떡이 되어 날아갈 판이었다. 유처현은 두 눈을 감고 감히 똑바로 보지 못했는데, 돌연 구처기의 환호성이 들렸다.

[그가 살려 주었다!]

유처현이 두 눈을 떠 보니 이상했다. 그 범종이 손불이의 몸을 정확히 덮어씌웠는지 종 옆에는 아무런 핏자국도 묻어 있지 않았으며 손불이의 도포자락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원래 양과는 검으로 범종을 밀어내고 보니 손불이가 깔려 죽을 판이었다. 돌연 그는 생각했다.

(오늘은 우리 부부에게 경사스런 날인데 사람이 죽으면 안 되지? 이 늙은 할망구 도사는 비록 성질이 괴팍하지만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다.)

바로 오른쪽 소매자락을 휘둘러 손불이가 깔로 앉은 방석을 종밑으로 밀어넣었던 것이다.

지붕 위의 네 사람은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모두들 양과를 적

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각 문하의 제자들은 이미 분부받은 것이 있어 범종이 떨어지자 일시에 달려들었다. 그들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었다. 단지 쾅, 하고 종이 떨어져 먼지가 크게 일어나자 모두들 고함을 지르며 장검을 뽑아 들고 공격해 들어왔다.

양과는 현철검을 등뒤에다 꽂고서 소용녀를 껴안고 후전 뒤로 뛰어갔다. 구처기가 소리쳤다.

[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는 말아라!]

비록 수백 명이 고함을 쳤지만 구처기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모두들 똑똑하게 들었다. 제자들이 쫓아가면서 고함을 질렀다.

[반역도를 잡아라!]

[조사의 초상화를 욕보인 저 도둑놈을 잡아라!]

[너희는 어서 동쪽을 막아라!]

[장춘진인의 분부시다. 그를 죽이지는 말아라!]

유처현은 지붕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후원에 21 명의 고수들을 매복시켜 놓았었다. 양과가 막 문을 돌자 마당에서 검광이 번쩍번쩍 하는 것이, 사람들이 숨어 있음을 알았다.

(지붕 위로 달아나는 것이 좋겠군. 비록 위에는 네 명의 고수가 있지만 그들은 내게 살수를 펼치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소용녀를 안고 전각 안으로 되돌아왔다. 소용녀는 양과의 목을 껴안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이미 부부가 됐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이젠 빠져나가도 좋고 빠져나가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양과가 말했다.

[좋아요!]

오른쪽 다리를 뻗어 잇달아 2 명의 도사를 걷어찼다. 전각 안은 옥허동 앞처럼 넓지 못해 도사들이 꽉 들어차 북두진법을 시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양과는 소용녀를 부축하고 있어 단지 발로만 적에 대항하고 있을 뿐이라 어떻게 포위망을 뚫을 재주가 없었다.

(이 호랑말코 같은 도사들이 진법을 펴지 못하는구나. 만약 내팔이 성했다면 어찌 빠져나가지 못하랴?)

또 퍽, 하고 1명이 걷어차여 날아가 2명 앞에 떨어졌다. 이 난리통에 갑자기 밖에서 백발이 성성한 늙은이가 뛰어 들어왔다. 이어 한떼의 벌떼가 따라왔다. 바로 노완동 주백통이었다. 후전 안은 이미 한바탕 난리통이라 주백통 한 사람이 더 들어왔다고 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벌떼가 따라 들어와 마구 쏘아 댔다. 이 꿀벌들은 보통 꿀벌들이 아니었다. 바로 소용녀가 고묘 안에서 길렀던 옥봉들이었다. 전진 도사들은 벌에 쏘이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땅에 떼굴떼굴 구르며 비명을 질러 대자 더욱 소란해졌다.

주백통은 원래 양양성으로 가 곽정을 도우려고 했었다. 그런데 소용녀의 옥봉밀장을 훔친 후 그녀와 마주치게 될까 두려워 양양성으로 가지 않고 종남산으로 가 조지경에게 왜 자기를 곤경에 빠뜨려 죽을 뻔하게 만들었는지를 알려고 했다. 그는 도중에 옥봉밀장을 갖고 연습을 해 밀봉들을 지휘하는 요령을 점점 터득해 갔다. 길에서 꿀벌들과 장난을 친 것은 그런대로 괜찮았으나 종남산에 이르러서는 그만 화를 불러일으켰다. 산 위에 있는 옥봉들이 옥봉밀장의 달콤한 냄새를 맡고 분분히 몰려들었다. 옥봉들은 소용녀의 손짓과 호령에 길들여 있었다. 그래서 주백통은 조금도 부릴 수가 없었다. 그뿐 아니라 옥봉들은 그를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노완동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되자 중양궁 안으로 뛰어들어 숨을 곳을 찾게 되었다. 마침 그때 후전의 난리통 속으로 뛰어든 것이었다.

그는 전각 안에 양과와 소용녀가 있는 것을 보자 살았구나 싶어 얼른 옥봉밀장이 든 병을 소용녀에게 던져 주며 말했다.

[어이쿠 죽겠다, 이 꿀벌 영감들을 모실 수가 없어, 아가씨, 날 좀 살려 줘!]

양과가 도포자락을 휘둘러 병을 감싸 당겼다. 소용녀가 미소를 머금고 받았다.

이때 전각 안에는 벌들이 난무했는데, 구처기 등은 전각 지붕에서 뛰어내려 와 사숙에게 문안 인사를 올렸다. 학대통이 소리쳤다.

[어서 횃불을 가져와라!]

도사들은 도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 쥐기도 하고, 검을 휘두르는 이도 있었다. 몇명이 횃불을 가지러 갔다.

주백통도 구처기 등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이마는 벌에게 두차례 쏘여 퉁퉁 부어올랐다. 어서 빨리 꿀벌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도피처를 찾기를 바랄 뿐이었다. 바닥에 커다란 종이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얼른 종을 들어올려 보니 안에 사람이 있었다. 그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말했다.

[미안, 미안, 내게 양보 좀 하실까.]

손불이를 종 밖으로 끄집어내고 자신이 안으로 들어갔다. 쿵, 하고 종이 다시 바닥에 놓이자 그는 마음이 놓였다.

(천만 마리의 꿀벌이 쫓아와도 이젠 이 노완동을 쏘지 못할걸.)

양과가 나직이 말했다.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꿀벌들을 지휘해요.]

소용녀는 양과의 이 말이 자신을 사부가 아닌 아내에게 하는 말로 여겨 마음이 매우 편해졌다. 소용녀는 곧바로 병을 들어 몇번 흔들더니 몇차례 호령을 했다. 옥봉들은 주인을 만나자 곧 무리를 이루었다. 소용녀가 계속 호령을 해 대자 옥봉은 두 무리로 나뉘어 졌다. 한 무리는 길을 열고 한 무리는 뒤를 맡아 양과와 소용녀를 옹위했다.

주백통이 와서 한바탕 소란을 더하게 되자 구처기 등은 놀람과 기쁨, 그리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양과.소용녀가 전각 뒤로 물러가자 문하 제자들에게 쫓을 필요 없다고 소리쳤다. 왕처일은 손불이의 혈도를 풀어주었고 구처기는 범종을 들어올렸다. 주백통은 종안에 숨어 있어 전각내의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 돌연 종이 들려지자 냅다 소리쳤다.

[아이쿠!]

얼른 두 팔을 뻗어 종 벽을 지탱했다. 구처기의 내공은 그처럼 심후하

지 못해 그 종은 반 척 가량 올려지다가 다시 쿵, 하고 내려 앉았다. 구처기가 웃으며 말했다.

[주사숙께서는 또 장난하십니까. 자, 우리 한꺼번에 들어올립시다!]

바로 구처기.왕처일.유처현.학대통 네 사람이 종의 귀퉁이를 잡고서는 위로 치켜들었다. 넷이 힘을 쓰자 종은 땅에서 3척이나 들어올려졌는데, 종 밑은 텅 비어 아무도 없었다. 주백통이 사라지고 없자, 넷은 일제히 <어?> 하고 멍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그림자가 어른거리더니 주백통이 하하하, 웃었다. 원래 넷이 종을 들어올릴 때 주백통은 종 벽에 손발을 지탱해 종과 함께 들려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구처기 등이 다시 인사를 올렸다. 주백통은 두 손을 가로 저으며 말했다.

[됐다, 됐어. 애들이 무슨 예를 차리느냐!]

지금 구처기 등은 모두 백발이 성성한데도 주백통은 그들을 여전히 애들이라고 불렀다.

모두들 문안을 올리려는데 조지경이 몰래 도망치려고 했다. 주백통이 고함을 지르며 냅다 쫓아가 덥석 잡고 욕을 해 댔다.

[이 말코장이야. 어딜 도망치려고 하느냐?]

왼손으로 종을 2척이나 들어올려 오른손에 잡은 조지경을 종 밑으로 집어넣고 손을 놓았다. 종은 다시 땅에 내려앉았다. 그는 말코쟁이라고 왕중양의 도손들에게 마구 욕을 해 댔다. 구처기 등은 사숙의 성질을 잘 알고 있어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서로 빙그레 웃었다. 왕처일이 말했다.

[사숙, 조지경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요? 제자가 엄히 다스리겠읍니다.]

[헤헤, 이 말코장이가 나를 동굴 속으로 유인해 왕기를 훔치도록 해 놓고 글쎄, 거미를 숨겨 놓지 않았겠어! 다행히도 그 아가씨가 어, 아가씨가 어디 갔지? 꿀벌들은 모두 어디 갔지?]

그의 말이 뒤죽박죽이라 왕처일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주백통은 이리저리 소용녀를 찾는 눈치였다.

이때 10여 명의 제자들이 몰려와 보고하기를, 양과.소용녀가 뒷산 장경각(藏經閣) 건물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구처기 등이 깜짝 놀랐다. 그 장경각에는 전진교의 중지로 역대의 도장, 왕중양과 <대 제자의 저작, 그리고 전진교의 기밀문서 등이 모두 감추어져 있어 조금만 소홀히 해도 안 될 장소였다. 구처기가 말했다.

[우리 빨리 가 봅시다.]

모두들 함께 뒷산의 장경각으로 달려갔다.

왕처일은 수제자인 조지경이 주백통에 의해 종 안에 갇히게 되자 생각하기를,

(주사숙은 일을 흐리멍텅하게 처리한다. 이 일도 분명 조지경의 잘못이 아닐 것이다. 돌아가서 자세히 물어 봐야지.)

왕처일은 종 안에 통풍이 안 돼 그가 질식해 죽을까 봐 종을 약간 들어올려 깨어진 기왓장을 괴어 약간의 틈을 내어 공기가 통하게 해 놓고 자신도 얼른 뒤따랐다.

장경각 앞에 도달해 보니 수백 명의 제자들이 감히 들어가지는 못하고 앞에서 고함만 질러 대고 있었다. 구처기가 낭랑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양과.소용녀 두 분. 우리들은 모두 과거를 묻지 않고 친구가 됨이 어떠한가?]

잠시 지났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구처기가 또 말했다.

[소용녀가 상처를 입었으니 어서 내려와 치료할 방도를 생각해 보자. 본교의 문하 제자들이 절대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난 강호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거짓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한참 지나도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유처현이 생각해 보더니 말했다.

[그들은 벌써 장경각을 나갔구나!]

[뭐라고?]

[저 벌들을 보시오. 이미 사방팔방 흩어져 꽃 속에 파묻혀 있지 않습니까?]

유처현이 제자에게서 횃불을 하나 건네 받고 앞장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구처기 등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갔다. 과연 안에는 사방에 책들만 가득 있고 사람의 그림자는 없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옥봉밀장병이 놓여 있었다. 주백통은 마치 보물인 양 얼른 잡아 품안에 갈무리했다. 모두들 앞뒤를 살펴보았지만 책에는 손실이 없었다. 단지 한무더기 책이 바닥에 쌓여 있을 뿐, 책을 담았던 상자는 보이지 않았다. 돌연 학대통이 소리쳤다.

[그들은 이리로 도망쳤다!]

모두들 뒤쪽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나무기둥 위에 끈이 매어져 있었는데, 다른 한쪽 끝은 건너편 계곡의 나무줄기에 매어져 있었다. 장경각과 건너편 절벽 사이에는 깊은 계곡이 놓여 있어 원래 통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뜻밖에도 양과가 경공을 시전해 소용녀를 안고서 끈을 타고 계곡을 건너갔던 것이다.

양과와 소용녀가 중양궁 후전에서 결혼식을 올리자 전진교 사람들은 모두들 크게 위풍을 잃었다고 느꼈다. 그러나 지금 그들 두 사람이 물러가자 전진오자들은 서로 마주보며 고소를 금치 못했다. 그러나 오히려 마음은 놓였다. 손불이는 본래 가장 격분했었는데 전각 안에서 그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고, 또 양과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그만 망연자실한 채 아무 소리도 못 했다.

전진오자와 주백통은 대전으로 돌아와 그간의 사정들을 자세히 들었다. 이지상과 송덕방이 하나하나 사실을 보고했다. 구처기는 눈물을 뚝뚝 떨구며 말했다.

[지평은 확실히 큰 잘못을 저질렀소. 그러나 그는 충의로써 본교를 지키려 했으며 죽어도 몽고에 투항하지 않은 것은 큰 공이라 할 수 있지.]

왕처일이 말했다.

[지평의 허물이 공을 무너뜨리진 못해요. 자질구레한 잘못은 있지만 대의를 품은 자예요. 우리들은 그를 여전히 장교진인으로 여겨야 해요.]

유처현.학대통 등이 일제히 찬성했다. 구처기가 또 말했다.

[만약 소용녀가 마침 나타나 적들을 막아 주지 않았다면 본교는 이미 망했을 겁니다. 소용녀는 정말 본교의 대은인인 셈이죠. 이후론 그들 부부에 대해 추호도 무례하게 대해선 안 될 뿐만 아니라 보은할 방도를 찾아야만 됩니다. 아, 우리들의 실수로 그녀를 다치게 했으니, 이는......, 이는......]

그녀의 상처가 깊어 치료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어 매우 난감한 표정이었다.

구처기 등은 계속 일어났던 사건을 물어 조치를 했다. 주백통은 조금도 이러한 일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단지 옥봉밀장이 든 병을 갖고 장난을 칠 뿐이었다. 몇 차례나 뚜껑을 열어 벌들을 불러들이고 싶었으나 불러만 들일 뿐 지휘해 낼 수가 없어 두려웠다. 이때 제자 한 명이 들어와 보고하기를 5명의 제자가 벌에 심하게 쏘여 매우 고통스러워하니 조치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학대통은 전에 손노파가 궁에 꿀을 주었던 일을 기억해 내고는 말했다.

[이 옥봉밀장이 든 병은 소용녀가 우리에게 남겨 주어 치료하게 끔 한 것입니다. 사숙, 밀장을 다섯 명에게 주어 그들에게 복용시킵시다.]

주백통이 두 손을 쭉 뻗어 손바닥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 주며 말했다.

[어찌된 셈인지 갑자기 없어졌어.]

학대통은 분명히 그가 방금까지 손에 들고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주지 않으려고 없다고 하자, 더 이상 재촉도 못 하고 심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주백통은 소매를 흔들어 몸을 탁탁치며 말했다.

[난 감추지 않았어. 내가 소심해서 주지 않는 것이라고 의심하지마. 의복을 벗어 너희들에게 보여 주랴?]

원래 노완동은 장난을 좋아하는지라 경중완급을 따지지 않는 성질은 늙어서까지 고치지 않고 있었다. 생각해 보니 몇 명 말코장이들이 벌에게 쏘였다지만 길어야 반나절 고생하고 나면 생명엔 그다지 지장이 없

으리라 여긴 것이다. 이 귀중한 옥봉밀장을 남에게 줄 수는 없었다. 학대통이 입을 열자, 그는 밀장을 소매에 감추어 곧 가슴으로 또 배로 보내 바지춤에서 천천히 발 밑으로 내려보냈다. 그는 내공이 매우 뛰어나 전신의 근육을 자유자재로 수축할 수가 있었다. 그 조그만 병이 땅에 떨어질 때도 조금도 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이었다. 왕처일이 생각에 잠겼다.

(사숙이 기왕 내놓지 않으려 하니 그가 몰래 장난할 때 갑자기 애기하면 그도 어쩔 수 없이 내놓아야 될 것이다. 모두들 가 버리면 그는 참지 못하고 바로 꺼낼 것이다. 지금은 역도 조지경을 처치해야 한다. 만약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교의 명예는 저 역도의 수중에 의해 훼손되고 만다.)

그는 여기까지 생각하고는 엄하게 말했다.

[학사제, 치료하는 일은 좀 늦어도 괜찮소. 우리는 먼저 역도 조지경을 처리해야 하오!]

전진오자는 수십 년을 함께 지내 사형제들은 모두 왕처일이 정직하고 사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지경이 비록 그의수제자였으나 대역죄를 범하자 그는 결코 정에 이끌려 감싸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들 생각했다.

(이 역도는 본교를 팔아 넘겨 자신의 영화를 꾀하려 했고, 동문을 해치려 했으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

돌연 종 밑에서 미약하게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사숙조, 만약 제자의 목숨을 구해 주시면 내 옥봉밀장을 돌려 들리지요. 그렇지 않으며 깨끗이 먹어 버리겠소. 어차피 죽으면 그만인걸......]

주백통이 깜짝 놀라 살펴보니 과연 그 병이 없어졌다. 원래 그는 종 옆에 서 있었고 조지경은 종 밑에 엎드려있었다. 마침 그 조그만 병은 조지경의 앞에 떨어졌던 것이다. 학대통이 주백통에게 밀장을 요구하는 소리를 듣고 조지경이 바로 손을 뻗어 집었던 것이다. 그는 이 조그마한

밀장으로 생명을 보전해 보려는 생각이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절망 속의 오직 한 줄기 희망이라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었다. 주백통은 그가 이처럼 말하지 정말 다급해져 소리쳤다.

[자자, 절대로 밀장을 먹어 버리지는 말아라. 잘 협상해 보자꾸나.]

조지경이 말했다.

[내 목숨을 구해 주겠다고 대답해 주세요.]

전진오자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만약 사숙이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나면 조지경을 처치할 수가 없게 된다. 구처기가 급히 말했다.

[사숙, 이놈은 대역죄를 범한 못된 녀석입니다.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주백통은 머리를 바닥에 대고 종 안에도 소리쳤다.

[자, 자, 절대로 밀장을 먹어 버리지는 말아라!]

유처현이 말했다.

[사숙, 그를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밀장을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오늘 소용녀와 모든 감정을 다 풀어 버렸으니 고묘에 가서 몇병 더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소용녀가 당신께 한 병을 준 이상, 다시 열 병을 준다 한들 그게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주백통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냐! 아냐!]

(넌 이 병이 그녀가 내게 준 것인 줄 아느냐? 내가 훔친 것이야. 그녀가 장경각을 떠날 때 하도 급해 잊어버리고 그냥 간 것이야. 만약 그녀에게 요구한다면 그녀는 분명 안 줄 거야. 설령 준다 해도 이는 약으로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지 어디 내 몫이 있겠느냐?)

이때 5,6마리의 옥봉이 마당에서 후전으로 웅웅거리며 들어왔다. 후전문이 닫혀 있어 계속 창에 부딪칠 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주백통이 얼른 생각을 굴리며 말했다.

[조지경, 네가 지닌 것은 아마도 옥봉밀장이 아닐 것이다.]

조지경이 급히 말했다.

[진짭니다. 어째서 아니라 합니까?]

[좋다. 그럼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 봐라. 만약 아니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지.]

조지경이 얼른 뚜껑을 열고 말했다.

[맡아 보세요, 맞지요?]

주백통이 코를 벌름거리며 맡아 보더니 말했다.

[흠, 흠, 이상한데! 다신 한번 맡아 봐야겠다.]

조지경은 그가 종을 제치고 빼앗을까 두려워 두 손에 옥병을 꽉움켜 쥐고 말했다.

[이 달콤한 향기를 맡아 보세요!]

옥봉밀장의 향내는 뚜껑을 열자 이내 전각 내에 그득하게 배었다. 주백통이 재채기를 하며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감기가 들어 잘 맡지 못하겠는데!]

한편으로 고개를 구처기 등에게 돌려 눈짓을 했다. 조지경도 그가 완병지계(緩兵之計)를 사용하려는 것을 눈치채고 말했다.

[만약 당신께서 동종에 손만 대면 난 즉시 이것을 깨끗이 마셔 버릴 테에요.]

이때 몇 마리의 옥봉이 향내를 맡고 종 주위로 몰려들었다. 주백통은 도포자락을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다.

[들어가 쏘아라!]

옥봉은 그의 호령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종 밑에서 퍼져 나오는 향내를 맡고 과연 윙윙거리며 종 밑의 틈 사이로 들어갔다.

조지경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쨍, 하는 소리가 났다. 옥봉이 그에게 일침을 가하자 그는 그만 실수로 병을 깨뜨렸던 것이다. 주백통은 대로하여 고함을 질렀다.

[말코장이야. 어째 병을 꽉 잡지 못했느냐?]

종을 들어올리려고 앞으로 나가 서려는데 후원에 있던 옥봉들이 향내를 맡고 분분히 날아 들어 종 밑으로 들어갔다. 주백통은 이미 옥봉의

따끔한 맛을 경험한 터라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종 밑으로 들어가는 옥봉들은 갈수록 많아졌다. 조지경의 온몸은 밀장이 묻어 이미 몸에 수백개의 침이 적중되었다. 조지경의 광분하는 처참한 비명소리는 잠시 후 들리지 않았다. 벌에 너무 많이 쏘여 결국 죽은 것이었다.

주백통이 유처현의 소매를 부여잡고 말했다.

[자, 처현. 어서 소용녀에게 가서 밀장을 구해 와라.]

유처현이 이맛살을 찌푸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방금 주백통이 조지경을 살려 줄까 봐 그 말을 하기 했지만 사실 전진오자가 칠성취회(七星聚會)일초로 소용녀를 상하게 해 놓고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어찌 밀장을 얻으러 간단 말인가? 이때 주백통이 자신의 멱살을 움켜쥐자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사숙, 손을 놓으세요. 이 처현이가 가서 구해 오면 될 것 아니겠소!]

몸을 돌려 뒷산 고묘 쪽으로 걸어갔다.

구처기 등은 이 일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소용녀에게 아무 일이 없어 무사하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상처가 심해 죽어 버렸다면 장차 얼마나 많은 전진 제자들이 양과의 손에 죽게 되지 모를 판이었다. 그래서 일제히 말했다.

[모두 함께 갑시다.]

고묘 밖의 숲은 선사에 의해 전진 제자들은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모두들 선사의 유훈을 준수하여 숲 밖에 이르러 멈춰섰다. 구처기가 단전에 힘을 주어 낭랑하게 외쳤다.

[양소협, 용아가씨의 성세가 나아졌는지요? 여기 구전영보환(九轉靈寶丸) 몇 알을 갖고 왔는데 어서 가져가십시오.]

주백통이 나직이 말했다.

[그래, 그래! 밀장을 얻으려면 무엇하고든 바꾸어야지!]

얼마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구처기가 한차례 더 말해보았지만 숲속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가 숲속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땅에는 가시덩굴 등이 무성했으며 머리끝까지 덩굴들이 서로 얽혀 있어

매우 음산했다.

유처현과 학대통이 숲을 따라 한바퀴 둘러 보았지만 사람이 들어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보아하니 양과와 소용녀는 고묘로 돌아가지 않고 종남산을 내려간 것 같았다. 모두들 걱정과 기쁨이 교차되었다. 그들이 멀리 가 버렸으니 안도의 기쁨을 느꼈으나, 소용녀가 치유됐는지 알 수 없어 걱정이 되었다. 노완동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밀장을 구하지 못해 걱정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소용녀를 만나지 않게 되어 그가 옥봉밀장을 훔친 것이 탄로나지 않은 게 기뻤다. 모두들 중양궁으로 되돌아왔다.

전진오자들은 수십 년간을 종남산에서 살았지만 양과와 소용녀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

양과와 소용녀 두 사람은 옥봉의 엄호 아래 후원을 빠져나와 중양궁의 요지인 장경각 안으로 들어간 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잠시 후 사람들의 고함소리가 들리며 수십 명의 도사들이 쫓아왔으나 옥봉이 두려워 감히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었다.

양과는 소용녀를 의자에 앉히고 주위 정세를 살펴보니 장경각 뒤는 수십 장 깊이의 계곡이었다. 계곡은 비록 깊긴 하지만 그다지 넓지는 않았다. 그는 나무 사이에 묶어 잠을 자던 긴 끈을 이용해 장경각의 한 기둥에 밧줄을 묶고 경공을 펼쳐 한쪽 끝을 건너편 나무에다 묶었다.

그는 소용녀 곁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요?]

[어디든지 당신 가는 대로 가겠어요.]

양과가 웃으며 잠시 있다가 물었다.

[어디를 제일 가고 싶소?]

소용녀가 가볍게 한숨을 쉬며 향수 어린 표정을 지었다. 양과는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은 고묘인 옛집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고함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었다.

그는 소용녀의 마음을 알았고 그녀도 또한 그의 마음을 알고 부드럽게 말했다.

[난 반드시 고묘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하고 함께라면 어디든지 좋아요.]

양과가 생각했다.

(우리가 결혼한 후 그녀의 첫번째 소원이 그녀의 일생 중 마지막 소원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허나 내가 그녀를 위해 이 정도 일도 못한다면 어찌 그녀의 남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주위를 살펴보니 서편 서가 위에 나무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거다 싶어 얼른 꺼내 보니 안에는 책으로 가득차 있었다. 상자를 엎어 책들을 바닥에다 쏟아 버렸다. 나무상자는 녹나무로 만든 것으로 꽤 두껍고 탄탄했다. 서가 위를 만져 보니 역시 기름포가 깔려 있었다. 이는 비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었다. 그는 2개의 기름포를 꺼내 상자 안에 넣고는 밧줄을 타고 건너편에다 상자를 옮겨다 놓은 후, 다시 소용녀를 안고 건너갔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고묘로 돌아가요.]

소용녀는 매우 기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 참 잘 생각했어요.]

양과는 그녀가 걱정이 되어 안심시키며 말했다.

[만약 잠수하는 도중 바위가 상자를 막으면 내 이검으로 부셔 버릴 것이오. 또, 당신이 상자 속에서 질식하지 않도록 빨리 달릴 작정이오.]

소용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싫은 점이 있어요.]

[뭐가?]

[내가 잠시나마 당신을 볼 수 없잖아요.]

건너편 계곡에 도착하자 양과는 산 동굴 속에 둔 곽양이 생각나서 말했다.

[곽백부의 딸을 데려와야지. 당신 생각은 어때요?]

소용녀가 멈칫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당신이 곽대협의...., 곽대협의 아가씨를 데려온단 말이지요?]

양과는 그녀의 표정이 이상해지자 순간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 말을 곽부를 데리러 간다는 소리로 오해를 한 것이다. 얼른 고개를 숙여 그녀의 얼굴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나직이 말했다.

[태어난지 한달 남짓하여, 사람의 팔을 벨 수 없는 갓난 애인걸!]

순간 소용녀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져 양과의 품에 얼굴을 묻고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잠시 후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우리는 그녀를 고묘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황량한 산속에 버려 두면 반나절만 지나도 그녀의 생명이 위험해요.]

양과는 중양궁에서 나무 오래 지체했기 때문에 산속 동굴에 있는 곽양의 목숨이 어찌 됐는지 알 수 없어 속으로 매우 걱정이 되었다. 그는 곧 소용녀를 상자 속에 넣어 어깨에 메고서 급히 동굴을 찾아 갔지만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자 더욱 조급해졌다. 얼른 가시나무를 헤쳐 보니 곽양은 단잠에 빠져 빠알간 두 볼은 연지를 찍어 바른 듯했다. 두 사람은 매우 기뻤다. 소용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내가 안을께요.]

양과는 곽양은 그녀의 품안에 건네 주고는 나무상자를 메고 또 갔다.

이 무렵 종남산의 도사들은 모두 중양궁에 모여 있어서 길가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없었다. 호박밭은 지나면서 양과는 도사들이 재배한 호박 예닐곱개를 따서 상자 속에 넣고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칠팔 일 동안은 먹고도 남을 거요.]

오래지 않아 그들은 시냇가에 다다랐다. 그는 소용녀의 뺨에 입을 맞추고 나서 가볍게 상자 뚜껑을 닫았다. 그는 방수포로 나무상자를 두 겹으로 싼 뒤에 상자를 시냇물 속에 던져 놓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상자를 잠수해 들어갔다.

그는 험준한 계곡의 홍수 속에서 기공을 연마했으므로 이처럼 얕은

시냇물 속을 잠수하는 데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 잠수해 들어간 후, 오르락내리락하며 계속 물길을 따라갔다. 진흙이나 바위가 상자를 막아서 지나기가 어려울 때는 칼을 뽑아 쪼갠 후 지나갔다. 소용녀가 상자 속에서 질식할까 염려되어 매우 빨리 나아갔기 때문에 곧 수면을 뚫고 나와 고묘로 통하는 통로에 이를 수가 있었다.

그가 방수포를 걷어 내고 상자 뚜껑을 열어 보니 소용녀는 약간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중상을 당한 후라 상당히 괴로운 모양이었다. 마구 울어 대는 곽양은 정신이 또렷한 모양이었다. 원래 그녀는 한달 가량이나 표범 젖을 먹었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건강했다. 소용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린 끝내 집으로 돌아왔군요!]

하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두 눈을 감아 버렸다. 양과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지 않고 얼른 상자를 들쳐 메고 고묘 안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안은 책상과 의자가 넘어져 있었고, 침상도 비뚤어진 채였다. 그날 두 사람이 이막수와 한바탕 혈전을 벌이고 나서 떠나갈 때와 다른 게 없었다. 양과는 석실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어린 시절 사용한 물건을 보니 갑자기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회가 되살아났다. 그것은 기쁨 같기도 하고 비애 같기도 했다. 그는 한동안 넋을 잃은 채 멍청히 있다가 느닷없이 물 한 방울이 손등에 떨어진 것을 느끼고는 고개를 돌렸다. 소용녀가 의자를 잡고 일어섰다. 그녀의 두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소망을 오늘 이루어 결혼을 했으며, 또한 옛집에도 돌아왔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있었던 원한이나 번뇌, 조바심 따위는 다시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두 근심과 슬픔이 솟아올랐다. 소용녀가 금륜법왕의 금륜에 맞고, 또한 전진오자의 협공을 당했으니 그녀의 연약한 몸이 도저히 견뎌 낼 수 없는 중상을 입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줄곧 외롭게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여태껏 어떤 참된 기쁨도 누려 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을 얻었는데, 그것도 잠시뿐 곧 생이별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새색시의 부상

양과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손노파의 방으로 가서 그녀의 침상을 떼어 내어 한옥상 옆으로 옮겨 놓고는 이불을 깔고 나서 소용녀를 침대 위로 부축해 편히 쉴 수 있게 해 주었다. 고묘 속에 쌓아 두었던 음식물 등은 모두 부패해 있었지만 항아리에 담아 둔 옥봉꿀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찻종지로 꿀을 반쯤 떠서 맑은 물을 섞어 소용녀에게 먹이고, 곽양에게도 배불리 먹였다. 그리고 자신도 한 그릇을 마셨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정신을 차려 그녀를 기쁘게 해야 돼. 내 마음속은 괴롭더라도 그걸 얼굴에 나타내면 결코 안 돼.)

하여 그는 가장 굵은 촛대 2 개를 찾아 붉은 비단을 두르고 나서 책상 위에 놓고 불을 켜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건 우리 둘의 화촉을 밝히는 촛불이오.]

두 자루의 홍촉이 밝혀지자 석실 안은 이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소용녀는 침대에 걸터앉아 자기 몸에 묻은 핏자국과 흙탕물 자국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다.

[내 이 꼴사나운 모습이 어디 새색시 같아요?]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났다는 듯이 말했다.

[조사할머니 방에 가서 금박을 입힌 상자를 갖다 주시겠어요?]

양과는 고묘 안에서 여러 해를 살았지만 평상시에 임조영의 거처에 함부로 출입을 할 수 없어 그녀의 유물을 감히 만져 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소용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남편에게 너무 겸손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양과는 조사 임조영의 방으로 가서 몇개의 상자 중 가장 밑에 있는

상자를 꺼냈다. 그 상자는 그리 무겁지도 않았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도 않았다. 상자의 겉면에는 붉은 칠에 금박이 입혀져 있었으며, 꽃무늬가 우아하게 보였다. 소용녀가 말했다.

[손할머니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상자는 조사할머니의 화장갑이래요. 나중에 그녀가 결혼을 못 하게 되어 결국 이 물건들은 소용이 없게 되었지요.]

양과는 <으음!> 하더니 꽃무늬로 아름답게 장식이 된 그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기쁨 속에서도 무한히 처량함을 느꼈다. 상자를 한옥상위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어 보니 과연 그 안에는 구슬 테를 두른 족두리, 금빛 수를 놓은 배자(褙子), 붉은 공단 치마가 들어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다 최상품의 재료로 만든 것이었다. 수십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새것처럼 화려했다. 소용녀가 말했다.

[이리 갖고 와서 제게 좀 보여 주세요.]

양과가 상자에서 옷을 하나하나 꺼냈다. 의복 밑에서는 상감 화장갑과 비취를 박은 비녀 상자가 나왔다. 화장갑 속의 분들은 이미 수분이 말라 버렸으며 향유는 반 병 가량 남아 있었다. 비녀 상자를 열자 두 사람의 눈앞이 환해졌다. 옥비녀, 보석팔찌, 귀걸이 따위가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했다. 양과와 소용녀는 보석을 별로 본 적이 없었으므로 이 장식품들이 도대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매우 정교하게 테를 두른 것과 훌륭한 문양을 볼때, 물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쏟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소용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 새색시처럼 화장을 해도 되죠?]

[오늘은 너무 피곤할 텐데 우선 하룻밤 푹 쉬고 내일 화장을 하지요.]

소용녀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한 날이에요. 나는 새색시가 되고 싶어요. 그때 절정곡에서 공손지가 나와 결혼하려 할때 나는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양과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무슨 결혼이야? 공손 늙은이의 망상일 뿐이지!]

소용녀는 연지에다 꿀을 섞어 거울 앞에 앉아서 화장을 시작했다. 그녀 평생에 처음으로 하는 화장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원래 뽀얗기 때문에 사실 화장할 필요도 없었지만 중상을 입은 직후인지라 혈색이 매우 안 좋아 양볼에 엷게 연지를 바르자, 한결 아리땁게 보였다. 그녀는 잠시 후에 빗으로 머리를 빗으며 탄식하듯 말했다.

[머리를 틀고 싶은데 내가 할 줄 모르니 당신이 해 줄래요?]

[나도 할 줄 몰라요! 당신은 이대로가 훨씬 아름다운걸.]

소용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그녀는 곧 빗을 내려놓고 귀걸이를 달고 구슬비녀를 꽂고 팔에다 옥팔찌 한쌍을 끼었다. 붉은 촛불 아래 비치는 그녀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왔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이 고개를 돌리면서 양과가 칭찬해 주길 바랐다. 고개를 돌려 보니 양과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얼굴이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소용녀는 이를 지그시 물고는 그를 못 본 체하며 웃으면서 말했다.

[예쁘지 않아요?]

양과는 오열을 삼키며 말했다.

[정말 예쁘오! 내가 족두리를 씌워 줄께요!]

양과는 족두리를 들고 그녀 뒤로 다가가서 머리에다 씌워 주었다. 소용녀는 거울을 통해서 그가 소매를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몸을 돌려 다가왔을 때는 이미 얼굴빛이 환해졌다.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이후로 당신을 색시라 부를까, 아님 여전히 아가씨라 부를까요?]

소용녀는 생각했다.

(무슨 <이후>가 있다고?설마하니 우리 두 사람에게 정말 <이후>가 있을까?)

그러나 얼굴은 여전히 기쁜 표정을 지으며 웃어 보였다.

[물론 아가씨라 부르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색시니 부인이니 하는 것도 또 너무 예스러워요!]

[당신 어렸을 적 이름이 대체 무엇이었지요?]

[나는 아명이 없어요. 단지 사부님이 나를 용아라고 불렀어요.]

[그래. 이후로 당신은 나를 여전히 과아(過兒)라고 불러요. 난 당신을 용아(龍兒)라고 부를 데니. 그렇게 하면 누가 들어도 어색하지 않지.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뭐라고 부르지?......으음, 아기 아빠? 아기 엄마? 또 애가 장성해서 며느리를 얻으면......?]

소용녀는 그가 이처럼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도 이를 악물며 미소를 짓고 있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상자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양과가 그녀에게 다가와 가볍게 끌어안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용아, 당신이 그러면 내 맘도 안 좋아요. 우린 내일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당신이 죽지 않으면 나도 안 죽어요. 우리 둘에게는 오늘 이렇게 기쁘면 되는 것이야. 누구든 내일 일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소용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을 머금은 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양과가 말했다.

[이 치마에 봉황을 예쁘게 수놓은 것을 좀 봐요. 내가 입혀 줄께!]

양과는 소용녀를 부축해 금색 실로수를 놓은 부은 치마저고리를 그녀에게 입혀 주었다. 소용녀는 눈물을 훔치고 나서 연지를 찍어 바르고 함박웃음을 머금은 채 홍촉 곁에 앉았다.

이럴 무렵 곽양은 침상머리에서 깨어나 호기심이 가득 어린 검은 두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바라보았다. 곽양의 어린 마음에도 마치 소용녀가 정말 예쁘다고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소용녀가 말했다.

[난 화장을 다 했는데 애석하게도 상자 안에는 신랑 의관이 없어요.

당신은 할 수 없죠, 뭘.]

[무슨 괜찮은 물건이 있나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볼께요.]

양과는 상자 속에 있던 자질구레한 물건 듯을 침상 위로 갖다 놓았다. 소용녀는 양과가 금화 한 송이를 갖고 오자 곧 그의 머리에 꽂아 주었다. 양과가 웃으면서 말했다.

[됐어. 이제야 모양이 좀 갖춰지는데......]

상자를 뒤엎자 서찰 한 통이 나왔다. 서찰은 비단 끈으로 매어져 있었는데 비단은 이미 퇴색해 있었고, 편지 겉봉도 이미 누렇게 바래 있었다. 양과가 집어들며 말했다.

[여기 서찰이 있어요.]

[무슨 서찰인지 봐요.]

양과가 끈을 풀어 보니 겉봉에 <임조영 여사 앞으로>라고 씌어 있었고, 왼쪽 귀퉁이에 <철(喆)>자가 씌어 있었다. 밑에 있는 스무통 가량의 봉투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양과는 왕중양이 출가하기 전의 이름이 <왕철(王喆)>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왕중양 조사가 임조영 조사할머니에게 보낸 연서(戀書)인데 우리가 봐도 될까요?]

소용녀는 어려서부터 조사할머니를 하늘처럼 존경해 왔기에 급히 말했다.

[안 돼요. 볼 수 없어요!]

양과가 웃으면서 비단 끈으로 서찰을 다시 묶고는 말했다.

[손할머니는 너무나 고지식해 우리 두 사람이 중양조사의 초상화 앞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을 알면 기절초풍을 할 것이오. 난 이제 중양조사가 당시 조사할머니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믿어요. 만약 이 서찰을 그들에게 보게 하면 그 말코장이 도사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재미있겠는걸......]

그는 말하면서 소용녀를 바라보았다.

(조사할머니는 고묘 안에서 쓸쓸히 지내 한번도 이 옷들을 입지 못했

으니 우리들은 그녀에 비해 얼마나 행복한가.)

소용녀가 말했다.

[그래요. 우리 두 사람은 조사할머니에 비해서 훨씬 행복한데 당신은 어째서 기쁘지 않지요?]

양과는 순간 흠칫하고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당신 내 마음을 꿰뚫어 보았군요.]

소용녀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만약 당신의 심중을 모른다면 어떻게 당신 아내 노릇을 하겠어요?]

양과는 침상 곁에 앉아 왼팔로 그녀를 가볍게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마음은 한없이 기뻤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다. 그들은 기대어 앉아 한참 동안 서로 말이 없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그 서찰을 바라보고는 서로 웃었다. 장난기 어린 표정이 얼굴에 나타났다. 선사의 서찰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인줄 알면서도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었다. 양과가 말했다.

[우리 딱 한 통만 봐요. 여러 통 보지 말고.]

소용녀가 웃으며 말했다.

[사실 나도 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딱 한 통만 보는 거예요!]

양과는 얼른 서찰을 묶은 끈을 풀었다. 소용녀가 말했다.

[만약 내용 중에 마음 아픈 대목이 나오면 읽지 마세요.]

양과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보면 왕.임 두 사람의 애정은 끝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으니 편지 속에 정말 가슴 아픈 내용이 많고 기쁜 소식은 적을지도 몰랐다. 소용녀가 말했다.

[먼저 걱정할 것 없어요. 반드시 그런 대목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양과가 첫번째 봉투에서 서찰을 꺼내 읽었다.

[<영매(英妹)보시오. 일전에 나의 사부는 달자(달子)와 악파강(惡波岡)에서 싸우다가 복병을 만나 병사 4백 여 명을 잃고......>]

계속 읽어 내려갔지만 모두 의병과 금나라와의 교전 내용이었다. 몇 통 더 읽었지만 모두 다 금나라에 대항하는 의병들의 이야기로, 애정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양과가 탄식을 했다.

[이 중양조사님은 과연 남아대장부군. 일편단심 나라 걱정만 하셨어요. 그러나 이처럼 정이 없으니 조사할머니의 마음이 차갑게 될수밖에......]

[아니에요! 조사할머니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매우 기뻤을 거예요.]

양과가 이상하게 생각되어 물었다.

[용아가 어떻게 알지요?]

[나도 몰라요. 그러나 마음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잘 보세요. 매 편지마다 군사 정세가 상당히 어렵다고 씌어 있어요. 그러나 중양조사는 이처럼 곤경에 처해서도 여전히 조사할머니에게 편지 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이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양과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런데......]

하며 또 편지한 통을 꺼냈다.

그 편지에 씌어진 내용은 더욱 위급한 상황이었다. 왕중양이 인솔한 병력은 중과부적으로 연전연패하여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워 보였다. 편지 끝에 임조영의 상세에 대해서 물었는데 비록 몇 마디 안 되었지만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양과가 말했다.

[으음, 당시 조사할머니도 상처를 입었다가 나중에 자연 나았군. 당신의 상세도 잘 요양하면 반 년도 못 돼 회복이 될 것이요.]

소용녀는 담담히 웃었다. 그녀는 이번 부상이 보통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이러한 중상도모두 치유될 수 있다면 세상에는 죽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밤은 흥을 깨고 싶지가 않았다. 설사 양과가 위로해 주려고 빈말로 했다 해도 진실로 받아들여야 했다.

[천천히 요양을 하면 될 텐데 뭐 그리 급해요?이 편지는 사사로운 비밀이 없는 듯하니 어서 다 읽어 줘요!]

양과가 또 한 통을 읽었다. 이번 편지에는 온통 비분감에 젖은 내용들이었다. 의병들을 일으켰으나 계속 패하였고 왕중양 자신도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나와 보니 부하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했다. 말미에 말하기, 또 의병들을 끌어모아 권토중래 하겠다고 했다. 나머지 편지들도 모두 다 어떻게 해했으며, 금나라가 하북에서 어떻게 세력을 장악했는지를 말하고 있었다. 왕중양도 사태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편지 속에는 온통 낙담하는 말들로 가득 찼다. 양과가 말했다.

[이 편지들은 사람을 침통하게 만드는군. 우리 다른 얘기 해요! 음, 이게 뭐지?]

그의 목소리가 돌연 흥분에 떨렸고, 편지를 잡은 손이 가볍게 떨렸다.

[<북쪽 극한 지방에 한옥(寒玉)이라 불리는 돌이 있는데 중병을 치료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어서 영매를 위해 그것을 구하였소>......용아, 이......, 이것이 한옥상이 아닐까?]

소용녀는 그의 얼굴에 돌연 희색이 감도는 것을 보자 떨리는 목소리를 말했다.

[당신......, 당신 지금 한옥상이 내 부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중양조사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필히 이유가 있을 거요. 자, 봐요. 한옥은 그가 구해 온 게 틀림없지? 조사할머니가 침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녀의 중상이 결국 치료되었을까?]

그는 황급히 편지들을 끄집어냈다. 한옥으로 치료하는 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 편지를 제외하고는 <한옥(寒玉)>이란 두 글자를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양과는 비단 끈으로 편지를 다시 잘 묶은 후 상자 속에다 넣었다. 그는 멍하니 정신나간 듯 생각에 잠겼다.

(이 한옥상은 특이하여 분명 어떤 효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

게 용아의 병세를 치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 내가 그 방법을 알 수만 있다면......)

[당신, 멍청하니 무얼 생각하세요?]

[한옥상으로 어떻게 당신을 치유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오. 한옥을 빻아 가루를 복용하는 게 아닐까? 아님 다른 약을 섞어야 할까?]

양과는 한옥으로 치유하는 방도를 몰라 노심초사, 이리저리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은 불같이 급해졌다. 소용녀가 담담히 말했다.

[당신, 손할머니를 기억하지요? 그녀는 조사할머니를 모시고, 또 내 사부와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녀가 그 학가놈의 도인에게 부상을 입고 한옥으로 치유할 수 있었다면 왜 죽을 때까지 사용하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내 사부도 부상을 입고 그냥 죽었어요.]

양과는 본래 가슴 가득히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만 찬물이 머리끝에 끼얹어진 듯했다. 소용녀는 가볍게 그의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부드럽게 말했다.

[과아, 너무 내 병에 신경쓰지 말아요. 왜 사서 번민을 하려고해요?]

양과는 순간적으로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다. 잠시 후 물었다.

[사조님이 어째서 부상을 당했지?]

그는 비록 고묘 안에서 여러 해 살았지만 소용녀가 사부의 사인(死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던 것이다. 소용녀가 말했다.

[사부는 고묘 안에서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았지요. 어느 해인가 사자가 밖에서 화를 당하여 종남산으로 도망쳐 돌아왔어요. 사부가 밖으로 나가 응전하다가 그만 적들의 암습을 당했어요. 사부는 비록 당하긴 했어도 사자를 데리고 돌아와 그놈들과 더 이상 겨루려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놈이 말 타면 경마잡히고 싶다는 식으로 욕심을 부려 고묘 밖에서 계속 도전해 오다가 끝내는 안으로 쳐들어와 맹공을 가했어요. 사부는 견뎌 내지 못하여 하마터면 단용석을 내려 그와 동귀어진할 뻔했어요. 다행히 그런 경황 중에서도 기관(機關)을 움직여 갑자기 금침을 발사했지요. 그 녀석이 금침에 맞아 괴로와하는 틈을 타 사부는 그놈의

혈도를 찍어 버려 꼼짝달싹 못 하게 했어요. 근데 사자가 몰래 그의 혈도를 풀어 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그놈이 갑자기 사부에게 독수를 격출시켰어요.]

[그놈이 누구지? 그의 무공이 사조보다 위라면 분명 당세의 고수였음이 틀림없을 텐데......]

[사부는 내게 말해 주지 않았어요. 그분은 내가 마음속에 애증이나 희로애락의 감정을 갖지 않기를 바랐어요. 만약 내가 그놈의 이름을 알게 되면 끝내 마음속에 두었다가 언젠가는 그를 찾아 복수하려 들까 봐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 사조는 정말 호인이시다!]

소용녀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사부가 오늘 만약 내가 시집을 가, 이렇게 그분의 사위가 생긴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반드시 그렇지도 않을걸! 그녀는 당신이 시집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을 거예요.]

소용녀가 탄식하듯 말했다.

[사부는 상당히 자상했어요. 설령 처음엔 허락지 않아도 결국 내가 이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 필히 내 뜻을 허락했을 거예요. 그분......그녀는 반드시 당신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녀는 사부를 생각하며 정신 나간 듯이 한참을 있다가 말했다.

[사부는 부상을 당한 후 거실을 옮겼지요. 오히려 이한옥상을 멀리 했어요. 말씀하시길, 고묘파의 내공의 운공과 한기는 서로 상극이래요. 때문에 한옥상으로 연공을 하는데 도와 줄 수는 있어도 부상을 당하게 되면 한기를 견딜 수가 없대요.]

양과가 <음>하는 소리를 냈다. 마음속으로 본문의 내공경맥의 운행을 생각해 보았다. 옥녀심경 중에 수록된 내공은 전부 순음지기로 경맥을 통하게 되어 있어 체내는 극히 차갑게, 체외 표면은 열기를 발하게 된다. 하여 수련할 때는 옷을 벗어 열기를 발산하여 조금도 막히게 해서

는 안 된다. 만약 한옥상 같은 한기에 한번 닿기라도 하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깊이 생각해 보았다.

(어째서 중양조사는 한옥이 능히 중상을 치유한다고 말했을까? 이 중간에는 상생상극의 묘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 틀림없다.)

보아하니 소용녀는 눈꺼풀을 늘어뜨리고 피곤해 보였다.

[그만 자요!내가 곁에 앉아 있을 테니.]

소용녀가 얼른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아냐, 피곤하지 않아요. 오늘밤 우리 자지 말아요.]

그녀는 자신의 상세가 깊어 한번 잠들어버리면 영원히 양과를 못보게 될까 두려웠던 것이다.

[내게 얘기나 좀 해 주세요. 음, 당신 피곤하세요?]

양과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자기 싫으면 자지 말아요. 그냥 눈을 감고 좀 쉬어요!]

소용녀가 <응!> 하고 천천히 눈을 감으며 나직이 말했다.

[사부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까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당신은 총명하시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인데?]

[사부가 그놈의 혈도를 찍어 놓았는데 사자가 어째서 그놈의 혈도를 풀어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양과가 한참 생각해 보았다. 소용녀는 그의 몸에 기대어 어느새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양과는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다보며 감회에 젖었다. 얼마후, 한 자루의 촛불이 반짝이며 끝까지 다 타 꺼져 버렸다. 그는 갑자기 도화도의 서재에서 보았던 한 대련(對聯)이 생각났다.

<봄 누에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실이 다하고, 촛불은 제 몸을 다살라서야 눈물을 그치네.>

이 시는 당시 황약사가 망처를 생각하면서 써서 그가 평소에 거처하던 곳에 걸어 놓았던 것이었다. 양과는 그 무렵에는 그것을 보고도 그

다지 괘념하지 않았었다. 지금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되어 그속에 담긴 정리(情理)를 되새겨 보니 정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돌연 눈앞이 깜깜해지며 다른 한 개의 촛불도 꺼졌다.

(이 두 자루의 촛불은 마치 용아와 나 같구나. 한 자루가 다 타버리자 다른 한 자루도 따라서 꺼지는구나.)

그가 정신없이 멍하니 앉아 있는데 소용녀가 길게 탄식하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죽지 않을래요. 과아......, 죽기 싫어요. 우리 두 사람은 천 년 만 년 살아야 돼요.]

[그래, 죽지 않을 거요. 잠시 요양하고 나면 나아질 거야. 지금 가슴이 좀 어때요?]

소용녀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녀가 방금 한 말은 단지 잠꼬대였을 뿐이었다. 양과는 왼손을 뻗어 그녀의 이마를 짚어 보았다. 열이 펄펄 끓었다. 그는 걱정이 되고 초조해졌다.

(이막수처럼 악한 자는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용아는 일생 동안 남을 해치지 않았는데 어째서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일까?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당신에겐 정말 눈이 없단 말입니까?)

그는 일생 동안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홀로 자시 뜻대로 살아왔었다. 그러나 지금 절망 속에 갇혀 있고 보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천천히 소용녀를 옆으로 눕히고 바닥에 꿇어앉아 속으로 기도를 올렸다.

[천지신명이시여, 자비를 베푸시어 용아의 중병을 낫게만 해 주신다면......, 이 몸......, 이 몸......,]

소용녀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그가 무슨 일인들 못 하겠는가?

그가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는데 갑자기 소용녀가 말했다.

[구양봉이다. 손할머니가 말한 것은 바로 구양봉이다! ......과아, 과아, 당신 어딜 가요?]

소용녀가 돌연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양과가 급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아 쥐며 말했다.

[나 여기 있어요]

소용녀는 꿈결에 갑자기 자신이 그에게 기대어 있지 않자 놀라 깨었던 것인데, 양과가 곁에 있는 것을 보고는 비로소 안심을 하고 기뻐했다. 양과가 말했다.

[안심해요. 난 평생토록 영원히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오. 후에 고묘를 나가게 된다 해도 촌보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줄 것이니......]

[바깥 세계는 정말 이 음침한 곳보다 좋은 곳이 많아요. 하지만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져요.]

[지금 우린 무엇이든 두려워할 것이 없다오. 몇 달이 지나 당신 몸이 좋아지면 우린 함께 남쪽으로 가는 거요. 듣기로는 남쪽 영남 지방은 일년 내내 날씨가 온화하고 꽃이 만발해 항상 봄이라더군요. 우린 더 이상 검이나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밭은 일구고 닭과 오리를 기르며 남방의 태양을 한껏 쬐며 애들을 낳아 기르면서 사는 거요. 어때요?]

소용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살며시 말했다.

[영원히 검과 주먹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두 사람을 치러 오는 사람도 없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치러 갈 필요가 없고 말이에요. 밭이나 갈며 닭이나 오리를 기르며......, 아, 내가 더 살 수만 있다면......]

어느 새 두 사람의 마음은 멀리 멀리 남쪽의 따뜻한 봄으로 날아가, 마치 진한 꽃향기를 맡으며 가축들이나지막이 우는 소리를 듣는 것만 같았다.......

소용녀는 정말 몸을 가눌 수가 없어 다시 몽롱하게 잠 속으로 빠져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잠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았다.

[난 자고 싶지 않아요. 내게 계속 얘기를 해 주세요.]

[당신 방금 꿈꾸면서 구양봉이라 말했는데 무슨 뜻이오?]

[내가 구양봉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했는데요?]

[뭐라더라? 손할머니가 틀림없이 그라고 말했다 하던가!]

소용녀는 그가 얘기하는 것을 듣자 번뜩 생각이 나서 말했다.

[아, 나의 사부를 다치게 한 사람은 틀림없이 서독 구양봉일 거라고 손할머니가 말했었어요. 세상에 사부를 해칠 사람은 몇 안 되는데 단지 구양봉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름난 악한이라고 말했어요. 사부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그 악한의 이름을 말하려 들지 않았어요. 손할머니가 물어 보았지요. <구양봉, 구양봉이지요?> 그러나 사부는 끝내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한번 짓더니 숨을 거두었어요. 구양봉은 바로 당신 의부 아네요? 그의 무공은 실로 대단해 사부도 그를 당해 낼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하지요.]

양과가 탄식을 하며 말했다.

[지금 나의 의부는 죽었다오. 또 사조와 손할머니도 죽었고 중양조사와 사조할머니, 모두 죽었소. 무슨 놈의 원수니 무슨 은혜니 하는 것도 일단 죽게 되면 모두 하느님에 의해 깨끗이 지워져 버리게 되지. 사조께서는 이미 다 간파하시고 끝내 내 의부의 이름을 말하려 들지 않으셨구나......]

돌연 큰소리를 질러 댔다.

[아, 그랬었구나!]

소용녀가 물었다.

[당신 무엇인가 생각났나요?]

[의부가 사조에게 혈도를 찍히고 나서 이막수가 풀어 준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때 사조는 혈도를 찌르지 못했을 것이예요.]

[찌르지 못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사부의 점혈수법을 매우 뛰어났어요.]

[나의 의부는 천하에 하나둘밖에 없는 기묘한 무공을 지녔지요. 전신의 경맥을 능히 역행할 수가 있었다오. 경맥이 일단 거꾸로 흐르면 모든 혈도의 위치가 뒤바뀌어 정확히 찌르려 해도 찌를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런 괴이한 일이 있어요?]

[내 당신에게 보여 주지요.]

하고 말하면서 일어서서 손으로 땅을 짚고 물구나무를 서더니 몇 바퀴를 돌았다. 몇 번 숨을 토해 내더니 돌연 뛰어올라 침상 앞에 놓여진 돌로 된 탁자의 모서리에 정수리를 정확히 부딪쳐 갔다. 소용녀가 비명을 질렀다.

[아앗! 조심해요!]

그의 머리 가운데의 백회혈(百會穴)이 이미 돌탁자의 모서리에 둔탁하게 부딪쳤다. 백회혈은 바로 정수리 한가운데 앞 머리카락에서 머리카락 뒤쪽 끝까지 세로로 금을 긋고 양쪽 귀를 잇는 가로금을 그어 서로 만나는 지점에 있는 혈도였다. 이 혈도는 곧 태양혈과 독맥(督脈)이 교차되는 곳으로, 의학에서는 하늘의 북극성과 비유하는 곳이다. 소위 <백회는 하늘이고, 선기(璇璣:명치)는 사람이고, 용천(湧泉:발바닥)은 땅이다>, 하여 <삼재대혈(三才大穴)이라 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다. 양과는 이 대혈을 탁자 모서리에 정확하게 부딪쳤는데도 아무런 이상 없이 몸을 뒤집어 똑바로 서서 웃으며 말했다.

[자, 봐요. 경맥이 역행하니 백혈이 위치를 바꾸었지요!]

소용녀는 그 기이함을 칭찬하며 말했다.

[정말 괴이하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낼 수가 있을까!]

양과는 이렇게 부딪치자 비록 혈도에는 손상을 입지 않았지만 힘을 너무 세게 주어 머릿속이 몽롱해졌다. 흐리멍텅한 가운데 돌연 무슨 중요한 사건이 생각난 듯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 줄 모르겠고, 또 말할 수도 없었다. 소용녀는 그가 바보처럼 멍하니 있자 웃으며 말했다.

[바보, 가볍게 한번 부딪치면 그만인 것을 누가 당신보고 쾅, 하고 큰소리가 울릴 정도로 부딪치라고 했나요! 아프지요?]

양과는 아무 말 없이 손을 흔들어 그녀에게 입을 다물라고 했다. 양과는 온정신을 집중하여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머릿속에 희미한 그림자가 어릿어릿할 뿐 애매하여 끝내 생각의 실마리를 또렷이 잡을 수가 없었다. 마치 지나간 일들이 생각나는 것 같았고, 또 갑자기 무언가 새

로운 것을 발견할 것도 같았다. 머릿속에 손을 집어넣어 그 그림자를 잡아 꺼내 자세히 볼 수 없는 것이 한스러웠다.

그는 그에게 떠오른 생각이 명확히 잡히지 않자 머리를 움켜쥐고 대단히 고통스럽게 말했다.

[용아, 내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해 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뭔지 알겠어요?]

사람의 생각이 엉킨 실처럼 복잡해 자기 자신도 그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데 옆 사람에게 물어 본다는 일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 마음이 서로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평상시에는 십중팔구 추측할 수가 있었다. 소용녀가 말했다.

[그 일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내 부상과 상관 있는 것이에요?]

양과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래, 그래요! 그게 뭐였더라! 내가 뭘 생각했을까?]

소용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 방금, 당신 의부인 구양봉을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경맥을 역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내 상세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하지만 난 그에게 다친 것도 아닌데......]

양과가 돌연 펄쩍 뛰며 고함을 질렀다.

[그렇다!]

이 <그렇다> 하고 외친 소리가 너무나 커, 대개 문이 열려 있는 고묘 안의 석실에 은은하게 <그렇다, ...그렇다아......다아......> 하며 계속 메아리쳐 퍼졌다. 양과는 소용녀의 오른쪽 팔을 움켜쥐고 말했다.

[당신은 살아났어요! 나도 살아났고!]

몇번 소리를 지르더니 너무나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소용녀는 그가 이처럼 흥분하는 것을 보자 자신도 그의 기뻐하는 열정 속으로 빠져들어 일어나 앉았다. 양과가 말했다.

[용아, 내 말을 잘 들어 봐요. 지금 당신은 부상을 당해 본문의 옥녀심공을 운행하여 상처를 치유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경맥을 역행하면 치료할 수가 있지. 한옥상은 바로 절묘한 보조물이지.]

소용녀도 깨달은 것이 있는 것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경맥을 역행시키고......, 한옥상......]

양과가 기뻐하며 말했다.

[이는 하늘의 인연이 아니겠어요?당신은 옥녀심경을 연성하였으니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침 또 한옥상도 있으니......]

소용녀가 어리둥절해 하며 물었다.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옥녀심경은 지음(至陰)으로 순행하는 것이니, 역행하면 바로 순양(純陽)이 되는 것이지요. 의부의 경맥역행의 방법을 얘기하면서 막연하나마 당신의 부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오. 단지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건 조금도 알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중양조사의 편지 속에 언급된 한옥이 생각나자 곧 확연하게 깨닫게 됐다오.]

[설마 조사할머니가 한옥으로 상처를 치료할 때도 경맥을 역행시켰을까요?]

[그건 알 수 없지요. 이 경맥을 역행시키는 방법은 조사할머니도 분명 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틀림없이 음유내력(陰柔內力)에 의해 상처를 입었음을 추측할 수 있어요. 바로 당신이 받은 양강지력(陽剛之力)과는 완전히 정반대이지요.]

소용녀는 웃음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기쁨이 가슴속 가득히 밀려들었다. 양과가 말했다.

[지체할 수 없으니 어서 손을 씁시다.]

그는 얼른 나가 장작 몇 묶음을 들고 들어와 석실 귀퉁이에 놓고 불을 붙였다. 그리고 나서 경맥을 역행시키는 초보적인 방법을 소용녀에게 알려주고는 그녀를 부축해 한옥상에 앉혔다. 그는 불 옆에 앉아 왼손을 뻗어 소용녀의 우장과 마주 대하고 말했다.

[난 이곳의 열기를 인도해 당신 몸 각처의 혈도를 뚫을 작정이오. 당신은 있는 힘을 다해 호흡을 역행시켜 하나하나 혈도를 지나가게 하면 돼요. 열기가 한옥상에 되돌아가게 되면 상세가 한결 나아질거요.]

소용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당신처럼 물구나무를 서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물구나무 서서 경맥을 역행시켜 혈도의 위치를 바꾸어 버리는 것은 적과 대전할때 매우 유용하지요. 우린 서서히 치료하면 되니까 앉아도 좋을 겁니다.]

소용녀는 그의 좌장을 꽉 잡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곽소저는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닌 셈이네요. 당신의 두 팔을 다 잘라 버리지 않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생사가 걸린 위험한 순간을 다 경험한 후라 팔이 잘린 일도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었다. 양과도 웃으며 말했다.

[만약 양팔이 다 잘렸다면 두 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발바닥을 이용해 당신의 행공을 도울 수밖에, 고린내가 나는 것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말예요.]

소용녀가 픽, 웃으며 바로 경맥을 역행하는 법을 묵묵히 암송했다. 잠시 후 말했다.

[됐어요!]

불길이 점점 거세어졌다. 양과는 내식을 끌어들여 막 행공을 시작하려다 갑자기 소리쳤다.

[앗, 하마터면 대사를 그르칠 뻔했구나!]

소용녀가 말했다.

[어째서요?]

양과는 침상 밑에서 자고 있는 곽양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들의 행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 아기가 갑자기 울어 버리면 일을 그르치게 되지요.]

소용녀가 나지막이 <휴우!> 하고 긴 숨을 내쉬었다. 수도하는 사람이

연공을 할 때 가장 금기로 하는 것은 바로 정신이 흐트러지는 것이었다. 전에 양과와 소용녀가 옥녀심경을 연마하던 중 윤지평과 조지경에게 들켜 소용녀는 피를 토해 내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었다. 그때에는 그녀의 몸이 건강한 상태였지만 오늘은 중상을 당한 몸이라 조금이라도 놀라게 되면 큰일인 것이었다.

양과는 꿀물을 반 그릇 타서 곽양에게 배불리 먹이고 그녀를 멀찌감치 떨어진 석실에도 놓고 물을 닫아 버렸다. 그녀가 크게 울어도 들리지 않게 해 놓고는 한옥상 곁으로 되돌아와 말했다.

[당신 전신의 삼십육 개의 대혈을 모두 뚫으려면, 내가 보기에 빠르면 십 일, 천천히 하면 보름은 걸릴 것이요. 이토록 오랜 기간 중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을 수 없소. 그러나 이 고묘 안은 속세와 떨어져 있어 정말 천하에서 가장 좋은 곳이지요. 비록 가장 깊숙이 들어가 심산유곡이라 해도 청풍명월이 있겠으며, 새소리.꽃향기가 있어 마음을 흐트려 놓게 되지.]

소용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입은 상처는 전진교 도인들이 입힌 것인데 전진교의 조사는 이렇게 석실을 만들고 한옥상을 준비해 내가 편히 유식할 장소를 제공해 주었으니 그들의 공과 죄는 서로 상쇄되어 버렸군요.]

[그럼 금륜법왕은? 우린 그를 용서할 수 없어요.]

소용녀가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살아나기만 하면 되지. 당신은 또 무슨 불만족한 게 있어요?]

양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번에 당신 상처가 완쾌되면 우린 영원히 남들과 싸우지 맙시다. 하느님께서 우릴 잘 보살펴 주실 거요.]

소용녀가 나직이 말했다.

[우린 남방으로 내려가 밭을 갈며 닭과 오리를......]

그녀는 잠시 정신이 나간 듯했다. 순간 손바닥에 한 줄기 열기가 전해져 왔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즉시 양과가 전해 준 경맥역행지법

대로 운공을 시작했다.

이 경맥역행과 한옥상은 서로 보좌하면서 상처를 치료하는 괴이한 방법으로, 과연 상당한 효력이 있었다. 전에 일등대사가 일양지신공으로 황용의 혈도를 뚫어 줘 중상을 치유한 것도 원리는 마찬가지였다. 단지 일양지를 이용해 치유하는 데는 내공이 상당히 마이 소모되어 매우 빨리 효력을 볼 수 있으나 양과의 이 괴이한 방법은 상당한 시일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조금도 무공을 사용할 줄 모르는 갓난아기가 중상을 입었어도 일양지신공에 정통한 사람이면 자신의 심후한 내공으로 혈관을 뚫게 하여 기사회생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용녀는 대단한 내공의 기본을 갖추지도 못했고, 배운 것도 양과와 다른 일문의 것이었다. 설령 구양봉이 살아나고 황약사가 온다 해도 시술자와 피시술자의 정교한 내식을 일일이 맞출 수는 없으며, 무수한 경맥의 난관을 일일이 역행시켜 뚫을 수는 없는 것이었다.

양과는 하루 세 번, 곽양에게 꿀물을 먹이고 호박을 삶아 식사하는 것외에는 거의 소용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대혈을 뚫을 때면 때로는 10 시간 가량이나 두 사람의 손바닥이 떨어지지 않았다. 전에 곽정이 상처를 입어 황용이 칠 일 낮, 칠 일 밤을 새워 그를 치료해 주었는데, 소용녀의 체질이 곽정만큼 건강하지 못하고 부상도 배나 깊어 소요되는 시일도 자연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다행인 것은, 고묘의 석실이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었다. 곽정이 당년에 우가촌에서 상처를 치료할 때와는 달리 적들이 나타날 염려나 누구에게서 간섭받는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황용은 숲속 밖에서 난화불혈수(蘭花佛穴手)로 이막수를 제압해 놓고 곽양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매우 다급해져 숲을 빠져나와 이막수에게 물었다.

[네가 무슨 간계를 부려 내 딸애를 어디에다 감추어 놓았지?]

이막수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그 어린애는 가시덩굴 안에 잘 있지 않나요?]

황용은 고개를 흔들며 다급해져 거의 울려는 듯했다.

[없어.]

이막수도 곽양을 며칠간 길렀으므로 그 갓난아기에게 정이 깊었는데 돌연 없어졌다는 말을 듣자 깜짝 놀라며 대뜸 말했다.

[양과가 아니면 금륜법왕의 짓이에요.]

[뭣이?]

이막수는 그래서 양양성 밖에서 자기가 어떻게 양과.법왕 두 사람과 아기를 쟁탈하려 했는지 얘기해 주었다. 아슬아슬한 대목에 이르러서 황용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막수의 표정에서 상당히 걱정하는 빛을 보자 그녀가 아기를 어찌하지 않았다고 믿어 그녀의 혈도를 풀어 주었다. 이어서 명치 부근의 선기혈을 찍었다. 이렇게 하면 행동은 평상시와 다름이 없지만 하루 동안에는 남을 해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막수는 어이없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그녀는 불진으로 몸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며 말했다.

[만약아기가 양과의 수중에 있다면 괜찮겠는데 법왕 그 도둑놈이 빼앗아갔을까 걱정돼요.]

[뭐라고요?]

[양과는 갓난아기를 지극히 잘 대해 주었어요. 전혀 해칠 뜻이 없었어요. 이 때문에 난 아기가 그의 딸인 줄로 오해를 하여......]

여기까지 말하고는 급히 입을 다물었다. 황용이 또 화를 낼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황용은 속으로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양과가 어째서 이막수와 금륜법왕과 악전고투를 해 가며 곽양을 보호하려 했는지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와 곽부는 그를 오해하여 곽부가 그의 한쪽 팔을 절단하게 되었지 않은가. 그녀는 속으로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다.

(아, 과아는 곽대협을 구하고, 나를 구하고, 부아를 구하더니 이번에 또 양아를 구했구나. ......근데 난 선입견에 사로잡혀 그의 못된 아버

지를 생각해 부전자전이려니 여겨 여태껏 그를 믿지 않아...... 어쩌다 그를 잘 대해 주다가도 이내 곧 의심을 했었다. 용아, 황용아, 넌 어째서 자신의 총명함만 믿느냐? 성의껏 남을 대하는 것이나 충심으로 남을 대하는 것은 어째서 곽대협의 만분지일도 쫓아가지 못하느냐?]

이막수가 보니 그녀의 눈망울에 눈물이 그득했다. 이막수는 그녀가 딸의 위험을 걱정해 그러는 줄 알고 말했다.

[곽부인, 여식이 태어난 지 한달도 안 돼 위험을 만났으나 다행히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늘이 내린 아이예요. 나처럼 흉악스런 마두도 좋아하게 되었잖아요. 그 애는 복을 받고 태어나 화(禍)를 길(吉)로 만들었어요. 자,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황용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면서 그녀의 말이 맞다고 생각되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다. 이후론 설사 내가 남에게 당한다 해도 절대 남을 속이지 않겠다.)

황용은 손을 뻗어 그녀의 선기혈을 풀어 주며 말했다.

[이도장, 함께 찾아 주신다면 고맙기 그지없지요. 만약 당신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 여기서 헤어져요.]

이막수가 말했다.

[무슨 중요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어서 그 갓난아기를 찾는 일이에요. 잠시만요!]
하고 말하면서 얼른 동굴 속으로 뛰어들어가 표범을 묶었던 밧줄을 풀어 주었다. 가볍게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어서 가거라.]

표범은 나직이 소리를 지르며 잡초 속으로 사라졌다. 황용이 괴이해 물었다.

[저 표범은 도대체?]

이막수가 웃으며 말했다.

[저놈이 바로 유모였어요.]

황용이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이 함께 마을로 돌아왔다. 곽부가 마

을 어귀에 서서 목을 쭉 빼고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다.

곽부는 황용을 보자 기뻐서 뛰어들며 소리쳤다.

[엄마! 동생은......?]

말을 채 다 하지 못했다. 모친의 뒤에 있는 이는 분명 이막수였다. 곽부는 크게 놀랐다. 그녀는 전에 이막수와 대전한 적이 있었다. 평상시에 무씨 형제들이 어머니를 죽인 원수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 마음속에 이미 그녀를 지독히 악독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 황용이 말했다.

[이도장은 우리를 도와 네 동생을 찾으러 함께 간다. 근데 어린 동생이 어쨌다고?]

[동생을 양과가 안고 갔어요. 그는 또 내 홍마를 빼앗아 갔어요. 이 검을 좀 보세요.]

하고 말하면서 수중의 구부러진 검을 보이며 말했다.

[그가 절단된 팔의 소매를 휘둘러 검을 담 구석에 부딪치게 하여 이 꼴을 만들어 놓았어요.]

황용과 이막수가 동시에 소리쳤다.

[소매로?]

[그래요, 정말 사문이에요. 그가 그런 요법(妖法)을 쓸 줄은 몰랐어요.]

황용과 이막수는 서로 쳐다보며 모두 놀라는 눈치였다. 내공이 상당히 심오한 경지에 오르면 주단을 곤봉처럼 사용하며, 부드러운 것으로 강한 것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는 설령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천부적 재질이 있다 해도 최소한 3,40년간의 공력이 필요한 것이다. 양과처럼 어린 나이에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황용은 딸애를 양과가 안고 갔다는 소리를 듣자 다소 안심이 되었다. 이막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 녀석의 무공이 그런 경지에 도달한 것은 필히 옥녀심경에서 힘을 얻은 것이 틀림없다. 지금 곽부인의 도움도 있으니 내가 그녀에게 딸애

를 빼앗도록 도와 주면 그녀는 내가 옥녀심경을 빼앗도록 도와 줄 것이다. 난 본파의 대제자이다. 사매가 비록 사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녀는 본파의 규율을 어겼다. 이 옥녀심경을 어찌 남자의 수중에 빼앗길 수가 있겠는가?)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자 자신이 상당히 당당하게 느껴졌다. 황용은 양과가 간 방향을 캐묻고는 말했다.

[애야, 너도 도화도에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양오빠를 찾으려 가자.]

곽부는 좋아라 하며 연신 <네, 네!> 대답을 했다. 그러나 양과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자 매우 난처해졌다. 황용이 신중하게 말했다.

[네가 그를 다시 만나게 되면 그가 네게 화를 내든 안 내든 상관말고 그에게 성심성의껏 용서를 빌어야만 되느니라.]

곽부는 마음속으로 승복치 못하여 말했다.

[왜요? 그는 내 동생을 빼앗아 가지 않았어요?]

황용은 간략하게 이막수에게 들은 얘기를 전해 주었다.

[만약 그에게 악한 마음이 있었다면 네 동생이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 있었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가 소매를 휘둘렀을 때 만약 검에 다 휘두르지 않고 네 머리에 휘둘렀다면 지금 네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생각해 보아라.]

곽부는 모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쫙 끼쳤다.

(그가 정말 날 봐 주었단 말인가?)

그녀는 어려서부터 모친에게 지나친 사랑을 받고 자라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말했다.

[그는 동생을 안고 북쪽으로 갔어요. 분명 절정곡으로 갔어요!]

황용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야, 그는 분명 종남산으로 갔어.]

곽부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했다.

[엄마는 그를 도와 주고 있어요! 그가 만약 정말로 호의를 지니고 있다면 어째서 동생을 양양성으로 데리고 와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지요? 종남산으로 데리고 가서 또 어쩌려구요?]

황용이 탄식하며 말했다.

[넌 양오빠와 어려서 부터 함께 자랐으면서도 여태 그의 성질을 모른단 말이냐! 그는 자존심이 강해 조금도 굴욕을 견디지 못해. 갑자기 네게 팔을 잘렸으나 참아 내지 못하고 네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처럼 끝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야. 네 동생을 데리고 가 우리에게 걱정을 하게 하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의 화도 풀어져 자연 동생을 데려다 줄 것이야. 이제 좀 알겠느냐? 넌 그가 네 동생을 훔쳤다고 하겠지만, 그는 차라리 너에게 보여 주려 할 거야!]

황용은 방금 식사를 했던 주막으로 돌아가 지필을 빌려 편지를 썼다. 주막의 점원에게 은전 두 냥을 주며 편지를 양양성에 있는 곽정에게 갖다 주도록 했다. 그 점원이 말했다.

[곽대협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보살펴 주신, 우리 모두에게 생불(生佛)이십니다. 소인이 곽대협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일을 할 수 있다면 절을 해서라도 그 일을 맡아야지요.]

그는 한사코 은전을 거절하더니 편지를 갖고 기쁨에 넘쳐 달려갔다. 곽부는 백성들이 부친을 이처럼 존경하는 것을 보자 매우 득의 양양해졌다.

세 사람은 바로 말을 사서 종남산으로 떠났다. 곽부는 이막수를 싫어하여 가는 도중 그녀와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부득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차갑게 말했다.

낮에는 길을 가고 밤에는 쉬고 하면서 계속 아무 일도 없었다. 이날 오후 세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데 돌연 앞쪽에서 누군가 말을 타고 나는 듯이 달려왔다.

* 주(註) : 역사서(歷史書)에 의하면 윤지평이 구처기의 뒤를 이어 전진교 장교가되었다. 그 후에 계속 장교의 지위는 순

서 대로 이지상.장지경.왕지탄.기지성 등으로 이어졌다.

조지경이란 인물은 소설상의 허구적인 인물이다.

영원한 여마두(女魔頭)

[내 소홍마예요, 저건......]

곽부가 외쳤다. 그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홍마는 이미 앞으로 달려왔다. 곽부는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홍마는 주인을 알아 보고 그녀가 손을 뻗어 고삐를 잡기도 전에 이미 우뚝 멈춰 서서 머리를 들고 기쁜 듯 히힝거렸다.

곽부가 말 위에 탄 사람을 보니 검은 옷을 입은 소녀로 언젠가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예전에 그녀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막수와 싸웠던 완안평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다 풀어 헤쳐져 있고 안색은 창백했다. 곽부가 다급하게 물었다.

[완안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안평은 손가락을 펴서 온 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서......, 어서......]

돌연 몸이 흔들리더니 말에서 떨어져 내렸다. 곽부는 놀라 소리치며 손을 뻗어 그녀를 부축하여 일으키고 황용에게 말했다.

[엄마, 바로 그 완안언니예요.]

하고 말한 뒤, 이막수를 향해 눈을 한번 흘겼다. 황용은 생각했다.

(그녀는 한혈보마(汗血寶馬)를 타고 뛰어와서 천하에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런 위험이 있을 턱이 없다. 그러나 그녀는 손가락으로 계속 북쪽을 가리키며 황급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필시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 우리가 어서 가서 구해 주어야겠다.)

황용은 딸에게 완안평을 안고 말에 올라타도록 하고는 말했다.

[이 말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너는 절대로 나를 앞서서는 안된다.]

[왜요?]

[앞에 중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막수를 손짓하여 부른 뒤, 두 사람은 말을 몰아 북쪽으로 향했다.

산길을 10여 리쯤 달리니 과연 고개 너머 저쪽에서부터 은은하게 무기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황용과 이막수가 말을 몰아 고개를 돌아 가니 앞쪽의 공터에서 다섯 사람이 한창 악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중의 두 사람은 무씨 형제고, 또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는 나이가 모두 어려 보이는데 황용은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네 사람이 힘을 합하여 중년의 남자와 맞서고 있었다. 비록 넷이서 하나를 상대하지만 방어를 주로 하고 공격은 적었으며, 무씨 형제는 이미 부상을 당했고 오직 소년만이 종횡으로 장검을 춤추듯 휘두르며그 중년 남자의 대부분의 초수를 막아내고 있었다. 그 옆의 공터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는데 바로 무삼통이었으며, 그는 쉬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황용이 보니, 그 괴한은 왼손에 금광이 번쩍이는 대도(大刀)를 사용하고 오른손으로는 가늘고 긴 흑검을 사용하는데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기묘한 초수를 쓰고 있었다. 황용은 자기가 만약 손을 쓰지 않으면 무씨 형제가 크나큰 위험에 직면할 것 같아 이막수를 향해 말했다.

[저 두 소년은 나의 제자예요.]

이막수는 겸연쩍게 한번 웃고는 생각했다.

(이들의 어머니를 내가 죽였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모르겠는가?)

중년 괴한의 무공은 기묘했다. 강호에서는 아직껏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을 들어 보지 못하였기에 마음속으로 은근히 놀라며 살며시 웃고는 말했다.

[자, 가지요!]

이막수는 불진을 뽑아 휘두르고, 황용도 이미 죽봉을 손에 쥐고 있었다. 두 사람은 좌우에서 나란히, 이막수의 불진은 그자의 흑검을 공격하고, 황용의 죽봉은 그의 금도를 공격했다.

이 중년의 괴한은 바로 절정곡의 곡주 공손지였다. 그는 돌연 중년의

미모의 여자 둘이공격해 오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약간 놀랐다. 이막수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

불진으로 일초를 휘두르더니 이어서 또 외쳤다.

[둘!]

원래 그녀는 황용과 은근히 경력을 비교하여 누가 먼저 이 괴한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는가를 알아보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열>을 외칠 때까지도 공손지는 여전히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며 버텼다. 소년의 장검이 사사삭 소리를 내며 연달아 3검을 공손지의 뒤를 향하여 찔렀다. 이 3검은 기세가 사납고 힘이 대단하여 공손지는 미처 손을 써서 막지 못하고 앞으로 1장 남짓 몸을 솟구쳐 포위망을 벗어났다. 그는 더 이상 싸우면 분명히 쓴 맛을 볼 것 같아서 황용과 이막수를 향하여 눈을 한번 흘기고는 생각했다.

(이 두 무시무시한 여자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가? 얼굴은 도 어쩌면 이토록 아름다울까!)

공손지는 도(刀)와 검을 서로 부딪쳐 윙윙, 소리를 내며 몸을 날려 다시 달려들었다. 황용과 이막수는 감히 적을 가볍게 볼 수가 없어서 무기를 들어 수비를 엄밀하게 했다. 그러나 공손지는 공중에서 몸을 돌려 땅에 떨어지자마자 산등성이로 뛰어 올라갔다. 황용과 이막수는 서로를 한번 쳐다보고 생각했다.

(이자는 무공도 강하고 사람도 교활하니 만약 혼자서 맞섰다면 그의 적수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무씨 형제는 상처를 싸매고 앞으로 나서서 사모에게 머리를 조아린 뒤, 몸을 꼿꼿이 세우고 모두 성난 눈초리로 이막수를 쏘아 보았다. 황용이 말했다.

[지나간 빚은 잠시 계산하지 마라. 아버님의 상처가 마음에 걸리지도 않느냐?이 두 분은 누구지? ......아차, 큰일났다! 이 도장 어서 함께 갑시다!]

황용은 말에 오르지도 않고 몸을 날려 오던 길로 급히 달리기 시작했다. 이막수는 그녀의 의도를 몰랐지만 뒤를 따라가면서 외쳤다.

[어찌 된 일이에요?]

[부아, 부아가 바로 이자와 마주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급히 추격했지만 공손지의 발걸음은 너무나 빨라 잠깐 지체한 사이에 이미 1리 이상 서로 떨어져 있었다.

곽부가 두손으로 완안평을 안고 소홍마를 타고 천천히 막 산등성이를 돌고 있을 때였다. 황용이 멀리서 바라보고 숨을 몰아쉬며 큰소리로 외쳤다.

[부아야! ......조심해라!]

외치는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공손지가 빠른 걸음으로 가까이 가서 몸을 날리며 손을 뻗어 곽부를 제압하여 멈추도록 하고, 이어서 말등에 올라탄 뒤 말머리를 돌리려고 했다. 황용이 입술을 오므려 휘파람을 불었다. 홍마는 주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즉시 뛰어왔다. 공손지는 깜짝 놀라 생각했다.

(오늘은 어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재수가 없담! 축생 하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다니......)

그는 즉시 고삐에 힘을 주어 말을 멈추게 했다. 이 당기는 힘이 결코 작지 않아 홍마는 한번 길게 울부짖더니 멈추어 섰고, 공손지는 억지로 말머리를 돌려 남쪽으로 몰아 달리려고 했지만 홍마는 발굽을 거꾸로 박차며 한 걸음 한걸음 뒤로 갔다. 황용은 크게 기뻐하며 급히 가까이 뛰어갔다. 공손지는 홍마가 억세게 버티고 황용과 이막수가 너무 가까이 추격한 것을 보고는 즉시 무기를 집어넣고 오른손으로는 곽부를, 왼손으로는 완안평을 안고 말에서 내려 달렸다. 황용과 이막수는 모두 일등의 경공을 지니고 있는 터라 얼마 되지 않아 서로의 거리가 불과 수십 보도 채 안 되게 접근했다.

공손지는 몸을 돌려 웃으며 말했다.

[내가 두 팔에 힘을 주면 이 꽃 같은 두 소녀가 어떻게 된다는 것쯤

은 아시겠지?]

[그대는 누구신지요? 나와 당신은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하여 내 딸을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거죠?]

공손지가 웃으며 말했다.

[이 아기가 당신의 딸이라구요? 그러면 당신은 완안부인이었읍니까?]

황용은 곽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이가 바로 내 딸입니다!]

공손지는 곽부를 한번 쳐다보고 히히 웃으며 말했다.

[쯔쯔쯧, 정말로 아름답구나, 모녀 모두가 정말로 아름답구나. 정말로 아름다와!]

황용은 몹시 화가 났다. 그러나 딸이 그에게 잡혀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선 계책을 꾸민 다음에 다시 해 보기로 하고 막 입을 떼려고 하는데, 돌연 뒤에서 쉭쉭, 하는 소리가 일어나더니 2개의 긴 화살이 왼쪽 얼굴 옆을 스치고 지나가 곧장 공손지의 면문을 향하여 발사되었다. 화살의 날아가는 기세가 거세고 급하여 공중을 가르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황용은 화살 소리를 듣고 매우 기뻤다. 남편이 온 줄로만 생각했다. 중원의 일반적인 무림 고수들 중에는 활을 쏠 줄 아는 사람이 극히 적었고, 몽고 무사의 활 쏘는 법이 비록 정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심후한 내력이 없으면 화살은 멀리까지 이르기가 어려웠다. 이 2개의 화살이 공중을 가르는 소리가 이토록 울릴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곽정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평생토록 곽정을 제외하고는 이토록 공력이 있는 화살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결국 곽정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있어서, 화살이 반 정도 날아갔을 때 그녀는 남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공손지는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입을 벌려 첫번째 화살의 끝을 물고는 고개를 옆으로 재빨리 돌리면서 입에 문 화살로 두번째 화살을 튕겨서 땅에 떨어뜨렸다. 황용은 생각했다.

(이 화살을 만약 우리 남편이 쏘았다면 너는 입을 벌려 물려고 해도

이미 목에 구멍이 뚫렸을 것이다.)

막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쉭쉭,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면서 한 꺼번에 9 개의 화살이 연이어서 공손지의 양미간을 향하여 날아갔다. 공손지는 저도 모르게 당황하여 허둥대면서 두 여자를 서둘러 내려놓고 검을 뽑아 화살을 막아냈다.

황용과 이막수가 달려들어 두 여자를 구출하려고 하는데 한 회색 그림자가 땅을 박차고 빙글 돌아 곽부를 안고 길옆으로 뒹굴었다. 그가 막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 공손지는 공장(空掌)으로 그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땅에 가로누운 그가 손바닥을 뒤집자 쌍장이 교차하면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어지러이 먼지 휘날렸다.

[훌륭하군!]

공손지가 외치며 두번째에는 힘을 더하여 내리쳤다. 그자가 막아내기 어려운 것을 보고 황용은 타구봉을 휘둘러 <봉(封)>자 구결을 사용하여 그 장풍을 방해했다. 공손지는 적들이 연합하여 공격하는 것을 보고 잘못 하다가는 오늘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어 하하, 웃으며 세걸음 물러서더니 몸을 돌려 가 버렸다. 그의 신법은 워낙 날래고 자태도 늠름하여 황용 등은 감히 추격하지 못했다.

곽부를 안고 있던 그 사람이 몸을 일으켜 팔을 풀어 놓아 주었다. 황용이 보니 그는 허리에 장궁(長弓)을 차고 있는데,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것이 바로 방금 검을 사용했던 소년이었다. 그 11 개의 연발화살도 당연히 그가 쏜 것이었다. 곽부는 공손지에게 잡혔었지만 상처는 입지 않았다. 곽부가 그에게 말했다.

[야율오빠, 절 구해 주셔서 정말 고마와요.]

말을 마친 곽부는 얼굴이 온통 붉어지며 매우 수줍은 표정을 지었다.

이때 무수문과 다른 한 소녀도 이미 뒤쫓아왔고 무돈유만이 부친의 옆에 남아서 간호하고 있었다. 일어난 일로 보자면 무수문은 마땅히 각각의 사람들에게 인사를 올려야 할 텐데 그는 가슴 가득히 분노의 불길

이 치솟아 눈을 부릅뜬 채 이막수를 노려보며 다른 일은 모두 잊어버려 황용이 계속해서 두 번씩이나 불러도 끝내 듣지를 못했다. 이막수는 일찌감치 먼 곳에 서서 뒷짐을 지고 풍경을 감상하느라 뭇 사람들은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곽부는 방금 그녀를 구해 준 소년을 가리키며 황용에게 말했다.

[엄마, 이 분은 야율제, 야율오빠예요.]

그리고 체구가 큰 소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분은 야율연, 야율언니예요!]

황용이 칭찬했다.

[두 분 무공이 매우 뛰어나더군요!]

야율 오누이가 나란히 말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곽부인!]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나와 인사를 했다. 황용이 말했다.

[두 분의 무공을 보니 전진의 일파 같은데 전진칠자 중 어느 분의 문하이신지요?]

그러나 그녀는 야율제의 무공이 상당한 것을 보고 전진 문하의 4대제자 중에는 양과를 제외하고는 그에 필적할 만한 자가 없으니 어느 문하인지 알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야율연이 말했다.

[저의 무공은 오빠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황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야율제를 쳐다보았다. 야율제는 자못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께서 물으시는데 당연히 사실대로 말씀해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만, 사부님께서 이 후배에게 부탁하시기를, 그분의 성함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으니 곽부인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은 깜짝 놀라며 생각했다.

(전진칠자가 언제 이런 괴이한 규칙을만들었단 말인가? 이 소년은 무공과 재주가 모두 뛰어난데 왜 말할 수 없게 했을까?)

갑자기 황용은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 듯 크게 웃으며 허리를 굽히고

배를 감싸는 것이, 무슨 아주 재미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 같았다. 곽부가 이상히 여겨 물었다.

[엄마, 뭐가 그렇게 우스워요?]

그녀는 어머니가 막 엄숙하게 야율제의 문파를 묻는 것을 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웃음을 터뜨리자 야율제가 화가 날까 봐 은근히 당혹감을 느꼈다.

[엄마, 야율오빠가 말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만이지 뭐가 그렇게 우습나요?]

황용은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야율제도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띄며 말했다.

[곽부인은 벌써 알아차리셨군요.]

곽부는 어리둥절하여 고개를 돌려 야율연을 보니, 그녀는 두 사람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웃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이때 무수문은 왼쪽 무릎을 땅에 꿇고 완안평의 상처를 감싸 주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공손지에게 잡혀 갈 뻔했을 때 오른발의 관절이 탈골되었던 것이다. 황용이 물었다.

[수야, 아버님의 상처는 좀 어떠시냐?]

[아버님께서는 그 공손노인에게 일검을 맞아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읍니다만 다행히도 근골은 다치시지 않았읍니다.]

황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혈보마에게 다가가 긴 갈기를 쓰다듬으며 가볍게 말했다.

[말아, 우리 온 곽씨 가문은 정말 너의 은정에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무수문을 보니, 시종 곽부와 말도 하지 않고 표정이 자못 이상한게 완안평을 보살펴 주는 일에 도리어 극진히 정성을 기울이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일부러 곽부에게 보게 하려는 것임은 알지 못하고 그가 정말로 이 아가씨에게 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자, 우리 너의 아버님께 가 보자.]

무삼통은 앉아 있다가 황용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불렀다.

[곽부인!]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상처를 입어서 몸이 약간 휘청거렸다. 무돈유와 야율연이 동시에 손을 뻗어 부축하는데 두 사람의 손가락이 부딪치자 저도 모르게 서로를 쳐다보고 웃었다. 황용은 마음속으로 웃었다.

(그래, 그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 형제가 부아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듯하며 형제의 정조차도 돌아보지 않더니, 지금 또 다른 미모의 아가씨를 만나자 즉시 눈을 돌려 이전의 일은 깨끗하게 잊어버리는군.)

돌연 곽정을 생각하자 마음속으로 저도 모르게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의 자기에 대한 일편단심은 부귀로도 뺏지 못하고, 아무리 위험에 처해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니 이 소년들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는가? 이어서 다시 양과를 생각하니, 그와 소용녀의 사랑은 신분도 맞지 않고 인륜을 어기는 것이지만 이런 생사를 초월한 굳은 정절 또한 존경과 탄복을 자아낼 일이기는 했다.

무씨 형제는 곽부와 함께 어릴 때부터 도화도에서 자랐었다. 섬에 다른 젊은 여자가 없었고 게다가 오래 지내면서 자연히 정이 들게 마련이었으니, 만약 두 형제가 곽부에게 연정을 느끼지 않았다면 도리어 정리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나중에 갑자기 곽부가 자기들에 대하여 원래 아무런 정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연히 감정이 식고 낙심하여 남은 인생에 이제 털끝만큼의 즐거움도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얼마 후 야율연과 완안평을 만나자 결국 두 형제가 서로 각기 인연을 맺게 된 것이었다. 이 순간 두 형제가 곽부와 다시 만나자 그야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서시(西施)보다도 아름다와 보인다고, 자기의 의중에 있는 사람이 결코 곽부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가 생각했다.

(야율 아가씨는 호방하고 솔직하며 따뜻하고 부드러우니 어찌 이처럼 마음이 요리조리 흔들리며 옹졸한 것과 비교 될 수 있겠냐?)

다른 하나가 생각했다.

(완안 아가씨는 사랑스럽고 단정하며 따뜻하고 부드러우니 어찌 너처럼 화만 내고 톡톡 쏘아붙이는 것과 비교가 되겠냐?)

그들 두 형제는 이미 죽을 때까지 다시는 곽부와 대면하기로 맹세를 했지만 지금은 외딴 길에서 만나 피할 수도 없고 하여 생각했다.

(오늘은 우리가 결코 일부러 너를 찾아온 것이 아니니 맹세를 어겼다고 할 수는 없다.)

곽부는 방금 자기가 공손지에게 사로잡혀 야율제가 나서서 구해준 일만을 생각하며 슬쩍슬쩍 그를 훔쳐보니, 이 사람은 옥처럼 솟은 장신에 그 빼어남이 말할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작년에 그와 처음 만났을 때는 뒤에 곧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의 무공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구나. 엄마가 그와 서로 크게 웃은 것은 왜였을까?)

황용이 무삼통의 다리에 난 상처를 보니 다행히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다. 각자는 서로 헤어진 이후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고 받았다.

그날 무삼통.주자류는 사숙 천축승을 따라서 절정곡에 가 해약을 구하려고 막 양양성을 나서고 있었다. 그때 무삼통은 두 아들을 보았다. 그는 깜짝 놀라 두 사람이 또 결투를 하려는 줄로 알고 서둘러 주자류에게 사숙을 모시고 먼저 가도록 한 뒤, 달려들어 두 형제를 붙잡고 사납게 꾸짖었다. 원래 그들 형제는 일찌기 양과에게 다시는 곽부의 얼굴을 보지 않기로 맹세를 한 터라 양양에서 오래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다. 무삼통은 저으기 마음이 놓여 계속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착하기도 하지. 아암, 지기(志氣)가 있어야지. 암, 그렇고 말고.]

이어서 말했다.

[양형제는 목숨을 내던져 우리 부자를 구했는데 그가 당장 위험에 처해 있으니 어떻게 보답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 부자 세 사람이 함께 절정곡에 가자.]

그러나 절정곡은 세상 밖의 무릉도원이나 마찬가지여서 비록 양과에게 그 소재와 방향을 대략 듣기는 했지만 실로 그 입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세 사람은 이리저리 방황하며 적지않은 갈림길을 지나 마침내 골짜기 입구를 찾았는데, 천축승과 주자류는 이미 함정에 빠져서 구천척이 파견한 제자들의 어망진에 의하여 사로잡힌 뒤였다. 무삼통 부자는 여러 번이나 구하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도리어 골짜기 안에 갇히게 되자, 물러나서 양양으로 돌아와 구원을 요청하려고 했다. 그 도중에 그만 공손지와 마주쳐 그들 세 사람이 금지 구역을 침범했다 하여 다투기 시작한 것이었다. 무삼통은 적수가 되지 못하여 다리에 일검을 맞았다. 공손지는 세 사람의 목숨까지 해치려고는 하지 않았고 다만 그들을 어서 쫓아내어 영원히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었다.

바로 그때 야율 오누이와 완안평, 세 사람이 대로에서 나란히 말을 타고 오고 있었다. 이 세 사람은 일찌기 무씨 형제와 힘을 합하여 적에 대항한 적이 있어서 즉시 말에서 내려 아는 척을 했다. 공손지는 옆에서 냉담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소용녀와의 결혼도 실패로 끝났고, 게다가 아내에게 쫓겨나서 의지할 곳 없던 참에 나이도 젊고 아름다운 완안평을 보자 저도 모르게 다시사심이 일어나 돌연 손을 써서 그녀를 빼앗아 달아났다. 즉시 야율 오누이와 무씨 부자가 함께 공격했다. 무삼통이 만약 먼저 부상을 당하지 않고 여섯 사람이 힘을 합했었다면 공손지와 한번 겨루어 볼만했겠지만, 무공이 정련되고 강한 사람은 오직 야율제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아 당해 내지를 못했던 것이다. 마침 한혈보마가 종남산에서 혼자 양양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수문이 보게 되었다. 그는 완안평으로 하여금 먼저 그 말을 타고 도망치게 하면 표적이 없어졌으니 공손지가 마침내 돌아가리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황용과 이막수가 이 순간에 달려온 것이었다.

황용은 이 말을 듣고 양과가 팔이 잘린 일과 어린 딸을 빼앗아간 사정 등을 간간이 말해 주었다. 무삼통은 크게 놀라 당일의 사정을 자세

히 설명하면서 말했다.

[양형제는 그야말로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저의 저 두 축생을 구하여 형제가 서로 해치는 것을 면하도록 하려다가 돌이키지 못할 비운을 당했군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무삼통은 양과가 불행하게 팔이 잘린 것은 순전히 자기의 두 아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돌연 두 형제를 가리키며 마구 욕을 해 대기 시작했다.

무씨 형제는 한쪽 옆에서 야율 오누이, 완안평 세 사람과 신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곽부도 와서 얘기에 끼어 들었다. 여섯 사람은 나이도 서로 비슷하고 또한 방금 함께 한차례 악전을 겪고, 흉악무도하기 작이 없는 공손지가 마침내 외톨이로 도망친 얘기를 나누자 흥이 나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돌연 무삼통이 쉬지 않고 욕을 해 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돈유.무수문, 이 짐승 같은 놈들아! 양과 형제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대인대의(大仁大義)로 대해 주었는데, 너희들 이 짐승 같은 놈들은 도리어 그의 팔을 잘리게 만들어? 너희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라, 우리 무씨 일가가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는 얼굴과 귀가 시뻘겋게 되어 욕을 하면 할수록 더욱 흉악해져서, 만약 다리에 상처만 없다면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를 것만 같았다. 두 형제는 부친이 무슨 일로 갑자기 저렇게 화를 내는지 영문을 몰라 서로 야율연과 완안평만 흘끔흘끔 쳐다보았다. 아름다운 아가씨들 앞에서 이렇게 짐승이니 뭐니 하는 욕을 부친에게 듣자 실로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만약 부친이 그들 형제 둘이서 곽부를 빼앗으려고 다툰 지난 일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더욱 낭패스러운 일이었다. 두 형제는 서로 바라보기만 할 뿐,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황용은 상황이 난처하게 되어 가는 것을 보고 무삼통을 달랬다.

[무형도 너무 지나치게 화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과가 팔이 잘린 것은 오로지 제가 부덕하여 딸아이를 망쳐 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부아 아버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어린 딸의 팔을 단칼에 자르려고 했읍니다.]

무삼통이 큰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옳은 일입니다. 당연히 잘라야지요!]

곽부는 그에게 눈을 흘기며 속으로 그의 말을 되씹었다.

(아니, 뭐? 당연히 잘라야 한다구요?)

만약 모친이 앞에 있지 않았더라면 즉시 이 말이 튀어나왔을 것이다. 황용이 말했다.

[무형, 이제 모든 것이 명백히 밝혀졌으니 양과만 망치게 하는 셈이 되었군요. 이제 두 가지 해야 할 큰 일이 있읍니다. 첫번째는 저희가 양과를 찾아가서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무삼통은 연신 맞장구쳤다.

[그럼요, 그럼요.]

황용이 다시 말했다.

[두번째 큰 일은 바로 절정곡에 가서 사숙과 주대형을 구하고 동시에 양과를 위하여 해약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대형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요? 생명의 위험은 없는지 모르겠군요.]

무삼통이 말했다.

[우리 사숙과 사제는 어망진에 사로잡혀 석실 안에 갇혀 있는데 그 늙은 거지 노파가 더 이상 해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으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먼저 양과를 찾는게 순서겠군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절정곡에 가서 사람을 구해야겠군요. 일단 해약을 손에 넣으면 그에게 즉시 복용하도록 하여 시간을 끌어서 생길 위험을 면하도록 해야겠읍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황용은 한혈보마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말을 양과가 빌려서 타고 갔었으니 말에게 원래 오던 길을 따라

돌아가도록 하면 그가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무삼통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오늘 만약 지모가 출중한 곽부인이 여기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몸은 이리저리 미친 듯 날뛰기만 할 뿐 아무 일도 못할 뻔했읍니다. 그려.]

곽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걸 말이라고 해요?]

황용은 살며시 웃었다. 그녀는 어린 딸을 찾으러 간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 무삼통이 기꺼이 따라오도록 만들었다. 황용이 다시 생각했다.

(무씨 부자가 가고 저 세 젊은이들도 따라간다면 도움을 줄 사람이 많아지는 셈이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황용이 야율제에게 말했다.

[야율소형도 만약 중요한 일이 없다면 우리와 함께 가서 노는 것이 어떠신지요?]

야율제가 미처 대답도 하지 전에 야율연이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좋아요, 좋아요! 오빠, 우리도 함께 가요!]

야율제가 곽부를 한번 쳐다보니 그녀의 눈빛에 매우 부추기는 뜻이 담겨 있어 몸을 굽히며 말했다.

[무선배와 곽부인의 분부를 따르겠읍니다. 후배들이 두 분께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읍니다.]

완안평도 얼굴에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황용이 말했다.

[음, 우리가 사람은 비록 많지 않지만 역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야겠군요. 무형, 모두들 일제히 당신의 지시를 따라서 어느 누구도 감히 거역하지 않도록 합시다.]

무삼통은 계속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당신께서 이토록 신기묘산(神機妙算)을 지니고 있어 제갈공명에 버금가는 여군사(女軍師)나 다름이 없는데, 누가 감히 명령을 내리겠읍니

까? 당연히 당신이 통솔을 해야지요.]

황용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이십니까?]

[왜 거짓말을 하겠읍니까?]

[어린 사람들은 괜찮습니다만 당신처럼 나이든 사람이 나의 명령을 듣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무삼통은 큰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그대로 따르겠읍니다. 뜨거운 물에 뛰어들고 불 위를 걸어가라고 해도 사양하지 않겠읍니다.]

[이렇게 많은 어린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설마 아무 말이나 마구 하시는 건 아니겠죠?]

무삼통은 얼굴이 온통 붉어지며 말했다.

[옆에 아무도 없다고 해도 내가 어찌 신의 없는 말을 할 수가 있겠읍니까?]

[좋아요, 이번에 우리가 양과를 찾고, 해약을 구하고, 당신의 사숙. 사제를 구출하는 것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날의 은혜나 원한은 잠시 접어 두어야 합니다. 무형, 당신 부자가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막수를 찾아서 원한을 갚지도 못했을테니, 대사가 일단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너 죽고 나 살자 하며 싸워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무삼통은 깜짝 놀랐다. 그는 황용의 말에 이런 의도가 있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막수와 그는 처를 죽인 큰 원한이 있었으니 이 한마디로 어떻게 분함을 삭일 수 있겠는가? 한참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황용이 낮게 말했다.

[무형, 당신은 당장 다리에 부상을 입었잖아요? 군자가 원수를 갚는 일은 십 년이 걸린다 해도 늦지 않은데 어찌 그리 서두르신단 말입니까?]

[좋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그대로 따르겠읍니다.]

황용은 소리 높여 이막수를 불렀다.

[이언니! 자, 어서 갑시다!]

그녀는 한혈보마에게 길을 인도하도록 하고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홍마는 본래 양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지금 주인을 만나서, 황용이 오던 길로 머리를 이끌자 즉시 종남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무삼통과 완안평은 몸에 부상을 당해 빨리 달릴 수가 없어서 일행은 매일 100 여 리를 간 뒤 쉬곤 했다.

이막수는 은근히 경계를 엄하게 하여, 쉴 때에도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대낮에 길을 갈 때에도 멀리서 뒤따라갔다.

줄곧 아침에 출발하고 저녁에 묵으면서 여섯 청춘 남녀들은 한담을 하고 즐거워하며 갈수록 서로 친해졌다. 무씨 형제는 이전까지는 곽부의 면전에서 다투어 환심을 얻느라고 형제의 정에 틈이 있었는데 지금은 각자 서로 다른 여자에게 정이 쏠려 있어 두 형제는 서로 매우 친애하기 시작했다. 늙은 무삼통은 이것을 보고 절로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매번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날 두 형제가 이막수의 독침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죽여서 필시 하나는 죽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살아 남은 한 놈도 나는 결코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 두 축생은 어엿하게 아무 탈 없이 얘기하며 웃고 있는데 양형제는 도리어 팔 하나를 잃고 말았다. 아, 정말로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땅히 저 두 축생의 팔을 잘라서 양형제의 몸에 붙여 주는 것이 도리이련만......)

그렇게 된다면 양과의 팔이 3 개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는 걱정하지도 않았다.

며칠 되지 않아 그들은 종남산에 이르렀다. 황용.무삼통은 사람들을 이끌고 중양궁에 가서 전진오자를 배알하려고 했다. 이막수는멀찌막이 서서 말했다.

[나는 여기서 기다리는 것이 좋겠읍니다.]

황용은 그녀가 전진교와 원한 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권하지는 않았다.

유처현.구처기 등이 보고를 받고 급히 궁을 나와 일행을 맞이했다. 그들은 이윽고 대전에 들어가서 빈주(賓主)의 자리로 나누어 앉았다. 몇 마디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후전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황용은 크게 기뻐하며 외쳤다.

[노완동, 누가 왔는지 맞혀 보세요?]

요 며칠 동안 주백통은 옥봉(玉蜂)을 지휘하는 법문을 연마하고 있었다. 그는 타고난 총명에다, 한번 일을 손에 잡으면 놓지 않는 성미여서 이미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날 한참 신이 나게 놀고 있을 때 홀연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황용의 목소리였다. 주백통은 기뻐서 말했다.

[아하, 내가 아우로 삼은 도깨비 아가씨가 오셨군!]

하고 소리치며 후전에서 뛰어나왔다. 야율제가 앞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사부님, 제가 인사드리옵니다. 그 동안 별고 없으셨는지요?]

[예의 차릴 것 없으니 어서 몸을 일으켜라. 너도 그 동안 별고 없었느냐?]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야율제가 주백통의 제자일 줄은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이었다. 이 노완동은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지만 그가 가르쳐 낸 제자는 오히려 정명연달(精明練達)하고, 소년이면서도 노련하여 그와는 전연 달랐다. 구처기 등은 사숙에게서 전수받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모두 매우 흥이 나 분분히 주백통에게 칭찬을 했다. 곽부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날 어머니가 야율제와 서로 쳐다보며 웃은 것은 바로 그의 사부가 노완동이라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원래 야율제는 12 년 전에 주백통과 서로 만났는데 그때 그는 아직 어려 주백통과 놀며 의기가 투합해 노완동이 그를 거두어 제자로 삼은 것

이었다. 전수해 준 무공은 비록 많지 않았지만 야율제는 총명하고 굳센데다가 부지런히 연공하여 마침내 걸출한 인물이 되었다. 주백통은 그가 너무 규칙에 철저하여 자신과 같은 개구장이 모습이 없어서 심중으로 유감을 느꼈다. 이로 인하여 그에게 자칭 노완동의 수제자라고 칭할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되자 승인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한참 시끌벅쩍한데 홀연 산 아래에서 호각소리가 울리며 적들이 대거 습격해 온다는 것을 알렸다. 당일 전진교는 이미 몽고 대한의 칙봉을 거부하고 다시 많은 사람을 살상했기 때문에 구처기 등은 이 일이 결코 여기에서 좋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며 몽고병이 조만간에 산을 올라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전진교는 결국 몽고 대군과 맞서 대항할 수가 없을 것이어서 이미 궁을 버리고 서쪽으로 물러날 방책을 안배해 놓았다. 이때 전진교의 장교는 제 3 대 제자 이지상으로부터 충임되었지만, 이렇듯 큰일을 당하자 전진오자로부터 모든 명령을 받고 있었다. 구처기가 황용에게 말했다.

[곽부인, 몽고병이 산을 공격합니다! 참으로 시기가 좋지 않아 빈도는 주인의 예를 다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산 아래에서 함성과 비명소리가 크게 일어나더니 금고(金鼓)가 일제히 울렸다. 원래 황용 등은 남쪽 등성이로 산에 오르고 몽고병은 북쪽 등성이로 산에 올랐는데 전후의 차이가 반 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주백통이 말했다.

[적이 왔다구? 야하, 말할 수 없이 재미있겠군. 자자자, 우리 내려가서 그들을 낙화유수(落化流水)처럼 쓸어 버리자.]

하며 손을 뻗어 야율제의 팔목을 잡고 말했다.

[사부가 가르쳐 준 무공을 한번 몇 분 노사형들께 보여 드리도록 해라. 내가 보기에도 전진칠자와 별 차이가 없다. 네가 함께 끼어서 전진팔자가 되는 것이 어떻겠냐?]

무릇 어린아이는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장난감이 있으면 가는 곳

마다 꼭 자랑을 해서 많은 사람이 칭찬을 해야만 비로소 좋아한다. 그가 처음에 야율제에게 사제 관계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한것은 그가 전연 개구장이 같은 성격이없어서 노완동이라는 현명한 사부의 뛰어난 제자가 조금도 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 사제가 서로 만나자 흥이 난 나머지 예전에 자기가 부탁했던 말은 이미 깨끗이 잊어버린 것이다. 구처기가 말했다.

[사숙, 우리 교는 수십 년 동안 운영을 하였으니 선사께서 필생의 심혈을 기울이신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읍니다. 저희는 오늘은 몸을 온전히 하여 물러나는 것이 상책일 듯합니다.]

그는 주백통에게 무슨 고견이 있는지 묵살한 채 명령을 내렸다.

[각자 물건을 휴대하고 각 파(派)가 정한 경로를 따라 하산하라.]

뭇 제자들은 일제히 대답하고 이미 다 꾸린 보따리를 짊어지고 동쪽으로 한패, 서쪽으로 한패로 나누어 하산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부터 전진오자와 이지상이 이미 파를 적당하게 나누어 누가 앞으로 돌진하고, 누가 후미를 끊고, 어디서 회합하고, 어떻게 연락을 취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 차례 연습을 해 두었기 때문에 막상 일이 닥쳐도 조금도 혼란이 없었다. 황용이 말했다.

[구도장, 귀교의 일 처리는 순서가 있어 족히 그 재질이 큼을 알수 있겠읍니다. 눈앞의 조그만 난관은 근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후에 권토중래(捲土重來)한다면 필시 다시금 번창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저희는 일이 있어 양과를 찾아온 것이어서 여기서 작별을 고할까 합니다.]

구처기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양과라구요? 그가 아직도 이 산에 있는지 모르겠군요?]

황용은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그가 있는 곳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일행이 있읍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산 아래에서 함성과 사람 죽이는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왔다. 황용은 생각했다.

(전진교는 이미 준비를 해 놓았으니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산을 올라온 것은 양과를 찾고 딸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니 대군에 섞여서 중요한 일을 망치면 안 된다.)

즉시 구처기 등과 작별을 하고, 함께 산을 올라온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중양궁 뒤의 후미진 곳으로 서둘러 가서 이막수를 만났다.

[이언니, 수고스럽지만 묘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막수가 물었다.

[당신은 그가 분명히 고묘 안에 있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죠?]

황용은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양과가 고묘에 없어도 옥녀심경은 분명히 있겠죠.]

이막수는 흠칫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곽부인은 정말로 무섭구나. 나의 심중을 어떻게 이렇게 꿰뚫어볼까?)

이막수가 사람들을 따라 양양에서 종남산에 올 때까지 황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은 그녀에게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게다가 무씨 부자는 호시탐탐 그녀를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황용은 생각했다.

(그녀가 아무리 양아를 좋아하고 아낀다고 해도 결코 이런 모험을 무릅쓰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니 필시 무슨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다.)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 양과와 소용녀는 일찌기 옥녀심경의 검술로 금륜법왕을 패배시킨 적이 있는데 이막수는 전연 이 무공을 할줄 몰랐다. 그렇지 않으면 당일 자기와 대결을 할 때 왜 사용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녀는 이미 옥녀심경을 빼앗을 생각이었고 또한 일곱 사람이 먼저 고묘에 들어가서 경을 가지고 갈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황용은 두세 번을 생각해 보고는 그녀의 의도를 곧장 꿰뚫어보았다.

이막수는 그녀가 이미 알았으니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곽부인께서 딸을 빼앗아 돌아가는 것을 도우면 곽부인께서는 내가 본문의 무경(武經)을 빼앗아 돌아가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당신

은 개방의 방주요, 천하에 명성을 날리고 있는 여협이니 일단하신 말씀을 어기지는 않겠지요?]

[양과는 우리 곽야의 친구의 아들인데 나와 약간의 오해가 있었지만 만나기만 하면 얼음이 녹듯 다 풀어질 거예요. 딸아이가 만약 정말로 그가 있는 곳에 있다면 그는 순순히 딸을 내게 돌려줄겁니다. 무슨 뺏느니 뭐니 하는 말은 당치 않지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각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지요. 여기서 작별을 해야겠군요.]

하고 말하며 이막수는 몸을 돌려 떠나려고 했다. 황용이 무수문을 향해 눈짓을 보냈다. 무수문은 장검을 빼어 들고 호통을 쳤다.

[이막수, 오늘 네가 살아서 종남산을 내려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느냐?]

이막수는 생각해 보았다. 황용 한 사람만으로도 자기는 이미 그 적수가 안 되는데 거기에 무씨 부자, 야율 오누이 등이 가세한다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도 본래는 지계가 자못 있었는데 일단 황용을 만나자 손발이 묶인 듯 일체의 꾀나 기량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담담하게 말했다.

[곽부인께서는 기문(奇門)의 변에 정통하신데, 양과가 이 산에 있는 이상 찾지 못할까 봐 걱정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꼭 길을 인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황용은 그녀가 이것으로 협박을 하려고 하는 것임을 알고 말했다.

[고묘의 입구를 찾는 능력 같은 것은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양과와 용아가씨가 비록 묘 안에 은거하고 있지만 쌀을 사거나 나무를 하러는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우리 일곱 사람이 분산하여 천천히 기다리면 그와 마주치는 날이 있겠지요.]

네가만약 길을 인도하지 않겠다면 우리는 즉시 너를 죽일 것이 라는 뜻이었다. 그렇더라도 양과를 며칠 늦게 만나는 것에 불과하니 별로 큰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이막수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렇게 두려울 것도 없었다. 평지에서는 자기가 중과부적이지만 만약 사람들을 이끌고 지하의 묘실로 들어가면 그때는 지세에 익숙한 것을 이용해 몰래 해칠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오늘 당신들이 수적인 우세를 믿고 한자인 사람을 위협하니 나도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도 역시 양과를 찾긴 찾아야하니 당신들은 나를 따라오세요!]

그녀는 곧 가시덤불을 뚫고 수풀을 헤쳐 나갔다.

황용은 뒤에서 바짝 따라가며 그녀가 돌연 달아날까 봐 염려되었다. 그녀가 돌무더기를 이리저리 뚫고 가는데 아무 곳에도 통할 만한 길이 없을 듯하더니 동쪽으로 한번 돌아 서쪽으로 한번 구부러지자 따로 통로가 나왔다. 이들 지세는 완전히 천연적으로 생성되어 결코 인력으로 늘어놓은 것이 아니어서 황용이 비록 오행기문의 술책에 밝게 통달하고 있었지만 이치대로 따져 길을 찾아 낼 수가 없었다.

(교탈천공<巧奪天工>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천공<天工>의 교묘함을 어찌 사람이 빼앗을 수가 있단 말인가?)

밥 한끼 먹을 정도의 시간이 가자 그들은 한 조그만 시냇가에 이르렀다. 이때 몽고병이 외치는 소리들은 여전히 은은하게 들렸지만 수풀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아주 먼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이막수는 수년 동안을 노심초사하면서 옥녀심경을 빼앗을 생각을 해왔다. 지난번에 지하에서 시냇물을 통해 묘를 나올 때는 물의 성질에 익숙하지 못해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기 때문에 그녀는 이후로 강하에서 물의 성질을 충분히 익혀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녀는 냇가에 서서 말했다.

[고묘의 정문은 이미 닫혀 있어서 만약 열려고 한다면 몇 년 몇 개월의 공을 들여야만 하오. 후문은 시내 속으로 잠수하여 들어가는 것이니 어느 분이 나와 함께 가겠소?]

곽부와 무씨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도화도에서 자라, 매년 여름이 되

면 날마다 바다의 큰 파도에서 수영을 하여 물의 성질에 정통해 있었다. 세 사람이 일제히 말했다.

[내가 가겠소!]

무삼통도 비록 정통하지는 못했지만 수영을 할 줄 알아서 이런 조그만 시내는 안중에도 없이 말했다.

[나도 가겠소.]

황용은 이막수가 잔인하고 악독하여 만약 고묘에서 갑자기 독수를 쓰면 하나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음을 생각하여 본래는 자기가 마땅히 옆에서 감시를 해야 했지만 산후 한 달도 채 못 되어 찬물에 잠수하여 수영을 하면 중원(中元)을 크게 다칠까 봐 주저했다. 그때 야율제가 말했다.

[곽백모께서는 여기 남아서 지키시지요. 소질이 무백부를 따라서 함께 가겠습니다.]

황용은 매우 기뻐했다. 이 사람은 총명하고 재능과 경험이 많으며 무공 또한 강하니 그가 함께 간다면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너는 물의 성질을 아느냐?]

[수영은 잘 하지 못하지만 잠수는 그런대로 자신이 있습니다.]

황용은 한 가지 생각이 난 듯 물었다.

[얼음 밑에서 수련을 한 적이 있느냐?]

[예.]

[어디서 수련을 했느냐?]

[후배가 어렸을 때에 부친을 따라서 간탄하(幹灘河)에서 몇 년 산적이 있습니다.]

원래 몽고는 추위가 혹심하여 그 간탄하는 1년 중 대부분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몽고 무사 중에서 체질이 특히 강한사람은 항상 얼음 밑에서 서로 시합을 하여 얼음 위로 더 늦게 나오면 이기는 것으로 하곤 했다.

황용은 이막수 등의 일행이 정해져 시내로 내려가려는 것을 보고 이

것저것 물어 볼 겨를이 없어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각별히 조심해라.]

그녀는 딸에게는 도리어 더 이상 부탁을 하지 않았다. 곽부는 성격이 제멋대로여서 아무리 간절히 부탁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오직 그녀 자신이 여러 번 난관에 부딪치고 나서야 깨우칠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야율.완안 두 여자는 수영을 할 줄 몰라 황용과 함께 냇가에 남았다. 이막수는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여 냇물 속의 한 동굴 속으로 잠수해 들어갔다. 야율제가 바짝 뒤를 좇았다. 곽부와 무씨 부자가 다시 그 뒤를 따랐다.

야율제 등의 다섯 사람은 이막수를 따라 시내 바닥의 물살로 잠수해 계속 전진했다. 지하의 통로는 때로는 넓고 때로는 좁으며 물흐름도 문득 급하다가 문득 느려지고, 때로는 머리까지 잠기고 때로는 겨우 허리 정도에 찼다. 한참을 잠행하여 마침내 그들은 고묘의 입구에 이르렀다. 이막수가 먼저 들어갔다. 다섯 사람은 차례로 들어가며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길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시내 바닥에 과연 이런 별유천지가 있을 줄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이때 주위에는 비록 물은 없었지만 온통 칠흙같이 어두워서 다섯 사람은 손에 손을 잡고 오직 서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다.

다시 한참을 가자 지세가 점차 높아지고 발밑도 많이 말라 가는 것 같았다. 그때 홀연 쿠르릉,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막수가 석문을 하나 밀어 열었다. 다섯 사람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이막수의 말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이미 고묘의 중심에 들어왔으니 잠깐 쉬었다가 양과를 찾으러 갑시다.]

고묘에 들어온 이후로 무삼통과 야율제는 반걸음도 이막수의 뒤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녀가 간교한 술책을 부릴 것에 대비를 했다. 그러나 손을 뻗으면 다섯 손가락조차 보이지 않으니 오직 정신을 집중하여 경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곽부와 무씨 형제는 지금까지 모두 담이 크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지하로 깊이 들어온데다가 두눈도 장님이나 마찬가지여서 저도 모르게 모두 가슴이 쾅쾅 뛰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막수가 갑자기 정적을깼다.

[나의 두 손에는 빙백은침이 하나씩 들려 있다. 너희 세 무가 놈아, 어서 와서 한번 맛을 보아라.]

무삼통 등은 깜짝 놀랐다. 그녀가 호의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무씨 부자는 모두 그녀의 독침에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각자 무기를 높이 들고, 공기를 가르는 은침의 소리를 들어서 방향과 위세를 판단해 막거나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각자가 함께 모여 있으니 가령 무기로 독침을 튕겨 낸다고 해도 같은 편을 다치지 않게 할 수는 없었다. 야율제는 만약 그녀가 암기를 난발하도록 허용한다면 다섯 사람이 반드시 다치거나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오직 모험을 하여 그녀의 몸 가까이 대들어서 그녀가 독침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살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곽부도 심중으로 이와 같이 생각했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이막수의 소리가 난 곳으로 대들었다.

그러나 이막수는 말을 마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틈에 이미 소리도 없이 문가로 물러났다. 야율제와 곽부가 대들면서 사용한 것은 모두가 접근하여 싸우는 소금나법으로, 팔목과 팔꿈치로 잡아서 이막수가 암기를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네 손이 한번 교차하자 곽부가 먼저 잘못 되었음을 느끼고 <아!>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야율제는 두 손을 날려 이미 두 손목을 움켜잡았지만 피부가 매끄럽고 한 줄기 달콤한 향기가 풍겨 왔다. 곽부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는 깜짝 놀랐다.

쿠르릉, 소리가 들리더니 석문이 밀리고 있었다. 야율제와 무삼통이 외쳤다.

[아차!]

문가로 나서는데 사삭, 바람소리가 들리더니 2개의 은침이 발사되었다. 두 사람이 몸을 옆으로 피한 뒤, 손을 뻗어 다시 석문을 밀려고 했을 때는 석문이 이미 닫힌 뒤였다. 석문은 산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야율제가 손을 뻗어 석문을 상하좌우로 한차례 더듬어 보니 고리도 손잡이도 없었다. 그는 벽을 따라서 방안을 한바퀴 돌았다. 석실은 2장 정도 되는데, 사방의 벽은 모두가 단단하고 두터운 돌덩어리로 되어 있었다. 그가 장검을 뽑아 들어 칼자루로 석문을 몇번 두드리자 둔탁한 소리만이 울렸다. 극히 두껍고 단단한게 분명했다. 이석문은 바로 안쪽으로 열리는 것이어서 안에서 당겨야만 열릴 수 있는데 온통 밋밋하여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곽부가 급히 말했다.

[어떡하죠? 여기서 이대로 죽기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야율제가 그녀의 말소리를 들으니 거의 울음이 섞여 있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곽부인이 밖에서 호응한다면 반드시 상구지책이 있을 것입니다.]

하며 한편으로는 사방을 더듬으며 출로를 찾았다.

이막수는 무삼통 등을 석실 안에 가두자 심중으로 뛸 듯이 기뻐하며 생각했다.

(이자들은 이제 갇혔다. 사매와 양과는 내가 수영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테니 내가 비밀 통로를 들어와 습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겠지. 다만 그들 두 사람이 정말로 안에 있을지 모르겠군.)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지 말아야만 성공할 희망이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정말로 대결을 한다면 지금은 두 사람 중에 어느 하나도 이기지 못할 것이어서 이막수는 신발을 벗고 두 손에는 빙백은침을 쥐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불행은 우리의 운명

소용녀는 연일 한옥 침상에 앉아 양과가 해 주는 역충경맥(逆衝經脈)

의 법에 따라서 하루하루 몸 둘레의 36처의 대혈을 통하게 했다. 이때 두 사람은 내식으로 소용녀의 임맥(任脈)에 있는 전중(전中) 혈도에 충격을 주고 있었다. 이 혈은 바로 가슴에 위치하고 있는 옥당(玉堂)혈의 아래 1촌(寸) 6분(分)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 옛 의경(醫經)에서도 기해(氣海)라고 하면 사람의 몸의 기가 모이는 곳으로, 가장 요긴한 곳이었다. 두 사람은 온정신을 집중하여 감히 털끝만큼도 소홀함이 없었다. 소용녀는 목 아래의 자궁(紫宮).화개(華蓋).옥당 세 혈에 뜨거운 기가 가득 넘쳐 쉬지 않고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한옥 침상의 한기도 점차 배에 있는 구미(鳩尾).중정(中庭)의 혈에 모여 목의 뜨거운 기를 아래도 끌어내렸다. 그런데 뜨거운 기가 전중혈과 부딪치는 곳에서 튕겨져 되돌아 통과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이 뜨거운 기가 일단 전중을 통과하면 임맥이 훤하게 통하여 몸의 중상도 8할은 회복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때에 이르지 않았으니 조금이라도 무리를 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마침 성격도 급하지 않았고 고묘 안의 세월은 길어서, 오늘 통하지 않으면 내일이 있으므로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이로 인하여 내식은 끊임없이 끊어질 듯 이어질 듯하나 조금도 조급한 마음이 없어서 그야말로 내가(內家) 고수의 운기 요법과 맞아떨어졌다.

양과는 오히려 성질이 매우 급해 오직 소용녀가 빨리 치료되기만을 바랄 뿐 다른 생각은 일체 없었다. 그러나 그도 이 내식 운공의 일은 서두르면 오히려 안 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경맥을 역행하는 것은 순행하는 것보다 두 배는 위험했다. 하지만 소용녀의 팔목의 맥박이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약하여 비록 고르지는 않지만 위험함은 없어서 천천히 기를 움직여 충격을 더하곤 했다.

그때 이 적막한 고묘 안에 홀연 멀리서 탁,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는 극히 가볍고 미세하여 만약 양과가 기를 모으기 위해 숨을 조절하여 심신이 지극히 고요한 경지에 이르지 않았더라면 결코 들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잠깐 지나자 또다시 탁, 하는 소리가 들리며 이미 세

자 정도 가까와졌다.

양과는 변고가 있음을 알았지만 소용녀가 정신이 흐트러질까 걱정했다. 이 긴급한 순간에 내식이 다른 길로 나뉘어 가면 그 충격이 가벼워도 상처는 영원히 치료하기 어려울 것이며, 무거우면 즉시 목숨을 잃을 판이었다. 그리하여 마음속으로는 비록 놀랐지만 오직 모른 척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가볍게 탁,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소리가 점점 더 접근해 왔다. 그는 이때 누군가 고묘에 잠입했는데 그 사람은 감히 급하게 다가 오지를못하고 단지 천천히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금 지나자 쿠르릉, 하는 소리가 가볍게 들리다가 멈추더니 다시 쿠르릉, 하는 소리가 가볍게 들렸다. 적은 지금 아주 천천히 석문을 밀어 열고 있었다. 만약 소용녀가 적이 임박하기 전에 전중혈이 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기 짝이 없을 것이니 지금은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나 마찬가지여서 내식을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었다.

탁,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그자는 다시 한걸음 접근했다. 양과는 정신을 수습할 수가 없어 실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이때 돌연 장심이 흔들리며 한 줄기 뜨거운 기가 되몰려 왔다. 소용녀도 이미 놀랐던 것이다. 양과는 서둘러 내식을 움직여 소용녀의 손바닥으로 전해 온 내력을 밀어 보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악마는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니 듣지도 보지도 않는 것이 곧 진체(眞諦)입니다.]

연공을 하는 사람이 일정한 경계에 도달하면 종종 환각이 발생하곤 했다. 때로는 귀에 우뢰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극심한 고통이 밀려와서 오직 그 허상에 신경을 쓰지 않아야만 일을 그르치지 않을 수가 있었다. 이때 양과는 발자국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맑아서 허상이 아닌 줄은 알았지만 소용녀의 생사가 실오라기 하나에 달려 있는 요긴한 순간이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적은 마음속에서 생긴 악마라고 속여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나도 시종 신경을 쓰지 않아 심마가 사라지도록 하

려고 했다. 소용녀는 이 몇 마디 말을 듣고 과연 즉시 안정을 찾았다.

그때 고묘 밖은 붉은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묘 안은 어둠침침하여 깊은 밤이나 마찬가지였다. 양과는 발걸음소리가 매번 울릴때마다 몇 자씩 옮겨지는 것을 듣고 세상에 자기 부부를 제외하고는 오직 이막수와 홍릉파만이 시내 바닥을 통하여 잠입하는 비밀 통로를 알고 있으니 그렇다면 침입자는 분명히 그녀 사제 중의 하나 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의 양과의 무공에 의지하면 전연 두려울 것이 없었지만 다만 조금 일찍이나 조금 늦게 오지 않고 공교롭게도 바로 이 순간에 내습해 오니 저도 모르게 초조하여 막아낼 계책이 없었다. 적이 천천히 오면 천천히 올수록 그의 심중의 초조감은 더욱 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오히려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의 이마에는 점차 땀방울이 구슬처럼 맺혔다.

(그날 곽부가 나의 팔을 자를 때에도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이토록 서서히 조여 오는 고통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소용녀도 또렷하게 소리를 듣고 결코 이것이 마음속에서 생겨난 환상이 아니라 대난(大難)이 임박했음을 알아 내식을 강하게 하여 전중혈이 어서 뚫리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마음이 어지러워지자 내식도 따라서 순행하다가 돌연 역행하며 가슴을 어지러이 파고들기 시작했다.바로 이때 발소리가 잘게 부서지면서 돌연 문간에 이르러서 사사사삭, 하는 소리와 함께 4 개의 빙백은침이 발사되었다.

이때 양과와 소용녀는 전연 무공을 할 줄 모르는 보통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지만 다행히도 두 사람은 이미 방비를 하여 독침이 날아오자 동시에 뒤로 벌러덩 누우며 손바닥은 여전히 떼지 않았다. 4 개의 독침이 나란히 얼굴을 스쳐 갔다. 이막수는 그들이 한창 운공을 하여 상처를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두 사람이 반격을 할까봐 독침을 한번 쏘고는 즉시 뒤로 뛰었다. 만약 그녀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다시 4 개의 침을 발사했다면 그들 두 사람은 결코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막수는 어렴풋이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옥 침상에 앉아 있는 것만을 보았다. 그녀는 일격이 적중하지 않자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전혀 일어나서 반격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상대방의 의도를 몰라 즉시 옆으로 뛰어 문가로 물러났다. 그리고 불진을 매만지며 차갑게 말했다.

[두 분 그 동안 별고 없으셨는가?]

양과가 말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설마 네가 모르지는 않겠지?]

[옥녀심경을 원하는군요, 그렇죠? 좋아요, 우리는 묘 안에서 은거하여 세상과 다투지 않을 것이니 당신이 가져 가세요.]

이막수는 반신반의하며 말했다.

[가지고 와라!]

이 옥녀심경은 다른 간의 석실 천정에 새겨져 있었다. 양과는 생각했다.

(그녀에게 사실대로 말하여 그녀가 가서 심경의 오묘함을 천천히 깨닫고 연마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몇 시간만 더 보내 용이의 전중혈이 일단 통하기만 하면 그때 그녀를 죽이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소용녀의 내식이 더욱 미친 듯 날뛰어 양과는 온정신으로 지탱하느라 입을 열어 말할 겨를도 없었다.

이막수는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집중하여 두 사람을 살피니 소용녀가 한 손을 뻗어서 양과의 손과 마주 대고 있는 것을 희미하게 보고 즉시 깨달았다.

(아, 양과가 팔을 잘리어 중상을 입어서 이 소천인(小賤人)이 막 내력으로 그의 치료를 돕고 있구나. 지금 행공이 요긴한 순간에 이른 듯하니 오늘 두 사람을 처치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다시 어떻게 이런 좋은 기회가 있겠는가?)

그녀는 추측이 반밖에 맞지 않은 셈이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은 즉시 사라져, 몸을 날려 불진으로 소용녀의 정수리를 향하여 내리쳤다.

소용녀는 거센 바람이 정수리를 습격하는 것을 느끼며 머리카락이 이미 훨훨 나부꼈지만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때 양과가 입을 벌려 한 줄기 숨을 이막수의 얼굴을 향하여 뿜어 냈다. 그는 이 순간 전신의 내력을 모두 소용녀의 맥혈을 통하도록 돕는 것에 쓰고 있어서 이 입김은 아무런 경력이 없었다. 그러나 당장 적을 교란시킬 방법은 오직 입김을 부는 것뿐이었다.

이막수는 평소에 양과의 지계가 백출함을 알고 있어서 한차례 열기가 얼굴로 불어닥치자 깜짝 놀라 뒤로 반 장을 뛰었다. 그녀는 황용의 손에 참패를 당한 뒤에 가는 곳마다 신중하고 조심하여 적을 해칠 겨를이 없이 먼저 자신을 보호했다. 뒤로 뛰어 물러난 뒤에 얼굴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느끼고 호통쳤다.

[죽고 싶으냐?]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그날 내가 당신에게 빌려준 옷을 오늘 돌려받을 수 있을는지요?]

이막수가 생각해 보니, 당일 철장 풍묵풍과 격투를 할 때 전신의 옷이 온통 시뻘겋게 달군 큰 철추에 타 버려서 만약 양과가 옷을 벗어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그 추한 몰골은 그야말로 낭패였을 것이다. 이치대로 따지자면 이 옷을 벗어 준 은공 하나만으로도 오늘 두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 순간 마음이 잠시 약해졌다가는 이후에 닥칠 후환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즉시 몸을 위로 솟구쳐 좌장을 다시 쳐냈다.

위급한 가운데 양과는 돌연 한 가지 계책이 떠올랐다. 며칠 전에 소용녀와 농담을 주고받는데 만약 내가 두 팔이 나란히 잘렸다면 당신은 나의 두 발을 잡으면 될 것이라고 한 말이 떠올랐다. 귀에 솨악, 하며 장풍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며 이막수의 오독신장이 다시 내습하자 이것저것 자세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시 머리를 아래로 하고 거꾸로 서

면서 동시에 두 발을 위로 흔들어 신발을 벗고 소리쳤다.

[용이, 내 발을 잡아요!]

좌장을 비껴 휘둘러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이막수의 수장을 받아냈다. 그의 몸의 한 줄기 극히 강력한 내력은 본래는 소용녀의 몸에 전해지고 있었는데 돌연 안으로 수축되자 즉시 접착력이 생겨 이막수의 손을 빨아들였다. 그와 동시에 소용녀도 이미 그의 오른발을 움켜쥐고 있었다.

이막수는 홀연 양과의 자세가 괴이하게 되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그러나 곧 그날 그가 자기의 삼무삼불수(三無三不手)를 막아낼 때에도 이런 괴이한 모양을 한 것을 생각하고 별 것이 아닐 것 같아서 즉시 장력을 재촉하여 양과를 당장에 죽이려고 했다. 당년에 그녀가 오독신장으로 육가장의 닭과 개까지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일 때에도 장력이 이미 무시무시하기 짝이 없었는데, 요 몇년 동안의 수련을 거치면서 장력은 더욱 사납고 흉악해졌다. 양과는 다만 한 주기 뜨거운 기가 장심으로부터 곧장 밀려오는 것을 느끼고 전혀 항거를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장력을 더하여 일제히 소용녀의 몸으로 전달했다.

이렇게 되자 이막수와 양과가 힘을 합하여 소용녀의 혈이 통하도록 도와 주는 형세로 변했다. 이막수가 수련한 초수는 비록 양과와 소용녀 두 사람만큼 오묘하지는 못했지만 공력의 수련으로 말하자면 두 사람보다 훨씬 심후했다. 소용녀는 갑자기 하나의 강한 도움을 얻어 한 줄기 거센 힘이 몰려옴을 느끼면서 전중혈이 확 통하게 되어 가슴의 뜨거운 기가 곧장 단전으로 전해지면서 정신이 들었다.

[고마와요, 사자.]

하며 그녀는 손을 풀어 양과의 오른발을 놓고 한옥 침상에서 뛰어내렸다.

이막수는 너무나 놀랐다. 그녀는 오직 소용녀가 양과의 치료를 돕는 줄로만 알고 장력을 재촉하여 이 기회에 양과의 심맥을 온통 뒤흔들어 놓을 생각이었는데 도리어 무의식중에 적을 돕게 된 것이 아닌가! 양과

는 크게 기뻐하고 몸을 돌려 맨발로 바닥에 서서 웃으며 말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서둘러 도와주지 않았다면 당신 사매의 이 전중대혈은 쉽게 통하지 못할 뻔했군요.]
이막수가 주저하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소용녀가 돌연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가슴을 움켜쥐고 한옥 침상 위에 쓰러졌다. 양과가 놀라 물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소용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 그녀, 그녀의 수장에 독이 있어요.]
이때 양과의 머리도 크게 어지러워서 이막수가 오독신장을 사용할 때 극심한 독이 장심으로 전해 온다는 것을 알았다. 방금 그녀의 수장과 교차할 때 극심한 독이 자기의 체내뿐 아니라 소용녀의 몸으로도 전해진 것이다.
양과는 현철중검(玄鐵重劍)을 들고 외쳤다.
[빨리 해약을 내놓으시오!]
하고 외치며 검을 들어 이막수의 머리를 쳐내렸다. 이막수가 불진을 들어 막아내자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정련된 쇠로 주조한 불진의 두 자루가 두 동강이 나고 불진을 잡았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까지 찢어져 선혈이 길게 흘러내렸다. 그녀의 이 불진은 부드러운 힘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천하의 수많은 영웅 호걸들을 거쳤지만 다른 사람의 무기에 의하여 잘린 일은 일찌기 없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서둘러 뛰어 석실을 나갔다. 양과는 검을 들고 뒤쫓으며 왼쪽 팔을 앞으로 내뻗었다. 이 일검을 이막수는 도저히 막아내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뜻밖에도 체내의 독성이 발작하여 눈앞이 오락가락하면서 팔이 시리고 힘이 빠져 와 땅, 하는 소리와 함께 현철검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막수는 감히 멈추지를 못하고 앞으로 1장 남짓 달아나고 나서야 고개를 돌렸다. 양과가 비틀비틀하며 손을 뻗어 벽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 녀석의 무공은 괴이하기 짝이 없으니 잠시 기다렸다....... 독이 발작하여 넘어지면 가까이 접근하자.)

양과는 통증으로 목이 바짝 마르고 머리는 부풀어 찢어질 듯하여 즉시 왼쪽 팔에 힘을 모아 오직 이막수가 가까이 접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일장에 그녀를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녀는 멀찌감치 서서 가까이 오질 않았다. 양과는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면서 손은 이미 현철검의 자루를 더듬고 있었다. 이막수는 이때 이미 활을 보고 놀란 새처럼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다. 이미 패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건만 여전히 서서 조용히 사태의 변화를 지켜 보았다.

양과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자기나 소용녀나 독이 더욱 깊이 퍼지게 되어 적에게 유리하게 되리라 생각하여 즉시 호흡을 가다듬어 내식을 돌게 하자 현기증이 약간 멈추었다. 그는 곧 현철검의 자루를 움켜쥐고 일어서서 팔을 뻗어 소용녀의 허리를 안고 외쳤다.

[비켜 서라!]

이막수는 그의 기세가 범상치 않아 감히 막지를 못했다.

양과는 오직 어느 석실로 들어가 석실의 문을 닫아 이막수가 들어오지 못하게만 하길 바랐다. 소용녀의 임독(任督) 두 맥이 이미 통했으니 반 시간 정도면 두 사람은 체내의 독액을 뽑아 낼 수 있었다. 이 일은 관맥을 통하게 하는 것보다는 백 배 쉬웠다. 양과는 어릴 때 이막수의 은침에 중독되었을 때 구양봉의 전수를 받아서 즉시 독액을 뽑아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와 같은 공력으로는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막수도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두 사람이 독을 제거한 뒤에 다시 와서 손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할 리가 없었다. 그녀는 감히 가까이 다가서지는 못하고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뒤를 따르며 양과와 시종 5자의 거리를 유지했다. 양과가 서서 그녀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그녀도 즉시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양과는 가슴이 뛰면 뛸수록 더욱 위험해짐을 느끼며 심한 구역질을

느꼈다. 더 이상 지탱할 방법이 없자 비틀비틀하며 어느 석실로 뛰어들어가 소용녀를 그곳의 돌탁자 위에 내려놓을 뒤, 큰 소리로 숨을 몰아쉬었다. 이막수가 뒤따라 들어왔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돌아볼 수도 없었다. 잠시 지나서야 마침내 자기들이 온 곳이 석관을 놓은 곳으로, 소용녀를 올려놓은 곳이 어떤 석관임을 알았다.

이막수는 사부로부터 무예를 배울 때에 고묘 안에서 적지않은 기간을 살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 비록 양과.소용녀에게는 미치지 못했지만 석실에 5개의 석관이 늘어서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 중 하나의 아래는 바로 지하 비밀 통로의 입구로, 그녀는 바로 이곳을 통하여 들어왔던 것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너희들이 다시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세 사람이 하나는 앉고 하나는 서 있고 다른 하나는 몸을 비스듬히 기대고 있었는데, 잠시 석실 안에는 양과의 헉헉거리는 숨소리만이 들렸다.

양과의 몸이 몇번 비틀거리더니 챙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현철검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어서 고꾸라지면서 소용녀의 몸에 엎어졌다. 이어서 손으로 한 물건을 날려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앞의 빈 석관으로 던져 넣더니 외쳤다.

[이막수, 이 옥녀심경을 절대로 너의 손에 넘겨 줄 수는 없다.]
하며 길게 비명을 지르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석실 안에는 5개의 석관이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3개는 임조영, 사도, 손노파가 안장되어 있었고, 다른 2개는 빈 것이었다. 그 중의 하나는 비밀 통로의 입구로, 관뚜껑이 2자 이상 열려 있어 드나들 수가 없었으며, 다른 하나의 관뚜껑은 1자 정도의 틈밖에 없었다. 이막수는 양과가 옥녀심경을 빈 관으로 던져 넣는 것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그가 또 무슨 계책을 꾸미는지 몰라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그가 시종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몸을 굽혀 그의 얼굴을 더듬어 보

니 촉감이 차디차 분명히 죽은 것 같아서 하하, 하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못된 놈 같으니, 너의 그 교활함도 이젠 끝장이로구나!]

이막수는 즉시 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심경을 찾았다.

그러나 양과가 던질 때 심경을 석관의 한구석에 던져 넣어, 이막수의 불진이 아직 부러지지 않았다면 불진의 끄트머리로 말아올릴 수 있었을 것이었다. 그녀는 팔을 길게 뻗어 두 번이나 더듬었지만 끝내 잡히지를 않자 몸을 굽혀 이 한 자 남짓 되는 석관의 틈으로 끼어들어가 석관의 한쪽 끝으로 가서야 심경을 잡았다. 손에 닿자 마자 즉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세히 보니 신발 한짝이었다.

바로 이때 몸을 일으킨 양과가 왼팔을 앞으로 급히 보내 현철검의 검끝을 관뚜껑에 대고 힘껏 밀어서 관뚜껑을 닫았다. 이막수는순식간에 관 속에 갇혀 버렸다.

이막수는 옥녀심경이 석실 천정의 석각이라는 것을 모르고 줄곧 하나의 책으로만 알고 있었다. 양과는 거짓으로 비명을 지르고 소용녀의 몸으로 쓰러지며 즉시 그녀의 발에서 신발 한짝을 벗겨 빈관으로 집어던졌던 것이다. 부드러운 물체가 돌에 부딪치면서 내는 소리가 마치 책인 것처럼 들렸던 것이다. 그는 신발을 던진 뒤에 즉시 경맥을 거꾸로 움직여 죽은 것처럼 가장을 했다. 사실 그가 실제 독에 중독되어 죽었다고 해도 순식간에 온몸이 차갑게 식을 수는 없는 것이었다.심장이 멈추고 맥이 그치자면 적어도 반 시간 뒤에야 온몸에 열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막수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세히 살피지를 못했던 것인데, 이막수가 만약 그가 죽었든 죽지 않았든 간에 그의 정수리에 일장의 오독신장을 더 내려쳤더라면 양과는 거짓으로 죽은 상태에서 정말로 죽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절박한 지경에 이르자 오직 모험을 하여 요행을 바라는 수밖에 없었는데 단 일거에 성공을 거둔 것이다.

양과는 관뚜껑을 밀어서 닫고 왼팔에 힘을 넣어 다시 중검을 튕기며 소리를 질렀다.

[으랏차차!]

다른 빈 관이 튀어올라 콰당, 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관뚜껑을 눌렀다. 이 관과 뚜껑 하나의 중량만 해도 600근 이상은 될 것이요, 게다가 관뚜껑이 마침 감옥의 역할을 하니 한번 뚜껑이 봉해지면 이막수의 무공이 제아무리 높다고 해도 뛰쳐나올 수 없었다.

양과는 중독된 뒤에 심장이 뛰고 머리가 아픈데도 그때마다 쓰러지지 않은 것은 대적이 눈앞에 있어 오로지 강한 정신력으로 끝까지 지탱한 것이었다. 게다가 연속으로 두 차례 검에 힘을 쏟아서 신력이 다했다. 그는 현철검을 던져 버리고 안간힘을 다하여 소용녀의 곁으로 가서 구양봉이 전수한 방법으로 먼저 자신의 독을 거의 뽑아 냈다. 그런 뒤에 좌장을 뻗어 소용녀의 우장에 대고 그녀가 독을 뽑는 것을 도왔다.

곽부.야율제 등은 그들이 시내 바닥으로 잠수하여 들어올 때 문에 휴대했던 화약이 모두 젖어 버려서 불을 켤 수가 없어 깜깜한 석실 가운데에서 한참 동안 더듬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어디서 출로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다섯 사람은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오직 고목처럼 앉아 있어야만 했다.

무삼통은 이막수가 음험하고 악독하다고 계속 욕을 해 댔다. 곽부는 그렇지 않아도 초조하고 걱정스러운데 무삼통이 쉬지 않고 욕을 해 대자 더욱 초조하여 참지 못하고 말했다.

[무백부, 그 이막수가 음험하고 악독한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나요! 미리 방비도 하지 못해 놓고 이제 와서 뒤에서 욕을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삼통은 깜짝 놀라 대답을 못했다.

무씨 형제는 곽부와 다시 만난 이래로 각기 마음을 앓고 있어 야율 오누이, 완안평 등과 같이 있을 때는 모두 같이 말하고 웃으며 지냈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다. 이때 그녀가 부친에게 면박하는 것을 본 무수문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우리가 고묘 안에 온 것은 너의 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인데 이미

불행히도 난을 만났으니 모두가 함께 죽으면 그만이거늘 또 무슨 성깔을 부리는 거냐......?]

그가 다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무돈유가 외쳤다.

[아우!]

무수문은 그제서야 입을 다물었다. 그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심정이 격해 한 것인데 일단 말을 해 놓고 보니 자기도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줄곧 곽부에게 의지하고 순종해 와서 한번도 충돌한 적이 없었다. 오늘처럼 이렇게 사나운 말들을 그녀에게 퍼부을 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곽부도 깜짝 놀라 맞받아 내쏘려고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곽부는 이 고묘에서 죽으면 이후로 다시는 부모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 물체 위에나 엎드려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 무수문은 그가 우는 소리를 듣고 어쩐지 마음이 안 되어 말했다.

[좋아,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으니 사과하마.]

곽부는 울며 말했다.

[사과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녀는 더욱 소리 높여 울며 손에 집히는 대로 천 조각을 들어 콧물과 눈물을 훔치다가 돌연 멈칫했다. 원래 그녀는 어떤 사람의 다리에 엎드려 있었는데 콧물과 눈물을 훔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옷자락이었다.

곽부는 깜짝 놀라 급히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무삼통 부자가 말을 했던 것으로 봐서 그들은 모두 그녀의 곁에 앉아 있지 않은 게 분명했고, 오직 야율제만이 시종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연히 야율제일 것이었다. 그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온통 빨　　게 되어 머뭇거렸다.

[나는......]

그때 야율제가 갑자기 말했다.

[모두들 저 소리를 들어 보세요. 무슨 소리죠?]

네 사람이 귀를 기울여 들어 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야율제가 말했다.

[음, 음. 어린아기 울음소리예요. 곽아가씨, 당신의 동생이 분명합니다.]

이 소리는 석벽을 사이에 두고 가늘게 들려와서 만약 그의 내공이 깊지 못하고 귀가 밝지 않았다면 도저히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몸을 일으켜 가까이 가자 우는 소리는 즉시 약해졌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이 석실에 혹시 공기가 통하는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

즉시 정신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울음소리가 어디로부터 전해 들어 오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가 서쪽으로 몇 걸음 가니 울음소리가 약간 가벼워지고, 동쪽으로 물러나니 울음소리가 다시 크게 울리고 동북쪽으로 가니 울음소리는 더욱 분명하게 들렸다. 그리하여 동쪽 모퉁이로 가서 검을 뻗어 석벽을 가볍게 두드리니 어느 한 부분의 콩콩콩, 하는 소리가 다른 데와 달리 특히 얇은 것 같았다. 그는 검을 다시 칼집에 집어 넣고 쌍장으로 돌덩이를 버티고 밖으로 밀었지만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숨을 몰아쉬고 쌍장을힘껏 밀었다가 이어서 <점(粘)> 자 구결을 사용하여 장력을 급히 거두어들이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돌덩이가 그의 장력에 빨려 바닥에 떨어졌다.

곽부 등은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여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너도 나도 뛰어가 잡아당기고 밀어서 다시 세 덩이의 돌을 뽑아 냈다. 이때는 이미 몸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들은 차례로 빠져나와 소리를 따라서 어느 조그만 석실에 이르렀다. 곽부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아기가 매우 크게 울어 대는 소리를 듣고 즉시 손을 뻗어 안아 올렸다.

이 아기는 바로 곽양이었다. 양과가 소용녀의 맥이 통하도록 도와 주

고 또 이막수와 대적하느라 밥 주는 시간을 어겨서 그녀는 그렇게 사납게 울어 댔던 것이다. 곽부는 열심히 그녀를 얼르며 때리기도 하고 흔들기도 했지만 곽양은 너무나 배가 고파 울면 울수록 사나와졌다. 곽부는 참지 못하고 동생을 무삼통의 손에 넘겨 주며 말했다.

[무백부, 무슨 잘못이 있는지 한번 봐 주세요.]

야율제가 손을 뻗어 탁자 위를 더듬자 촛대 하나가 만져졌다. 그는 곧 다시 화도(火刀)와 화석(火石)를 찾아 즉시 불을 붙였다. 사람들은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반나절을 고민하고 지내다 눈앞에 돌연 밝은 빛이 나타나자 모두 가슴이 탁 트이는 듯하여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무삼통은 아들을 기른 적이 있어서 곽양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배가 고파서 그렇다는 것을 알았다. 탁자 위에 잘 만들어진 꿀물과 나무젓가락이 하나 있는 것을 보고 꿀물을 저어서 그녀에게 먹였다. 꿀이 일단 입에 들어가자 곽양은 과연 울음을 그쳤다. 야율제가 웃으며 말했다.

[만약 작은 곽아가씨가 배가 고파서 크게 울지않았더라면 우리는 모두 그 석실 안에서 죽었을 겁니다.]

무삼통이 이를 갈며 말했다.

[자, 이제 이막수를 찾으러 가자.]

각자 부러진 탁자다리와 의자다리를 들고 불을 붙여 횃불로 삼아서 좁은 길을 따라 앞으로 갔다. 모퉁이가 나올 때마다 무돈유는 검끝으로 표시를 해 두어 돌아 나올 때 길을 잃지 않도록 했다.

다섯 사람은 2개의 방을 지나면서 횃불을 높이 들고 이막수의 종적을 찾았다. 이 고묘의 규모가 방대하고 이리저리 굽은 길에 끝없이 석실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조그만 시내 아래에 이토록 거대한 건축물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소용녀가 누워 있는 석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닥에 빙백은침이 몇 개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곽부는 천으로 손을 감싸고 2개를 집어들며 말했다.

[내가 이 독침을 사용하여 그 마두를 한번 골탕먹여 줘야겠다.]

양과는 내력으로 소용녀가 독액을 뽑아 내는 것을 도와 주다가 그녀의 왼손 다섯 손가락 끝에 검은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보았다. 밥한끼 먹을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 독액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홀연 통로에 발자국소리가 울려 오는데 모두 다섯 사람이 오고 있었다. 양과는 은근히 놀라며 매번 긴급한 순간을 당해서 또 적이 습격해 온다고 생각했다. 이막수 한 사람도 응수하기가 어려웠는데 하물며 다섯 사람을 어떻게 당해 내겠는가? 소용녀는 관맥이 통한지 얼마 안 되어 내력이 단단하지 못하니 독질을 당장 뽑아 내지 않으면 반드시 요혈에 침투해 들어갈 판이었다. 한참 허둥대고 있는데 돌연 멀리서 불빛이 반짝이며 그 다섯 사람은 더욱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다. 양과는 팔을 뻗어 소용녀를 안아 일으켜 이막수를 누른 빈 관속으로 뛰어들어가 손바닥을 뻗어 관뚜껑을 밀어 완전히 닫히지는 않게 하여 위기를 일단 모면하려고 했다.

그들 두 사람이 막 석관에 들어가 숨자마자 야율제 등이 들어왔다. 다섯 사람은 석실 안에 5개의 석관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모두 깜짝 놀라 약속이나 한 듯이 이 일은 너무도 괴이하여 필시 나쁜 징조라는 것을 느꼈다. 곽부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흥, 우리가 다섯 사람인데 마침 다섯 개의 관이 준비되어 있군!]

양과와 소용녀는 석관 안에서 곽부의 목소리를 듣고 모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그녀가 이곳에?)

양과는 좌장을 여전히 소용녀의 손에서 떼지 않고 있었다. 빨리 독액을 뽑아 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다섯 사람 중에 곽부가 있다는 것을 알자 비록 이상한 느낌은 들었지만 마음은 한결 놓였다. 그녀는 남의 위급함을 이용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즉시 전심전력으로 운공을 하여 독을 뽑아 냈다.

야율제는 이미 석관 속에서 나는 숨소리를 듣고 이막수가 관 속에 숨어서 필시 무슨 계책을 꾸미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번에는 더 이상 그

녀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즉시 손짓을 하여 각자 사방에서 포위하도록 했다. 곽부는 관뚜껑과 판의 몸체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그 틈으로 옷자락까지 보이자 반드시 이막수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소리 죽여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 사람의 방법으로 다시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야.)

곽부는 좌장에 힘을 주어 관뚜껑을 밀면서 2개의 빙백은침을 쏘았다.

이 2개의 빙백은침은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쏘았고 석판 안에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없었다.

[아얏!]

양과와 소용녀 두 사람이 나란히 소리를 질렀다. 하나는 양과의 오른쪽 다리에 맞았고다른 하나는 소용녀의 왼쪽 어깨에 맞았다.

곽부는 은침을 발사한 뒤에 그야말로 득의양양하며 있는데 석관속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놀라 지르는 소리를 듣자 그녀는 가슴이 쾅쾅 뛰었다. <아차!> 하고 소리를 지를 때 야율제가 왼쪽 다리를 날려 콰당, 하는 소리와 함께 관뚜껑을 바닥에 차 버렸다. 양과와 소용녀가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났다. 횃불 아래서 두 사람은 얼굴이 창백한 채 처참하게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곽부는 자기가 이번에 저지른 일이 양과의 한쪽 팔을 자른 화보다 크다는 것을 모르고 심중으로 약간 미안함을 느껴 사과하는 말을 했다.

[양오빠, 용언니. 소매, 두 분인 줄을 모르고 침을 던져 다치게 했군요. 마침 엄마가 이 독침의 독을 치료하는 영약을 가지고 있어요. 당년에 나의 두 마리 수리가 이막수의 은침에 다쳤을 때도 엄마가 다 치료해 주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관 속에 숨어 있었어요? 누가 당신들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녀는 자기가 양과의 한쪽 팔을 자른 것도 양과가 도리어 그녀의 장검을 가지고 놀렸기 때문이라고 얼버무리려고 했었는데, 그녀의 부모가 다시 이번 일로 자기를 사납게 꾸짖을 것을 생각하니 그야말로 난감했다.

(내가 당신을 탓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순탄한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사람도 그녀의 부모를 봐서 사사건건 받들고 양보하여 그녀는 줄곧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성격으로 자랐다. 말을 하고 나자 양과와 소용녀 두 사람이 석관 속에 숨어서 자신을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한 것이 오히려 못마땅했다. 그녀가 어찌 소용녀가 이 은침을 맞았을 때의 상황을 알겠는가. 그때 마침 체내의 독질이 내식을 통하여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참이었다. 그런데 돌연 이토록 극렬하게 찔려 오독신장의 독이 모두 거꾸로 흘러 온몸의 대혈로 침투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설사 영지선단(靈芝仙丹)이 있다고 해도 구제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이막수의 은침이 외상에 불과하다면 의원의 치료를 받기만 해도 아무런 장애가 없겠지만 독이 일단 안으로 침투하면 그 위험은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소용녀는 독침에 맞는 순간 가슴이 쿵쿵 뛰며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고개를 돌려 양과를 보니 그의 눈빛에는 상심하기도 하고 비분하기도 한 기색이 서리고 전신이 떨리고 있어 일생 중에 겪었던 우환과 굴욕이 모두 바로 이 순간에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소용녀는 그가 이토록 고통스럽고 처참해지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운명이 이와 같으니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너무 괴로와하지 말아요.]

손을 뻗어 먼저 그의 다리에 박힌 은침을 뽑아 준 뒤에 자기 어깨의 독침을 뽑았다. 이 빙백은침은 그녀의 스승이 전수해 준 것으로 이막수가 스스로 창안한 오독신장의 독성과는 전혀 달라서 본문의 해약은 그녀가 언제나 지니고 다녔기 때문에 양과에게 하나를 먹이고 자기도 하나를 먹었다. 양과는 너무도 화가 나서 픽, 소리와 함께 해약을 바닥에 토해 냈다. 곽부가 노하여 말했다.

[아니, 정말 대단하시군요. 설마 내가 일부러 당신들을 해치려고 했

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들에게 사과를 했으면 그만이지 어쩌면 이렇게 성질을 부릴 수가 있어요? 조그만 한두 개의 침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요?]

무삼통은 양과의 얼굴에서 상심한 기색이 점차 사라지고 노한 기색이 점차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가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검푸른 빛깔의 대검을 주워 드는 것을 보고 정세가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하여 급히 나서서 만류하며 말했다.

[양형제는 너무 화를 내지 마십시오. 우리 다섯 사람은 이막수 그 마두에게 석실 안에 갇혔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곽아가씨가 그만 노망을 하여 실수를......]

곽부가 나서서 말했다.

[뭐라구요, 내가 노망을 했다구요? 당신 자신도 이막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왜 소리를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삼통은 양과를 쳐다보고 곽부를 쳐다보며 어떻게 만류를 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소용녀는 다시 해약을 하나 꺼내어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어서 이 약을 먹어요. 설마 내 말까지 안 듣는 것은 아니겠지요?]

양과는 소용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권고를 듣고 입을 벌려 약을 삼키며 두 사람이 연일 고생을 하며 생사의 경계를 헤맨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을 생각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돌연 무릎을 꿇고 석관 위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했다.

무삼통 등은 서로를 쳐다보며 그가 줄곧 더 할 나위 없이 명랑했는데 어찌하여오늘 조그만 은침 하나에 맞았다고 이렇게 통곡을 하는지 몰라 의아해 했다. 소용녀는 손을 뻗어 양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여보, 그들을 나가라고 해요. 나는 그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싫어요.]

그녀의 사납지도 매섭지도 않은 <나는 그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싫어요>라는 이 말 속에는 그녀의 가장 큰 증오와 분개가 서려 있었다.

양과는 몸을 일으켜 곽부로부터 시작하여 눈빛으로 하나하나 쓸어 보았다. 그는 비록 분노와 원한이 극에 달했지만 곽부가 은침을 발사한 것은 사실 본의 아닌 실수임을 알자 그녀의 조급함과 경솔을 탓하는 것 이외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만약 단 일검에 그녀를 쳐서 죽인다고 해도 이미 소용녀의 목숨을 구할 수는 없었다. 그는 검을 들고 똑바로 섰다. 눈빛은 타오르는 횃불 같았다. 돌연 현철중검을 들어 떵, 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불꽃을 튕기며 그가 방금 숨어 있었던 석관을 두 조각으로 잘라 버렸다. 이 일검은 그 힘이 심웅절륜(沈雄絶倫)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끝없는 상심과 비분이 쌓여 있었다.

곽부 등은 그의 이 일검이 이와 같은 위력이 있음을 보고 저도 모르게 모두 놀라 멍하게 있었다. 어림잡아 보아도 이 석관은 화강석을 깎아 만든 두텁고 단단한 것으로, 이것이 두 조각으로 잘라지려면 큰 도끼와 큰 굴착기로 반나절의 공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만약 양과가 사용한 것이 산을 깎는 거대한 도끼나 등이 두터운 커다란 칼이었다면 말이 되겠지만 장검은 오히려 가볍고 날래게 움직이는 것을 위주로 하고, 보검은 날이 날카로운 것이니 이토록 두껍고 단단한 돌에 부딪쳤는데도 전혀 손상이 없이 마치 진흙 자르듯 돌을 잘랐던 것이다.

양과는 다섯 사람이 깜짝 놀라 서로 쳐다보는 것을 보고 사납게 호통을 쳤다.

[당신들은 무얼 하러 왔읍니까?]

무삼통이 말했다.

[양형제, 우리는 곽부인을 따라서 당신을 찾아왔소.]

양과는 노하여 말했다.

[당신들은 그녀의 딸을 빼앗아가려고 왔군요, 그렇죠? 이 조그만 아기 하나 때문에 당신들은 나의 사랑하는 처를 죽였단 말이오.]

무삼통이 놀라 말했다.

[당신의 사랑하는 처를 죽였다고요? 아, 용아가씨 말이군요.]

그는 소용녀가 신부의 옷을 있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알아차리고 서둘러 말했다.

[부인께서 맞은 독침의 해약을 곽부인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녀는 지금 밖에 있읍니다.]

양과는 피, 하고 코방귀를 뀌고는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이렇게 와서 소란을 피워 독이 이미 나의 사랑하는 처의 온몸의 대혈로 침투했읍니다. 곽부인이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녀가 설마 기사회생의 능력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무삼통은 양과가 이들을 구해 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극히 존경을 표시하여 그가 마구 꾸짖고 호통치는 말을 듣고도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중얼거렸다.

[독이 온몸의 대혈에침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곽부는 한편으로는 화가 났다. 그녀는 양과의 이 말 중에 그녀의 어머니에 대하여 자못 불경하는 태도가 있음을 보고 발끈 소리쳤다.

[우리 엄마가 당신에게 뭘 잘못 했어요? 당신이 어렸을 때 돌아갈 집이 없을 때 우리 엄마가 당신을 거두어 주지 않았나요? 그녀는 당신을 먹여 주고 입혀 주었는데 당신은, 흥, 당신은 줄곧 배은망덕하게도 나의 동생을 빼아갔어요.]

이때 그녀는 이미 동생이 비록 양과의 수중에 있었지만 그는 결코 악의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그와 말다툼을 벌이자 무슨 말이든 되는 대로 생각지도 않고 마구 지껄여 댔다. 양과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오늘부터 바로 배은망덕을 해야겠다. 네가 네 입으로 내가 아기를 빼앗아 갔다고 말했으니 내가 빼앗아서 영원히 돌려주지 않겠다. 자, 내가 어떻게 빼앗는지 볼 테냐?]

곽부는 왼팔에 힘을 주어 동생을 꼭꼭 껴안고 오른손의 횃불을 높이 들어 몸 앞을 막았다. 무삼통이 급히 외쳤다.

[양형제, 부인이 이미 중독이 되었으니 어서 해독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과는 처연하게 말했다.

[무형, 필요 없습니다.]

돌연 양과는 한마디 휘파람을 불며 오른쪽 소매를 말아 털어 냈다. 곽부 등 다섯 사람은 돌연 일진 질풍이 스쳐 오는 것을 느끼자 칼로 도려 내는 듯 얼굴이 따갑고 고통스러웠다. 5개의 횃불이 일제히 꺼져서 눈앞이 즉시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곽부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어이쿠!]

야율제는 양과가 그녀를 해칠까 봐 몸을 날려 나서는데 <으앙> 하고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미 석실을 나갔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데 아기의 우는 소리는 이미 몇 장 밖에 있어서 그 신법의 재빠름은 그야말로 귀신과 같았다. 곽부가 외쳤다.

[내 동생을 그에게 빼앗겼어요.]

무삼통이 외쳤다.

[양형제, 용아가씨! 양형제, 용아가씨!]

그러나 어디서 누가 대답을 하겠는가? 각자는 성냥도 없어서 어두컴컴하여 주변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야율제가 말했다.

[어서 나갑시다. 그가 여기를 닫으면 안 됩니다.]

무삼통이 노하여 말했다.

[양형제는 대인대의를 지니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오?]

곽부가 말했다.

[그의 인의는......, 어서 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여기서 뭘 하겠어요?]

막 이 말을 하는데 홀연 석관 속에서 킥킥, 하는 소리가 들렸다. 관뚜껑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소리는 매우 음침하게 들렸다. 곽부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귀신이닷!]

그리고는 곁에 있는 야율제의 팔을 꽉 잡았다. 무삼통 등이 들으니 소리를 분명히 석관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시체가 관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만 같았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모골이 송연해졌다.

야율제는 무삼통을 향하여 낮은 소리로 말했다.

[무숙부, 당신은 여기에 있으세요. 나는 저쪽에 있겠읍니다. 시체가 만약 튀어나오면 우리의 네 장풍을 일제히 펼쳐 근골을 부수어 버립시다.]

그는 손을 되돌려 곽부의 팔목을 잡고 그녀를 당겨 자기의 뒤에 서게 했다. 귀신이 사람을 해칠까 봐서였다.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관 속에서 무엇인가 날아 나왔다. 무삼통과 야율제는 이미 운공을 하여 힘을 쌓아 두었다가 바람소리를 듣고 동시에 내리쳤다. 두 사람의 수장이 그 물체에 부딪치자 일제히 <아차!>하고 소리를 질렀다. 원래 그들이 친 것은 길다란 돌덩이로, 관속에 놓아 두었던 석침(石枕)이었다. 두 사람은 일격에 전신의 힘을 모두 쏟아 그 석침을 맹렬하게 쳐내자 석관에 부딪쳐 어지러이 가루가 날려 석침은 몇 덩어리로 깨지고 동시에 바람소리가 일어나며 무엇인가가 몸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무삼통과 야율제가 다시 장풍을 내어 치려고 하는데 그 물체는 이미 사뿐히 날아가 석실 밖에서 후훗, 하고 냉소를 날리고 있었다. 이내 적막해지며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무삼통이 놀라 말했다.

[이막수다!]

곽부가 외쳤다.

[아니에요, 시체예요! 이막수가 어떻게 석관 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야율제는 <음>하는 소리만 낼 뿐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 귀신이니 뭐니 하는 것은 믿지 않았지만 만약 이막수라고 한다면 그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분명히 자기들과 함께 들어왔고 양

과와 소용녀는 여러 날 동안 이미 고묘에 있었는데 그녀가 어떻게 두 사람 밑의 관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인가? 무삼통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막수는 어디로 갔지?]

야율제가 말했다.

[이 묘 안에는 가는 곳마다 사문이 뚫려 있으니 우리는 우선 밖으로 나가야겠어요.]

곽부가 무삼통에게 말했다.

[내 동생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우리는 방법이 없다. 너의 엄마에게 반드시 무슨 묘책이 있을 것이니 모두 나가서 그녀의 분부를 듣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즉시 길을 찾아서 나와 시냇물 속으로 잠수하여 돌아왔다. 막 물 위로 빠져나오는데 눈앞이 온통 붉고 시내 좌우의 수풀에 온통 불이 붙어서 한 줄기 뜨거운 열기가 얼굴로 덮쳐 왔다. 곽부가 놀라 외쳤다.

[엄마, 엄마!]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갑자기 불이 붙은 커다란 나무가 곧장 쓰러져 야율제가 그녀를 잡고 위로 헤엄쳐 가까스로 피했다. 이때는 겨울이어서 초목이 건조하여 온산이 이미 불바다로 변했다. 다섯 사람은 비록 물 속에 잠겨 있었지만 큰 불이 엄습해 오자 얼굴이 화끈거렸다. 무삼통이 말했다.

[필시 몽고병이 중양궁을 공격하는 것에 실패하자 불을 놓아 산을 태워서 분을 푸는 것일 거야.]

곽부가 급히 외쳤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홀연 시내 왼쪽에서 한 여자의 그림자가 수풀 사이로 불을 피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곽부는 너무나 기뻐 소리쳤다.

[엄마, 엄마!]

우지직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두 그루의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 그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곽부는 연기와 불을 무릅쓰고 뛰어갔다. 그녀가 물 속에 있을 때 계속 간절히 어머니만 생각한데다가 어두컴컴한 고묘에서 나와 눈앞에 돌연 이상하리만치 밝은 빛이 펼쳐지자 눈이 어지러워 똑바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가까이 뛰어가자 비로소 그림자를 잘못 보았음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 사람이 돌연 몸을 돌리는데 바로 이막수였다.

원래 이막수는 양과에 의하여 석관 속에 갇힌 뒤, 도저히 달아날 방법이 없었다. 나중에 양과가 화가 치민 나머지 검을 휘둘러 위의 석관을 동강낼 때 아래의 관뚜껑까지갈라져 이막수는 구사일생으로 먼저 석침을 내던지고 이어서 튀어나온 것이었다.

그녀는 관 속에 갇힌 것이 비록 1시간도 채 안 되었지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나오자 관 속에서 실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참한 경우를 당하여 그 짧고 짧은 시간 중에, 그녀는 이를 갈면서 아직도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증오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내가 죽은 뒤에 반드시 귀신이 되어 양과를 죽이고, 소용녀를 죽이고, 무삼통을 죽이고, 황용을 죽이고......)

누구를 막론하고 그녀는 하나하나 모두 죽이려고 했다. 나중에 그녀가 비록 요행으로 도망쳐 목숨은 건졌지만 마음속에 쌓인 원한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그런 참에 홀연 곽부를 보자 즉시 얼굴에 미소를 띄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곽아가씨, 당신이었군요. 큰 불이 무시무시하게 번지고 있으니 조심해야죠.]

곽부는 그녀의 안색이 친절한 것을 보고 자못 뜻밖이어서 물어 보았다.

[우리 엄마를 못 보았어요?]

이막수는 몇 걸음 가까이 다가와 왼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에 없어요?]

곽부는 그녀의 손가락을 따라서 쳐다보았다. 이막수는 돌연 손을 뻗어 그녀의 허리 아래의 혈도를 누르고 웃으며 말했다.

[서두를 것 없어. 네 엄마가 널 찾으러 올 거야.]

큰 불이 사면팔방에서 다가오는 것을 본 이막수는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자기의 목숨도 보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몸을 날려 급히 서쪽으로 달렸다. 곽부는 땅에 쓰러져 있는데 이막수의 처량한 노랫소리만이 뜨거운 화염을 사이에 두고 전해져 왔다.

[세상 사람들에게 묻노니, 정이란 무엇이길래 생사를 가름하는가?]

노랫소리가 점차 멀어지면서 갑자기 짙은 연기가 바람을 따라 밀려와 곽부를 감쌌다. 그녀는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어 짙은 연기에 싸여 콜록콜록 기침을 해 댔다. 무씨 부자와 야율제는 물 속에 서서 머리와 얼굴에 온통 재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시내와 곽부의 사이에 뜨거운 불이 2,3 장 높이로 치솟아 네 사람은 그녀가 위급한 지경에 빠진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곽부는 연기에 그을려 기절할 것만 같았다. 울려고 해도 울 수도 없었다. 그때 홀연 동쪽에서 휘익, 하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한가닥 회오리바람이 한 회색 그림자를 싸고 닥쳐 오고 있었다. 회오리바람이 이르는 곳마다 화염이 양쪽으로 갈라져 잠깐 사이에 그녀의 앞까지 불어왔다. 바람 속의 그림자는 바로 양과였다. 곽부는 누군가가 와서 구해 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창 기뻐하고 있었는데 똑똑히 보니 양과라 옆에서는 비록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하여 생각했다.

(내가 죽음에 임박하자 그가 다시 와서 나를 조롱하려고 하는구나.)

그녀는 과연 곽정.황용의 딸답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양과를 노려보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양과는 그녀의 곁까지 뛰어와서 검을 들어 그녀의 허리 아래를 찌르며 외쳤다.

[조심해!]

하며 왼팔을 밖으로 휘둘렀다. 현철검에 그의 심후한 내력이 가해지자 곽부는 구름이나 안개처럼 공중으로 날아올라 10 여 그루의 불꽃이 하늘

로 치솟는 큰 나무를 넘어서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시냇물에 빠졌다. 야율제가 급히 땁어가 그녀를 일으키고 그녀의 눌린 혈도를 풀어 주었다. 곽부는 머리와 눈이 어지러워 정신을 못차리다가 잠깐 지난 뒤 와아, 하고 울음을 떠뜨렸다.

원래 양과는 소용녀와 곽양을 데리고 묘를 나와서 몽고병이 산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양과와 소용녀, 두 사람은 이 커다란 나무와 화초 사이를 몇 년 동안 넘나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불이 일어난 것을 보고 너무나 애석했지만 몽고군의 위세가 여간 대단하지 않아 대항할 수도 없었다. 양과는 소용녀의 독이 요혈과 내장으로 침투한 뒤에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몰라 즉시 초목이 드문 석굴을 찾아서 잠시 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곽부가 이막수에게 당하여 큰 불이 몸곁으로 타들어 가는 것을 보았다. 양과가 말했다.

[용이, 이 아가씨는 내 팔을 해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다시 와서 당신을 해치려고 하더니 오늘에야 마침내 이런 보답을 받는군요.]

소용녀의 맑은 눈빛이 그를 응시하더니 이상한 듯 말했다.

[여보, 설마 그녀를 구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양과는 한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녀가 우리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데도 내가 친히 그녀를 죽이지 않는 것은 그녀의 부모 때문이라오.]

소용녀는 탄식을 하며 말했다.

[우리의 불행은 우리의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 다른 사람이라도 즐겁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양과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큰 불이 곽부의 곁으로 타들어 가는 것을 보자 끝내 참을 수가 없어 시큰둥하게 말했다.

[좋아요. 우리의 운명은 괴롭고 다른 사람의 운명은 행복하군!]

양과는 곧 축축하게 물이 묻은 장포를 벗어서 현철검에 싸고 내력을 움직여 급히 휘둘러 검에서 생긴 바람으로 불을 물리치며 곽부를 위험

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다. 그가 소용녀의 곁으로 돌아오자 머리카락과 옷은 타고 아랫도리에는 불이 붙어서 즉시 쳐서 껐지만 다리에는 이미 화상을 입어 무수한물집이 생겨 있었다.

소용녀는 곽양을 안고 초목이 다 타 버린 곳으로 물러서서 손을 뻗어 양과의 머리카락과 옷을 정리해 주며 이런 영웅장부에게 시집을 왔다고 생각하니 마음속으로 저도 모르게 득의양양해졌다. 그녀는 거센 바람과 화염이 치솟는 사이에 우뚝 서서 양과에게 기댔는데 얼굴에는 평안하고 즐거운 기색이 감돌았다. 양과는 큰 불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에 붉게 어른거려 그 아름다움을 더하자 팔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이 순간 세상의 모든 시름과 고통, 슬픔과 비애를 잊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이 높은 곳에 서 있고 무씨 부자.곽부.야율제 등 다섯 사람은 시냇물 속에서 불을 사이에 두고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들 부부의 옷깃이 바람에 나부끼며 그 자태가 단엄한 것이 그야말로 신선 같았다. 곽부는 줄곧 양과를 우습게 보아 왔는데 이 순간에는 갑자기 부끄러움이 일어났다.

소용녀는 온산이 화염에 휩싸인 것을 바라보며 탄식을 했다.

[이곳이 깨끗이 타 버리고 다시 화초와 수목이 자라면 장래에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양과는 그녀가 이런 외물(外物)때문에 난처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웃으며 말했다.

[우리 둘이 신혼이라서 몽고병이 불을 놓아 축하를 해 주니 이보다 더 화려한 축하의 화촉이 어디 있으리오?]

소용녀는 살며시 웃었다. 양과가 말했다.

[그 동굴에 가서 잠시 쉬었으면 하는데 당신은 어때요?]

[좋아요!]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산 뒤로 걸어갔다.

무삼통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 듯 소리 높여 불렀다.

[양형제, 나의 사숙과 주사제가 절정곡에 갇혀 있는데 가서 그들을 구하지 않겠소?]

양과는 깜짝 놀라면서도 대답을 하지 않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아직도 이런 것들을 신경써야 하나?]

그는 마음속으로 신경쓰였지만 발걸음은 잠시도 늦추지 않고 곧장 초목이 자라지 않는 산 뒤의 난석더미로 들어갔다. 소용녀는 비록 깊이 중독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발작을 하지 않았고 혈맥이 뚫린 뒤에 무공이 점차 회복되어 곽양을 안고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두 사람은 반 시간쯤 가서 중양궁과는 이미 멀리 떨어졌다. 고개를 돌려 멀리 바라보니 하늘의 반은 큰 불로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다.

북풍은 불면 불수록 매서워 곽양의 조그만 얼굴은얼어서 사과처럼 붉게 되었다. 소용녀가 말했다.

[우리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찾아야겠어요. 아기가 춥고 배가 고파서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나도 정말 바보군. 이 아기를 빼앗아 와서 뭘 어쩌겠다고 그랬을까? 쓸데없이 고생만 하는군......]

[이 아기는 정말로 사랑스러워요. 당신이 설마 좋아하지않는 건 아니겠지요?]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의 아기가 뭐 사랑스러워요? 우리에게서 태어난 아기라면 몰라도......]

소용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양과의 이 말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정을 자극했다.

(만약 내가 당신을 위하여 아기를 하나 낳아 줄 수 있다면......아, 내게 어찌 이런 복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양과는 그녀가 상심할까 봐 감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서북쪽의 잿빛 구름이 무거운 납덩어리처럼 머리를 내리누를 것 같았다.

[하늘을 보니 큰 눈이 올 것 같소. 어디 인가를 찾아 숙소를 빌리는 것이 좋겠소.]

그들은 불길을 피하기 위하여 줄곧 산 뒤의 황량하고 길이 없는 곳을 택해서 갔는데 땅에는 온통 난석과 가시덤불이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바라보니 10여 리 안에는 전혀 인적이 보이지 않았다. 양과가 말했다.

[이번의 눈은 결코 적게 내릴 눈이 아니오. 큰 눈이 산을 뒤덮으면 큰일이오.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오늘 중으로 산을 내려가야겠어요.]

[무삼숙.곽아가씨 등이 몽고병을 만나지나 않았을까? 전진교의 도사들은 목숨이나 제대로 건졌는지 모르겠군요.]

말투에는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양과가 말했다.

[당신같이 좋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당신에게 좋지않게 대했는데 당신은 도리어 그들을 생각해 주고 있으니...... 당년에 사조께서 당신이 마음씨가 너무 착한 것을 알고 이후에 고난을 당할까 봐 당신에게 무정무욕을 수련하도록 하여 무슨 일이건 신경쓰지 못하도록 한 것 같소. 하지만 당신이 일단 나를 마음속에 그리게 되자 10여 년 동안 수련 했던 공을 모두 버리고 사람 사람마다 모두 관심을 두는 것만 같구료.]

소용녀는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나는 당신을 위하여 마음을 졸이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 괴로움 중에서도 즐거움이에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당신이 내가 생각해주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지는 않을까 하는 것뿐인데.]

[큰 고통과 큰 즐거움은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소. 나는 어리석은 짓만 할 줄 알아 태평하고 평안한 나날을 보낼 수는 없답니다.]

소용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 둘이 남방으로 가서 밭을 갈고 닭을 키우고 햇빛을 쬐며 지내자고 하지 않았나요?]

양과는 탄식을 하며 말했다.

[나는 오직 그럴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오.]

다시 몇 리를 가자 하늘에서 눈이 나부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씩 내렸으나 북풍이 점차 거세지면서 눈도 내릴수록 커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속에서 경공을 펴서 빨리 가는 것도 별다른 흥미가 있었다. 소용녀가 갑자기 말했다.

[여보, 나의 사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당신은 또 그녀에게 관심을 두고 있군요. 이번에 그녀를 죽이지 못했으니 혹시......, 혹시......]

그는 본래 <혹시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서 이후에 다시 그녀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소>라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소용녀의 상심을 불러일으킬까 봐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소용녀가 말했다.

[사자도 사실은 너무 불쌍해.]

[그녀는 자기 혼자만 불쌍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처럼 상심하기를 원하고 있소.]

말을 하는 사이에 하늘은 이미 더욱 어두워졌다. 산허리를 돌자 홀연 두 그루의 카다란 소나무 사이에 2개의 조그만 나무집이 있는 것이 보였다. 지붕에는 이미 흰 눈이 1촌 이상이나 두텁게 쌓여 있었다. 양과는 기뻐하며 말했다.

[좋아요, 여기에서 하룻밤 묵도록 합시다.]

가까이 뛰어가 보니 판자로 된 문이 반쯤 닫혀 있고 눈이 쌓인 집 밖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다. 그는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나가는 사람인데 눈을 만나서 하룻밤 묵어 갔으면 합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양과가 판자문을 여니 방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탁자와 의자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어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음이 분명하여 소용녀를 불러 방안으로 들어오도록 했다. 그녀는 판자문을 닫고 모닥불을 지폈다. 나무집의 판자벽에는 활과 화살이 걸려 있고 집 모퉁이에는 토

끼를 잡는 덫이 놓여 있어, 보아하니 이 집은 사냥꾼이 잠시 거처하는 곳인 것 같았다. 또다른 방안에는 침상과 탁자가 있었는데 침상 위에는 이미 다 떨어진 이리 가죽 몇장이 쌓여 있었다. 양과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나가서 노루 한 마리를 잡아 가지고 돌아와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꺼낸 뒤, 눈으로 씻어서 불 위에 굽기 시작했다.

이때 밖에는 커다란 눈송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방안은 환한 불빛 속에서 마치 봄처럼 따뜻했다. 소용녀는 다 익은 노루고기를 물어뜯어 잘게 씹어서 곽양의 입게 넣어 주었다. 양과는 노루를 불 위에서 이리저리 뒤집으며 따스한 미소를 머금고 그녀들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소나무들이 탁탁, 하며 튀고 고기 굽는 냄새가 흘러나와 황량한 산의 나무집 안은 따스한 향취가 물씬 풍기는 별다른 세상이었다.

용(龍)과 봉(鳳)

그러나 이러한 안온함은 얼마 가지 못했다. 곽양이 잠들고 얼마되지 않아 멀리 동쪽편에서 삭삭, 하고 눈 밟는 소리가 매우 빠르게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들렸다. 양과는 몸을 일으켜서 동쪽 창밖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이 눈길을 나란히 걸어오는 게 보였다. 한사람은 뚱하고 또 하나는 마르고 의복이 남루한 게, 보아하니 개방의 사람들 같았다. 이렇게 눈보라가 치므로 반드시 이곳에 머물고자 할 것임에 틀림없었다. 양과는 지금 어떤 세상 사람도, 더구나 무림의 인물은 더욱 증오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린 뒤 말했다.

[밖에 누군가 오고 있어요. 당신은 안쪽의 침대에 누워서 병이 난 것처럼 가장해요.]

소용녀는 곽양을 안고서 내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다 떨어져 너덜너덜한 이리 가죽을 몸에 덮었다.

양과는 숯검정을 집어서 얼굴에 칠하고는 모자를 깊숙이 내려 썼다. 현철검을 내실에 감추자 두 사람은 곧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다. 양과는 노루의 기름을 옷에 뿌리고는 사냥꾼인 양 가장했다. 바로 이때에 문이

열렸다.

뚱뚱한 늙은 거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산중에서 이처럼 큰 눈을 만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읍니다. 원하건대 나으리께서 편의를 보아 저희들 거지에게 하루를 묵어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보잘것없는 사냥꾼인데 무슨 나으리라 부르십니까? 원하신다면 쉬어 가시지요.]

그 뚱보 거지는 계속해서 감사를 표했다. 양과는 일찍이 자기가 영웅대회에서 크게 솜씨를 발휘한 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잘 구워진 노루 뒷다리 2개를 떼어서 건네 주었다.

[큰 눈이 오면 정말 일하기가 좋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서 여우 몇 마리를 잡을 생각입니다. 그때는 당신들과 함께 갈 수가 없읍니다.]

뚱뚱한 늙은 거지가 말했다.

[나으리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양과는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큰누님, 기침은 좀 어떠한가요?]

[하루가 다르게 가슴이 점점 아파 오는데......]

이 말을 하고 소용녀는 큰소리로 한바탕 기침을 하면서 손을 뻗어 곽양을 흔들어 깨웠다. 소용녀의 기침소리에 곽양의 울음소리가 섞이자 이 사냥꾼의 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었다.

양과는 내실로 들어가서 꽝, 하며 판자문을 닫고 소용녀 곁에 누웠다.

(이 뚱보 거지가 매우 낯이 익은 게 어디에선가 본 것 같다.)

그러나 어디에서 봤는지 금방 생각나지는 않았다.

이 뚱보와 마른 두 거지는 양과가 정말로 산속에 사는 가난한 사냥꾼으로 생각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노루 뒷다리를 씹으며 말하기 시작했다. 먼저 마른 거지가 입을 열었다.

[종남산에 큰 불이 일어나서 하늘로 치솟았는데 이젠 불길이 잡혔겠읍니다.]

뚱보 거지가 대꾸했다.

[몽고의 대군은 사방을 휩쓰는 천하의 무적이다. 전진교의 그 변변치 않은 도사놈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마치 개미집을 밟듯이 죽였을 것이다.]

[그런데 며칠 전 금륜법왕의 무리들이 크게 패하여 돌아갔지 않았읍니까? 이 어찌 낭패가 아닙니까?]

뚱보 거지가 엷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참 잘 된 일이야. 중국의 금수강산을 획득하려면 반드시 중국인에게 의지해야지, 결코 몽고나 서역의 무사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왕자님이 알게 해 준 일이지.]

[팽장로, 이번에 남파(南派)의 개방이 잘 이루어지면 몽고 황제가 당신에게 무슨 벼슬을 내려 주지않을까요?]

양과는 여기까지 듣고서야 돌연 생각이 났다. 이 뚱보 거지는 바로 대승관 영웅대회에서 가죽옷을 입고 담요를 두른 몽고의 복장을 하고서 시시때때로 금륜법왕의 귓가에 대고 계책을 일러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원래 이 두 놈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구나. 빨리 처치해 버려 이곳이 소란해지지 않도록 해야겠군.)

이 뚱보 거지는 바로 개방의 4 대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인 팽장로로, 일찌기 몽고에 투항한 인물이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대한(大汗)이 내려 주신 <진남대장군(鎭南大將軍)>의 벼슬은 말로만 벼슬이지......, 3 년 동안이나 밥을 구걸하였다. 우리 개방 사람들이 무슨 벼슬을 생각하겠는가?]

그는 이렇게 말했지만 말투는 매우 득의만만했다.

[동생인 제가 우선 축하드립니다.]

팽장로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 몇년 간 자네의 공로도 적지 않으니 자연 자네의 몫도 적지는 않을 것이네.]

[벼슬을 하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 했읍니다. 내가 팽장로의 섭혼대법

(攝魂大法)을 배우고자 하는데 도대체 언제쯤 저에게 전수해 주시겠습니까?]

[남파의 개방이 정식으로 일어나 내가 방주가 된다면 우리 두 사람은 한가하게 될 걸세. 그때 내 너에게 전수해 주지.]

[당신이 남파 개방의 방주가 되고 다시 몽고의 진남대장군이라는 벼슬을 받으면 점점 더 바쁘게 될 텐데 무슨 한가한 틈이 있겠습니까?]

[동생, 설마 이 형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은 아니겠지?]

마른 거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양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천하에는 단지 한 개의 개방이 있어서 남북을 나누지 않았다. 그가 만들려고 하는 무슨 남파 개방은 확실히 몽고놈들을 도우려는 수작임에 틀림없다.)

마른 거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팽장로, 전수해 주시기로 한 것은 일찍 전수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늘 미루어 오니 제가 그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제가 감히 뭐라고 합니까? 다만 저의 무공이 보잘것없고 용기도 부족한데다 또 뛰어난 기술도 몸에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당신과 함께 개방의 형제들을 속이는 이 일을 하다가 나중에 황방주, 노방주가 저를 추궁한다고 생각하면 놀라서 온몸이 떨리니 차라리 일찌감치 손을 씻는 것이 저에게는 좋을 것 같군요.]

이 말을 듣고 양과는 생각에 잠겼다.

(마른 거지는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겠구나. 감히 이런 말을 지껄이다니. 이 팽장로는 가슴에 야심을 품고 있어 매우 흉악하다. 네 놈은 간악하고 또한 미련하구나.)

팽장로는 크게 웃었다.

[이 일은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자. 더 이상 이 일에 신경쓰지 말아라.]

그 마른 거지는 말이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 작은 노루 뒷다리로는 배가 차지 않으니 제가 다시 나가서 짐승을 잡아 오겠읍니다.]

하고 말하고는 벽에 걸려 있는 활을 들고서 밖으로 나갔다.

양과는 나무벽 사이로, 이 마른 거지가 문을 나서자 팽장로가 즉시 몸을 일으켜 단도를 뽑아 들고 문 뒤에 몸을 숨겨서 그의 발소리가 멀어짐을 듣고는 천천히 문을 나서는 것을 보았다. 양과는 소용녀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 두놈은 서로를 해치려 하니 내 수고를 덜어 주겠군요. 뚱보거지가 보통이 아니니 마른 거지는 결코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되돌아와 이 나무집이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돌연 양과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무슨 발자국소리가 들려요.]

서쪽에서 누군가 산허리를 타고 돌아서 집 뒤에 이르렀다. 양과는 가볍게 웃었다.

[그 마른 거지가 뚱보 거지를 습격하려고 돌아왔구나.]

양과는 가볍게 창을 밀고 뛰쳐나갔다. 과연 마른 거지가 몸을 낮추고는 벽 틈으로 엿보는 것이 보였다. 그는 팽장로가 보이지 않자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다. 양과는 그의 등뒤로 가서 후후, 하고 웃었다.

마른 거지는 뜻밖의 이 일에 급히 고개를 돌렸다. 팽장로가 등뒤에 온 것으로 알고는 얼굴에 놀라는 빛이 가득했다. 양과는 웃었다.

[놀라지 마십시오.]

손을 내밀어 그의 가슴, 옆구리, 넓적다리 세 곳에 있는 혈도를 눌러서 그를 문 앞으로 끌고 갔다. 온 세상에 새하얀 눈이 쌓이자 돌연 동심이 생겨났다.

[용이, 빨리 나와서 눈사람 만드는 것 좀 도와 줘요.]

하며 땅 위에 있는 흰 눈을 손으로 움켜쥐고 마른 거지의 몸에 쌓았다.

소용녀도 집에서 나와 양과를 도우며 두 사람은 눈사람을 만들었다. 잠시 후 마른 거지의 온몸에는 흰 눈이 쌓였다. 이 마른 거지는 두 눈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완전히 뚱뚱한 큰 눈 사람이 되었다.

[이 말라빠진 거지가 잠시만에 이처럼 하얗고 뚱뚱하게 변했네.]

[원래부터 뚱뚱하고 하얀 늙은이가 아니었나요?]

양과는 대답을 하지 않고 먼 곳에서 발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는 속삭였다.

[뚱보 거지가 돌아와요. 우리 빨리 숨읍시다.]

두 사람은 방으로 돌아와서 방문을 닫았다. 소용녀는 곽양을 흔들어 울리고는 입으로 계속 아기를 얼렀다.

[아가야, 울지 말아라.]

그녀는 일생 동안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빈틈없는 태도는 그녀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단지 양과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이 같은 장난을 쳤던 것이다.

팽장로는 돌아와서 눈 위에 나 있는 발자국을 자세히 살폈다. 마른 거지의 발자국이 갔다가 되돌아왔음을 보고는 반드시 근처에 숨어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서 집 뒤에 갔다가 다시 집 앞으로 돌아왔다. 양과와 소용녀는 나무벽 틈으로 밖의 정황을 살펴보았다. 그는 몸을 숙이고 창문 틈을 통해서 방안을 살피며 오른손에 단도를 들고는 경계를 하고 있었다.

마른 거지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느꼈지만 눈앞에 팽장로가 서서 계속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단지 손을 내밀어 휘두른다면 능히 그를 해치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몸에 있는 중요한 혈도를 눌려서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팽장로는 방안에 아무도 없음을 알고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문을 밀고서 그 마른 거지가 어디로 갔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이때 돌연 먼 곳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팽장로의 얼굴빛이 음흉하게 변하더니 몸을 숙여 문 뒤에 숨어서는 그 마른 거지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양과와 소용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 마른 거지는 분명히이미 눈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온단 말인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원래 새로운 손님이 나타난 것이다. 팽장로는 소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자 매우 당황했다.

집 밖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무아미타불, 소승은 산 속에서 큰 눈을 만났읍니다. 원하건대 하룻밤 묵어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팽장로는 급히 몸을 돌려 나갔다. 눈 위에 스님 둘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스님은 흰 눈썹을 휘날리는 자상한 모습이었고, 다른 한 스님은 키가 작고 푸르스름한 구레나룻을 기르고 몸에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차가운 동짓날이었지만 두 사람의 옷은 매우 얇아 보였다.

팽장로가 놀라고 있는 동안에 양과가 방에서 나왔다.

[두 분 스님은 안으로 드시지요. 어찌 집을 두고 지나칠 수 있겠읍니까?]

이 순간에 팽장로는 마른 거지가 변해서 된 눈사람을 보았다. 잠시 살펴보고 즉시 그가 왜 이처럼 이상하게 변했는지 매우 놀랐다. 눈을 돌려서 양과는 쳐다보았으나 그에게는 이상한 기색이 없었다.

양과는 두 중을 반갑게 안으로 맞아들이며 생각했다.

(이들 두 중을 보아하니 보통의 무리가 아니다. 특히 이 검은 옷을 입은 중은 얼굴이 흉악하고 눈에서 이상한 빛이 나고 있으니 이 팽장로와 소란을 피울까 걱정되는구나.)

[큰 스님, 이곳이 편하시면 하루 머물고 가시지요. 저희들은 산 속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라 스님들께 드릴 만한 침대가 없읍니다만, 두 분께서는 고기를 드시는지요?]

흰 눈썹의 스님이 공손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들은 마른 음식을 갖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참 잘됐읍니다.]

양과는 내실로 들어가서는 소용녀의 귓가에다 속삭였다.

[두 중을 보아하니 대단한 고수인 것 같아요.]

소용녀는 눈썹을 찡그렸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이 깊은 산 속조차 편안하지 못하군요.]

양과는 나무벽 사이로 살펴보았는데, 흰 눈썹의 중이 배낭에서 네 덩이의 볶음국수를 꺼내어 검은 옷의 중에게 두 덩이를 주고 다른 두 덩이는 자기가 천천히 씹고 있었다. 양과는 잠시 생각했다.

(이 흰 눈썹의 중은 모습이 온화하고 행동이 조용하여 정말로 도가 있는 고승 같구나. 그러나 세상에는 얼굴은 선한데 마음이 악한 자가 많지. 이 팽장로도 얼굴 가득 웃는 모습만으로는 어찌 평온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 검은 옷의 중은 어찌 이처럼 흉악한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돌연 찰칵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곳을 입은 중이 품속에서 철로 만든 검은 물건 2개를 꺼냈다. 팽장로는 이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놀라서 즉시 일어나 칼자루를 손에 쥐었다. 검은 옷의 중은 그를 모르는 체 무시했다. 챙챙, 하며 1개의 검은 물건이 자기의 다리를 휘감았다. 원래 이것은 철로 만든 수갑이었다. 다른 하나의 수갑은 자기의 양손을 단단히 죄었다. 양과와 팽장로는 모두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그가 무슨 이유로 자기의 손발에 수갑을 채웠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하자 그에 대한 경계의 마음이 다소 풀어졌다.

흰 눈썹의 스님은 얼굴에 근심 어린 표정이 가득했다.

[다시 발작을 하려고 하느냐?]

검은 옷의 중이 말했다.

[제가 계속 나쁜 생각을 해 다시 발작을 할까 근심했읍니다.]

하며 돌연 땅에 꿇어앉아서는 두 손을 가볍게 모았다.

[부처님의 자비로 소승을 구해 주십시오.]

그는 이 말을 하고 난 후 고개를 숙이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꿇어앉았다. 얼마 후, 몸이 가볍게 떨리면서 입으로 숨을 쉬었다. 점점 숨소리가 커지며 나중에는 소가 숨을 쉬는 것처럼 되어 나무로 된 집의 나무벽이 숨소리에 흔들리고 지붕 위에 쌓였던 눈이 와르르 땅으로 쏟아졌다. 팽장로는 너무 놀라서 가슴이 뛰었으며 양과와 소용녀는 이상한 듯 서로 쳐다보며 이 중이 어째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다. 숨소리를 듣자하니, 마치 그의 몸이 지금 커다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양과는 원래 그에게 짙은 적대감을 갖고 있었으나 이때는 동정의 마음이 저절로 일었다.

(그가 무슨 괴상한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나, 어찌 흰 눈썹의 중은 모르는 체하는가?)

얼마 후 검은 옷의 중은 숨소리가 더욱 다급해져 거의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흰 눈썹의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못 함으로 해서 번뇌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으로......]

이 조용한 몇 마디의 말은 비록 소의 숨소리 같은 검은 옷 중의 숨소리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똑똑히 들려왔다. 양과는 겁을먹었다.

(이 늙은 스님의 내공이 대단히 심오하구나.)

흰 눈썹 스님의 말소리가 계속 들렸다.

[만약 사람이 죄를 짓고서 참회하면 더 이상 근심이 되지 않는다. 또한 마음이 평온해지면 잡념이 생기지 않는다. 마음으로 참회를 하지 않는 까닭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이다. 모든 나쁜 행동을 이미 행했다면 다시 저지르지 않기란 매우 힘든 법!......]

그의 말이 끝나자 검은 옷의 중이 조용해지며 멍청하게 생각에 잠겼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만약 사람이 죄를 짓고 참회하면 더 이상 근심이 되지 않는......, 사부님, 이 못난 제자는 과거의 죄를 생각하고는 번뇌에 빠져서 자신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저는 <모든 나쁜 행동을 이미 행했다면

다시 저지르지 않기란 매우 힘들다>라는 말이 걸려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죄를 범하고 참회를 하는 것은 원래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성현군자가 아닌 이상 어찌 허물이 없겠느냐? 잘못을 알고 능히 고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양과는 이 말을 듣고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곽백부가 나에게 <과(過)>라는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그 뜻은 <개지(改之)>다. 즉, <허물을 알아서 능히 고친다면 이보다 더한 착함은 없다>라는 뜻이다. 설마 이 스님이 성승(聖僧)으로 나를 교화하러 오늘 찾아오신 것이 아닐까?)

검은 옷의 중이 말했다.

[소자의 악근(惡根)은 뽑아 버리기 힘듭니다. 제가 사부님에게 귀의한 십여 년 동안 이미 세 사람을 상하게 하였읍니다. 오늘 몸 속에서 뜨거운 피가 들끓어서 자제하기 어려워 다시 큰 죄를 범할까 두렵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써 소승의 두 손을 베어 주십시오.]

[선(善)이다! 선이야! 나는 능히 너를 대신해서 너의 두 손을 자를 수 있지만 네 마음속의 악념은 반드시 네가 제거해야 한다. 만약 악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수족을 자른들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검은 옷의 중은 온몸에 우드득 소리를 내면서 돌연 대성통곡을 했다.

[사부님의 여러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는 악념을 제거할 수 없읍니다.]

흰 눈썹의 스님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비록 과거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지만 네 마음속에는 증오가 가득 차 인애(仁愛)가 부족하니 항상 악념을 제거할 수가 없다. 내가 <불설녹모경(佛設鹿母經)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제자는 공손히 듣겠읍니다.]

하고 말하며 그는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양과와 소용녀도 나무벽을 사이에 두고 숙연하게 들었다.

흰 눈썹의 스님이 입을 열었다.

[옛날에 어미 사슴이 있었는데 두 마리 귀여운 새끼 사슴을 낳았다. 어미 사슴은 잘못해서 사냥꾼에게 사로잡혔는데 사냥꾼은 사슴을 죽이려 했지. 어미 사슴은 머리를 조아리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내게 새끼 두 마리가 있는데 너무 어려서 물과 풀을 찾아다니지 못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신다면 내가 그들에게 음식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다시 당신에게 돌아와서 죽겠읍니다.> 사냥꾼은 처음에는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어미 사슴이 계속 애원을 하자 사냥꾼은 마침내 감동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 어미 사슴은 두 마리의 새끼 사슴에게 돌아와서 꼭 껴안고 흐느끼며 그들을 핥았다. 마음속으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모든 사랑과 은혜는 인연으로 만나고, 만나면 헤어져서 오래 계속될 수 없다. 오늘 이 엄마가 잘못해서 생명이 아침 이슬과 같은 처지에 놓였구나.> 두 어린 사슴들은 그 뜻을 자세히 알 리가 없었지. 어미 사슴은 어린 사슴들을 데리고 맛있는 풀을 가르쳐 주면서 눈물과 콧물을 흘렸다. <오늘 내 운수가 좋지 못해 사냥꾼에게 잡혔다. 즉시 죽어야 했지만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돌아가면 곧 죽어야 한다. 너희들이 불쌍하지만......, 열심히 살아라.>]

소용녀는 이 말을 듣고 자기의 목숨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자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양과는 이 흰 눈썹의 스님의 말이 불가의 우언(寓言)임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의 간절한 정이 서술되어 있음에 더욱 감동했다.

흰 눈썹의 스님이 계속 말했다.

[어미 사슴은 말을 마치고 어린 사슴들과 헤어졌지. 어린 사슴들은 흐느끼며 어머니에 대한 정으로 어미 사슴을 따라갔다. 비록 어린 사슴의 걸음이 빠르지 못하고, 또한 몇 번 굴렀다가 다시 일어났어도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지. 어미 사슴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말했다. <아가야!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만약 사냥꾼이 너희들을 본다면 우리들은 함께 목숨을 잃게 된다. 세상은 무상해서 모든 것은 다 헤어진다. 내가 박명하여 너희들을 어려서부터 고생하게 만드는구

나.> 이 말을 끝내고 어미 사슴은 사냥꾼의 앞에 이르렀다. 두 어린 사슴도 엄마에 대한 애정이 간절해서 사냥꾼의 화살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따라와 사냥꾼 앞에 이르렀다. ......사냥꾼은 사슴이 목숨을 버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고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굳은 절개라고 생각했다. 다시 세 마리의 사슴이 서로 헤어지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는 가련한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모두 풀어 주었다. 세 마리 사슴은 기뻐서 흐느끼며 사냥꾼에게 인사를 했지. 사냥꾼은 이 일을 국왕에게 보고해 전국에 사냥이란 행위를 중지시키게 하였다.]

검은 옷의 중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눈물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다.

[이 사슴은 의를 중하게 여겼고, 어미는 자애로우며 새끼들은 효성스러우니...... 소자가 결코 만분의 일도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면 살생의 뜻이 사라지느니라.]

하고 말하고는 옆에 있는 팽장로를 쳐다보며 마치 그를 교화시키려는 뜻이 있음을 비추었다.

[네!]

[만약 잘못을 뉘우치려면 오직 선을 행해라. 과거의 잘못을 통탄하는 것은 이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많이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리고 그는 가볍게 탄식을 했다.

[나도 일생 동안에 허다한 잘못을 저질렀었지.]

라고 말한 뒤에 눈을 감고는 생각에 잠겼다.

검은 옷의 중은 비록 깨달은 바가 있었지만 마음속의 번뇌를 자제하지 못하고는 고개를 들었다. 팽장로가 야릇하게 웃으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자기를 보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놀랐다. 어느 곳에선가 이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음을 느끼며, 또 그의 시선이 매우 불편해서 눈을 피했다. 그러나 잠시 후, 참을 수 없어서 그를 쳐다보았다.

[큰 눈이 내리고 있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팽장로의 이 말을 듣고 검은 옷의 중이 외쳤다.

[네, 참 큰 눈이 내리네요.]

[자, 우리 밖에 나가서 설경이나 구경할까요?]

하고 말하고는 문을 밀고 나갔다. 검은 옷의 중이 외쳤다.

[좋지요. 설경을 보러 갑시다.]

하고 일어서서 그와 나란히 문 앞에 섰다. 양과는 비록 나무벽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팽장로의 눈빛이 이상한 것을 보고는 속으로 은근히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팽장로가 말을 꺼냈다.

[당신 사부의 말은 맞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온몸에 힘이 넘쳐서 만약 사람과 상대하지 않는다면 속이 매우 불편하지 않습니까?]

검은 옷의 중은 멍청하게 대꾸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눈사람에게 힘을 써 보시지요. 한번 힘껏 쳐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죄가 아니니까요.]

검은 옷의 중은 눈사람을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시험을 해보려 했다. 이때는 벌써 그들 두 중이 도착한 지 30여 분이 지나 이 마른 거지의 몸에 다시 한 층의 눈이 쌓여 그의 두 눈조차 눈 속에 파묻혔을 때였다.

[두 손을 함께 내뻗어서 눈사람을 쳐 보세요. 치세요, 어서 쳐요.]

말씨는 부드러웠으나 유혹의 뜻이 가득했다. 검은 옷의 중은 힘을 팔에 모아서 지껄였다.

[좋지, 내가 한번 쳐 보겠소.]

흰 눈썹의 스님이 고개를 들고는 긴 한숨을 쉬었다.

[살기가 일어났으니 업(業)이 생기는구나.]

펑, 하는 소리에 검은 옷 중의 두 손이 날아가자 백설이 휘날렸다. 눈사람 속에 있던 마른 거지는 검은 옷 중의 일격에 혈도가 풀리며 <아>하고 비명을 질렀다. 소리는 너무 날카로와 멀리까지 전해졌다. 소용녀는 가볍게 숨을 내쉬고 양과의 손을 잡았다.

검은 옷의 중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눈 속에 사람이 있다니......!]

흰 눈썹 스님이 급히 달려가 살펴보았다. 이 마른 거지는 내공이 심오한 검은 옷 중의 철장을 맞아서 이미 목숨이 끊어졌다. 검은 옷의 중은 정신이 혼미해져 멍청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팽장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 사람 정말로 이상한데 눈 속에 숨어서 무엇을 했지? 아, 어째서 그의 손에 칼도 쥐고 있을까?]

그는 섭혼대법으로 검은 옷의 중을 시켜서 마른 거지를 죽게 만들자 속으로 매우 기뻤으나 한편으로는 놀라운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내력(耐力)으로 눈 속에 숨어서는 꼼짝도 하지 않았구나. 귀가 눈으로 막혀서 내가 이 중놈에게 공격하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말인가?)

검은 옷의 중이 소리쳤다.

[사부님!]

흰 눈썹의 스님이 중얼거렸다.

[업이로다, 업이야. 이 사람을 네가 죽이지 않았다고 해도 네가 죽인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검은 옷의 중은 눈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소자는 그 사실을 몰랐읍니다.]

[네가 이 눈사람을 해칠 마음이 원래 없었다고 하여도, 정녕 손에 힘을 주어 칠 때에도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뜻이 없었단 말이냐?]

[소인은 확실히 사람을 해칠 마음이 있었읍니다.]

흰 눈썹의 스님은 잠시 동안 눈을 돌리지 않고 팽장로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부드러움이 흘렀으며 연민의 정이 가득했다. 이 한번의 눈빛으로 팽장로의 섭혼대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검은 옷의 중이 갑자기 소리 질렀다.

[당신......, 당신은 개방의 장로가 아닌가. 이제 막 생각이 났다!]

팽장로의 야릇한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양미간에 전혀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철장방의 구방주가 아닙니까? 어찌 스님이 되셨는지요?]

이 검은 옷의 중은 바로 철장방의 방주인 구천인이었다. 일전 화산꼭대기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일등대사의 문하에 귀의해서 중이 된 것이었다. 이 흰 눈썹의 늙은 스님이 바로 왕중양.황약사.구양봉.홍칠공과 이름을 나란히했던 일등대사였던 것이다. 구천인은 머리를 삭발하고 법명을 자은(慈恩)이라 받은 후 성심껏 불가에 귀의해서 열심히 도를 닦았다. 그러나 과거에 저지른 악행(惡行)이 너무 많아 가슴속의 악근(惡根)을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특히 외부의 강한 유혹을 받으면 일을 저질러 사람을 상하게 하는 까닭에 2 개의 수갑을 만들어 마음이 혼란해지면 즉시 수족을 묶어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했다. 이날 일등대사는 호광남로(湖廣南路)의 은거지에서 제자 주자류의 도움을 청하는 글을 받고는 자은을 데리고 절정곡으로 가던 길이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깊은 산속에서 팽장로를 만나 자은은 본의 아니게 벌써 한 사람을 죽였다.

자은은 출가 이후 10 여 년 간 비록 불가의 계율을 몇 번 위반했지만 사람을 죽인 것은 처음이었다. 잠시 당황했으나 과거 10 여 년 간의 수도가 이 순간에 무너짐을 깨달았다. 그는 무섭게 팽장로를 노려보았다. 곧 무슨 일인가 터질 것 같았다.

일등대사는 이 급박한 상황에 만약 무공으로 그가 난동을 막는다면 마음속의 악념이 점점 쌓여서 마침내 폭발하는 날이면 수습할수 없게 됨을 알고는단지 착한 마음이 생겨나 악념을 제거해 구도의 경지에 들어가기를 희망했다. 그는 자은의 곁에 서서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계속해 7,80 번을 중얼거리자 자은의 눈길이 팽장로에게서 떨어졌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서는 바닥에 앉자 다시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팽장로는 일찍부터 구천인의 무공이 뛰어남을 알고 있었으나 일등대사

는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눈처럼 하얀 눈썹에 행색이 초라한 이 중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섭혼대법으로 구천인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했으나 일등대사와 눈길이 마주치자 자기의 마음이 마치 천근 만근에 눌리는 것 같아 다시는 대법을 펼칠 수 없게 되자 매우 당황했다. 만약 도망을 친다면 이 구천인의 별명이 철장수상표로, 그는 경공이 대단해 눈위에도 발자국이 남지 않으니 어찌 도망칠 수 있겠는가, 단지 그가 선을 행하라는 흰 눈썹 스님의 말을 들어서 자기가 화를 피할 수 있게 되기만을 희망했다. 그는 한쪽 구석에 몸을 움츠리고 매우 불안한 듯 서 있었다. 자은의 숨소리가 점점 급해지자 그의 마음도 점점 동요했다.

양과는 일등대사가 사슴 이야기를 듣고서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은 삶을 즐거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생각이 들자 이 마른 거지의 행동이 사악해 죽어 마땅하지만 이러한 불상사를 만나서 죽게 되자 마음이 아팠다. 또 자은의 장력이 보통이 아님을 보고 이 중이 누구이길래 이처럼 강한 무공을 지니고 있는지 몰라 궁금했다.

자은의 숨소리가 커지며 크게 소리쳤다.

[사부님, 저는 원래 악한 놈으로 하늘도 저의 참회를 받아 주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비록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해도 결국 목숨을 해치고 말았으니 더이상 중 노릇을 못 하겠읍니다.]

[죄로구나, 죄다! 내가 다시 너에게 불경의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주겠다.]

[또 무슨 불경을 들려주시려고요? 당신은 나를 십 년간 속였읍니다. 다시는 믿지 않겠읍니다.]

찰칵 찰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손과 발을 옥죄던 수갑의 쇠줄이 끊어졌다.

[자은, 이미 저지른 잘못은 번뇌할 필요가 없다.]

자은은 일어서서 일등대사를 향해 고개를 흔들고 돌연 몸을 돌려서 팽장로의 가슴에 일격을 가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에 팽장로는 나무벽을 뚫고 날아갔다. 이 철장(鐵掌)을 휘두르면 근육이 끊어지고 뼈가 부

서져, 목숨이 10 개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

양과와 소용녀는 이 소리를 듣고 놀라서 손을 잡고 내실에서 나왔다. 두 팔을 쳐든 자은의 두 눈에는 흉악한 빛이 감돌았다.

[너희들은 뭘 보느냐? 나는 오늘 살계(殺戒)를 범하였다.]

하고 말하며 힘을 더해 철장으로 치려 했다.

일등대사는 문 앞으로 달려가 양과와 소용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땅에 꿇어앉아 중얼거렸다.

[어리석음이 멀리 사라지지 않았으니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 자은, 너는 정말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악에 빠지려 하느냐?]

자은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면서 극도의 혼란에 빠져 선념(善念)과 악념이 계속 갈등을 일으켰다. 이날 그는 눈길을 걸으며 이미 마음이 흔들렸는데 다시 섭혼대법으로 소란해진데다가 계속해 두 사람을 죽이자 더욱 자제하기가 힘들었다. 눈앞에 보이는 일등대사는 자기를 도와 주는 은사이면서 동시에 자기를 상대하는 대원수가 되기도 했다.

이 잠깐 동안에 가슴속의 악념이 점점 커져서 돌연 팔을 내뻗어 일등대사를 내리쳤다. 일등은 손을 들어 가슴을 막자 몸이 약간 비틀거렸다. 자은은 화가 치밀었다.

[당신은 확실히 내 상대가 되지 못해!]

왼손으로 다시 일격을 가하자 일등대사는 다시 막으며 여전히 반격하지 않았다.

[당신은 왜 반격하지 않는 거요? 만약 반격을 하지 않아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도 나를 원망하지는 마시요.]

그는 비록 정신이 혼란했어도 이 말을 똑똑하게 했다. 그의 철장공부와 일등대사의 일양지는 각각 그 명성을 무림에 날리고 있었다. 일등의 불학(佛學)이 그보다 뛰어났으며 무공으로 말해도 만약 전력을 다해서 일양지로 대적한다면 한 동작 반 만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었다. 장상공부(掌上功夫)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바이지만 이처럼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반격하지 않고 시간이 흐른다면 생명을 잃지는 않아도 반드시

크게 부상을 당한다. 그러나 일등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은을 바로잡으려는 큰 뜻을 품고 있어서, 비록 철장에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결코 반격을 가하지 않고 그가 마침내 깨닫기를 기대했다. 이것을 결코 무공과 내력의 싸움이 아니고 선념과 악념의 싸움이었다.

양과와 소용녀는 도끼와 같은 자은의 철장이 일등대사를 내리치는 것을 보았다. 14번째 장을 내려치자 일등이 <아악>하는 소리를 지르며 입에서 피를 토했다. 자은은 놀랐다.

[당신은 그대로 반격을 하지 않을 겁니까?]

일등은 여유 있게 말했다.

[내가 어찌 반격을 하겠느냐? 내가 너를 이겨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또 네가 나를 이겨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반드시 자기를 이겨야 한다. 자기를 억제해야만 한다.]

자은은 멍청히 중얼거렸다.

[자기를 이겨야 하고, 자기를 억제해야 한다!]

일등대사의 이 몇 마디는 뇌성과 같이 양과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자기의방자한 마음과 요망한 생각을 이기는 것은 확실히 강적을 이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이 고승의 말은 정말로 일리가 있는 명언이다.)

자은의 두 손이 잠시 공중에 멈추는 듯하다가 결국 소리를 내며 내려왔다. 일등의 몸이 흔들거리며 다시 입에서 피를 토하여 흰수염과 옷이 피로 물들었다.

양과는 일등대사가 공격을 막는 수법과 인내력을 보고는 그의 무공이 결코 검은 옷의 중에게 뒤지지 않음을 알았다. 그러나 이처럼 계속 공격을 당하면 비록 철석(鐵石)같은 몸이라도 결국은 화를 입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때 양과는 일등을 한없이 흠모해 그가 목숨을 버리며 악인을 교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목숨을 잃으면 안 될 것이라고 여겼으나 자기의 장(掌)으로는 이 검은 옷의 철장을 당할 수 없는지라 곧 들어가서 현철검을 들고, 일등의 몸을 돌아 자은이 장을

돌려서 내려치자 칼로 찔러 들어갔다.

현철중검이 바람을 일으키며 자은의 장풍과 충돌하자 두 사람의 몸이 모두 흔들거렸다.

자은은 순간 <어억>하는 소리를 질렀다. 이 깊은 산중의 사냥꾼에게 이 같은 무공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등대사도 양과를 쳐다보며 이상하게 생각했다. 자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무슨 일로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

[사부님께서 좋은 말로 권하시는데 어찌 대사께서는 미혹에 빠져서 깨닫지 못합니까? 좋은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사부님께 독수를 펼칩니까? 이 같은 사람은 금수와 무엇이 다른지요?]

[당신도 개방의 무리요? 이 기분 나쁜 장로와 한패인가요?]

양과는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그들 두 사람은 개방의 못된 무리입니다. 대사께서 악을 제거하고 선을 행하셨는데 어찌 참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은은 영문을 몰라서 놀랐다.

[악을 제거하고 선을 행했다고? 악을 제거하고 선을 행......]

양과는 벽을 사이에 두고 그들 사제의 대화를 다 들었기 때문에 이미 그의 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고는, 그가 후회함으로 근심이 생겨 악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은 개방을 배신하고 나쁜 무리들을 안으로 끌어들여 장차 우리 대한(大漢)의 강산을 이민족에게 팔아먹으려 했습니다.대사께서 그들을 죽인 것은 실로 큰 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선남선녀들이 피해를 당했을지 모릅니다. 불가에서 비록 자비를 중요시 여기지만 사악하고 요망한 무리를 만났을 때는 신통으로 그들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양과가 불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이것뿐으로 매우 빈약한 것이었으나 자은의 귀에는 강렬하게 들렸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리면서 생각을

바꾸었다. 돌연 자기가 과거에 대금(大金)의 벼슬을 받아서 이민족이 대송의 강산을 유린하는 데 협조한 것이 생각났다. 양과의 이 말은 자기의 지를 꾸짖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갑자기 손을 들어 양과를 향해 공격했다.

[이놈아, 무슨 객적은 소리를 지껄이고 있느냐?]

이 일장은 매우 빠르고 매서웠다. 양과는 단지 말로써 그를 설득시키려 생각했기 때문에 이 뜻밖의 장풍이 순식간에 가슴에 미치자 위급한 가운데 힘으로써 상대할 여유가 없었다. 그의 장풍에 몸이 뒤로 밀리면서 판자벽에 구멍을 뚫고는 집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일등대사는 크게 겁을 먹었다.

(설마 이 젊은이가 생명을 잃지는 않겠지? 보아하니 그의 무공도 대단하던데......! 아, 내가 어찌 그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을까?)

속으로 매우 후회했다.

돌연 방안의 장작불이 꺼지면서 구멍 사이로 돌풍이 불어왔다. 양과는 바람을 타고 들어와 칼을 자은에게 향하도록 했다.

[좋다, 너와 내가 오늘 실력을 겨루어 보자.]

자은은 오른쪽 손을 비스듬히 내려 장력으로 양과의 칼끝을 제압하려 했다. 그러나 양과의 이 검법은 독고구패(獨孤求敗)의 절묘한 동작으로, 비록 나이 차이가 심해서 선배로부터 직접 전수를 받지는 못했지만 홍수에서 칼을 연마하고 사담(蛇膽)으로 힘이 증진되고, 신조(神조)의 도움을 받아서 양과가 익힌 검법은 이미 천하무적인 검마(劍魔)를 방불하고 있었다. 자은이 일장을 가했으나 양과의 칼끝은 겨우 몇 촌 밖에서 여전히 자기의 왼쪽 팔을 겨누고 있었다. 자은은 놀라 오른쪽으로 급히 피하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각각 신공(神功)을 사용한 검과 장으로 상대했다.

일등대사는 보면 볼수록 신기했다. 이 소년은 불과 20여 세 정도인데 능히 당대 제일의 고수인 구철장과 훌륭한 상대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의 견식이 비록 넓다고 해도 그의 무공이 어느 계보에 속하는지

알 수 없었다. 또한 이처럼 무거운 칼이 어찌 이 같이 기묘한지 알 수 없었다. 고개를 돌려, 소용녀가 아기를 안고 문 앞에 서서는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로 두 사람의 맹렬한 싸움을 아무런 근심 없이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소녀도 보통의 인물이 아니구나.)

또 그녀의 양미간에 인중(人中)에 은은한 검은 기운이 있음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앗!]

소용녀는 웃음으로 상대했다.

(당신이 드디어 보았구나.)

이때 두 사람의 검과 장은 더욱 치열하게 대적했지만 양과도 무기를 가지고 있어 유리했다. 자은이 비록 양과보다 팔이 1개 많았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잠시 후 펑, 하며 나무판이 날아가고 이어서 와르르, 하며 기둥이 넘어졌다. 나무집은 너무 작고 허술해 두 사람의 고수가 솜씨를 겨루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장소였다. 칼과 장풍이 만나는 곳곳마다 나무조각이 어지럽게 날리고 마침내 우르릉, 하며 집이 무너져 내려앉고 말았다. 소용녀는 어린 곽양을 안고 창문 통해 뛰쳐나왔다. 일등은 뒤에서 옷소매를 휘둘러몇 개의 나무조각을 쳐 내며 그녀를 보호했다.

북풍이 몰아치고 눈이 계속해 내리는 가운데 두 사람의 악투도 계속되었다. 자은은 10여 년 동안 이처럼 치열한 싸움을 해 보지 못해 매우 흥분되어 크게 숨을 몰아쉬면서 철장을 움직였다. 뜻밖에 100여 동작이 넘었는데도 상대방의 힘은 끊임없이 가중되고 이미 나이가 들어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양과는 검으로 그의 가슴을 찌르자 그가 비스듬히 피하는 것을 보고 철검으로 땅의 눈을 떠서는 그에게 던졌다. 자은은 눈에 맞아 두 눈이 흐려지자 급히 손을 내밀어 털었다. 이 순간, 현철검이 오른쪽 어깨에 걸쳐지는 것을 느끼자 마치 천 근의 무게로 누르는 듯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땅에 쓰러졌다. 양과는 칼을 그의 가슴으로 향했다. 이 검이 비록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힘이 대단해 그의 갈비뼈를 누르자 단지

숨만 내쉴 수 있을 뿐 들이마실 수는 없었다.

이때 자은의 가슴속에는 번개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스쳐 갔다. 그는 절예신공(絶藝神功)을 단련한 후 강호를 휘저으며 많은 사람을 죽이고 상처입혀 큰 어려움을 맛보지는 않았다. 비록 주백통에게 패했지만 그냥 서역으로 도망쳐 결국에는 교묘한 꾀로 노완동을 물리쳤었다.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이었지만 이때 죽음이 눈앞에 이르자 크게 후회가 되었다. 이곳에서 일생을 마치면 지난날의 무수한 죄를 다시 씻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등대사의 수천 마디도 그를 깨우치지는 못했는데 양과의 단칼에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처럼 비참하구나. 내가 과거에 사람을 죽일 때 나에게 죽었던 사람들도 이처럼 비참했겠구나.)

일등대사는 양과가 자은을 굴복시키는 것을 보고 생각에 잠겼다.

(소년 영웅이다. 다시는 만나기 어렵겠구나.)

그는 앞으로 걸어나가 손가락을 내밀어 가볍게 칼에 문질렀다. 양과는 왼팔에 열이 나는 것을 느꼈고 이어 현철검이 달아올랐다.

자은은 허리를 펴 일어난 후 다시 땅에 엎드렸다.

[사부님, 제자의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일등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그의 등을 어루만졌다.

[큰 깨달음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찌 이 소거사(小居士)의 가르침에는 감사를 표하지 않느냐?]

양과는 원래 이 늙은 스님이 일등대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그가 한 손가락으로 칼에 열을 내자, 속으로 이 일양지와 황도주의 탄지신통은 같은 종류의 무공으로 당시 그들 외에는 누구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즉시 예를 올렸다.

[제자 양과, 오늘에야 대사님을 뵙겠읍니다.]

그때 자은이 자기를 향해 땅에 엎드리자 급히 답례를 했다.

[선배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소인이 큰 죄를 저질렀읍니다.]

다시 소용녀를 가리켰다.

[이 사람은 저의 아내인 용씨입니다. 용이, 빨리 와서 대사님께 인사드려요.]

소용녀는 곽양을 안고서 예를 올렸다. 자은이 말했다.

[제가 잠시 정신을 잃고 광기를 부렸읍니다. 사부님의 상처는 어떠하신지요?]

일등은 태연히 미소 지었다.

[너는 괜찮느냐?]

자은은 민망해서 어찌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네 사람은 다 쓰러진 나무 기둥에 앉았다. 양과는 어찌해서 무삼통.주자류.점창어은을 알게 되었는지 설명하였고, 다시 자기가 어찌해서 절정곡에서 중독됐는지, 천축신승과 주자류가 해약을 구하러 갔다가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했다. 일등대사가 말했다.

[우리 두 사람도 그 때문에 절정곡으로 가는 중이다. 이 자은과 절정곡의 여곡주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너는 아느냐?]

양과는 팽장로가 말한 <철장방의 구방주>라는 말을 들었었다.

[자은대사의 속세의 성이 구씨이므로 철장방의 구방주가 아닙니까?]

자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자면 절정곡의 여곡주는 당신의 동생이 아닌지요?]

[그렇소. 제 동생은 어떤지요?]

양과는 대답하기가 난감했다. 구천척은 사지가 남편에 의해 끊어져 이미 폐인이 되었기 때문에 <잘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자은은 그가 머뭇거리고 있음을 보고 말했다.

[내 여동생은 난폭하고 방자해 만약 업보를 만났어도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당신의 동생이 이미 수족이 떨어져 나갔지만 몸은 여전히 건강합니다.]

자은은 한숨을 쉬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모두가 다 늙었구나. ......아, 그 아이는 단

지......]

여기까지 말하고는 멍청히 얼이 빠져서 옛일을 회상했다.

일등대사는 그가 속세의 인연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어 방금의 참회는 단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악념이 돌연 사라진 것이지, 사실 마음속의 악근은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았다. 만약 장래에 강한 외부의 유혹이 있다면 발작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도 눈치를 챘다. 자기는 앞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니 앞으로 그의 교화의 여부는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양과는 일등대사가 가련한 눈길로 자은을 쳐다보자 돌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일등대사의 무공이 결코 그의 제자만 못하지 않은데 계속해서 손을 쓰지 않은 것은 깊은 뜻이 있었다. 내가 끼어들어 일을 망쳤을까 두렵구나.)

[대사님, 제가 어리석어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했읍니다. 무슨 잘못이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이란 알기 어렵다. 그가 나를 죽였다고 해도 이처럼 크게 깨닫지 못하고 더욱 깊은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너는 내 목숨을 구하고 그를 미혹에서 건져 주었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나는 너에게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고개를 돌려서 소용녀에게 물었다.

[낭자께서는 어찌하여 독이 내장에 들어갔는지요?]

양과는 그의 이 말을 듣고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광명을 찾은 것 같았다.

[그녀는 상처를 입은 후 관맥을 통해서 치료받고 있을 때 마침 극독한 암기를 맞았읍니다. 대사께서 자비를 베풀어 그녀의 목숨을 구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하고 말하고는 땅에 꿇어앉았다.

[그녀는 관맥을 어떻게 통했느냐? 내식은 어떻게 돌아가고?]

[그녀는 경맥을 뒤집어 운행했고, 다시 한옥상과 제가 옆에서 도와 주

었읍니다.]

일등은 그의 해석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찬사를 보냈다.

[그 구양형은 정말로 천하의 기인이다. 그는 경맥을 역운하는 방법을 개창했지. 실로 일반인은 생각할 수 없는 기술로, 무학 가운데 새로운 일가를 이룬 셈이지.]

그는 손가락을 내밀어 소용녀의 팔목에 올려놓고 근심어린 표정으로 잠시 말이 없었다.

양과는 걱정스레 그를 쳐다보며 그에게서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소용녀는 계속해서 양과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이미 오늘까지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양과의 얼굴이 심각해지자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죽음과 삶은 운명인데 어찌 거역할 수 있겠어요? 여보, 근심은 마음을 상하게 하니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일등은 나무집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소용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이 몇 마디가 부드럽고 평온해 마치 운명을 달관한사람 같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소용녀가 어려서부터 사부의 엄격한 가르침을 받아 침착하고 조그만 일에 얽매이지 않음을 몰랐다. 그녀의 나이가 어리고 치료하기 어려운 독에 중독되어 확실히 여러 가지 우울한 감정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녀의 말씨는 심오한 내공을 가진 사람의 말투였다.

(이 한쌍의 젊은 부부는 분명히 인간의 용(龍)과 봉(鳳)이다. 남자의 무공이 이처럼 대단하고 여자의 깨달음이 이 정도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내 평생 단지 곽정.황용 부부만을 알았는데 능히 그들과 비견될 수 있구나. 내 제자는 감히 미칠 수가 없겠구나. 그러나 그녀의 중독이 아무리 심하다지만, 내가 상처를 입은 후 일양지의 신공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구나.)

[두 사람의 나이가 젊고 수련이 보통이 아니니 노승이 직언을 해도 무방할 것......]

양과는 이 말을 듣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두 손이 싸늘해졌다.

일등대사가 계속 말했다.

[용부인은 독이 이미 중관(重關)까지 들어갔읍니다. 소승이 만약 상처를 입지 않았다면 일양지의 공부로서 몸 안에 있는 독이 잠시 발작하지 않게 할 수 있읍니다. 그런 다음에 해독약을 구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마침 용부인이 어리고 공력이 심오하니 소승의 약을 하나 드시면 칠 일간은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절정곡에 가서 나의 사제를 찾도록......]

양과는 무릎을 치며 일어났다.

[아, 좋습니다. 그 천축신승의 독을 치료하는 기술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니 반드시 무슨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일등이 말했다.

[내 사제도 만약 구할 수 없으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지. 세상에 어떤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죽기도 하오. 용부인은 시집을 간 후 치료하지 못하니 결코 요절이 아니지요.]

이 말을 하면서 일등은 그때 주백통과 유귀비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자기의 질투 때문에 그 상처를 치료해 주지 않아서 마침내 죽은 것이 생각났다. 그 아기는 자은에게서 상처를 입은 것이었다.

양과는 눈을 크게 뜨고는 일등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용이가 치료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어찌 위로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소용녀는 담담하게 웃었다.

[대사님의 말씀이 옳아요.]

하며 주위의 흰 눈을 살피고 말했다.

[이렇게 눈꽃이 내리니 얼마나 희고 보기가 좋은가요. 며칠 지나서 태양이 떠오른다면 눈꽃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내년 겨울이 모면 다시 많은 눈꽃이 내리니 올해의 이 눈이 마지막은 아니지요.]

일등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은을 돌아보았다.

[너도 알겠느냐?]

자은도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 태양이 떠올라서 눈이 녹고 겨울에 눈이 내리는 것은 단순한 진리인데 그것도 모르겠는가, 하고 중얼거렸다.

양과와 소용녀는 본래 마음이 서로 통하여 상대방의 비밀도 모두 알았는데 이때 그녀와 일등의 대화는 자기와 한 층의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 마치 그녀와 일등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자기는 오히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 이런 경우는 자기와 소용녀가 서로 사랑을 해 온 이후 없었던 일이라 양과는 크게 당황했다.

일등은 품속에서 달걀을 하나 꺼내어 소용녀에게 건네 주었다.

[세상에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이것은 누구도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다. 양과는 이 말을 듣고 생각했다.

(지금 생사의 갈림길인데 어찌 저런 쓸데없는 일을 물어 본단 말인가!)

소용녀는 계란을 받아들었다. 원래 그것은 자단(磁蛋)으로, 색깔과 모양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고 그 뜻을 알았다.

[계란을 깨야 닭이 생기고 닭이 커서 계란이 생기니, 존재해야 삶이 있고 존재하면 반드시 죽음이 있지요.]

가볍게 껍질을 깨자 1개의 환약이 굴러 나왔다. 금빛 찬란한 것이 마치 황금 계란 같았다.

[빨리 드세요.]

소용녀는 이 약이 귀한 것임을 알고 즉시 입에 넣고는 씹어서 삼켰다.

녹악(綠악)의 짝사랑

다음날 아침까지도 눈은 그치지 않았다. 양과는 절정곡으로의 여정이 길고, 일등의 환약이 겨우 7일 간밖에 생명을 지속시킬 수가 없으므로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전력으로 길을 가야 겨우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대사님, 상처는 좀 어떠신지요?]

일등의 상처도 결코 가볍지 않았으나, 그는 사제와 주자류, 소용녀 세 사람을 구한다고 생각하자 잠시도 지체할 수 없어서 옷소매를 휘저었다.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고 발에 힘을 주어 눈길을 걷기 시작했다. 양과 등 세 사람도 그 뒤를 따라갔다.

소용녀는 환약을 먹은 이후 단전이 따뜻해지며 정신이 맑아져 경공을 펼쳐 순식간에 일등대사를 추월했다. 자은은 겁을 먹은 채 이 아리따운 아가씨가 이처럼 대단한 무공을 지녔다고 생각되자 돌연 호기심이 생겨서 다리에 힘을 주어 앞으로 치달았다. 한 사람은 경공이 천하 제일인 고묘파의 전수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별명이 <철장수상표>인 영웅이니 순식간에 수십 장을 나가서 눈 위에 2개의 검은 점을 남겼다. 양과는 자은의 악성이 돌연 발작해 소용녀를 해칠까 염려되어 즉시 따라가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그의 경공은 두 사람에게 미치지 못했으나 내공이 심오해 다리에 힘을 주자 처음에는 두 사람과의 사이가 상당히 멀었으나 30여 분이 지나자 앞에 가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점차 뚜렷해졌다.

돌연 뒤에서 일등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소거사의 내력이 이처럼 심오하니 진실로 부럽구나. 사부가 누구신지 만나 뵈올 수 있을지?]

양과는 걸음을 늦추어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갔다.

[소자의 무공은 제 처에게 배운 것입니다.]

[용부인께서는 소거사만 못한 것 같던데......]

[요 몇 개월 간 저도 모르게 돌연 내력이 증진했읍니다. 저 자신도 그 이유를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그대는 내력을 증진시키는 무슨 단약을 먹었는가? 아니면 사람의 모양을 한 인삼이나 천 년 이상 된 영지를 먹었던가?]

양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수십 개의 사담(蛇膽)을 먹었는데 그 후에 기력이 매우 증진되었읍니다. 무슨 연관이라도 있읍니까?]

[사담? 사담은 단지 풍습(風濕)을 제거할 때 힘을 더해 줄 뿐,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매우 이상한 뱀의 담이었읍니다. 그 독사는 몸에서 금빛이 번쩍번쩍하고 머리에는 혹이 있어 모양이 매우 이상했읍니다.]

일등은 잠시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갑자기 말했다.

[아, 그것은 보사곡사(菩蛇曲蛇)로군. 불경에도 기록이 있는데, 원래 중국에만 있지. 듣자 하니 그 뱀은 바람처럼 빨라서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든데......?]

[커다란 수리가 물어다 줘서 먹었읍니다.]

일등은 더욱 놀라왔다.

[아, 정말로 넓은 세상에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었구나.]

두 사람은 말을 하면서도 발걸음은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다시 얼마를 가자 소용녀와 자은 두 사람에게 더욱 가까워졌다. 일등과 양과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 두 사람의 경공이 비록 소용녀와 자은에게는 미치지 못했지만, 먼 길을 달릴 때에는 결국 내력의 심오함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시 앞에 있는 두 사람을 쳐다보자 소용녀가 잠시 뒤로 쳐졌다. 내력으로 말하자면 그녀는 결코 자은에게 미칠 수가 없었다. 질풍같이 한 개의 산허리를 돌자 양과가 앞쪽을 가리켰다.

[아, 어찌 세 사람이 되었을까?]

소용녀의 뒤쪽 멀지 않은 곳에 누군가 한 사람이 달려가고 있었다. 양과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경신 공부가 소용녀와 자은보다 뒤지지는 않아 보였다. 그의 등에는 커다란 물건을 지고 있었는데 마치 상자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발걸음은 민첩해 소용녀와 계속해 수장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등은 이 깊은 산에서 뜻밖에도 계속해서 고수를 만나자 이상하게 생각했다. 어제 저녁에는 무공이 뛰어난 한쌍의 젊은 부부를 만났고, 오늘은 다시 늙은 사람을 만난 것이다.

소용녀는 자은에게 추월을 당한 후 그와 점차 거리가멀어져 갔다. 뒤에서 발걸음소리가 들리자 양과가 다가온 것으로 알았다.

[여보, 이 스님의 경공이 워낙 대단해서 나는 그들 당해 낼 수가 없으니 당신이 한번 쫓아가 보세요.]

등뒤에서 웃음 섞인 소리가 들렸다.

[용아가씨는 이 상자에 올라와서 좀 쉬어 원기를 회복하는 게 어때요? 저 중 따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소용녀는 목소리가 이상함을 듣고서 뒤를 돌아다보았다. 양과가 아니라 백발의 노인이 있었는데 바로 노완동 주백통이었다.

그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띄며 등에 짊어진 상자를 가리켰다.

[자, 자, 어서!]

이 상자는 바로 중양궁 장경각(藏經閣)에 있던 물건으로, 아마도 전진교의 도장경서가 가득 들어 있으리라 생각하고는 이처럼 메고 온 것이다. 소용녀는 가볍게 웃고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주백통의 몸이 돌연 번쩍 하더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서 한 팔로 허리를 감싸 안고는 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 동작은 워낙 신법이 빠르고 묘하여 소용녀는 저항할 틈도 없었다. 순식간에 그녀의 몸이 상자 위에 놓여지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진파가 천하 무학의 정종이라 하더니과연 대단하구나. 중양궁 도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한 것은 단지 그들이 사문의 정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뿐이다.)

이때 양과와 일등대사는 모두 주백통을 알아보았으나 자은은 소용녀가 따라올까 봐 온힘을 다해서 치달려 자기의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지도 알지 못했다. 주백통은 큰 걸음으로 그의 뒤를 쫓으며 낮게 말했다.

[다시 삼십여 분 간다면 그의 걸음이 반드시 느려질 것이다.]

[그것을 어찌 아십니까?]

[나와 그는 다리의 힘 싸움을 했다. 중원에서부터 서역까지 그를 쫓아갔다가 다시 서역에서 중원으로 돌아오는 수만 리를 달렸었지.]

소용녀가 상자 위에 앉으나 마치 말을 타고 가는 것처럼 편안했다. 웃으면서 낮은 소리도 물었다.

[노완동, 당신은 어째서 나를 도와 주시는지요?]

[당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요. 황용처럼 교활하지도 않고 내가 당신의 밀당을 훔쳤는데도 당신은 화를 내지 않았지요. 헤헤.]

이렇게 반 시간 동안 달리자 과연 주백통의 예측대로 자은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이제 가시오!}

어깨를 흔들어서 소용녀를 땅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원기가 회복된 후 다시 달리자 순식간에 자은의 곁을 스쳐 갈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가볍게 웃었다. 자은은 놀라 급히 힘을 더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경공은 원래 백중지세였으나 지금 한 사람은 오랫동안 휴식을 취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한 걸음도 쉬지 않고 달려서 힘이 없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게 되었다.

자은은 평생 동안 2 개의 절기는 천하에 적이 없다고 자부해 왔는데, 하루 밤낮 사이에 철장은 양과에게 패하고 경공은 소용녀에게 패하자 크게 상심했다. 게다가 두 다리가 풀리며 말을 듣지 않자 당황했다.

(설마 내가 한계에 이르렀단 말인가. 이 조그만 아가씨도 이기지 못하다니?)

그는 엊저녁에 악성이 발작해서 사부를 헤쳐 마음이 계속 편안하지 못하였는데, 이때는 다리에 힘을 가해도 결코 소용녀를 따를 수 없었는데도 오히려 마음은 편안해지니 세상 일은 불가사의하다고 생각되었다.

양과는 뒤에서 주백통이 몰래 소용녀를 도와 자은을 이기게 해 준것을 알고는 흥미가 생겨 재빨리 달려서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주선배님, 고맙습니다.]

[이 구천인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나이를먹으면 먹을수록 소란만 피우고 다니는구나. 어찌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는지 모르겠군.]

[그는 일등대사를 사부로 모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시는지요?]

하고 말하며, 뒤를 가리켰다. 주백통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단황야(段皇爺)가 오다니?]

고개를 돌려서 일등을 쳐다보았다.

[형세가 불리하니 도망가는 게 좋겠다!]

즉시 옆으로 방향을 바꾸어 숲속으로 들어갔다. 양과는 <단황야>가 무슨 말인지 몰랐다. 나무가 갈라지고 풀이 흔들리며 주백통의 모습은 잠시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처럼 행동이 이상한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 드물 것이다.)

일등은 주백통이 숨는 것을 보고는 급히 달려왔다. 자은이 풀이 죽어 조금 전의 용기가 돌연 사라진 것을 보고 말했다.

[너는 아직도 승부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느냐?]

자은은 망연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욕심대로 하고자 하면 일을 망친다. 만약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찌 뒤에 한 사람이 더 늘어났던 것을 모르겠느냐?]

네 사람은 함께 길을 재촉했다. 처음 5일 간은 매우 빨리 달렸으나 6일째 아침이 되자 일등의 상처가 점점 심해졌다.

[대사께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정곡이 이제 가까와졌으니 저희 부부와 자은대사가 곡중에 가서 신승과 주대숙을 구해 오겠읍니다.]

[내가 남아서는 안심이 되지 않는다.]

잠시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곡중의 변고가 많으니 아무래도 내가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

자은이 말했다.

[제가 사부님을 업고 가겠읍니다.]

하고 말하며 일등대사를 등에 업고는 큰 걸음으로 나갔다.

오시(午時)가 지나자 일행은 곡구에 이르렀다. 양과가 자은에게 말했다.

[우리들의 신분을 알려서 동생에게 대사를 영접하라고 합시다.]

자은은 놀라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돌연 곡중에서 은은히 무기가 맞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 자은은 동생이 걱정되어 그녀가 무삼통등과 대적하면 누가 상처를 입어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빨리 들어가서 싸움을 말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며 자은은 경공을 전개해 급히 달려들었다. 그는 곡중의 길을 몰라서 양과의 뒤를 따라야 했다.

소리 나는 장소에 네 사람이 급하게 이르자 7,8 명의 녹색 옷의 제자들이 무기를 들고 숲의 외각을 지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싸우는 소리가 숲속에서 들려왔으나 누가 싸우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녹색 옷의 제자들은 또다른 적이 공격해 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양과와 소용녀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우두머리인 듯한 제자가 앞으로 두 걸음 내디디며 칼을 잡고 말했다.

[주모(主母)께서는 양공께서 하신 일이 뜻대로 되셨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양과는 그에게 물었다.

[숲속에서 누가 싸우고 있지요?]

이 녹색 옷의 제자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며 그가 이번에는 선한 마음을 품고 왔는지 악한 마음을 품고 왔는지를 몰라 망설였다. 양과는 가볍게 웃었다.

[제가 이번에 온 것은 전혀 나쁜 뜻이 없읍니다.]

[이 두 분의 스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숲속에 있는 네 명의 여자와는 한패가 아닙니까?]

[네? 여자라고요? 그들이 누구인데요?]

[네 명의 여자는 각각 두 길로 곡에 들어왔읍니다. 주모께서 명령을 내려 길을 막자 그녀들은 감히 말을 듣지 않아 지금 정화요(情花拗)에 걸려 있읍니다.]

양과는 <정화요>란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4 명의 여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황용, 곽부, 완안평, 야율연 이라면 그

들이 왜 서로 싸운단 말인가?

[제가 한번 그들은 보고 아는 사람이라면 싸움을 그치고 함께 곡주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하겠읍니다.]

이 제자는 4명의 여자가 이미 포위되어 있고, 양과는 이미 절정곡의 위력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에게 한번 보여 주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해, 그들 네 사람을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과연 4명의 여자가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한참 싸우고 있었다.

양과와 소용녀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 원래 4명의 여자들이 서 있는 곳의 지름이 2장 정도 되는 풀밭으로, 둘레에는 겹겹이 정화가 쌓여 있었는데 어떤 방향에도 각각 8,9장 정도의 정화가 땅에 놓여 있었다. 비록 경공이 강하다고 해도 뛰쳐나올 수 없으며 설사 뛰쳐나온다 해도 중간에 떨어져 나올 수가 없었다. 소용녀가 소리쳤다.

[사자(師姉)!]

남쪽을 향해서 싸우고 있는 두 여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막수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제자인 홍릉파였다. 두 사람은 각각 장검을 들고 있었는데 이막수의 불진은 고묘에서 이미 절단된 후 다시 만들지 못한 것 같았다.

대적하는 두 여자는 유엽도와 칼과 퉁소를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날씬하고 걸음도 날렵하며 무공도 결코 약해 보이지 않았으나, 이막수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양과는 당황했다.

(그녀들은 이종사촌 자매가 아닌가?)

이때 홍릉파의 몸이 비스듬히 돌자 노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얼굴을 반쯤 돌려고, 엷은 보라색 옷을 입은 소녀도 약간 돌아섰다. 그들은 다름아닌 정영과 육무쌍이었다.

네 사람이 있는 지름이 2장 정도 되는 풀밭은 마치 연극 무대나 극히 작은 방 같아서 장소의 제한이 있었다. 만약 한 발이라도 잘못 밟으면 정화의 독에 온몸이 마비가 될 판이었다. 다행히도 이막수는 새로운 무기가 손에 익숙하지 않았으며 홍릉파는 육무쌍에 대한 옛 정을 생각해서

독수를 펼치지 않아, 정영과 육무쌍은 불리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버틸 수가 있었다.

양과는 우두머리인 듯한 녹색 옷의 제자에게 물었다.

[그들 네 명의 여자는 얌전한데 어찌 이 안으로 들어와서 싸움을 벌이게 되었읍니까?]

녹색 옷의 제자는 득의만만해서는 오만하게 대답했다.

[이것은 공손곡주가 펼쳐 놓은 기묘한 포위망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화요에 집어넣고 다시 입구에 정화를 쌓았으니 그들이 어찌 도망갈 수 있겠읍니까?]

[그녀들이 이미 정화의 독에 중독되었읍니까?]

[아직은 중독되지 않았지만 그리 멀지 않았지요.]

양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너희들이 무공으로 어찌 이막수를 정화요에 가두겠느냐? 아, 그러고 보니 칼이 달린 어망진법을 사용했구나. 만약 정과 육, 두 소저가 정화의 독에 중독되었다면 다시 그들을 구할 약은 이 세상에 없는데......)

[정영 누님, 육 동생! 저 양과가 여기 있어요. 주위에 있는 꽃에는 가시가 있는데 그 독이 극히 무서우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막수는 정화의 모양이 이상하고 녹색 옷의 제자들이 이것을 사용해 길을 막는 것을 보고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으리라 생각하고는 정화요에 들어온 후 작은 목소리로 홍릉파에게 꽃에서 멀어지라고 분부했었다. 정영과 육무쌍도 모두 총명하고 영리한데 어찌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겠는가? 4 명은 정화에 기관이나 함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암기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양과의 소리를 듣자 주위에 있는 정화에 대해서 더욱 두려워하게 되어 서로 풀밭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이니 싸움은 더욱 흉악해졌다.

정영과 육무쌍은 양과가 온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하며 그를 만나고 싶었으나 상대의 공격이 너무 매서워 감히 몸을 돌릴 수 없었다. 이막수는 그녀 둘을 죽여 정화 위에 디딤돌로 사용해 밟고서 정화요를 빠져나가려

고 생각했다. 이막수는 양과와 소용녀가 온 것을 알고는 무척 겁을 먹었다. 그러나 양과는 중간에 정화가 가로막혀 있어 정영과 육무쌍을 도울 수 없었다.

[릉파, 온힘을 다하지 않으면 너의 목숨은 이곳에서 끝장난다.]

이막수의 이 말에 홍릉파는 급히 대답했다.

[네!]

홍릉파는 칼에 힘을 주어 정영을 찔러 들어갔다. 정영이 퉁소를 들어 막자 이막수의 장검이 그녀의 목을 찌르려 했다. 육무쌍이 끼어들어 가로막았다. 이막수는 가볍게 웃으며 장검을 흔들고는 왼발을 날려서 그녀의 손목을 찼다. 육무쌍의 유엽도는 손을 빠져나와 날아서는 정화 가운데 떨어졌다. 이막수의 장검이 번쩍 하면서 정영을 향해 계속해서 3번을 찔렀다. 정영은 상대하지 못하고 뒤로 급히 물러났다. 그녀가 다시 한 걸음만 물러난다면 왼발이 곧 정화를 밟을 것 같자 육무쌍이 외쳤다.

[언니,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돼요!]

이막수가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으니 앞으로 나오시지!]

하고 말하며 비스듬히 물러나 길을 열어 주었다. 정영은 그녀에게 좋은 의도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상황이 너무나 다급한지라 앞으로 나갔다.

[여간 대담하지 않구나!]

장검이 흔들거리며 은빛이 계속해 번쩍이자 그녀의 칼끝은 이미 정영의 상반신을 뒤덮었다.

양과는 밖에서 이것이 고묘파 검법의 매서운 동작인 냉월규인(冷月窺人)임을 알았다. 만약 이 동작의 사정을 모르고 단지 상반신만을 방어하면 결국은 아랫배를 찔리게 된다. 정영이 퉁소를 들어서 가슴을 막자 양과는 급히 땅에서 조그만 돌을 집어서는 손가락 사이에 끼고 튕겼다. 돌은 재빨리 이막수의 눈을 향해서 날아갔다. 이때 이막수의 칼은 아래를 향해서 정영의 아랫배와 불과 수 촌의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돌연 돌이 날아오자 칼로 적을 찌르지 못하고 칼을 돌려서 돌을 막았다.

양과가 사용한 것은 바로 황약사가 전수해 준 탄지신통의 공부였다. 그러나 아직 충분히 단련이 되지 않아, 소리는 동쪽에서, 공격은 서쪽으로 해서 적을 끌어내 정영을 구할 수 있었다. 만약 황약사가 직접 했다면 이 돌의 공격을 받은 이막수의 칼은 땅에 떨어졌거나 뜨겁게 달아올랐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때 양과에게 이 손<手>공부를 전수해 줘 그가 늦게 거두어 들인 여제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양과와 정영은 놀라서 온몸이 땀에 젖었다.

이막수는 정영이 죽기 직전에 살아나자 본래 하얗고 부드럽던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정신이 없어 보였다.

[자, 다시 덤벼라!]

장검이 흔들거리며 다시 냉월규인을 펼쳤다. 정영은 매우 눈치가 빨라서 그의 이 공격은 아래쪽을 노린다는 것을 알고는 퉁소로 단전을 막았다. 그러나 이막수의 잔꾀도 뛰어나 칼끝은 정영의 단전을 향하여 가까이 몸을 접근시키고는 왼손의 식지를 내밀어 그녀의 가슴에 있는 옥당혈(玉堂穴)을 눌렀다. 정영이 잠시 멍청해지자 이막수는 왼발을 돌려서 육무쌍을 쓰러뜨리고 다시 정영의 무릎에 있는 양관혈(陽關穴)을 눌렀다. 이 이를 데 없이 민첩한 동작 때문에 정과 육, 두 사람은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양과가 구해 주고 싶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이막수는 정영의 등을 잡아 던지고 다시 육무쌍을 던지려 했다.

[릉파, 이들을 밟고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양과가 정화를 넘어 안으로 들어와 왼팔을 뻗어서 정영을 잡고 다시 앞으로 다가갔다. 정영은 가슴과 다리에 있는 혈도를 눌렸지만 두 팔은 아무런 지장이 없이 육무쌍을 안았다.

[양형, 당신이......]

그녀는 원래 양과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 그가 정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와 자신을 구해 주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양과는 그녀들을 데리고 물러나와 그들을 가볍게 땅에 내려놓았다. 정

영이 왼쪽 무릎이 마비되어 서 있지 못하자 소용녀에게 혈도를 풀도록 했다. 세 여자가 다같이 양과를 바라다보니 그의 바지단은 독가시에 긁혀 엉망진창으로 찢어져 있고 종아리와 넓적다리 위는 온통 선혈로 물들어서 얼마나 많은 독가시에 상처를 입었는지 알 수 없었다. 정영의 두 눈에 눈물이 글썽했다. 육무쌍이 급히 말했다.

[당신......, 당신은......나를 구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누가 당신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죠?]

양과가 밝게 웃으면서 말했다.

[내 몸에 있는 정화의 독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으니 많건 적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독이 깊고 얕은 데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다만 눈앞에 있는 이 세 아가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정영은 눈물을 머금고 양과의 오른손 빈 소매를 쳐다보았다. 육무쌍이 다시 소리쳤다.

[바보, 당신의 오른쪽 팔은? 어떻게 해서 잘렸지요?]

소용녀는 두 여자가 양과를 무척 걱정해 주는 것을 보고는 즉시 그 두 여자를 사이 좋은 친구처럼 응대하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어찌해서 그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지요? 그는 바보가 아닙니다.]

육무쌍이 <아!>하는 소리를 내면서 미안해 했다.

[그렇게 부르는 게 버릇이 되어서 일시에 고치지 못하겠습니다.]

그녀는 정영을 쳐다보았다.

[이 여자분께서는?]

양과가 말했다.

[그분은 바로......]

정영이 말을 받았다.

[혹시 소용녀 선배님이 아니신가요?]

육무쌍이 말했다.

[맞아, 내 일찍부터 이렇게 선녀 같은 분일 거라고 생각했어.]

정영과 육무쌍은 이전에 소용녀에 대한 양과의 두터운 정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질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되자 저절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두 여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 어떻게 감히 그녀와 견줄 수 있겠는가?)

육무쌍이 물었다.

[양형, 도대체 어떻게 해서 팔이 잘렸어요? 상처는 다 완치가 되었나요?]

[상처는 이미 다 나았어요. 팔은 다른 사람에게 잘렸지요.]

육무쌍은 화를 내었다.

[어떤 죽일 놈의 악당이 그런 짓을 했죠? 분명히 비겁한 간계를 썼겠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 악독한 여마두인가요?]

갑자기 등뒤에서 한여자가 냉소하여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이렇게 등뒤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 아닌가요?]

육무쌍이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 보니 방금 말을 한 사람은 미모의 소녀였는데, 바로 곽부였다. 그녀는 손에 칼자루를 쥐고 얼굴 가득히 화가 난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곁에는 남녀 몇이 서 있었다.

육무쌍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물었다.

[나는 당신을 욕한 게 아니라 양형의 팔을 자른 그 악당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싹, 하는 소리를 내며 곽부는 칼집에서 장검을 반쯤 끄집어내면서 말했다.

[그의 팔은 내가 베었소. 나는 충분히 사죄를 하였고 부모님께도 벌을 받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등뒤에서 이렇게 악독하게 나를 욕하는군요......]

여기까지 말하지 그녀는 눈이 붉어지며 마음속으로 억울하고 원망스러

운 생각이 들었다.

원래 무삼통, 곽부, 야율제, 무씨 형제 등은 시내에서 불을 피하고 있다가 불길이 약해지자 비로소 시냇물을 따라 내려와서 황용과 완안평, 야율연과 서로 만나 절정곡에 오게 된 것이었다. 일행은 일등이나 양과 일행보다 반나절 먼저 도착했으나 계곡에서 천축승과 주자류가 갇힌 곳을 두로 찾느라고 적지 않은 시간을 지체했다. 이막수 사제와 정영 자매는 주백통의 장난으로 각각 절정곡에 이끌려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즉시 황용과 무삼통 등은 일등대사에게 예를 올렸고 각 사람들은 서로를 소개했다. 정영은 여태까지 황용을 보지 못했으나 이 사자(師姉)의 명성은 오랫동안 듣고 줄곧 존경해 왔던 터라 즉시 공손하게 앞으로 나서며 절을 했다.

[사자!]

황용은 양과로부터 부친이 말년에 여자제자를 거두어들였다는 말을 일찍이 들었는데 지금 그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제자를 만나게 되고, 부친께서 건강하다는 소식을 접하자 더욱 기뻤다.

숲가에서 지키고 있던 녹색 옷의 제자는 곡의 입구에 적들이 모여 그 기세가 등등한 것을 보고는 감히 손을 뻗어서 저지하지 못하고 구천척에게 알리려고 나는 듯이 뛰어갔다.

곽부와 육무쌍은 노한 눈으로 서로 마주 보며 마음속으로 상대를 미워했다. 곽부는 정영을 연장자로 부르라는 모친의 분부를 듣고는 더욱 언짢아하며 억지로 <사숙>하고 말했다.

양과와 소용녀는 손을 맞잡고 멀리 서 있었다. 양과는 소용녀의팔에 안겨 있는 곽양을 한번 쳐다보고는 말했다.

[용이, 이 여자 아기를 그녀의 어머니에게 돌려줍시다.]

소용녀는 곽양을 치켜들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황용에게 다가가서 아이를 건네 주었다.

[곽부인, 당신의 아이입니다!]

황용은 고맙다고 말하고는 아이를 건네 받았다. 이 아기는 자기 뱃속

에서 나온 후 오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품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양과는 낭랑한 소리로 곽부에게 말했다.

[곽소저, 당신의 동생은 아무 탈도 없어요. 나는 그녀를 데려다가 내 목숨을 건지려고 해약과 바꾸지도 않았소.]

곽부는 화를 내었다.

[내 어머니께서 오시니까 그렇게 못 하는 것이지요. 만약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왜 내 동생을 여기로 데려왔을까요?]

지난날의 양과의 성질이었다면 즉시 그녀를 힐난하였겠지만 그는 요 몇 달 동안 생사를 가름하는 일들을 겪었는지라, 이러한 말다툼에는 이미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다만 담담하게 웃으면서 소용녀의 손을 맞잡고 옆으로 물러났다.

육무쌍은 곽양을 힐끗 보고는 정영에게 말했다.

[이 아기가 언니의 사자의 딸이에요? 이 애가 자라서는 난폭하게 횡포를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곽부가 어찌 이 말이 자신을 비방하는 말인 줄 모를 것인가.

[내 동생이 난폭하게 횡포를 부리건 말건 당신과 무슨 상관이지요? 방금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셨지요?]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난폭하게 횡포를 부리는 사람에게는 천하의 모든 사람이 버릇을 가르치는 법이니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지요.]

육무쌍이 마음속으로 진정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던 사람은 오로지 양과 한 사람뿐이었다. 그녀와 정영은 양과의 한쪽 팔이 곽부에 의해 잘려진 것을 알고는 마음이 아프고 화가 치밀었다. 육무쌍은 그녀의 사촌 언니처럼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지만 화를 냈다. 곽부는 대로해 칼을 쥐고는 외쳤다.

[네 이 절름발이 같으니라고......]

황용이 호통쳤다.

[부아야, 무례한 짓 하지 말아라!]

바로 이때 먼 곳에서 <으악!> 하는 큰소리가 들려와 여러 사람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정화 덤불 속에서 이막수가 홍릉파의 몸을 높이 들어올리는데, 고함소리는 바로 홍릉파가 내지르는 소리였다.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는 바람에 정화 덤불 속에 갇혀 있는 이막수 사제를 잠시 잊고 있었다. 육무쌍이 놀라서 외쳤다.

[안 돼요. 사부가 사자를 디딤돌로 삼으려 하니 빨리 빨리 구해 줄 방법을 강구......]

사람들이 잠시 멍청히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이막수는 이미 홍릉파를 정화 덤불 위에 집어던져 놓고는 곧이어 몸을 날려 뛰어올랐다. 왼쪽 발로 홍릉파의 명치를 디디며 두 다리에 힘을 주어 또다시 뛰어오르면서 오른손으로는 홍릉파를 움켜쥐고 바깥쪽으로 몇장 던지고는 다시 그녀의 몸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렇게 두 번 힘 주어 내디뎌 마침내 세번째는 정화 덤불 밖으로 내려 설 수가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황용 등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서며 가로막을까 염려되어 사람들이 서 있는 곳과 반대 방향으로 뛰어올랐다. 그녀가 막 몸을 솟구치며 뛰어오르는데 홍릉파가 돌연 큰소리를 내지르면서 따라 뛰어올라 그녀의 왼쪽 다리를 움켜잡았다. 이막수는 밑으로 떨어지면서 힘을 쓸 방법이 없게 되자 오른발을 날려서 퍽, 하는 소리를 내며 홍릉파의 명치를 걷어찼다. 이 무서운 발길질에 홍릉파는 즉시 오장 육부가 터지면서 즉사했다. 그러나 홍릉파의 두 손은 여전히 이막수의 왼쪽 다리를 단단히 움켜 잡고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정화 덤불의 가장자리에서 2척에 불과한 거리에 떨어져 나뒹굴었다. 그러나 서로 2척 거리라고는 하지만 천만 개나 되는 독가시가 일제히 이막수의 몸으로 찔려 들어갔다.

이 처참하고 무서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너무 놀라 눈을 크게 뜨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육무쌍은 홍릉파가 평소에 자신에게 대해 준 은정을 생각하고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목을 놓아 울면서 외쳤다.

[사자, 사자!]

양과는 그때 홍릉파를 놀려 대던 기억을 떠올리고는 슬픔을 금할 수 없었다.

이막수가 몸을 굽혀 홍릉파의 두 손을 잡아떼면서 보니 그녀는 비록 죽었지만 두 눈은 감지 못했고, 얼굴 가득히 원한의 독기가 서려 있었다. 이막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 이미 정화에 중독되었지만 반드시 이 곡에서 해약을 찾아야한다.)

꽃더미를 돌아서 길을 찾아 나서는데 홀연 황용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사자(李師姉),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이리로 오십시오.]

이막수는 놀라서 당황해 하며 잠시 주저하다가 몇 장 밖에서 멈추어 서서 물었다.

[무슨 말씀을?]

그녀가 해약을 주거나, 최소한 해약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면 하고 내심으로 바랐다.

[당신이 이 정화 덤불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자의 생명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었는데......]

이막수는 장검을 거꾸로 움켜쥐고는 냉랭하게 말했다.

[나에게 가르침을 주려는 겁니까?]

황용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천만의 말씀을, 난 오직 한 가지 재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려는 거예요. 당신이 그 장검으로 흙을 파고 다시 겉저고리를 벗어 두 개의 흙주머니를 만든 다음에 덤불 위에 던져 놓았더라면 그 어찌 훌륭한 디딤돌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전하게 곤경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제자까지도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을 텐데......]

이막수는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지며 후회했다. 황용이 말한 방법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었다. 다만 황급한 순간에 생각이 못 미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곤경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원통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지금 말해 보았자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요.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이 정화에 중독되었건 안 되었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막수는 눈을 부릅뜨고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그녀의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황용이 탄식하며 말했다.

[당신은 못된 짓만 하면서 남과 자신을 해쳤으나 이미 치정(癡情)의 독에 중독되어 이제는 늦었어요.]

이막수는 오기가 일어나 정색을 하며 말했다.

[내 제자의 생명은 내가 구해 준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릴 적부터 그 아이를 키워 주지 않았다면 이미 오늘까지도 살지못했을 겁니다. 내가 살려 주었으니 내가 죽이는데 뭐가 이상한가요?]

[모든 사람들은 부모가 생명을 주었지만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를 죽일 수는 없지요. 하물며 남을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이오?]

무수문이 장검을 앞으로 내세우며 호통쳤다.

[이막수, 네가 저지른 나쁜 짓에 대해서 댓가를 받아라. 억지로 변명할 필요는 없다.]

곧이어 무돈유.무삼통과 야율제.야율연.완안평.곽부 등 여섯 사람이 양쪽으로 그녀를 에워쌌다.

정영과 육무쌍은 각각 퉁소와 칼을 움켜쥐고 두 걸음 앞으로 나섰다. 먼저 육무쌍이 말했다.

[당신이 흉악하게 우리 전 가족을 죽였으니 오늘 한 목숨으로 보상할지라도 너에게는 오히려 값싼 것이다. 이전의 죄악은 무시하고 홍사자를 해친 한 가지만 가지고도 죽어 마땅할 죄를 저지른 것이다.]

곽부는 머리를 돌려 육무쌍을 한번 쳐다보고는 비웃었다.

[훌륭한 사부님을 모셨군!]

육무쌍이 눈을 부릅뜨고 마주 쳐다보며 말했다.

[아무리 나의 후원자라고 해도 죄를 지었으면 살려 둘 수 없어요. 당신은 이 마두의 모양을 흉내내지 마세요.]

이막수는 육무쌍이 <후원자>라고 하는말을 듣자 마음속에 뭉클하는 게 있어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소사매, 너는 사문의 정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느냐?]

그녀는 일평생 강호를 휘저으면서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지금 그녀가 마침내 소용녀에게 인정을 호소한 것은 실로 자신의 입장이 비할 데 없이 위험한 것을 아는데다가 홍릉파를 죽인 후 치밀어 오르는 번민 때문에 낙심한 까닭이었다.

소용녀는 문득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양과가 말했다.

[스승을 배반하고, 제자까지 죽이고선 무슨 사문의 정이란 말을 꺼낼 수 있단말이오?]

이막수는 탄식했다.

[좋다!...... 너희들 모두 한꺼번에 덤벼라. 많을수록 좋다.]

무씨 형제는 쌍검을 나란히 내밀었고 정영과 육무쌍은 좌측에서 내질렀다. 무삼통.야율제 등도 무기를 동시에 뻗었다. 방금 그녀가 독하고 매서운 수단으로 홍릉파를 죽이는 것을 보고 모두들 극도로 분노했는데, 심지어 일등대사마저도 이 마두를 세상에 살아남도록 용서해 보았자 더 많은 인명을 해칠 것이라 생각했다. 병기가 서로 맞부딪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막수의 무공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잠시만에 사람들에게 난도질당해 온몸이 찢어졌다.

돌연 이막수는 왼손을 들어올리면서 외쳤다.

[암기를 받아라!]

사람들은 그녀의 빙백은침의 무서움을 잘 아는지라 모두 정신을 집중하여 주목하니, 그녀는 몸을 위로 날리며 뛰어올라 정화 덤불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고함을 내질렀다. 원래 이막수는, 만약 정화에 극독이 있다면 이미 온몸이 두루 가시에 찔렸으니 몇 번 더 찔려 보았자 마찬가지라 생각한 것이다. 그녀가 이렇게 덤불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갈 줄은 황용과 양과조차도 예측하지 못했다. 이막수는 덤불을 꿰뚫고는 곧바로 숲속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추격합시다.]

무수문이 장검을 흔들며 앞장서서 길을 돌아 쫓아갔으나 숲속의 길은 이리저리 굽어 있었고 몇 장을 뛰어가니 눈앞에 세 갈래 갈림길이 나왔다. 그가 막 망설이며 머뭇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다섯명의 녹색 옷의 소녀들이 걸어나오는 게 보였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손에 꽃바구니를 들고 있고, 뒤에 있는 4 명은 허리에 장검을 차고 있었다. 앞에 서 있는 소녀가 물었다.

[곡주께서 여러분의 왕림을 축하드리며 어떤 가르침을 주시러 오셨는지 여쭈어 보라 하셨읍니다.]

양과는 그녀를 쳐다보며 외쳤다.

[공손 아가씨, 나 양과입니다.]

이 소녀는 바로 공손녹악이었다. 그녀는 양과의 음성을 듣고는 그 엄격한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급히 앞으로 나서며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양형, 큰 일을 하셨군요! 빨리 제 어머니를 뵈러 가지요.]

[공손 아가씨, 당신께 몇 분의 선배를 소개해 드리지요.]

먼저 일등대사에게 인사를 시킨 다음 다시 자은과 황용에게 소개시켰다.

공손녹악은 눈앞에 있는 이 검은 옷을 입은 중이 자신의 외삼촌인 줄 모르고, 인사를 하면서도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과가 황용을 곽부인이라고 칭하는 것을 듣고는 그녀가 바로 모친이 밤낮으로 이를 가는 원수임을 알았다. 그녀는 양과가 황용을 죽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녀를 곡으로 이끌고 온 것을 알고는 자신도 모르게 크게 의심이 생겨 뒤로 두 걸음 물러서며 더 이상 인사를 하지 않고 말했다.

[어머니께서 여러분들을 대청으로 모셔 차를 대접하시겠다고 하셨읍니다.]

그녀는 필시 무슨 사연이 있으리라 생각하고는 모든 일에 어머니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대청으로 인도했다.

구천척은 대청의 의자에 앉아서 말했다.

[이 노인네의 손발이 불구라서 여러분을 직접 맞이하지 못하는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자은이 기억하는 누이동생은 그녀가 공손지와 결혼할 때의 처녀 모습으로, 당시 그녀는 아름답고 연약하며 어리광스러운 18세의 처녀였다. 그는 동생이 벗겨진 머리에다 주름살 투성이의 노부인일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자은은 속세의 지난 일을 회상하며 넋을 잃었다.

일등대사는 그의 눈빛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걱정이 되었다. 일등은 평생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계도하였으나 이 제자만큼은 도무지 크게 깨우쳐 악을 뉘우치고 선을 행하지 못했으니, 바로 그의 무공이 심오한 까닭이었다. 자은은 당년에 방주로서, 실로 무림에서는 대단한 인물이었던지라 과거의 일에 골몰하는 정도가 깊을수록 개과하기는 더욱더 힘들었다. 그는 이미 10여 년 간을 심산에 은거하여 그런대로 조용히 지내 왔으나 지금 강호를 다시 밟게 되니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그로 하여금 옛날의 거슬러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다. 흔히 말하기를 <욕정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혼란하지 아니하다.> 하였는데, 만약 욕정을 불러일으켜 그 마음이 곧 혼란스러워진다면 어찌 자신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수양을 할 수 있겠는가? 일등대사가 이번에 자은을 데리고 절정곡에 온 것은 원래 사제와 주자류를 구하기 위해서였으나 또한 자은으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해 그의 심지를 굳건하게 만들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다.

구천척은 양과가 기일을 넘겨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는 그가 이미 독이 발작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생생하게 살아서 면전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다.

[너 아직 죽지 않았구나?]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난 해독약을 복용해 벌써 당신의 화독을 제거했어요.]

구천척은 <음> 하는 소리를 내며 속으로 생각했다.

(세상에 아직도 정화의 독을 풀 수 있는 해약이 있다니 괴이한 일이로

군.)

돌연 마음속에 무언가 생각나는 게 있어 냉소하며 말했다.

[무슨 허튼소리를 하는 거냐? 만약 정말로 해독약이 있다면 그 천축스님과 주가 성을 가진 서생이 무엇 때문에 일부러 이곳에 왔다는 말이냐?]

[구노선배, 천축승과 주선배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이 후배가 온 이상 그들을 놓아 주십시오.]

[호랑이를 가두기는 쉬워도 풀어 주기는 어려운 법이다!]

그녀의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지가 불구인지라 오로지 어망진에 의지하여 겨우 천축승과 주자류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들을 석방해 주면 천축승은 무공을 모르니 괜찮지만 주자류는 반드시 보복하려 할 것인즉, 절정곡의 여러 제자들은 그 누구 하나도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었다.

양과는 그녀가 친오빠와 만나게만 되면 남매간의 정을 생각하여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으로 생각했다.

[구노선배, 제가 누구를 모셔 왔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구천척은 오빠와 헤어진 지 이미 수십 년이 흐른데다가 자은은 또한 승복을 입고 있었으니, 비록 오빠가 출가한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하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오빠는 민첩하고 용맹한 청년이니 일시에 어떻게 이 노승을 알아볼 수 있었으랴!]

그녀는 딸의 보고를 듣고 오빠를 죽인 원수인 황용이 왔다는 사실을 아는지라 사람들의 얼굴을 죽 쓸어보면서 마침내 황용에게 이르자 이를 갈았다.

[네가 황용이로구나! 내 오빠가 네 손에 죽었지.]

양과의 본래 의도는 그녀로 하여금 오빠를 만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그녀가 오히려 원수를 알아내자 깜짝 놀라며 급히 말했다.

[구노선배, 이 일은 잠시 젖혀 놓고 먼저 또 누가 왔는지 보십시오!]

구천척이 고함쳤다.

[설마 곽정도 왔다는 말이냐? 잘됐구나, 잘됐어!]

그녀는 무삼통을 쳐다보고 나서는 다시 야율제를 쳐다보았으나 한 명은 너무 늙었고, 한 명은 너무 어려 곽정이 아닌 것 같자 실망하며 여러 사람 가운데 곽정을 찾아내려다가 돌연 눈빛이 자은의 눈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들은 즉시 서로 마음이 통했다. 자은이 앞으로 뛰어나가며 외쳤다.

[삼매(三妹)!]

구천척도 외쳤다.

[둘째 오빠!]

두 사람은 가슴속에 할 말이 태산 같았지만 일시에 어떻게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구천척이 물었다.

[둘째 오빠, 어찌 중이 되셨나요?]

[삼매, 넌 어찌하여 손발이 불구가 되었지?]

[간적 공손지의 독계에 빠졌지요.]

[공손지? 매제 말이냐? 그는 어디 갔지?]

구천척이 원통해 하며 말했다.

[매제는 무슨 매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양심도 없는 놈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지요.]

자은이 노기를 억제하지 못하며 크게 외쳤다.

[그 간적이 어디로 갔느냐? 내 그 놈을 만 갈래로 찢어서 너의 화를 풀어 주겠다.]

구천척이 낭랑하게 말했다.

[전 비록 그 간계에 빠졌어도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큰오빠는 이미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자은이 슬퍼하며 말했다.

[그래!]

구천척이 사납게 화를 내며 호통쳤다.

[오빠께서는 일신의 재능을 지니고 있으면서 어찌 오늘날까지 아직도 큰오빠의 원수를 갚지 않나요?형제의 정은 어디로 갔지요?]

[큰형의 원수를 갚는다고? 큰형의 원수를 갚는다고?]

구천척이 큰소리로 호통쳤다.

[눈앞에 악한 황용이 있으니 먼저 그녀를 죽이고 다시 곽정을 찾아요.]

자은은 황용을 바라보며 돌연 눈에 이상한 빛을 띠었다.

일등이 천천히 걸어 앞으로 나서며 부드럽게 말했다.

[자은, 출가한 사람이 어찌 다시 살생을 생각하느냐? 하물며 네 형의 죽음은 그 자신이 불러일으킨 재앙이니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자은은 고개를 숙이고 깊이 생각하더니 낮은 소리로 말했다.

[사부님 말씀이 옳습니다. 원수는 갚으면 안 돼.]

구천척은 일등을 노려보았다.

[스님께서 무슨 허튼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둘째 오빠, 우리 구씨 문중의 호걸인 큰오빠가 살해당했는데도 오빠는 전혀 개의치 않으니, 그러고도 무슨 영웅 호걸이라 할 수 있나요?]

자은은 마음이 혼란해 중얼거렸다.

[내가 무슨 영웅 호걸이냐?]

[그래요? 그때 당신께서 강호를 휘저었을 때 <철장수상표>의 명성이 얼마나 위풍당당했었나요? 늙으니까 죽음을 겁내고 오로지 살기만을 탐내는 겁장이가 되리라곤 미처 생각지 못했어요. 만약 큰오빠의 원수를 갚지 못하면 나를 누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 사람들은 그녀가 압력을 가하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이 대머리 노파가 무척이나 무섭구나!)

황용은 그때 구천인의 일장에 얻어맞았는데 다행히 일등대사의 은혜를 입어 가까스로 생명을 건진 일이 있어, 그의 무서운 실력을 아는지라 즉시 마음속으로 몸을 빠져나갈 묘안을 궁리했다. 그러나 곽부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우리 어머니께서 설마 당신 같은 허약한 노파를 겁내는 줄 아세요? 더 이상 지껄이면 내 가만 두지 않겠어요.]

황용은 막 곽부를 말리려다가 생각을 돌렸다.

(눈앞에 저 구천인이 동생의 자극을 받아 격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으니 부아가 나서서 혼란하게 하면 그의 정신을 분산시킬 수 있다.)

곽부는 모친이 가로막지 않자 다시 말했다.

[우리는 먼 곳에서부터 온 손님인데 당신은 잘 접대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무례하니, 무슨 놈의 영웅 호걸이라 자랑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가 바로 곽정과 황용의 딸이냐?]

[맞아요. 재주가 있으면 한번 손을 써 보시죠. 당신의 오빠께서는 이미 출가해 스님이 되셨으니 어찌 다른 사람과 싸울 수 있겠어요?]

구천척이 다시 말했다.

[좋아, 네가 곽정과 황용의 딸이란 말이지? 네가 곽정과 황용의....]

그 <딸>이란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후, 하는 소리가 나면서 1개의 철조핵(鐵棗核)이 입에서 분출되어 곽부의 얼굴을 향해 발사되었다. 그녀가 먼저 <네가 곽정과 황용의 딸이란 말이지?>라고 말하고는 또다시 <네가 곽정과 황용의......>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다시 <딸이란 말이지?>라고 말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찌 이 순식간에 그녀가 입을 벌려 암기를 발사하리라는 것을 알았으랴! 이렇게 갑자기 그녀가 입에서 조핵(棗核)을 발사하는 무공은 신기와 같아서 공손지와 같은 훌륭한 무공을 지닌 사람도 오른쪽 눈을 잃었으니 곽부는 막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몸을 피하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다만 양과와 소용녀만이 그녀의 이러한 묘기를 알고 있었다. 소용녀는 그녀가 횡폭하게 사람을 해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으나 양과는 시시각각 주의해 바라보다가 구천척의 입모양이 <딸>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님을 보고는 즉시 앞으로 나서면서 곽부의 허리에

장검을 끄집어내 급히 비스듬히 내질렀다. 땅, 하는 소리에 이어서 창, 하는 소리가 나면서 장검은 철조핵에 부딪쳐 두 조각이 나며 반 조각은 땅에 떨어졌다.

여러 사람들은 놀라서 소리를 쳤고, 황용과 곽부는 더욱 놀랐다. 황용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경계했다.

(내 그녀가 반드시 독하고 매서운 수단을 사용하리라 예측하였건만 그녀가 몸 하나 까딱 않고 돌연 이렇게 무서운 암기를 쓸 줄은 조금도 생각지 못했구나.)

사람들은 모두 조핵이 장검을 부러뜨려 그 위력이 대단함을 보고 생각했다.

(만약 양과가 이렇게 막아 주지 않았다면 곽아가씨가 어떻게 아직까지 생명이 붙어 있을 수 있겠는가? 그의 동작이 이렇게 빠르니 정말로 놀랍고 신기하구나.)

구천척은 양과를 노려보면서 그가 이렇게 대담하게 사람을 구해줄 줄은 몰랐다.

[너는 오늘 다시 정화지독에 중독되었으니 설령 즉시 발작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삼 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는 오직 반 개의 단약만이 네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 설마 내 말을 못 믿는 것은 아니겠지?]

양과가 손을 뻗어 곽부를 구해 주던 그 전광석화 같은 일순간에 어찌 이 같은 일을 생각할 여유가 있었겠는가. 지금 구천척이 이같이 말하자 저절로 낙심하여 앞으로 나서 땅에 몸을 굽히고 말했다.

[구노선배, 이 후배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니 만약 단약을 하사해 주신다면 그 큰 덕을 평생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맞았어. 내가 다시 세상을 보게 된 것도 너의 은혜를 입은 덕택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나는 원수는 반드시 갚지만 은혜는 반드시 기억하지 못해! 네가 곽정과 황용의 수급(首級)을 가져온다고 승락해서 내 곧 약을 주어 네 목숨을 구해 주겠다고 했다. 너는 어찌해서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원수를 구해 주었느냐? 그리고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공손녹악은 일이 다급해지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 외삼촌의 원수는 양형이 아니니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구천척이 말했다.

[나의 이 반 개 단약은 내 사위에게 남겨 주는 것이니 바깥 사람에게 함부로 줄 수는 없다.]

공손녹악은 이 말을 듣고는 온 얼굴이 붉어졌다.

곽부는 양과가 자신을 구해 주자 비로소 양과가 인정과 의협심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동생을 해약과 바꾸려는 의도가 없음을 믿게 되었다. 자신이 그에게 상처를 입혔는데도 그는 시종 덕으로써 원수를 갚은 것을 떠올리고 큰소리로 말했다.

[양오빠, 제가 전에 잘못 생각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어찌 된 일인지 마음속으로는 그에 대한 울화가 좀처럼 풀어지지 않았다. 막 이렇게 말을 해 놓고 곧 속으로 생각했다.

(네가 나를 구해 준 것은 나에게 재주를 자랑해 나로 하여금 감복하고 감격하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네가 한쪽 팔만으로도 두 팔을 다 갖고 있는 나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이려는 것이니 흥, 대단하군.)

양과는 미소를 지었으나 그 웃음 속에는 오히려 커다란 고통과 슬픔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네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나와 용이가 너로 인해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는지는 모를 것이다.)

구천척을 바라보니 그녀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쳐다보며, 만약 그녀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승낙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반 개의 영단을 줄 것 같지 않아 보였다. 더 이상 맞서 보았자 공손녹악과 소용녀의 입장만 쓸데없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말했다.

[나는 이미 용소저를 아내로 맞았으니 이 양과가 죽으면 죽었지 어찌 의를 저버리는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을 마치고는 즉시 몸을 돌려 소용녀의 손을 맞잡고는 대청문을 향해 걸어가며 속으로 궁리했다.

(너희들이 대청에서 싸우도록 내버려 놓고 나는 가서 천축승과 주대숙을 구해야겠다.)

구천척이 말했다.

[좋지, 좋아! 네가 죽고 싶다 한들 나와는 상관이 없지.]

머리를 돌려 자은을 쳐다보았다.

[둘째 오빠, 황용이 개방의 방주라고 하던데, 우리 철장방이 감히 그녀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요.]

[철장방? 이미 무리들이 다 흩어졌는데 무슨 철장방이 있단 말이냐?]

[과연 그렇군요. 오빠께선 믿을 데라곤 한 군데도 없고 담은 더더욱 작아졌군요......]

그녀가 쉬지 않고 상대를 자극하는 말을 하자 공손녹악은 더 이상 모친의 말을듣지 않고 다만 양과가 한 걸음씩 대청을 벗어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갑자기 달려나가며 고함쳤다.

[양과, 이 무정한 놈아. 내 눈을 멀게 해 놓고는......]

양과는 깜짝 놀라 당황하며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다.

(이 아가씨는 지금껏 고상하고 예의를 잘 지켰는데 어찌해서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태도를 보일까? 설마 내가 용이와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는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해 그런 건 아니겠지?)

그는 약간 미안함을 느끼고는 머리를 돌렸다.

[공손 아가씨......]

공손녹악이 갑자기 욕을 해 댔다.

[이 도둑놈아. 곡에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렵다고 내가 말을 했을 텐데......]

그녀는 입으로는 비록 욕을 했지만 얼굴 표정은 오히려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며 눈짓을 했다. 양과가 이를 보고는 다른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같이 큰소리로 욕했다.

[내가 어쨌다고? 이까짓 절정곡을 빠져나가는 게 뭐가 힘든단 말이오?]

그는 대청 쪽을 향해 구천척과 똑바로 마주 보고 있었으므로 얼굴에 이상한 빛을 띨 수가 없었다. 녹악이 계속 욕을 했다.

[내 너를 두 조각으로 갈라서 네 심장을 끄집어내 쳐다보지 못하는 게 한스럽......]

입을 벌려 푸, 하는 소리를 내며 1개의 조핵을 양과의 정면으로 날렸다.

양과가 손을 뻗어 그것을 잡으며 말했다.

[빨리 나를 돌려 보내 주면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겠소. 이런 하찮은 기교로 나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소?]

녹악은 눈짓을 해 그에게 빨리 갈 것을 이른 다음,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쳤다.

[어머니, 그가......, 그가 나를 속였어요!]
하며 급히 대청으로 되돌아왔다. 그녀의 한바탕 짝사랑은 결국 헛되이 돌아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었으니 지금의 상심은 정말로 거짓이 아니었다. 구천척은 그녀의 만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녹악아, 이게 무슨 꼴이냐? 그놈은 오래 살지 못할 놈이다!]

녹악은 그녀의 무릎에 엎드려 흐느낌을 멈추지 않았다.

이 한바탕의 속임수에 모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으나 황용만은 속으로 웃었다.

(그녀가 거짓으로 양과에게 화를 낸 것은 모친으로 하여금 그를 막지 못하게 해 이 기회를 틈타 약을 훔치려는 것이다. 어린 양과가 도처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이 많은 미모의 아가씨들로 하여금 자신을 돕게 만들 줄은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황용은 정영과 육무쌍을 한번 쳐다보았다.

양과가 조핵을 받아 쥐고는 급히 걸어가면서 녹악의 말이 매우 기괴하여 일시에 어떤 뜻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소용녀 또한 녹악의 안색과 눈매를 보고 그녀의 욕설이 거짓임을 알았다.

[여보, 그녀가 거짓으로 당신에게 화를 낸 것은 그녀의 모친으로 하여금 우리를 막지 못하게 해서 몰래 단약을 훔치려는 것이 아닌가요?]

[거의 그런 뜻일 거요.]

두 사람이 모퉁이를 돌아선 다음 양과는 사방에 아무도 없음을 보고 손을 들어 손바닥의 조핵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감람(橄欖)의 씨였는데 중심 부분에 몇 가닥의 가는 틈이 있었다. 양과가 손가락에 약간 힘을 주자 그 씨는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 중간의 공간에 한 장의 엷은 종이가 감추어져 있었다. 소용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 아가씨의 말 속에 수수께끼가 감추어져 있었군요. <두 조각으로 갈라서 심장을 끄집어내어 쳐다본다> 라고 한 말이 원래 이런 뜻이었군요.]

얇은 종이를 펼쳐서 두 사람이 고개를 숙여 같이 쳐다보니 종이 위에 글씨가 씌어 있었다.

<반 개의 단약은 모친께서 극비의 장소에 감추셨으니 몰래 훔쳐드리겠읍니다. 천축승과 주선배는 화완실(火浣室)에 갇혀 있읍니다.>

글자 옆에는 한 장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통로가 빙빙 돌아 굽어진 끝 지점에 <화완실>이라고 씌어 있었다. 양과는 크게 기뻐했다.

[빨리 갑시다. 때마침 아무도 우리를 가로막지 않으니......]

여자 제갈량

절정곡은 상당히 넓게 자리잡고 있었다. 뺑 둘러 산이 에워싼 가운데 둥그렇게 억 3만여 묘(1묘=660m)나 되었다. 길이 꼬불꼬불하고 구릉들이 병풍처럼 높게 막아 섰지만 양과와 소용녀는 경공을 시전해 지도를 따라 순식간에 다다랐다. 전면에 7,8장 크기의 커다란 느릅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그 아래 벽돌 기와를 굽는 커다란 가마가 있었다. 지도에는 이 안에 천축승과 주자류가 갇혀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양과가 소용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기에서 기다려요. 내가 들어가 볼 테니. 안에는 먼지투성이

라 분명 매우 지저분할 거요.]

양과가 허리를 굽혀 가마 문을 밀치고 한 발 들여놓자 열기가 확 밀려나왔다. 이내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양과가 말했다.

[곡주의 명으로 죄수들을 데리러 왔다.]

그 사람이 벽 뒤에서 몸을 드러내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그는 양과를 보더니 상당히 놀라면서 말했다.

[당신은......, 당신은!]

양과는 그 녹색 옷의 제자를 보더니 곧 말했다.

[곡주께서 그 화상과 주씨 성의 서생을 데리고 오라고 내게 명령했소.]

그 제자는 양과가 곡주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더구나 곡주가 여러 사람 앞에서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 녹악도 그와 사이가 좋으니 이 사람은 후에 십중 팔구 곡주가 될 것인데 감히 잘못 보일 수가 없었다.

[그래요?......곡주의 영패(令牌)는요?]

양과는 대꾸도 않고 말했다.

[어서 들어가 보자.]

그 사람이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벽돌 벽을 들어가자 열기가 한층 더했다. 2명의 일꾼들이 재를 나르고 있었다. 밖은 엄동설한인데도 이 두 사람은 상반신을 벗어 젖힌 채 짧은 바지 하나만을 입고 있었다. 그러고도 온몸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 제자가 큰 바위 하나를 밀어내자 조그만 구멍이 나타났다. 양과가 고개를 들이밀어 살펴보니 1평 남짓한 네모진 석실 안에 주자류가 벽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식지를 뻗어 벽면에 글을 써 자신의 심정을 풀어 보려는 것 같았다. 그의 손놀림이 매우 자유로왔으며 글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같이 보였다. 천축승

은바닥에 누워 있어 생사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양과가 소리쳤다.

[주대숙(大叔), 안녕하십니까?]

주자류가 고개를 돌려 웃으며 말했다.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역열호아?(有朋自遠方來 不亦說乎)]

양과는 그가 여러 날을 갇혀 있었으면서도 평소처럼 편안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자 속으로 탄복했다. 위험에 처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도 그냥 담담했다. 이러한 배포는 자기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었다.

[신승(神僧) 노인네는 잠이 들었나요?]

소용녀의 생사가 이천축승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되자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었다. 주자류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있다가 천천히 말했다.

[사숙 노인네의 열기.한기에 대한 저항력은 원래 내가 미칠 수 없는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말로 보아 천축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자 양과는 조급해져 그가 말을 채 끝내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얼른 몸을 돌려 녹색 옷의 제자에게 말했다.

[얼른 이 문을 열어 그들을 데려오시오.]

그 제자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열쇠가 있어야지요? 이 열쇠는 곡주께서 직접 관장하십니다. 만약 당신께 명령을 내렸다면 분명 당신께 열쇠를 주었을 텐데요.]

양과가 다급해져 소리쳤다.

[비켜라!]

현철검을 들어 일검을 내려쳤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그 제자는 그만 놀라 멍하니 서 있었다. 양과가 계속 세 번을 찌르고 두 번 내리치자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정도의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주자류가 소리쳤다.

[양형제, 무공이 꽤나 진보되었군!]

그는 천축승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양과가 얼른 손을 뻗어 받았다.

천축승의 팔에 온기가 느껴지자 마음이 다소 놓였다. 그러나 그의 두 눈이 굳게 닫혀져 있는 것을 보자 섬뜩했다.

(어이쿠, 이 안에서는 죽은 사람도 뜨거워 쪄지겠구나.)

얼른 그의 코에 손을 대어 보니 미약하게 호흡하고 있었다. 주자류가 이어서 구멍을 빠져나와 말했다.

[사숙께서 기절하신 것 같은데 그리 염려할 것 없네.]

양과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다. 그는 천축승의 사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구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대사께서 열 때문에 기절하신 것이오? 얼른 밖으로 나가 바람을 쏘이게 합시다.]

소용녀는 세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자 매우 기뻐했다. 양과가 말했다.

[냉수를 갖고 와 대사의 얼굴에 뿌려 주시오.]

주자류가 말했다.

[아니야, 사숙께서는 정화지독에 중독된 것이야.]

양과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중독 상태가 어때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사숙 자신이 꽃을 꺾어 찌른 것이니.....]

양과와 소용녀는 이해할 수 없어 동시에 물었다.

[왜요?]

주자류가 탄식을 하며 말했다.

[사숙께서 말씀하시길 이 정화는 천축에서는 이미 멸종됐는데 어떻게 중원땅에 흘러들어왔는지 모르겠다 하셨지. 만약 밖으로 유출된다면 매우 큰 재난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야. 그 당시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이 정화지독 때문에 죽었었지. 그래서 사숙께서는 평생 해독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전념하셨어. 그러나 정화의 독성이 매우 괴이하고, 그가 이 계곡에 들어왔을 땐 영단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설사 얻는다 해도 한 사람밖에는 구할 수 없지 않은가? 그는 많은 사람

을 구할 수 있는 해독 방법을 찾기를 바랐어. 그래서 그는 독성이 어떠한가를 몸소 시험해 본 뒤 약을 지어 보려 했던 거야.]

양과는 놀랍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했다.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에 가야 한다는 것이군요. 대사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니 정말 탄복하지 않을 수 없군요.]

주자류가 말했다.

[옛사람이 말하길, 옛날 신농(神農)씨는 약을 찾기 위해 백 가지 약초를 맛보았다고 하지. 때문에 종종 독초를 잘못 먹어 얼굴빛이 푸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사숙께서도 이러한 도량을 가슴에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

양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노인네가언제쯤 깨어날 수 있겠어요?]

주자류가 말했다.

[그가 스스로 정화를 찌르면서 말씀하시길, 만약 잘못되지 않는다면 삼 일이면 깨어날 것이라고 했어. 벌써 이틀이 가까와졌군.]

양과와 소용녀는 마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가 삼 일간이나 기절해 있었다면 매우 심하게 중독된 것이다. 또한 정화의 독성이 사람에 따라 다르고, 마음속에 만약 남녀간의 정이 일어난다면 독성은 더욱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 대화상은 수도하여 마음이 텅 빈 상태라 그런 점은 염려되지 않는구나.)

소용녀가 말했다.

[당신들은 이 가마 안에 있으면서 어디서 정화를 찾았지요?]

주자류가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이 이 가마 안에 갇힌 후 한 젊은 아가씨가 찾아와서..]

소용녀가 말했다.

[키가 크고 몸은 호리호리한 게 얼굴색이 하얗고, 입술 옆에 작은 점이 있지 않던가요?]

[맞아요?]

소용녀가 양과에게 한번 웃고는 주자류에게 말하였다.

[바로 곡주의 딸인 녹악 아가씨예요 그녀는 두 분께서 제 남편의 약을 구하러 왔다고 말한 것을 듣고 살펴보러 왔던 거예요. 감히 당신들을 풀어 주지는 못했지만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다 들어주었을 거예요]

주자류가 말했다.

[그렇소. 사숙께서 그녀에게 정화의 가지를 꺾어 달라고 부탁한 것과 내가 그녀에게 밖에다 구원의 소식을 전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그녀는 일일이 받아 주었소. 이 가마 안에는 매일 두 시간 가량 불을 세차게 때는데 그녀가 절충하여 불길을 약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견딜 수 있었던 거요. 내가 그녀에게 누구신지 신분을 물어 봤는데도 그녀는 한사코 말하지 않았소. 그녀가 바로 곡주의 딸인 줄은 생각지도 못했군요.]

소용녀가 말했다.

[우리가 이리로 찾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 아가씨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에요.]

양과가 말했다.

[일등대사도 왔답니다.]

주자류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자, 우리 나갑시다.]

양과가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말했다.

[바로 자은 화상도 왔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질까 염려되는군요.]

주자류는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자은 사형이 왔는데 어째서 좋지 않단 말이냐? 그들 남매가 만나면 구곡주도 형제간의 정리를 생각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는 비록 자은보다 먼저 사문에 들어왔지만, 자은의 무공과 강호에서의 신분은 원래부터 일등대사와 어깨를 견줄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점창어은과 주자류 등은 그를 존경하여 모두 그를 사형으로 여겼다. 주자류가 녹악에게 구원 소식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자은이 이리로 와서 양가가 화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서였다. 그런

데 양과는 오히려 일이 성가시게 되었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양과는 자은이 실수하여 구천척과 말다툼을 한 상황을 간략히 말해 주었다. 주자류가 말했다.

[곽부인이 절정곡에 왔으니 잘된 일이지. 그녀의 권모술수는 당할 사람이 없어. 게다가 내 사부가 대국을 주관하고 있고, 양형제 당신의 무공도 상당히 정진되어 있으니 그가 변할 리는 없어. 난 오히려 사숙의 몸이 걱정되네.]

양과도 천축승의 안위가 제일 급한 일이라고 여겨 말했다.

[대사께서 깨어나기를 기다릴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아봅시다. 우리 부부와 주대숙이 함께 지켜 보면 되지 않겠어요?]

주자류가 신음하며 말했다.

[어디가 좋을까?]

한참을 생각해 보아도 이 절정곡 안은 모두 위험하여 편안히 정양할 장소를 찾기란 어려울 것 같았다. 순간 번쩍 생각이 났다.

[바로 이곳이다.]

양과는 흠칫했으나 곧 알아차리고 웃으며 말했다.

[주대숙의 말은 일리가 있어요. 얼른 보면 이곳은 매우 위험한 곳처럼 보이나 실상 이곳이야말로 절정곡 안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지요. 여기를 지키는 몇 명의 녹의 제자만 제압해서 비밀이 누설되지 않게 해 놓으면 그만이지요.]

주자류는 손으로 허공을 한번 찌르고 웃으며 말했다.

[그 일이야 쉽지.]

천축승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해. 또 당신 부부가 우리를 도와주니 말야.]

양과는 일등대사의 중상이 완쾌되지 않았고 자은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만약 천축승 한 사람만을 지킨다면 이는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이라 여겨져 마음이 편치 않았다. 주자류가 천

축승을 안고 가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양과도 소용녀와 함께 다시 왔던 길을 찾아 되돌아갔다.

두 사람은 정화가 빽빽이 들어선 곳을 지나갔다. 때는 엄동설한이라 정화는 피어 있지 않았으며 잎사귀도 모두 떨어져 앙상한 가지들만이 흉칙하게 보였다. 가지 위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가득했다.

양과는 갑자기 이막수를 떠올리며 말했다.

[정이란 것은 때로는 아름답기 그지없지만 때론 추하기 그지없는 것이지요. 마치 당신 자매와 같이. 봄의 꽃은 이미 졌지만 날카로운 가시는 여전히 사람의 목숨을 앗을 수가 있지.]

소용녀가 말했다.

[신승이 정화지독을 해독할 묘약을 만들어 당신을 치료하고 사자도 구하게 되면 좋겠어요.]

양과는 마음속으로 어서 천축승이 정신을 차려 소용녀의 내장에 입은 극독을 치료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만약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내를 바라보니 무한한 부드러운 정이 일어났다. 순간 가슴에 극통이 밀려왔다. 그는 방금 정영.육무쌍 자매를 구하기 위해 독성이 더 깊어졌기 때문이었다. 소용녀가 자신을 가엾게 생각하고 난감해 할까 봐 얼른 고개를 돌려 앙상한 가지를 바라보았다. 사랑이 피어오르는 즐거움과, 생사가 망망한 괴로움을 생각하며 양과는 자신도 모르게 멍해졌다.

이즈음 절정곡 대청 안에서는 또 다른 광경이 벌어졌다. 구천척이 이오빠를 몰아세우며 말투가 갈수록 거세어졌다. 일등대사는 아무말 없이 자은의 뜻에 맡겨 두었다. 자은은 누이동생을 바라보더니 사부를 바라보고, 또 황용을 바라보았다. 한 명은 한핏줄이요, 한 명은 법을 전수한 은사이고, 한 명은 형을 죽인 원수라 마음속에서 온갖 은원이 일어나며 선악이 서로 경쟁하고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크고 작은 일들이 뇌리 속에서 스쳐 지나가며 때로는 눈물이 어리다가 때로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마음속의 한바탕

의 불길을 그가 평생토록 겪은 어떠한 격전보다도 더욱 격렬했다.

양과가 대청을 나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육무쌍은 자은의 심경이야 어찌 됐든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살며시 정영의 옷소매를 잡아끌어 몰래 대청 밖으로 나갔다. 정영이 뒤따라 나왔다. 육무쌍이 말했다.

[바보가 어디 갔지?]

정영이 대답 대신 말했다.

[그가 정화지독에 중독됐는데 상세가 어찌 됐는지 모르겠구나.]

육무쌍도 걱정이 되어 돌연 말했다.

[진짜 모르겠어요. 그가 끝내 그의 사부와......]

정영이 맥빠진 소리로 말했다.

[그 용아가씨는 예쁘고, 또 사람도 좋아. 그러한 사람이라야 양형의 배필이 될 수 있을 거야.]

육무쌍이 말했다.

[언니가 어떻게 용아가씨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 그녀와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잖아요?]

갑자기 뒤에서 한 여자가 차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발도 절지 않으니 좋을 수밖에.]

육무쌍이 순간 유엽도를 뽑아 들고 뒤돌아보니 곽부가 서 있었다. 곽부는 그녀가 칼을 뽑아 들자 얼른 몸 뒤에 있던 야율제의 허리에서 장검을 뽑아 들고 서로 노려보며 소리쳤다.

[덤빌 테냐?]

육무쌍이 호호호 웃으며 말했다.

[왜 자기의 검을 사용치 않지?]

그녀는 어려서부터 다리를 절어 매우 한스러워했다. 아무도 그녀의 면전에서는 그 일을 꺼내지 않았는데 곽부가 몇번이나 절름발이라고 놀려대자 극도로 화가 치밀었다. 그녀도 상대방의 부러진 검의 일을 들어 말대꾸를 한 것이다. 곽부가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남의 검을 쓰는 것은 네게 무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다.]

그녀가 장검을 허공에 대고 휘두르자 쉭쉭,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육무쌍이 말했다.

[위아래도 없구나 너는. 원래 곽씨네 애들은 선배에게 이처럼 무례한가? 좋다! 오늘네게 한 수 알려주어 좋고 나쁜 것을 알게 해 주겠다.]

곽부가 말했다.

[피, 네가 어째서 선배냐?]

육무쌍이 웃으며 말했다.

[내 이종 언니가 너의 사숙이니까 너는 내게 고모라 부르든지 이모라 불러야지. 내 이종 언니에게 물어 보렴!]

말하면서 정영을 가리켰다.

곽부는 모친의 명으로 정영을 <사숙>으로 불렀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으며, 외할아버지께서 이처럼 어린 제자를 멋대로 거두어들인 점이 창피했다. 또 정영의 나이가 자신과 비슷하며 대단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육무쌍에게 당하게 되자 말했다.

[진짠지 가짜인지 누가 알어? 내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어떤 몰염치한 무리들이 그분의 제자랍시고 다니는 줄 누가 알겠어?]

정영은 비록 성질이 온유했지만 이 말을 듣자 자신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로지 양과의 안위만이 걱정될 뿐 그녀와 다툴 만큼 한가로운 생각이 없었다.

[무쌍아, 우리......, 우린 양오빠나 찾으러 가자.]

육무쌍이 고개를 끄덕이며 곽부에게 말했다.

[너 똑똑히 들었지? 나보고 동생이라고 하잖아?곽대협과 황방주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어 어떤 몰염치한 무리가 그 두 분의 자식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줄 누가 알겠어!]

그녀는 까르르 웃으며 몸을 돌려 걸어갔다. 곽부가 순간 멍하니 생각했다.

(누가 감히 우리 엄마 아버지의 자식 흉내를 낸단 말인가?)

그러나 곧 깨달았다.

(아차! 그녀는 내가 잡종이라고 욕한 것이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의 친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욕을 한 것이었구나!)

그녀의 말뜻을 알아채자 곽부가 어찌 참아 낼 수가 있겠는가? 즉각 뒤쫓아가 검으로 그녀의 등뒤를 찔러 갔다.

육무쌍은 검날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듣자 얼른 검을 휘둘러 막아냈다. 쨍그렁, 소리와 함께 팔이 약간 저려 왔다. 곽부가 소리쳤다.

[나를 잡종이라고 욕했겠다?]

그녀는 장검을 잇달아 휘둘러 댔다. 육무쌍이 이리저리 막아내며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곽대협은 충의로운 분이고 황방주는 도화도주의 친딸로, 두 분의 덕행은 매우 두터워......]

곽부가 말을 끊었다.

[말할 나위가 있느냐? 나의 부모를 칭찬해 내게 비위를 맞출 필요까지는 없다.]

그녀는 육무쌍이 진심으로 그녀의 부모님을찬양하는 것으로만 알고 자연 검초의 세력도 느려졌다. 그런데 육무쌍이 계속 말했다.

[너 자신은 말야, 너는 양오빠의 팔을 잘라 버렸어. 근데 그 일의 진상도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어. 이러한 행동이 곽대협 부부와 어디가 비슷한 점이 있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네.]

곽부가 말했다.

[무슨 의심?]

육무쌍이 엉큼스러이 말했다.

[네 스스로 생각해 봐!]

야율제는 곽부의 성질이 곧바르기만 해 육무쌍의 재치에는 못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말다툼을 하면 분명 질 것이 뻔했다. 몇 마디만에곽부는 벌써 밀리고 있었다. 그는 옆에 서 있다가 말했다.

[곽아가씨, 그녀와 더 이상 말하지 말아요.]

곽부의 무공은 육무쌍보다 위에 있어 그냥 대결한다면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곽부는 화가 난 나머지 야율제의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말했다.

[참견 말아요! 난 그녀에게 확실히 따져 봐야겠어요.]

육무쌍이 야율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개에게 물린 꼴로, 후에 당신은 골탕을 먹을 것이다.]

야율제의 얼굴이 빨개졌다. 육무쌍은 이미 야율제가 곽부에게 연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이 말은, 이 아가씨가 이처럼 고집세고 멍청하니 당신에게 후환이 많겠다고 한 것이었다.

곽부는 야율제의 얼굴이 붉어지자 돌연 덜컥 의심이 일어 물었다.

[당신도 내가 우리 부모의 친딸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건가요?]

야율제가 급히 말했다.

[아뇨, 그럴 리가.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말고 후린 갑시다.]

육무쌍이 끼어들었다.

[그는 당연히 의심하는 것이지. 아니면 왜 빨리 가자고 하겠어?]

곽부는 얼굴이 시뻘개져 아무런 말도 못했다. 야율제가 얼른 말했다.

[육아가씨는 말에 가시가 돋친 듯 매서우니, 당신은 말 대신 무공으로 대적해 봐요.]

육무쌍이 끼어들며 말했다.

[그는 바로 네가 말을 잘 못 하니 말해 봤자 추한 꼴만 보인다는 뜻이야.]

이때 곽부는 야율제에게 연정이 있어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있었다. 설령 아무런 근거 없는 옆 사람의 말 한마디라도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과 관련된 말을 하게 되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육무쌍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 야율제가 정말 자신을 천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총애를 받았고, 두 무씨 형제도 그녀에게 잘 대해 주었다. 양과가 그녀에게 반항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

금껏 남에게 당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상당히 대단한 상대를 만나자 꿀리게 되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말해 봤자 상대방에게 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네 한쪽 다리를 잘라 버려 절뚝거리게 못 한다면 내 성씨는 곽씨가 아니다.]

이어 질풍같이 검을 휘두르며 육무쌍에게 달려들었다. 육무쌍이 말했다.

[내 다리를 자를 필요가 뭐 있어? 네 성씨가 장씨인지 이씨인지 누가 알어?]

육무쌍은 그녀를 <잡종>이라고 욕을 해 댔다. 말하는 사이에 두 사람은 검을 서로 휘두르며 격렬하게 다투었다.

곽정 부부가 딸에게 전수해 준 무공은 모두 최상승 무공이었다. 이러한 무공은 기초부터 착실히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속성으로 연마하기는 힘든 것이었다. 곽부의 천성은 모친보다 부친을 더 많이 닮았다. 기초가 비록 좋고 정통 무공을 배웠다 하지만 아직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매서운 살수는 펼칠 수가 없었다. 육무쌍은 결코 그녀의 상대가 못 되었다. 게다가 왼발을 절어, 움직이고 뛰는데 그다지 민첩하지 못했다. 곽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공격을 모두 하반신에다 두고 초식을 펼쳤다. 검광이 번쩍번쩍하며 그녀의 오른쪽 다리를 찔러 버리려고 했다.

정영은 곁에서 보다 못해 수려한 눈썹을 약간 찌푸리며 생각했다.

(이종 동생이 비록 매섭게 욕을 해 댔지만 곽부도 상당히 난폭하구나. 양오빠의 오른팔을 잘라 놓고도 참회는 커녕 이젠 사촌 동생의 오른쪽 다리마저 베려고 하는구나.)

육무쌍이 계속 뒤로 밀리며 곽부가 압박해 들어갔다. 돌연 찌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육무쌍이 치마에 길게 금이 가며 이어 <아앗!>하는 소리가 들렸다. 육무쌍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곽부가 두 걸음 다가서며 다리를 비스듬히 쓸어 갔다. 그녀가 승리를 거둔 뒤, 계속 공격하여 육무쌍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자 정영은

뛰어들어 두 손을 저으며 말했다.

[이젠 그만 해요.]

곽부가 검을 들고 보니 검날에 핏자국이 나 있었다. 육무쌍의 다리에 상처를 입은 것을 알게 되자 득의양양해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은 이만 할 테다. 이후로 다시 헛소리를 하면 그냥 안 두겠다.]

육무쌍은 다리의 통증을 참으며 말했다.

[네가 검 한 자루로 천하의 많은 사람들의 입을 다 봉할 수 있겠느냐?]

그녀는 곽부가 부모 덕에 설치는 것이 아니꼬와 그녀가 곽정.황용의 딸이 아니라고 모함하는 것이었다. 곽부가 소리쳤다.

[천하의 사람들이 뭐라고?]

한 발을 내디디며 장검을 쭉 뻗어 그녀의 가슴팍을 찔러 갔다.

정영이 중간에 있다가 장검이 찔러 들어오자 세 손가락으로 슬쩍 검날과 평면이 되게 하여 가볍게 밀어 버렸다. 장검을 옆으로 삐치게 한 후 정영이 말했다.

[이종 동생, 곽아가씨. 우린 지금 위험한 곳에 있으니 이런 쓸데없는 싸움은 그만 해요.]

곽부는 자신의 공격이 정영 때문에 무위로 끝나게 되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어 화를 버럭 내며 말했다.

[당신이 그녀를 도와 주려고? 그래 좋다. 너희 두 사람이 나 한사람을 상대한다고 내가 겁낼 줄 알고! 어서 병기를 뽑아라!]

그녀는 장검으로 정영의 가슴을 가리키며 그녀가 허리에서 퉁소를 꺼내기를 기다리며 찌르지 않고 있었다. 정영이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난 너희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권유한 것인데 왜 그러지? 야율오빠, 곽소저를 좀 타일러 보세요.]

야율제가 말했다.

[알았어. 곽소저, 우린 적지에 있으니 항시 조심해야 돼요.]

곽부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그래요. 당신은 나를 돕지 않고 오히려 딴 사람을 돕는군요.]

그녀는 정영의 자태가 의연하고 우아한 것을 보자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다.

(설마 그가 그녀에게 반한 것은 아니겠지?)

야율제는 조금도 그녀의 생각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다.

[자은 화상은 좀 괴상한 점이 있으니 우린 어서 자당을 살펴보러가요]

육무쌍은 곽부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또 그녀의 표정을 살피는 순간 그녀의 속마음을 눈치채고 말했다.

[내 이종 언니는 너보다 용모도 예쁘고 인품도 온유하고 무공도 더 강하다. 넌 매우 조심해야 돼.]

이 말은 구절구절 모두 곽부의 심사를 흔들어 놓았다.

[내가 뭘 조심해야 된다고?]

육무쌍이 냉소를 띄며 말했다.

[내가 바보여도 너보다는 이종 언니를 좋아하겠다. 너처럼 난폭 무도한 애를 누가 좋아하겠니?]

이 말이 뜻하는것은 분명했다. 곽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장검을 들어 정영을 비켜 육무쌍의 옆구리를 찔러 갔다.

그녀의 이 일초는 옥루최은전(玉漏催銀箭)이라 불리는 것으로 황용이 전수한 가전 절기였다. 검끝이 반원을 이루어 세력이 다소 느린 듯하지만 검날이 덮는 세력은 상당히 넓었다. 무공이 그녀보다 강한 상대도 병기로 강하게 막아내지 않는다면 피하기가 꽤 어려운 초식이었다. 정영은 눈살을 찡그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가씨는 어째서 이토록 흉악무도한 초식을 사용할까? 내 이종 동생이 비록 말을 심하게 하긴 했으나 무슨 원한을 산 원수도 아닌데 어째서 경중을 따지지 않고 살수를 펼치는 것인지 모르겠군.)

마침 황약사도 그녀에게 이 검법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이 일초가 가슴을 스쳐 지나갈 때 중지(中指)를 움츠렸다가 곽부의 검이 반원을 그릴 때 땅, 하는 가벼운 소리를 내며 장검을 땅에 떨구게 했다.

이러한 튕김은 정영의 탄지신통(彈指神通) 무공이었다. 상대의 검법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곽부의 검초에 드러난 찰나간의 허점을 이용해 튕겨 버렸던 것이다. 원래 두 여자의 무공은 서로 엇비슷해 간단한 손가락 힘만으로는 곽부 수중의 병기를 떨구기가 쉽지 않았었다. 그녀는 이어 왼발로 장검을 밟고 퉁소를 꺼내 들어 곽부의 허리 사이의 혈도를 찍으려 했다. 이러한 행동은 순간적으로 일어나 곽부는 기선을 제압당하여 매우 당황했다. 몸을 굽혀 검을 집으려니 허리 사이의 혈도를 상대방에게 찍힐 판이었다. 그러나 만약 그냥 뒤로 물러선다면 장검을 상대에게 빼앗기게 될 판이었다. 그녀의 무공은 비록 약하지 않았으나 실전 경험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일순 얼굴이 새빨개져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야율제가 소리쳤다.

[여보시오, 소저. 왜 남의 병기를 밟고 있는 것이오?]

그는 긴 팔을 쭉 뻗어 퉁소를 잡으려 했다. 정영은 팔을 움츠리며 몸을 돌려 육무쌍을 부축해 걸어갔다. 곽부가 황급히 검을 주워들며 소리쳤다.

[잠깐만, 우리 다시 한번 겨루어 보자.]

육무쌍이 고개를 돌려 웃으며 말했다.

[다시 겨루......]

정영은 팔을 들어 그녀를 데리고 잇달아 세 걸음을 뛰었다. 두 사람은 이미 수 장 밖으로 벗어나 육무쌍이 말이 다 들리지 않았다. 야율제가 말했다.

[곽소저, 그녀가 다행히도 일초를 막아냈지만 사실 당신들 두 사람은 승패를 가리기 힘들었어요.]

곽부가 한스러운 듯 말했다.

[그래요. 내가 반원을 그리며 찌르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허점을 노려 손가락을 뻗었어요. 그녀가 어떻게 그런 수법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야율제는 <음> 하는 소리를 냈다. 그는 성질이 강직해 비위를 맞추는 따위의 말을 잘 하지 못했다.

[그 정영 소저는 무공이 강하니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면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곽부는 그가 정영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자 미간 사이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대뜸 나오는 대로 말했다.

[그녀의 무공이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에요?]

[응.]

곽부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럼 난 상관 말고 그녀를 따라가시지요.]

하고 말하며 몸을 홱 돌렸다. 야율제가 급히 말했다.

[적을 가볍게 보지 말고 조심하라는 소리가 당신을 돕는 것이오, 아니면 그녀를 돕는 것이오?]

곽부는 그의 말 속에 확실히 자신을 감싸는 뜻이 담겨 있음을 알고 픽 웃었다. 야율제가 말했다.

[내가 검을 빼앗도록 도와 주지 않았던가요? 아직도 나를 책망하오?]

곽부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래요, 당신을 책망해요!]

그녀의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 감돌았다. 야율제가 즐거워하는 순간, 대청 안에서 고함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동시에 챙챙, 철기 부딪치는 소리가 끊임없이 났다. 곽부가 소리쳤다.

[빨리 가 봐요.]

그녀는 원래 구천척이 끊임없이 중얼대며 수십 년 전의 옛날 일을 말하는 것을 듣자, 들으면 들을수록 지겨워져 빠져나와 아무 이유없이 정영 자매와 한바탕 싸운 것이다. 이때 이상한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오자 모친이 걱정이 되어 얼른 대청으로 되돌아갔다.

대청 한가운데에는 일등대사가 손에 염주를 들고 앉아서 염불을 외고 있었다. 얼굴빛은 장엄하고 자상해 보였다. 자은은 대청 위를 급히 뱅글뱅글 돌면서 처참한 고함소리를 수시로 질러 대고 있었다. 손에는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수갑 사이에 연결된 철근은 이미 절단되어 움직일 때

마다 서로 부딪쳐 쩔렁쩔렁, 하는 소리가 났다. 구천척은 얼굴빛이 푸르딩딩한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본래 못생겼는데 지금은 더욱 괴기스럽게 보였다. 황용.무삼통 등은 대청 모서리에 서서 자은의 동정을 살펴보고 있었다.

자은은 이마에 땀이 송송 맺힐 정도로 한바탕 뛰었다. 정수리에서 수증기 같은 흰 연기가 모락모락 났다. 흰 연기는 점점 진해져 갔고 그 또한 점점 빨리 달렸다. 일등대사가 힘껏 소리쳤다.

[자은, 자은! 선악의 구분을 오늘까지도 아직 깨닫지 못했단 말이냐?]

자은이 멍하니 섰다가 흔들거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구천척이 말했다.

[녹악아, 어서 외삼촌을 부축해라.]

공손녹악이 달려나가 그를 일으켰다. 자은이 눈을 떠 보니 녹악의 얼굴이 눈앞에서 어른어른 보였다. 그녀의 긴 눈썹, 자그마한 입, 예쁘장한 얼굴 등이 여동생의 모습을 빼닮았다.

[얘, 여기가 어디지?]

[외삼촌, 저 녹악이에요.]

[외삼촌? 너는 누군데 나보고 외삼촌이라고 하지?]

구천척이 말했다.

[둘째 오빠, 제 딸이에요. 그 애는 큰외삼촌을 보고 싶어해요.]

자은이 놀란 듯이 말했다.

[큰형이라? 넌 보지 못했겠구나. 형은 철장봉 아래로 떨어져 가루가 되어 시신조차 남아 있지 않아.]

벌떡 일어나서 황용을 가리키며 말했다.

[황용, 큰형은 당신이 죽인 것이다. 너......, 너는 형의 목숨을 보상해라!]

곽부는 대청에 들어선 후, 모친 곁에서 동생을 건네 받아 품에 안고 있었다. 돌연 자은이 모친을 가리키며 험상⇒돎은 태도를 취하자 참을 수가 없어 몇 걸음 앞으로 나와 소리쳤다.

[화상, 내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군다면 소저가 용서치 않겠소.]

구천척이 냉소를 띄며 말했다.

[조그만 계집아이가 간도 크게......]

자은이 말했다.

[넌 누구지?]

곽부가 말했다.

[곽대협은 내 아버지이고 황방주는 내 엄마요.]

[네가 안고 있는 갓난아기는 누구냐?]

[내 동생이오.]

지은이 엄숙한 말투로 말했다.

[흥, 곽정.황용이 두 아이를 낳았구나.]

황용은 그의 말투가 이상스레 여겨져 얼른 소리쳤다.

[부야, 어서 비켜!]

곽부는 자은이 미친 사람처럼 말해 놓고는 한동안 꼼짝 않고 있자 그가 모친이 겁이 나서 그러는 줄 알고 겁도 없이 한 발 다가서며 말했다.

[재주가 있으면 어서 복수해 보시지. 재주가 없으면 입 닥치고 있든가!]

자은이 소리쳤다.

[한 가지 재주로 복수하겠다!]

이 고함소리는 공중에서 천둥소리처럼 울려 탁자 위에 찻잔들이 달그락달그락, 하는 소리를 냈다. 곽부는 이 사람이 이러한 소리를 낼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다가 깜짝 놀라 당황해 어쩔 줄 몰랐다. 자은은 좌장을 뻗으며 오른손을 갈쿠리처럼 하여 동시에 습격했다. 두 덩어리의 강력한 힘이 바닷물처럼 밀려들어 왔다. 곽부는 뒤로 피하려 했지만 이미 그럴 수가 없었다.

황용.무삼통.야율제, 세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이 뛰어들었다. 세 사람은 순간적으로 갈쿠리 모양을 한 자은의 오른손은 흉폭스럽기는 하지만 좌장처럼 인명을 앗아갈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간파했다. 때문에 세 사람의 장력은 일제히 그의 좌장에 부딪쳐 갔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4 개의 장력이 부딪쳤다.

자은은 음, 하며 꼼짝 않고 서 있었다. 황용 등 세 사람은 동시에 뒤로 몇 보 물러났다. 야율제의 무공이 가장 얕아 가장 멀리 물러났고 다음이 황용이었다. 그녀는 신형을 가다듬기도 전에 딸 쪽을 바라보았다. 곽양은 벌써 자은의 손에 있고 곽부는 망연자실하여 피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서 있었다. 황용이 질겁을 했다.

(곽부가 장력에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닐까?)

즉시 달려들어 왼손으로 그녀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타구봉을 휘둘러 <봉(封)>자 결을 사용해 몸 앞을 보호했다.

자은의 장력이 맹렬했지만 그녀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다. 곽부는 사실 상처를 입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상당히 혼란하여 모친의 품에 안겨서야 <아> 하는 소리를 질렀다.

이때 무씨 형제.야율연.완안평 등은 자은이 끝내 공격하는 것을 보자 각자 병기를 뽑아 들었다. 구천척 수하의 제자들도 분분히 흩어져 곡주의 명령만 떨어지면 공격할 채비를 갖추었다. 오직 일등대사만이 대청 가운데 앉아 주변의 변화에 아랑곳없이 불경을 낭랑하고 청아하게 외고 있었다. 자은이 곽양을 치켜들며 말했다.

[이 곽정.황용의 딸애를 먼저 죽여 버리고 난 후 황용을 없애겠다!]

구천척이 신나서 소리쳤다.

[둘째 오빠! 이제야 세상에 그 이름을 떨쳤던 철장수상표 구대방주의 모습을 되찾았군요.]

당시 정세로 보아 황용 등 아무도 자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설사 암기를 사용해 그를 이긴다 해도 이 미치광이 수중에 들어간 갓난아기를 빼앗아 온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곽부가 돌연 소리쳤다.

[양과, 양오빠! 어서 내 동생을 구해 줘요.]

그녀가 누차 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양과가 나타나 그녀를 구해 주었던 것이다. 이때도 모두들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자 마음속에서 저절로 양과가 나타나 구해 주길 바랐다. 그러나 이즈음 양과는 소용녀

와 함께 손을 맞잡고 절정곡의 낙조(落照)를 감상하고 있었다. 그는 대청에서의 정세가 이처럼 급박한지 알 도리가 없었다.

자은은 곽양을 머리끝까지 들어올리고 우장으로 몸을 보호한 채 냉소를 띄며 말했다.

[양과? 양과가 누구냐? 지금 동사.서독.남제.북개.중신통이 일제히 달려든다고 해도 나 구천인의 목숨은 앗을 수 있겠지만 이 갓난아기를 구할 순 없을 것이다.]

일등대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은을 바라보았다. 자은의 두 눈에 핏발이 가득 차 있어 살기가 등등했다. 일등이 말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 법, 끝없는 수렁과 같다는 것을 넌 어찌 모르느냐?]

자은이 소리쳤다.

[누구든 자신 있으면 나와라!]

이때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해 저녁 햇살이 대청 속으로 들어왔다. 모두들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은의 얼굴빛은 더욱 음산하고 무서워 보였다.

갑자기 황용이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는 미친 사람이 웃는 것처럼 높았다 낮았다 했다. 사람들의 모골이 송연해졌다. 곽부가 소리쳤다.

[엄마!]

무삼통, 야율제가 동시에 소리쳤다.

[곽부인!]

모두을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녀의 딸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자 실성을 한 것으로 모두들 생각했다. 그녀는 타구봉을 땅에다 팽개치고 두 걸음을 내디디며 산발을 한 채 날카롭고 처참하게 웃어젖혔다. 곽부가 소리쳤다.

[엄마!]

곽부가 달려나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다. 황용은 오른손을 휘둘러 밖

으로 밀쳐 버리고 두 팔을 벌린 채 계속 날카롭고 처참하게 웃으며 자은에게 다가갔다.

이 일을 구천척도 생각지 못한 사태로 의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황용이 두 팔을 쫙 벌린 채 한이 맺힌 듯 자은은 바라보며 말했다.

[어서 이 아기를 죽여라, 등판을 강하게 후려쳐라.]

자은은 핏빛이 가신 채 곽양을 품에 꽉 안고 말했다.

[너......, 넌......, 넌 누구냐?]

황용은 마구 웃어 대며 팔을 벌려 앞으로 달려들었다. 자은은 좌장으로 몸 앞을 가로막았으나 공격하지는 않고 옆으로 미끄러져 피하며 또 물었다.

[너 누구냐?]

황용이 음산하게 말했다.

[완전히 잊어버렸느냐? 그날 저녁 대리국 황궁에서 너는 한 어린애를 잡고 있었다. 맞아,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넌 그를 반 죽게 만들어 결국은 살아 남지 못하였지. ......난 그 애의 모친이다. 어서 이 애를 죽여라. 어서 죽여라, 왜 손을 쓰지 않지?]

자은은 여기까지 듣자 전신을 떨었다. 수십 년 전의 옛날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그 해 그는 대리국 유귀비(劉貴妃)의 아이에게 중상을 입혀 남제 단황야가 수년 간의 무공을 버리면서까지 그 애를 치료하여 주었지만 끝내 죽고 말았던 것이다. 후에유귀비 영고(瑛姑)는 자은과 두차례 만났는데 그때마다 미친 사람처럼 그를 껴안고 동귀어진하려고 했다. 자은의 무공은 비록 그녀보다 강했지만 견뎌 내지 못하고 그저 황망히 도망쳤었다. 황용은 그 해 청룡탄과 화산 절정에서 두 차례 영고의 미친 웃음소리를 들었으며, 그녀의 미친 모양을 보았었다. 이는 자은이 평생을 가슴에 두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황용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떠올리게 했던 것이다. 그가 수중에 아기를 안고 있고 어찌 구해 낼

도리가 없게 되자 위험을 무릅쓰고 도리어 곽양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것이다. 무삼통.구천척.야율제 등은 그녀가 미친 줄로만 알고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었다. 오직 일등만이 남몰래 황용의 지략과 용기에 탄복할 따름이었다. 담력이 있는 남자라도 이러한 담력과 식견을 갖추기는 힘든 것이다. 설사 이러한 책략을 갖고 있다 해도 <어서 이 아이를 죽여라>는 말을 감히 입 밖에 내기는 힘든 노릇이었다. 자은이 이처럼 복수심에 불타 살기등등하니 살짝만 건드려도 곽양의 목숨은 끝장이 아닌가!

자은은 황용, 일등 수중의 아기를 번갈아 가며 살펴보았다. 갑자기 통탄스러운 감정이 밀려들어 억제하지 못하고 그만 오열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죽였다, 죽였어. 이 예쁜 아기를 내가 죽였다.]

느릿느릿 황용의 앞으로 다가가 곽양을 건네 주며 말했다.

[내가 어린애를 죽였다. 나를 죽여 주시오!]

황용이 좋아라 하며 얼른 받으려는데 일등대사의 일갈이 터졌다.

[공연히 복수를 계속하면 언제나 끝이 날꼬? 수중의 칼이 언제나 버려질꼬?]

자은이 깜짝 놀라 두 손을 놓는 순간 곽양이 땅바닥에 떨어져 갔다.

곽양의 몸이 땅에 닿기 전에 황용은 오른발을 뻗어 아기를 밖으로 걷어차고 동시에 미친 듯이 웃으며 말했다.

[네가 내 아기를 죽였구나, 호호호호.]

그녀는 힘껏 곽양을 걷어찬 것 같았지만 실은 단지 발등으로 갓난아기의 허리를 가볍게 밀어 밖으로 보낸 것이었다. 이처럼 아슬아슬한 순간에 아기를 안으려고 몸을 숙인다면 자은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곽양은 공중에 원을 그리며 야율제에게 날아갔다. 그가 얼른 아기를 받아 냈다. 곽양의 얼굴을 살펴보니 새까만 눈동자를 초롱초롱 굴리며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고 활기차보였는데, 막 울려고 입을 삐죽거렸다. 그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으나 곧 알아차렸다. 황용은 곽부의 덜렁거리는

성질을 알고 딸애를 자기에게 던진 것이다. 바로 갓난아기의 입을 가볍게 막아 울지 못하게 하고서 고함을 질렀다.

[아이고, 이 아기를 저 화상놈이 죽였구나.]

자은은 얼굴색이 잿빛이 되었다. 찰나간에 대오각성을 하여 일등대사에게 합장을 하며 몸을 숙여 말했다.

[감화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등이 답례를 하고 말했다.

[화상이 끝내 대오한 것을 축하하네!]

두 사람이 마주 보며 웃었다. 자은은 성큼성큼 인사도 없이 태연하게 밖으로 나갔다. 구천척이 급히 소리쳤다.

[둘째 오빠, 둘째 오빠, 돌아와요!]

자은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나보고 돌아오라고 하지 말고 네가 돌아오렴!]

말을 마치고 소매를 휘두르며 표연히 대청 밖으로 나갔다. 일등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대청 구석으로 물러나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황용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야율제로부터 곽양을 건네 받았다. 곽부는 모친이 제정신이 들고 곽양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보자 놀랍기도 하고 기뻐 모친의 품으로 뛰어들며 말했다.

[엄마! 난 엄마가 정말 미친 줄 알았어요!]

황용은 일등대사 앞으로 나가 인사를 하며 말했다.

[질녀가 어쩔 수 없이 옛날 일을 언급했으니 대사께서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황용, 그대는 정말 여자 제갈량이구나!]

대청 안의 사람들 중 오직 무삼통만이 이 옛날 일을 약간 알고 있을 뿐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망연히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구천척은 사태가 이 지경으로 급전되어 오빠의 뒷모습이 끝내 바깥으

로 사라져 버리자, 이렇게 생이별을 하면 다시 만날 날이 없을 것 같아 마음이 아려 옴을 견딜 수 없었다. <나보고 돌아오라고 하지 말고 네가 돌아오렴!> 이라고 했던 말을 음미해 보았다. 마치 자신에게 위기에서 이젠 그만 벗어나라고 하는 소리 같아 마음이 애통스럽고 후회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은 금방 사라져 버리고 즉시 오만하게 말했다.

[여러분들 잠시 기다리십시오. 잠시 실례를 해야겠읍니다.]

황용이 말했다.

[잠깐만! 우리들이 오늘 방문한것은 절정단을 구하러......]

구천척이 주위에 시중드는 무리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들이 휘파람을 일제히 불자 각 문에서 제자들이 뛰어나왔다. 날카로운 그물은 높이 쳐 놓아 퇴로를 가로막았다. 4명의 시녀가 구천척이 앉아 있는 의자를 받쳐 들고 내당으로 들어갔다.

황용.무삼통.야율제 등은 어망진의 세력을 보자 내심 놀랐다.

(이 어망진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데 대청의 앞문과 뒷문이 일제히 덜커덩, 하고 닫히며 녹색 옷의 제자들이 물러났다. 무씨 형제가 검을 휘두르며 돌진해 갔다. 꽝, 하고 대문이 닫히면서 두 형제의 쌍검이 문틈 사이에 끼어 동시에 부러졌다. 대문은 강철로 만들어져 있었다. 황용이 나지막이 말했다.

[당황하지 말아라! 빠져나가는 건 어렵지 않아. 우리는 어떻게 칼이 달린 그물을 뚫고, 어떻게 약을 구하느냐를 생각해야 한다.]

반쪽의 절정단(絶情丹)

공손녹악은 모친을 따라서 내당에 들어가 물었다.

[엄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천척은 오빠가 이미 가 버렸고 상대방 적수들이 운집해 있어 이 사건이 매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오빠를 죽인 원수가 눈

앞에 있는데 결코 여기서 굴복할 수는 없었다. 가볍게 신음을 하며 말했다.

[양과와 세 여자가 뭘 하고 있나 나가 살펴보아라.]

이 말은 마침 녹악의 마음과 마찬가지여서그녀는 고개를 끄덕여 대답하고 가마 쪽으로 갔다.

반 정도 갔을 때 전면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다. 바로 양과의 음성이었다. 이어 소용녀의 대답이 들렸는데 마치 <공손녹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때 날은 완전히 어두워져 깜깜했다. 녹악은 길 옆의 버드나무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가 내게 뭐라고 말하는 것일까?)

발소리를 죽여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양과와 소용녀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다. 양과의 말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일을 공손녹악에게 의지해 주선케 하면 확실히 된다는 말이군요. 그러나 신승이 빨리 깨어나 모두들 원한을 풀고 사독을 제거하게 되면 더 좋지 않겠어요?......아앗!]

<아앗> 하는 비명소리가 너무나 갑작스레 들려 녹악은 깜짝 놀랐다. 양과의 몸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가 싶었다. 그녀는 걱정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쳐들고 바라보았다.

양과가 땅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소용녀가 그의 왼팔을 부축해 일으켰다. 양과는 통증을 참는 듯이 등을 잔뜩 옴츠리고 떨었다. 소용녀가 나직이 말했다.

[정화지독이 발작해요?]

양과는 단지 <으윽......, 윽......!>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운 얼굴로 이를 악물었다. 녹악은 매우 안타까와하며 생각했다.

(단약 반쪽을 먹었으니 반쪽만 더 먹으면 정화지독이 풀릴 텐데. 어떻게 해서라도 엄마에게 나머지 단약 반쪽을 달라고 해야지.)

잠시 후 양과는 몸을 일으키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소용녀가 말했다.

[발작하는 시간이 점점 더 가까와지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신

승이 깨어나 해독약을 조제할 수 있다 해도 반드시......, 반드시......, 이러한 고초는 매우 견디기 힘들 것이에요.]

그녀는 본래 <반드시 제때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고 말하려 했으나 말을 바꾸어 버렸다. 양과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공손부인은 고집이 매우 세요. 또한 해독약도 상당히 은밀한 곳에 감추어 놓았을 겁니다. 이 절정곡의 사람이 모두 죽고 칼이 목에 와 닿아도 그녀는 절대로 내놓으려 하지 않을 거요.]

소용녀가 말했다.

[내게 방법이 있어요.]

양과는 이미 그녀의 심중을 헤아리고 말했다.

[용이, 또 그 말을 꺼내려는 것이죠? 우리 부부가 금술 좋게 지내 만약 백년해로하게 된다면 당연히 하늘에 감사해야지요. 그렇게 안된다 해도 그건 운명이지요.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절대로 제삼자가 끼어들 수는 없어요.]

소용녀가 오열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 공손소저는......, 내가 보기에 사람이 괜찮아요. 당신 제 말을 들으세요.]

소용녀가 약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맞이하라고 양과에게 권하는 것을 알게 되자 녹악은 마음이 크게 뛰었다. 양과가 낭랑하게 웃더니 말했다.

[공손소저도 사람이 좋지. 사실 천하에 좋은 여자가 어디 하나둘인가? 당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봐요. 만약 당신 체내의 극독을 치료할 수 있는 남자가 있어 당신을 원한다면 들어줄 수 있겠어요?]

[난 여자이니 말할 것도 없지요.]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남존여비라 하지만 나 양과는 여존남비......]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돌연 숲속에서 사그락,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양과가 물었다.

[누구냐?]

녹악은 자신이 발각된 줄 알고 막 대답하려는 순간 돌연 한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바보야, 나야!]

육무쌍과 정영이 나무 숲속 뒷길에서 돌아 나왔다. 이 틈에 녹악은 살며시 물러났다. 녹악의 마음이 뒤숭숭해졌다.

(용소저와의 비교는 말할 나위도 없고 이 육.정 두 소저의 용모나 품성, 무공 그리고 과거의 그와의 교류를 비교해 보아도 내가 따라 갈 수가 없잖겠어!)

그녀는 양과를 만난 후로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줄곧 정이 깊어 갔다. 처음에는 소용녀에 대한 그의 마음이 상당히 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은근히 그의 둘째 아내가 되려는 마음도 있었다. 지금 이러한 말들을 듣게 되자 자신의 생각이 헛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우울하고 기쁨을 별로맛보지 못하고 자랐다. 오늘 모든 생각이 깨져 버리자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서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정신이 나간 듯 발걸음 닫는 대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마냥 걸어갔다. 마음속으로 단 한마디 말만을 뇌까렸다.

[난 살고 싶지 않아, 난 살고 싶지 않아!]

몇 시간이나 걸었는지 몰랐다. 갑자기 커다란 바위 뒤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녹악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정신없이 걸어와 어느새 절정곡 서쪽의 인적이 거의 드문 곳에 와 있었던 것이다. 고개를 들고 보니 하늘을 찌를 듯한 산봉우리가 서 있었다. 바로 절정곡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절정봉이었다.

이 절정봉 허리 부근에 벼랑이 하나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옛부터 벼랑 위에 <단장애(斷腸崖)>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수십 장이나 되는 벼랑 위는 매우 미끌미끌하여 잡초 하나 자라지 않고 1년 내내 운무가 감돌며 바람이 지독해 나는 새라도 봉우리 정상에 발붙이기가 힘들었다. 벼랑 밑으로는 끝없는 심연으로, 내려다봐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둠침침했다. 단장애 앞뒤 풍경은 그윽했다. 지세가 험하고 바위들이 미끄러워 심연으로 떨어지기가 쉬어 곡중에 사는 이들이 금지 구역으로 여기는 곳이었다. 무공을 지닌 절정곡의 제자들도 선불리 이곳에 오지 못하는데 누가 감히 이곳에서 말을 하는 것일까?

공손녹악은 죽고 싶다는 생각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호기심이 일어나 바위 옆에 바싹 붙어 귀를 기울였다. 순간 그녀는 가슴이 콩콩 뛰었다. 말했던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다. 그녀의 부친은 비록 모친에게 잘못하고, 그녀에게 매정하게 대해 주었지만 모친이 대추씨를 쏘아 그의 한쪽 눈을 멀게 하고 또 그를 절정곡에서 내쫓자 녹악은 부녀간의 정을 생각해 때때로 그를 걱정하곤 했었다. 이때 갑자기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듣게 되자 그가 절정곡을 떠나지 않고 이 인적이 없는 곳에 숨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의 몸에 변고가 없었다고 생각되자 무척 기뻤다. 그의 말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온몸에 상처를 입은 것이나 내가 한쪽 눈을 잃게 된 것은 모두 양과란 놈 때문이오. 우리 두 사람은 적이 같으니 서로 힘을 합쳐야만 되오.]

그가 말하면서 웃음을 지었다. 상대방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부친이 누구와 얘기하는 것인지 녹악은 상당히 궁금했다. 공손지가 또 말하였다.

[우리가 이 인적 드문 곳에서 서로 만나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이오. 분명 인연이 닿아 만나게 된 것이지.]

한 여인이 피, 하고 말했다.

[난 전신을 정화에 찔렸다오. 당신은 조금도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허튼소리를 하면 웃음거리만 돼요.]

녹악 생각했다.

(아, 바로 오늘 곡에 쳐들어온 이막수구나.)

공손지가 급히 말했다.

[아니지, 아냐,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겠소? 당연히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요.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면 내 마음이 아파요.]

공손지와 말하는 자는 바로 이막수였다. 그녀는 전신을 정화에 찔려 중독이 실은 가볍지가 않았다. 다행히도 그녀는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뿐이라 남녀간의 정을 일으키지 않아 몸에는 그다지 고통이 없었다. 그러나 정화의 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아 해독약을 찾으려 하다가 곡중에서 길을 잘못 들어 헤매다가 결국 단장애 앞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공손지는 이미 이곳에 숨어 있은 지 오래 되었다. 그는 곡중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곳에 숨었다가 기회를 보아 구천척을 죽이고 다시 곡주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미 겨룬 적이 있어 모두 상대의 무공이 대단한 것을 알고 있었다. 서로 만나게 되자 생각했다.

(이 사람의 힘을 빌려 일을 처리할 수는 없을까?)

두세 마디만 하면 서로 의기투합되는 것이었다.

공손지는 전에 시종이었던 유아가 죽은 후 무공연마에 전념하여 여색에는 매우 담담했었다. 그러나 소용녀를 취하려다 실패로 끝나게 되자 오랫동안 억제해 왔던 정욕이 봇물 터지듯 하여 수습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는 당당한 무학호걸의 신분으로, 완안평을 강탈 하였으니 강호상의 시정배 무리와 행동이 다를 바 없었다. 지금 이막수를 만나 보니 그녀의 용모가 뛰어나서 돌연 마음이 동하였다.

(구천척, 그 악부를 없앤 후 이 여자를 처로 맞이해야지. 이 여자는 용모, 무고 모두 최상이니 나의 배필로 아주 적격이다.)

그는 이막수의 마음이 악독하고 제멋대로인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바로 정(情), 그것 때문에 일생을 버린 사람이었다. 지금 공손지의 말투가 점점 신중하지 않자 화가 치밀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독약을 구하려는 생각에서 할 수 없이 안색을 바꾸지 않고 그냥 대답했다. 공손지가 말했다.

[내가 원래 절정곡의 곡주이므로 이 정화의 해독약 제조법은 세상에서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지. 근데 지금 곡중에는 딱 한 알만이 남아 있는

데 그게 그 악부의 수중에 있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여자만 제거하면 무엇이든지 다 당신 것이 되지요. 우헤헤!]

마지막 그 한마디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너에게 해독약을 줄 뿐 아니라 이 절정곡의 주부의 자리도 네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천하에 오직 그 한 사람만이 해독약 제조법을 알고 있다는 말을 거짓이 아니었다. 정화는 절정곡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야생했는데, 공손지 웃대의 많은 사람이 해를 당하고 나서야 해독약의 처방책이 나왔던 것이다. 정화는 외부 사람이 곡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주었기 때문에 결코 없앨 수 없었으며 해독약 처방법도 부자간에만 전해졌기에 다른 사람의 손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구천척 역시, 해독약은 비록 웃대에서 전해졌지만 처방책은 이미 실전(失傳)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구천척이 그 해독약을 반쪽만 남겨 놓은 줄을 공손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막수가 신음하며 말했다.

[일이 이렇게 됐는데 당신은 왜 헛소리만 하는 거요? 해독약은 그 여자 수중에 있고, 그녀는 이미 당신과 원수지간이 되었으니 그 여자를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해독약을 어떻게 손에 넣는단 말이오?]

공손지는 주저주저하며 대답을 못 하다가 얼마 후 말했다.

[이도우(道友), 나와 당신은 처음 보자마자 의기투합이 되었지. 나는 죽어도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이막수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그런 말씀을......]

공손지가 말했다.

[내게 악부의 수중에서 영단을 빼앗아 낼 한 가지 계략이 있지. 그러나 당신이 한 가지 일을 먼저 말해 주어야만 돼요.]

이막수가 느닷없이 말했다.

[나는 한평생을 강호에서 홀로 떠돌아다니면서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았소. 해독약은 당신이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나 이막수는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오.]

공손지는 비록 무공이 대단했지만 줄곧 심산유곡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강호에서 가장 잔인한 인물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설령 들은 얘기가 다소 있다고 해도 기껏해야 수십 년 동안 적련선자 이막수의 명성이 자자해서 무림에서는 그녀의 용모가 수려한 반면 독사 같은 마음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단지 이 공손지만이 멍청하게도 그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가 하는 몇 마디 말에 기재가 서려 있음을 보고는 한층 기뻐하면서 다그쳐 물었다.

[당신은 내 말을 잘못 알아들었구료. 난 단지 당신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한 것뿐인데 거기에 무슨 강요의 뜻이 있겠소? 그 절정단을 손에 넣기 위해서 내 딸아이의 목숨을 상하게 할지도 모를 일이 발생할까 봐 주저하고 있는 거라오. 그렇지만 당신은 결코 신경쓸 필요가 없긴 해요.]

공손녹악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이막수가 이상히 여겨 물었다.

[해독약이 딸애의 수중에 있나요?]

공손지가 말했다.

[아니야, 내 말해 주지! 그 악부는 마음씨가 너무 포악해서 해독약은 반드시 아주 깊숙한 곳에다 은밀히 감추어 놓았을 거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내놓으라고 강요하면 도저히 내줄 것 같지는 않고 하니 유인해서 얻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소.]

이막수가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확실히 그건 그래요.]

공손지가 말했다.

[그 악부는 정이라곤 눈꼽만큼도 없고 악독하기 그지없지만 오직 자신의 친딸만큼은 끔찍이 사랑하지. 우리는 이 점에 유의해 내가 그 딸애를 유인해 오면 당신이 그 아이를 붙잡아서 정화 속으로 던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악부도 어쩔 수 없이 절정단을 꺼내 가지고 와서 치료해 주겠지. 우리가 그 틈을 이용해서 빼앗으면 성공이지. 단지 안타까운 것은

절정단이 오직 한 알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당신에게 주어 버리면 내 딸아이의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이지.]

이막수가 침통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꼭 진짜 정화로 딸을 해칠 필요는 없어요. 단지 거짓으로 그렇게 꾸미고 그 애를 중독된 듯이 만들면 절정단을 빼앗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딸의 목숨도 보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공손지가 탄식하며 말했다.

[그 악부는 매우 날카로와서 내 딸을 거짓 중독된 것처럼 하여 그녀를 속일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말하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울먹울먹하면서 새삼스러운 정이 솟아오르는 듯했다. 이막수가 말했다.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당신 딸을 해쳐야 한다니 내가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소? 보아하니 당신도 힘든 모양인데 이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공손지가 얼른 말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딸애를 버릴 수 없듯이 당신은 더욱 버릴 수가 없지.]

이막수는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 방법 외에는 달리 별 도리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손지가 말했다.

[우리 여기서 조금 기다리다가 밤이 되면 내가 딸애를 부르러 갈께요. 그 애가 아무리 슬기롭다고 해도 설마 아버지에게 이런 계략이 있다고는 생각지 못할 거요.]

두 사람이 이렇게 주고받는 한마디 한마디를 녹악은 또렷이 들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겁이 났다. 그날 공손지가 자기와 양과를 악어담으로 처넣을 때 이미 그에게는 부녀간의 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잠시 원통해 했지만 오늘은 친딸을 죽여서 처음 만난 생면부지의 여자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니 정말로 잔인무도한 인간이었다. 그녀는 지금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는 소리

를 듣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사방에는 돌무더기가 쌓여 있고 나무도 빽빽이 들어차서 숨을 곳이 마침 많이 있었다. 그래서 살살 뒷걸음질을 쳤다. 한 발을 떼고 잠시 있다가는 또 한 발을 떼고 이렇게 해서 수십보를 뒷걸음질 치고 나서 몸을 돌려 줄달음질을 쳤다.

그녀는 1시간 가량 뛰어 절정봉에서 멀리 벗어났다. 그러나 아버지가 곧 와서 자신을 유인할 것을 알고는 감히 침실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바위 위에 처량히 앉아 있었다. 찬바람이 피부에 스며들고 달빛은 무정해서 세상에 전혀 미련이 느껴지지 않아 처연히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아버지 당신은 어째서 그런 음모로 나를 해치려 하나요? 당신이 나를 해치고자 한다면 해치면 그만이지요. 정말 이상한 것은 왜 내가 도망을 쳐야 했을까?]

갑자기 그 순간 번갯불처럼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아버지의 마음 씀씀이는 잔인하지만 이 계략은 정말 묘안이다. 오히려 내가 자진해서 이 계획을 이용해 엄마를 속여 영단을 취해서 양형의 목숨을 구할 수는 없을까? 그들 부부는 나를 일편단심 그만을 기다리는 가련한 운명의 소녀라고 감격해 할 거야.)

여기까지 생각하지 기쁨과 슬픔이 서로 교차되었다. 순간 정신이 퍼뜩 들어 주위를 한번 돌아보았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나서는 모친의 침실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정화나무를 지날 때 2개의 가지를 꺾어 손에 쥐고 어머니의 방에 이르러 나지막한 소리를 불렀다.

[엄마, 주무세요?]

구천척이 방안에서 대답했다.

[악아, 무슨 일이니?]

녹악이 말했다.

[엄마, 엄마! 정화에 찔렸어요.]

하고 말하면서 팔을 벌려 정화가지를 꽉 껴안았다.

꽃가지에 있던 수많은 가시들이 일제히 그녀의 몸에 박혔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훈계를 받고 자라 결코 꽃에 찔리지 않으려고 했으며, 또 어렸을 때에는 몸 속에 정욕이 솟아나지도 않아서 설사 가시에 찔렸어도 별다른 해를 입지는 않았었다. 후에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의 훈계는 더욱 신중해졌다. 10여 년 간이나 만지지 않으려고 조심해 왔던 것을 오늘 자기 스스로 찌르게 될 줄이야 생각도 못했었다. 마음속에 이러한 고통이 더한층 심해졌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소리쳤다.

[엄마!]

구천척은 부르는 소리가 이상하다고 여겨 깜짝 놀라서 급히 하녀에게 녹악을 부축해 들어오도록 했다.

[내 몸에는 정화가시가 꽂혀 있어. 너희들, 가까이 오면 안 돼!]

2명의 하녀는 깜짝 놀라 얼굴색이 변한 채 방문을 활짝 열어서 녹악 스스로 들어오도록 해 놓고는 그녀의 몸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다.

구천척은 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을 부르르 떨며 가슴에 정화 꽃가지 2개가 달려 있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물었다.

[왜 그래? 어찌 된 일이냐?]

녹악이 말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녀는 어머니의 사나운 눈빛이 겁나서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구천척이 화를 내며 말했다.

[아직도 그를 아버지라 부르느냐? 그 도둑놈이 어쨌는데?]

녹악이 말했다.

[그가......, 그가......!]

구천척이 말했다.

[머리를 들고 나를 보거라.]

녹악은 머리를 들어 냉정하고 위협적인 눈동자와 마주치자 오한을 느끼면서 말했다.

[그가......, 그가 오늘 절정곡에 들어온 그 미모의 여도사와 단장애 앞에서 수군거렸어요. 나는 바위 뒤에 숨어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조금도 거짓이 없었다. 이후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녹악은 모친에게 들킬까 봐 겁이 나 여기까지 말하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구천척이 말했다.

[그들이 뭐라고 하더냐?]

녹악이 말했다.

[무슨 동병상련(同病相憐)이니, 무슨 인연이 있어 천 리 길을 달려와 만나게 되었다느니 하는 얘기였어요. 그들은......그들은 같이 엄마를 악부라고 욕을 해 댔어요. 난 듣다가 그만 화가 나서......]

그녀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그만 오열을 터뜨렸다. 구천척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울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난 그만 허둥대다가 그들에게 발각되었어요. 그 여도사가, 그 여도사가 나를 정화 속으로 밀어 버렸어요.]

구천척은 그녀가 머뭇거리는 것을 보자 소리쳤다.

[아냐, 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도대체 뭐가 어째?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라.]

녹악은 전신에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속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정화가 아닌가요?]

구천척이 말했다.

[너 말하는 어투가 수상해. 너는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전혀 못했어. 에미가 그것도 못 알아보겠느냐?]

녹악은 순간 기지를 발휘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엄마, 엄마를 제가 속였어요. 아버지가 나를 정화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이에요. 그는 엄마와 나를 미워했어요. 엄마를 도와서 그와 상대할래

요. 나는 엄마편이지 아버지편이 아니에요. 그는......, 그는 오직 그 미모의 여도사의 환심을 사려고만 했어요.]

구천척은 남편을 굉장히 원망했었는데 녹악의 이 말들은 그녀의 마음을 꼭 찔렀기 때문에 이내 철석같이 믿고서는 딸의 손을 급히 잡아당기면서 따뜻하게 말했다.

[악아, 걱정할필요 없다. 엄마가 그 도둑놈을 상대해서 우리 두 사람의 한을 풀도록 하마.]

곧 시녀에게 명령해서 칼과 집게를 가져오도록 하여 먼저 꽃가지를 떼어 내고 나서 집게로 살에 박힌 가시를 뽑았다. 녹악은 목이 잠긴 채 말했다.

[엄마, 저는 이번에는 살 수 없을 거예요.]

구천척이 말했다.

[걱정 마, 걱정 마! 우리에게는 아직 반 알의 절정단이 남아 있단다. 다행히 의리도 없고 박정스런 양과놈에게 아직 주지 않았단다. 이 단약 반쪽을 복용하면 비록 독성은 다 제거되지 않겠지만 엄마 말 듣고 따라 어떤 남자와도 상대치 않고 심지어 그들을 생각도 하지 않으면 결코 해는 없을 것이다.]

구천척은 남편에게 학대를 받았고, 양과 역시 자기 딸을 거부했기 때문에 세상 남자들을 증오했고, 딸을 끝까지 시집 보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마침 그녀의 생각과 맞아떨어져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

녹악은 눈썹을 찡그린 채 말이 없었다. 구천척이 또 말했다.

[그 도둑놈하고 여도사가 어디 있더냐?]

녹악이 말했다.

[난 정화 속에서 바둥거리며 간신히 기어올라와 그들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마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구천척이 신음하며 생각했다.

(그 늙은 도둑놈이 강한 원군을 데리고 이 곡을 되찾으러 오겠구나. 곡중의 제자 대부분은 모두 그의 심복들로, 일이 터지면 그 도둑놈에게

서 돌아설 것이다. 기껏해야 수수방관, 아무도 돕지 않고 바라볼 뿐 그와 대적하려는 자는 없을 거다. 난 수족이 불구가 되어 오로지 대추씨에만 의지해야 한다. 이 암기는 뜻하지 않게 발사해야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 도둑놈은 이미 알고 있어 방비를 하게 되면 어쩔 도리가 없다. 그가 손에 방패라도 들고 공격해 온다면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구나.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녹악은 어머니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자 그녀가 자기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헤아려 보는 줄로만 알았다. 그녀가 계속 다그쳐 물어 끝내 진상을 알아낸다면 자신의 고통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해독약도 얻지 못하고 양과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녀가 양과를 생각하게 되자 그만 가슴에 극통이 밀려와 <아앗> 하고 비명을 질렀다. 구천척이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절정단을 가지러 가자.]

그녀가 손뼉을 치자 4명의 시녀가 그녀가 앉은 의자를 떠받쳐 방문 밖으로 나갔다.

녹악은 양과가 떠나간 후 줄곧 모친이 절정단을 어디에 숨겼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단약을 절대로 몸에 숨길 수는 없다고 모친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었다. 왜냐하면 누구든 그녀를 죽이고 약을 취하려 들기 때문이었다. 생각해 보면 그녀는 수족을 쓸 수 없어 반드시 누군가 곁에서 시중을 들어 주어야 하는데 심산유곡이나 깊숙한 곳에 숨겨 놓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분명 저택 어딘가에 숨겨 놓았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수십 일간이라 여러 곳, 즉 단방.검실.화원.침실 등 찾아보지 않은 곳이 없었으나 끝내 아무런 흔적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지금 모친이 시녀들에게 대청으로 가자고 명령하는 것을 듣자 상당히 이상했다. 대청은 사람들이 모두들 모이는 곳으로 물건을 숨기기가 가장 힘든 곳이었다. 게다가 지금 강적들이 대청에 운집해 있는 것도 실은 이 반쪽 단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가? 설마하니 단약을 적들의 면전에 놓아 두어 아

무나 가져가게 하려는 것은 아니겠지?

대청 앞.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제자들은 그물을 손에 든채 지키고 있다가 구천척이 오는 것을 보더니 달려나와 예를 올렸다. 우두머리 제자가 몸을 굽히며 말했다.

[적들이 아무 기척도 없는 것이, 속수무책으로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구천척이 흥, 하고 코방귀를 뀌며 속으로 생각했다.

(우물 안 개구리 세상 넓은 줄 모른다더니, 오늘 곡에 뛰어든 인물들이 어찌 속수무책 죽기만 기다리는 무리들이란 말이냐?)

구천척이 이어 명령했다.

[문을 열어라!]

2 명의 제가 철문을 열었다. 나머지 8 명의 제자가 2 장의 그물을 들고 구천척의 좌우를 호위하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일등대사.황용.무삼통.야율제 등이 대청 한구석에 앉아 있었다. 구천척은 의자가 땅에 내려지자 말했다.

[여가 황용 모녀 세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멋대로 이 곡에 들어온 죄를 따지지 않겠으니 모두들 나를 따라 나오시오!]

황용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구곡주. 당신은 위기가 닥쳤는데도 해결할 생각은 않고 호언장담만 하고 있으니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소이다.]

구천척이 속으로 깜짝 놀라며 생각했다.

(그녀가 어떻게 위기가 닥쳤는지를 알았을까? 설마 그 도둑놈이 돌아온 것을 알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차갑게 말했다.

[화인지 복인지 겪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노부인은 지체가 부자유하고 불구의 몸인데 무슨 위기를 두려워하겠느냐?]

황용은 공손지가 되돌아온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얼굴색을 살펴보니 구천척의 양미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보았다. 방금

전에 대청을 나갈 때의 악독스런 표정과는 완연히 딴판이었다. 그래서 곡중에 무슨 사연이 있으리라 여겨 이처럼 말해 본것인데 구천척의 말투가 비록 딱딱하기 했어도 자신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았다. 황용이 계속 말했다.

[구곡주, 당신 오빠는 실수하여 계곡 밑으로 굴러 떨어져 죽은 것이라오. 절대로 내가 해를 입힌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 일에 대해연연해 한다면 나도 피할 생각은 없어요. 당신이 대추씨를 세 번 공격하는 것이 어때요? 공격하고 난 후 내가 죽고 사는 것에 상관 없이 해독약을 내주어 양과의 상처를 치료해야 돼요. 만약 내가 죽는다 해도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절대로 한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오. 또한 당신을 도와 위기를 벗어나게끔 적들을 물리쳐 드리겠소. 내 조건이 어떻소이까?]

황용의 이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다. 보아하니 구천척은 대추씨 무공을 제외하고는 적을 막을 수단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적을 막아주겠다고 큰소리를 치니 구천척의 마음에 더욱 와 닿았다. 구천척이 생각했다.

(정말 그래도 좋을까?)

[당신은 개방의 방주이니 한입 갖고 두 말은 안 하리라 믿소. 내가 대추씨 무공을 세 번 썼는데 당신이 정말 피하지도 않고 또 병기를 사용해 막지도 않겠단 말이오?]

황용이 채 대답하기도 전에 곽부가 가로막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가 피하지 않는다고 했지, 병기를 사용해 막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황용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구곡주께서 그렇게 신경이 쓰이신다면 병기를 사용하지않으면 되지 않겠소?]

곽부가 말했다.

[엄마, 안 돼요.]

그녀는 방금 자신의 장검이 대추씨에 부러진 것을 보고 이 암기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진짜로 피하지도 막지도 않는다면 모친의 몸은 견뎌 내지 못할 것이 뻔했다. 황용이 생각했다.

(양과는 우리 곽씨 문중의 네 사람을 구해 주었다. 지금 그가 독에 중독되어 있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독약을 얻어 내야만 한다. 그녀의 대추씨 무공은 천하 제일의 막강한 암기 무공이라 잇달아 세 번 공격한다면 매우 위험할 것이다. 조금만 잘못 돼도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해독약을 내 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황용이 이러한 말을 할 때는 이미 구천척의 처지를 십분 생각해서 한 것이었다. 그녀의 가슴속에 맺힌 원한을 풀어 주고 또 적을 맞아 당황해 하는 틈을 타 대신 적을 맞이해 위기에서 구해 준다고 하여, 그녀의 분을 삭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석이조의 수단은 구천척 자신으로서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구천척은 이 일이 너무나 유리하므로 인정이 끌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여겨 우물우물 말했다.

[당신은 나의 적수인데도 오히려 기꺼이 나의 대추씨 무공을 받겠다고 하니 설마 무슨 간교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황용은 앞으로 다가서며 나지막이 말했다.

[남의 이목들이 너무 많고 적지않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의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당신에게 몇 마디만 귀엣말을 하겠어요.]

구천척은 제자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생각해 보았다.

(이들은 대부분 도둑놈의 측근들이니 확실하게 방비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황용이 고개를 숙여 살며시 말했다.

[당신 남편이 얼마 안 있으면 공격해 올 텐데 내가 어찌 이 위험한 곳에서 몸을 빼어 구경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은 이번 기회에 알력을 모두 떨쳐 버리고 자기 몸의 사활을 떠나서 모두들 힘을 합해 적을 막아 내야지요. 게다가 양과는 나의 은인이니 생명을 버려서라도 절정단을 구

해 그를 살려야 해요. 살아 있는 동안 은혜를 갚지 않는다면 어찌 금수와 다를 바가 있겠어요?]

황용은 말을 마치고 뒤로 세 걸음 물러나 구천척을 바라보았다.

구천척은 <은혜를 갚지 않으면 금수와 다름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만약 양과가 구해 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지금 이 시각에도 홀로 외롭게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번갯불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착한 마음 대신 악한 마음이 일어났다. 그래서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교묘하고 달콤한 말을 하지만 나의 마음은 철석 같아 처음과 다름없다. 자, 어서 일어나 나의 공격을 받아라!]

황용이 소매를 털며 말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하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나 대청 한가운데에섰다. 구천척과 약 3장 정도 떨어져 말했다.

[공격하시오!]

무삼통 등은 비록 황용의 재치가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구천척의 대추씨의 무서운 위력을 친히 보았기에 지금 황용이 맨손으로 서 있는 것을 보자 불안해졌다. 곽부는 더욱 초조해져 얼른 황용에게 다가가 소매를 잡아 끌며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우리 자리를 바꾸어 연위갑을 입으세요. 그럼 저 여자의 대추씨도 겁날 게 없어요.]

황용이 웃으며 말했다.

[연위갑으로써 막아낸다면 대단할 게 뭐 있겠느냐? 너는 가만히 엄마의 솜씨나 구경하거라.]

구천척의 말소리가 들렸다.

[모두들 비키시......]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벌써 한 알이 발사되었다. 이 대추씨는 위력이 무시무시해 비록 조그만 철못이었지만 파공음이 날카롭게 났다. 황용이

아랫배를 움켜쥐며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몸을 굽혔다.

곽부와 무삼통 등이 놀라 일제히 뛰어나가 부축하려는 순간 쉭, 하는 소리가 또 들렸다. 두번째 대추씨가 황용의 가슴에 발사되었다. 황용은 또 크게 비명을 지르며 비틀비틀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쓰러질 듯이 보였다.

구천척은 과연 황용이 말한 대로 피하거나 막아내지도 않고 2개의 대추씨가 이미 그녀의 급소에 적중된 것을 보았다. 이 2개의 대추씨의 위력은 암석도 뚫고 들어갈 만했는데 하물며 사람의 신체 정도야 우스운 일이었다. 그러나 황용은 두 번이나 맞아 중상을 입은 것 같았으나 끝내 쓰러지지 않고 힘들게 버티면서 마지막 한 알을 받으려고 했다. 구천척은 속으로 놀라 생각했다.

(처음에 이 여자의 나긋나긋한 모양을 보고 그녀가 개방의 방주 노릇을 해 낼 수 있을까 하고 의심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대단한 인물이로구나!)

그러나 그녀가 이미 2개의 암기에 맞아 절대로 생명을 보전키 어려우리라는 생각이 들자 이제야 복수를 했다 싶어 기쁨을 감추기 못했다. 푸, 하고 세번째 대추씨가 또 입에서 분출되었다. 이번에는 황용의 목을 노려 대추씨가 인후를 관통하게 하여 큰오빠의 원수를 이 자리에서 즉사케 하려고 했다.

황용이 기꺼이 세번째 공격을 받겠다고 말했을 때는 아직 선책이 서 있지 못하였었다. 단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독약을 얻을 수가 없어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양과의 대은덕을 갚으려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구천척과 귀속말을 하는 사이에 갑자기 한 가지 계책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곽부의 장검이 대추씨에 부러졌을 때 황용은 검두를 주워 소매 속에 감추었다. 대추씨가 발사되었을 때 팔을 움츠려 검두로 철못을 막아냈다. 단지 못과 검이 부딪칠 때의 금속성 소리를 막기 위해 그녀는 두 번이나 크게 비명을 질러 대서 그 소리를 덮어 버렸던 것이었다. 이러한 교묘한 수단을 구천척은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 것인가!

황용은 짐짓 중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의 노기를 감소시키고 또 그녀의 곡주라는 신분도 지켜 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세번째 대추씨는 인후를 노렸기 때문에 만약 소매를 들어 소매 속의 검두로 막아낸다면 분명 구천척에게 들켜 버려 자신이 약속한, 피하지도 막지도 않겠다는 말을 어기는 셈이 되는 것이다. 황용은 어쩔수 없이 무릎을 약간 굽혀 대추씨가 정확히 입으로 오게 하였다. 그녀는 가슴 가득히 진기를 끌어모아 입을 벌려 힘껏 진기를 뿜어냈다. 이 대추씨의 위력은 전적으로 진기에 의해 격출된 것이므로 진기에는 진기로 맞서려는 것이었다. 적은 멀리 있고 자신은 가까이 있으니일단은 유리한 것이었다. 대추씨가 공중에서 떨어지지는 않겠으나 기세는 필히 약해지리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구천척은 굴속에서 홀로 지내며 수족이 망가진 상태에서 오로지 이 대추씨 무공을 연마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신경쓸 일이 없었다. 황용은 내공에서도 그녀에게 못 미쳤으며 또 여러 일에 신경을 써 왔었다. 양양을 방어하랴, 아이를 낳고 기르냐, 남편 시중 들랴, 어찌 구천척의 이러한 무공과 상대가 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진기를 끌어올려 분출하자 대추씨의 위력은 다소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세가 등등했다.

황용은 깜짝 놀랐으나 대추씨는 이미 입가에 가까이 왔다. 이런 위기일발의 순간에 어쩔 도리가 없어 그녀는 입을 벌려 이로 꽉 물었다. 순간 입 안의 이빨이 빠져나갈 듯이 떨리며 통증이 왔다.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뒤로 2보나 물러났다. 처음 두 번 물러난 것은 거짓으로 그랬지만 이번은 정말 암기의 기세에 눌려 물러난 것이었다. 다행히도 그녀의 임기응변이 신속해 물러나면서 기세를 죽일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위아래 앞니 4개가 그 자리에서 달아났을 것이었다. 그랬지만 잇몸에서는 이미 피가 나고 있었다.

곁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에워쌌다. 황용이 고개를 들어 푸, 하고 대추씨를 匣ix아 내자 대추씨가 기둥에 박혀 버렸다. 그녀가 눈썹을 찌푸리고 말했다.

[구곡주, 이 몸이 당신의 세 개의 암기를 받아 냈으니 긴 소리 말고

어서 약을 내주시길 바라오.]

구천척은 그녀가 대추씨를 이빨로 물어 잡은 것을 보고는 아연실색했다. 보아하니 2개의 대추씨는 분명 그녀의 몸에 박혔을 텐데 어떻게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는지 몰랐다. 녹악을 곁눈질로 한번 쳐다보고는 생각했다.

(내 딸애가 정화지독에 중독이 되었는데 비록 양과가 혼사를 승낙하여 진짜 사위가 된다고 해도 내가 어찌 절정단을 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자신의 입으로 약을 주겠다고 대답을 하여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금방 번복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두 눈을 굴렸다. 마치 무슨 계교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곽부인, 우리 두 사람은 비록 여자의 몸이나, 말이나 행동에 기개가 있고 믿음이 있어요. 당신이 나의 공격을 받고도 이처럼 기개가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오. 내가 깊이 탄복해 해독약을 주겠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께서 도와 주기 바라오.]

곽부는 모친이 정말 암기에 맞은 줄로 알고 소리쳤다.

[엄마가 만약 중상을 입었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네게 공격할 것이다.]

고개를 돌려 황용을 쳐다보며 말했다.

[엄마, 어디에 맞았어요?]

황용은 딸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구천척에게 말했다.

[어린애의 망발에 곡주께선 신경쓰지 마십시오. 이 몸은 평생토록 내 말에 대한 약속을 지켜 왔으니 곡주를 도와 적을 무찌를 것이오. 청컨대 어서 약을 주시면 고맙겠어요.]

무삼통 등은 황용의 말에 기운이 충만하고 음성도 낭랑하여 조금도 중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 않자 차츰 마음이 놓였다.

이렇게 되자 구천척도 놀람을 금치 못하고 생각이 빠졌다.

(그녀의 무공이 이처럼 대단하니, 내가 번복하다 보면 일이 더 골치 아프게 되겠구나. 오직 사기를 치는 수밖에......)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시다면 고맙소이다.]

고개를 돌려 딸에게 말했다.

[애야, 이리 오렴. 분부할 말이 있다.]

황용은 평생토록 얼마나 많은 간사한 무리들을 대해왔는지 모른다. 구천척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자 이내 곧 그녀의 심사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구천척이 결코 쉽사리 약을 내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다만 어떻게 사기를 쳐 빠져 나가려는지는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구천척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 정면에 있는 다섯번째의 푸른 벽돌을 뜯어 보아라.]

녹악이 이상스레 생각했다.

(설마 그 절정단을 벽돌 속에 숨겨 놓았단 말인가?)

황용이 그 말을 듣고는 속으로 구천척의 사려 깊음에 감탄했다.

(절정단이 귀하여 많은 사람들이 빼앗으려 들지 모르는 일이지. 이렇게 눈앞에 감춰 두었는지는 아무도 상상치 못했을 거다. 벽돌 밑에 감추어 둔 것은 진짜 약임에 틀림없다. 그녀는 오늘 같은 일을 당할까 미리 고려하여 벽돌 밑에 절대로 가짜 약을 숨겨 두었을리는 없다.)

구천척이 다른 사람에게 명하여 단방이나 내실에서 약을 갖고 오게 하였다면 황용도 가져온 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때 그녀가 딸애에게 청벽돌을 뜯어 보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니 다소 의심이 사라졌다.

녹악이 다섯번째 청벽돌을 세어 허리춤에서 비수를 꺼내 벽돌 틈속으로 집어넣었다. 벽돌을 꺼내 들고 보니 벽돌 밑에는 먼지와 모래만 가득할 뿐 아무 것도 없었다. 구천척이 말했다.

[벽돌 밑의 약을 감추어 둔 곳에는 비밀이 있어 남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다. 녹악아, 이리 와 귀를 좀 기울여라.]

황용은 구천척이 교활한 간교를 쓰려는 것인 줄 알아 바로 <아아!> 하고 배를 움켜쥐고 상처가 도져 오는 것처럼 가장해 구천척으로 하여금

방비하려는 마음을 느슨케 하고 난 후, 정신을 집중해 그녀가 딸에게 하는 말을 들어 보려고 했다. 그러나 구천척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는지 녹악의 귀에 대고 매우 작게 말했다. 황용이 비록 전 신경을 집중했지만 절정단은 벽돌 밑에 있다는 소리만 겨우 들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말이라 아무 소용이 없었다. 구천척이 뭐라고 계속 입술을 가볍게 움직이는데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녹악을 살펴보니 그녀는 눈썹을 곤두세우며 단지 <응, 응!>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황용은 눈앞에 닥친 급박한 사태에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일등대사의 소리가 들렸다.

[곽부인, 이리 좀 와요, 그대의 상세가 어떤지 좀 살펴 봐야겠군.]

황용이 고개를 돌려 보니 일등은 얼굴에 온화한 빛을 띤 채 구석진 곳에 앉아 있었다.

(그가 맥박을 한번 짚어 본다면 내가 상처를 입지 않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얼른 손을 내밀었다. 일등은 손가락을 뻗어 그녀의 맥박을 짚으며 말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저 여자가 말하길, ...아미타불......벽돌 밑엔 병이 두 개 있는데......, 아미타불......, 아미타불......, 동쪽의 것이 진짜 약이고......, 아미타불......, 서쪽의 것은 가짜이다......, 아미타불......, 딸애에게......, 아미타불......서쪽의 가짜 약을......, 아미타불......네게 주라고 했다....... 아미타불......]

일등대사가 염불 낭송할 때 음이 매우 크게 울려퍼졌다. <벽돌 밑에 병이 두 개 있는데......>를 말할 때는 매우 낮았다. 황용은 그가 <저 여자가 말하길......>이란 소리를 듣자 순간 눈치를 챘다. 일등대사는 수십 년간이나 수련을 한 몸이라 눈과 귀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밝았다. <천안통(天眼通)>, <천이통(天耳通)>이니 하는 것은 불경에도 있는 것으로, 이러한 신통력을 지닌 자는 깊은 곳에서 선(禪)을 행하면서도 능히

육도중생의 말들과 세간에 여러 종류의 말들을 들을 수 있어 통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법은 너무 오묘하여 믿기가 어려운 일이기는 했다. 그러나 내공이 심후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구천척이 딸에게 나직이 속삭이는 말들을 일등대사는 수장 밖에 떨어져 눈을 감고 정좌해 있으면서 한마디도 빠짐없이 죄다 들었다. 그는 단약의 진위 여부가 양과의 목숨을 구하는 관건임을 알고 불가의 호생지덕(好生之德)으로 황용에게 알려준 것이었다.

황용은 그가 불호를 욀 때마다 <내 상세가 어때요?>, <암기를 빼낼 수 있겠어요?> 하고 물어 일등대사가 말한 <동쪽의 것이 진짜 약이고, 서쪽의 것은 가짜다>라고 한 말을 덮어 버렸다. 구천척은 두 사람 쪽을 몇 번 보았으나, 황용의 얼굴에 근심이 어려 있는 것을 보았으며 또 자신의 상세를 묻고, 일등은 계속 아미타불만 하고 있으니 자신의 간계가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녹악은 모친의 말을 다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 뒤, 허리를 굽혀 손을 뻗어 벽돌 밑의 진흙을 파기 시작했다. 과연 2 개의 병이 나란히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아려 왔다.

(양공자님, 양공자님, 오늘 난 목숨을 아까와하지 않고 진짜 약을 당신께 주겠어요. 이런 마음을 당신은 알 리가 없겠지요!)

바로 동쪽의 병을 꺼내 들며 소리쳤다.

[엄마! 절정단이 여기 있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병을 흙 속에서 꺼냈기 때문에 그녀 자신만은 이 병이 동쪽에 있는 것인 줄 알았지만, 구천척과 황용은 모두 서쪽의 것을 꺼냈을 것으로 알았다.

2 개의자기 병은 외형상 완전히 똑같아 보였고 병 안의 단약의 모양도 분별이 어려웠다. 구천척 자신도 혀로 약 맛을 시험해 보지 않고는 진짜 여부를 가리기 힘들었다. 녹악이 병을 꺼내 든 것을 보자 속으로 생각했다.

(전에는 저 애가 단약을 훔치려는 것을 방비해 놓았건만 지금은 저 애가 정화에 중독되었으니 먼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급한 일이지.)

그녀의 성질은 악독스럽고 은혜에 각박스러워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기꺼이 남을 구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결코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말했다.

[약속대로 단약을 어서 곽부인에게 주어라.]

녹악이 <예> 하고 말하며 두 손으로 병을 받쳐 들고 황용에게 걸어갔다.

황용은 먼저 구천척에게 예를 표하면서 말했다.

[두터운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진짜 약의 소재를 알았으니 설마하니 훔쳐내지 못하려고?)

막 손을 뻗어 병을 받아 쥐려는 순간 지붕에서 와지끈, 소리가 나며 흙먼지가 날리더니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한 사람이 구멍으로부터 쏜살같이 떨어져 내려 녹악이 들고 있는 병을 나꿔채 갔다. 녹악이 대경실색하여 고함쳤다.

[아버지!]

황용은 녹악의 얼굴색이 크게 변하자 매우 당황해 하며 생각했다.

(공손지가 빼앗아간 병은 분명 가짜 약이 들어 있는 것일 텐데 그녀가 어째서 이토록 당황해 할까?)

이때 대청문이 꽝, 하고 울리며 대청 안의 홍촉들이 마구 흔들려 불꽃들이 밝았다 어두웠다 했다. 이어 또 한차례 소리가 나더니 빗장의 중간이 부러지며 대문이 활짝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바로 양과와 소용녀, 정영 그리고 육무쌍이었다.

녹악은 양과가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실성한 듯이 소리쳤다.

[양형......]

녹악은 그를 맞이하려 앞으로 두어 걸음 나서더니 문득 말하려는 것도 멈추고 발걸음도 멈추었다. 황용은 줄곧 녹악의 태도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녀가 양과는 바라보는 눈빛에 무한한 정과 무한한 근심이 어려 있음을 보았다. 순간 깨달아지는 게 있었다.

(용아야, 용아야. 넌 에미 노릇을 하면서도 딸자식의 심사를 이해 못 했단 말이냐? 그녀의 엄마는 그녀에게 가짜 약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 했지만 그녀는 양과를 사랑하여 진짜 약을 우리에게 건네 주었던 거다. 그러니까 공손지가 빼앗아 간 것이 바로 진짜 절정단이니 그녀가 어찌 조급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정이란 무엇이길래

황용.일등.곽부 등이 대청에서 곤란을 당하고 있을 때 양과와 소용녀는 꽃밭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조금 있다가 정영과 육무쌍이 다가왔다. 소용녀는 정영이 온아(溫雅)하고 수줍음을 타는 것을 보고 매우 마음이 끌려 그녀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다. 육무쌍은 양과에게 방금 곽부와 무예를 겨루면서 어떻게 그녀를 희롱하여 울지도 웃지도 못하게 만들었는가를 이야기했고, 정영은 또 어떻게 해서 그녀가 검을 잃고 패했던가를 이야기했다. 양과는 이번에 정.육, 두 여인과 다시 만나 그녀 둘이 자기에 대한 정의가 매우 깊고 두터운데 자신은 아무런 보답도 할 수 없음을 생각하고 매우 미안하게 여기고 있었다. 게다가 육무쌍은 양과가 이미 소용녀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원망하는 기색 없이 구구절절이 곽부가 자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을 징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정영도 소용녀에 대하여 매우 친절한 것을 보고 절로 기쁘고 크게 위안이 되었다.

네 사람은 돌 위에 앉아서, 소용녀는 정영과 이야기하고 양과는 육무쌍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용.정, 두 사람은 성격이 조용하여 이것저것 수다를 떨지 않고 몇마디 하고는 곧 말을 멈추곤 했다. 양과와 육무쌍은 한 사람이 <바보>라고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은 <색시>라고 한마디 하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영이 돌연 웃으며 끼어들었다.

[양오빠, 이제는 올케 언니가 있으니 우리 사촌 동생에게 색시라 하면 안 되잖아요.]

양과가 아, 하고 소리 지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다. 육무쌍도 돌연 놀라며 부끄러워서 얼굴이 온통 붉어졌다. 정영은 마음속으로 은근히 후회했다.

(그들은 그냥 재미로 이야기하고 웃으며 원래 다른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공연히 이 얘기를 꺼내서 도리어 어색하게 만들었구나.)

정영은 급히 말머리를 돌렸다.

[양오빠, 꽃의 독에 중독되었다는데 지금은 좀 어때요?]

[별 탈은 없어. 곽백모께서 지모가 많으니 분명히 내게 영단묘약을 구해 줄 방법을 강구하시겠지. 내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저 사람의 상처야.]

하고 말하면서 소용녀를 가리켰다.

정영과 육무쌍은 일제히 놀라며 물었다.

[뭐라구요? 양언니도 부상을 당했나요? 우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소용녀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나도 별 탈을 없어. 내가 내력을 움직여 독을 감싸서 그것이 발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며칠 안에는 큰 탈이 없을 거야.]

육무쌍이 말했다.

[무슨 독이에요? 역시 정화의 독인가요?]

[아니, 나의 사자의 빙백은침이야.]

[또 이막수, 그 마두의 짓이었군요. 바......, 양오빠, 그녀의 <오독비전(五毒秘傳)이라는 책을 보지 못했나요? 빙백은침의 독이 비록 무시무시하지만 결코 풀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양과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독질이 내장까지 침투하여 보통의 해약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어.]

그리하여 소용녀가 어떻게 경맥을 역전시켜 부상을 치료하고 있었고,

곽부가 어떻게 해서 독침을 잘못 쏘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다. 육무쌍은 손을 뻗어 돌 뒤를 세게 한번 내려 치고는 한스럽게 말했다.

[곽부가 부모의 권세를 믿고 결국 이토록 무법무천으로 날뛰는군. 사촌 언니, 우리 여기서 그녀를 이대로 놔 둬서는 안 되겠어요! 그녀의 부모가 당세의 대협인 것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소용녀가 말했다.

[이 일을 가지고 그녀를 탓할 수는 없어. 그의 팔을 자른 것하고는 달라.]

정영이 말했다.

[양언니, 우리 사부께서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내력으로 독질을 감싸면 비록 일시에 발작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독질이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더욱 몸을 다치게 되니 해독하는 방법을 일찍이 강구해야 한다구요.]

소용녀는 음, 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양과는 생각했다.

(천축승이 정신이 든다 해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로 말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그는 이 일을 계속 이야기해 봤자 소용녀의 번뇌와 자기의 상심만 더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곽백모와 일등대사가 그 미친 화상을 상대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 보러 가자.]

네 사람은 즉시 길을 찾아 대청으로 돌아갔다. 대청에서 10여 장 거리에 이르렀을 때 대청 지붕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번쩍했다. 그 그림자는 바로 공손지였다. 이어서 와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지붕을 부수고 뛰어내려 가는 것이 보였다. 양과는 공손지가 이 지붕의 부서진 구멍 아래에 대도어망진을 설치해놓고 자기를 끌어들이려고 할까 봐 현철중검을 들어 철문을 쳐서 열고 위를 올려다보며 곧장 들어갔다.

공손지는 절정단을 빼앗아 손에 넣었으니 비록 황용 등의 고수가 운집해 있었지만 꺼릴 것이 없었다.

(내가 이기지 못한다고 해도 설마 도망치지도 못하려고?)

공손지가 막 밖으로 뛰려고 할 때 돌연 양과가 문을 부수고 곧장 들어오는 것이 보이는데 그 성세(聲勢)가 사납기 짝이 없었다. 그는 깜짝 놀란 나머지 두 발을 굴러서 몸을 날려 지붕의 부서진 구멍으로 뛰어나가려고 했다. 그는 당장 먼저 해야 할일은 절정단을 이막수에게 가져가 먹여서 해독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천척을 죽이고 절정곡을 빼앗는 일 등은 앞날이 많으니 그다지 서두를 일이 못 된다고 생각했다.

그의 몸이 솟구치자 황용도 이미 뒤따라 높이 뛰어 타구봉법의 <전(纏)자 구결을 사용하여 그의 발을 휘감았다. 구천척이 소리쳤다.

[노적(老賊)!]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대추씨 한 알을 공손지의 배를 향해 날렸다. 공손지는 몸을 날릴 때 이미 이것을 방비하여 칼을 휘둘러 대추씨를 막아내고도 뛰어오르는 기세는 조금도 늦추어지지 않았다. 바람소리가 거세고 급하게 들리며 두번째 대추씨가 다시 비껴서 발사되었다. 금도는 이미 밖으로 휘두른 뒤여서 다시 거두어 막아낼 겨를도 없는데 황용의 타구봉이 이어서 감아 와 대퇴부를 파고들었다. 그는 암기가 배로 날아들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즉시 몸을 옆으로 기울이고 다리를 가로로 들며 대추씨를 막아냈다.

그러나 구천척의 이 일격은 공손지를 향하여 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황용을 조준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변이 생기가 황용조차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어서급히 타구봉을 휘둘러 막아냈다. 그러나 대추씨는 경력이 실로 너무나 강하여 전신이 떨리고 팔이 시큰거리더니 팍, 하는 소리와 함께 타구봉은 바닥에 떨어지고 몸도 이어서 바닥에 떨어졌다. 공손지의 위로 뛰어오르는 힘도 역시 다하여 황용의 옆으로 떨어져서 칼을 휘두르며 그녀를 찔러 들어갔다.

양과가 현철검을 재빨리 내뻗자 한 줄기 거센 바람이 일어 공손지의 금도는 즉시 이 무시무시한 검세에 밀려 석 자나 튕겨 나갔다. 공손지는 적의 검에 실려 오는 경력이 산을 밀고 바다를 뒤집어 엎듯 거셈을 느끼

고 크게 놀랐다. 한달 남짓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 소년은 한쪽 팔까지 잘렸으면서도 무공은 도리어 이처럼 정진되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녹악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에 엄한 부친을 매우 무서워하며 감히 그에게 먼저 말을 건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단장애(斷腸崖)앞에서 이막수에게 하던 말을 들은 뒤로 상심함이 극도에 달해 마침내 두려움이 모두 사라져 공손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당신은 엄마의 사지를 잘라서 엄마를 지하 동굴에 가두어 놓았으니 이토록 흉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드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 당신은 단장애 앞에서 이막수에게 또 무슨 말을 했지요?]

공손지는 섬ぁ씀했다. 그는 이막수와 그토록 극히 은밀한 곳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는 비록 사납고 표독했지만 딸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마음이 텅 비는 것 같은 심정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많은 사람 앞에서 소리치는 것을 듣자 저도 모르게 안색이 크게 변하여 말했다.

[뭐......뭐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다.]

녹악은 담담하게 말했다.

[딸이 죽기를 원한다면 우리 집하고는 전연 상관도 없는 여자한테 가서 잘 지내세요. 딸은 당신이 친히 낳았으니 당신이 죽기를 원한다면 나도 감히 거역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당신의 수중에 있는 절정단은 엄마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을 한 것이니 내게 돌려주세요!]
하고 말한 뒤 두 걸음 걸어가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공손지는 자기병을 품속에 집어넣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 모녀는 모두 바깥 사람에게 마음을 주어 하나는 남편을 거역하고 하나는 아비를 거역했다. 오늘은 내가 잠시 너희들과 따지지 않을 것이지만 이 다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답을 하고 모든 것을 분명히 밝히겠다.]
하고 말한 뒤, 도검을 서로 부딪쳐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성큼성큼 걷

다가 돌연 밖으로 뛰기 시작했다.

양과는 녹악이 공손지의 잘못을 낭랑하게 꾸짖는 것을 듣고도 그 연유를 자세히 알지 못해 현철검을 비껴 들고 공손지의 길을 막으며 녹악에게 말했다.

[공손 아가씨, 한 가지 물어 볼 게 있습니다.]

공손녹악은 그의 이 말을 듣자 자신이 가련해지고 저절로 마음이 아파왔다.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당신을 위하여 단약을 빼앗으려는 일을 결코 당신에게 알릴 수는 없어요. 몇 년이 지나면 당신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이 괴로운 운명의 여자는 자연히 잊혀질 텐데 왜 이 일로 당신을 괴롭게 하겠어요?)
하는 생각을 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양형께서는 무슨 의문이 있는지요?]

[당신은 방금, 전혀 상관도 없는 여자에게 가서 잘 지내라고 말했는데 그 여자는 누구인지요? 당신이 죽기를 원한다면......왜 그런 말을 했죠?]

[그 여자는 이막수예요, 그 연유는......]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나의 아버지는 비록 나를 이렇게 대하지만, 나를 친히 낳아 주신 분인데...... 이 일은 자식 된 도리로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구천척이 소리쳤다.

[말해라! 그는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말할 수 없단 말이냐?]

녹악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양형, 그 반 조각의 절정단은 우리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자기병 속에 있어요. 나......, 나는 불효 자식이에요.]

여기까지 말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 하고 소리 높여 외치며 구천척 앞으로 뛰어가 그녀의품속으로 달려들었다. 그녀가 말한 <나는 불효 자식이에요>란 말은 구천척이 듣기에는 아버지를 거역한 것을

가리키는 것인 줄 알았지만, 사실 녹악은 어머니의 명을 따르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었다. 대청에 가득한 수십 명의 사람중에서 오직 황용 한 사람만이 그녀의 진정한 뜻을 알아차렸다.

공손지는 강적들을 몰래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이미 계책을 세워 놓았다.

(천만 다행으로 이 못된 여편네가 어리석어서 이 긴급한 순간에 곽부인에게 대추씨를 쏘았구나. 그녀들 쌍방이 다투도록만 유도한다면 나는 기회를 보아 몸을 빼 낼 수 있을 것이다.)

즉시 소리 내어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래, 착한 딸아, 참으로 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구나. 너와 엄마는 이곳을 지켜서 오늘 우리 절정곡에 온 바깥 사람들을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해야지.]

말을 하고 나서 금도와 흑검을 들어 돌연 의자에 기대고 있는 황용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황용은 오른팔이 여전히 시큰거려 타구봉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오직 몸을 옆으로 하여 피하는 수밖에 없었다. 곽부는 수중에 줄곧 야율제의장검을 쥐고 있다가 즉시 검을 들어 어머니를 보호했다. 공손지의 흑검이 질풍같이 곽부의 목을 찌르자 곽부는 검을 들어 막았다. 황용이 급히 외쳤다.

[조심해라!]

쨍, 하는 소리와 함께 곽부의 장검이 그대로 잘리며 공손지의 흑검이 곧장 그녀의 목을 베었다. 황용은 황급한 나머지 심장이 쿵쿵 뛰며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만 워낙 찰나지간이라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다. 육무쌍이 옆에서 소리쳤다.

[오른팔을 들어서 막아라!]

곽부는 적의 검이 곡으로 찔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누가 소리쳤는지 자세히 따질 겨를도 없이 저도 모르게 오른팔을 들어서 막았다. 정영이 소리쳤다.

[쌍아, 네가 어떻게......]

정영은 알고 있었다. 육무쌍은 곽부가 양과의 팔을 자른 것을 증오하여 곽부의 정신을 혼란시켜서 그녀가 팔을 들어 검을 막게 하며 그 한쪽 팔이 잘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려고 한 것이었다. 정영도 양과의 팔이 잘린 것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몹시 애통해 했으며 어두운 밤에는 조용히 한동안 울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일은 매우 불행한 일로서 비록 곽부를 미워하기 했지만 육무쌍이 그녀의 팔을 잘라서 보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정영은 육무쌍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서둘러 말리려 했지만 공손지의 칼날은 이미 곽부의 팔에 닿았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곽부의 소매자락이 길다랗게 찢어지고 동시에 몸이 검세에 밀려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옆으로 기우뚱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녀의 팔은 전혀 잘리지 않았고 피 한 방울도 튀지 않은 점이었다. 정영.육무쌍은 당연히 놀랐고 공손지와 구천척 등도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곽부는 옆으로 몇 걸음 물러나 조용히 몸을 세우고 육무쌍이 호의로 자기를 구해 주려고 한 줄 알고 몹시 감격하여 외쳤다.

[언니, 정말 고마와요! 하지만 언니가 어떻게......?]

양과가 이어서 말했다.

[이 공손씨는 너의 무공이 이토록 대단한 줄을 몰라.]

그는 황용이 어떤 보도나 날카로운 칼로도 전혀 손상을 입히지 못하는 연위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곽부가 팔을 제대로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연위갑의 공일 것이었다. 그녀가 <하지만 언니가 어떻게......?> 라고 했을 때의 다음 말은 <내가 연위갑으로 몸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라는 말일 것이었다. 양과는 공손지가 그의 날카로운 검으로도 그녀를 해치지 못하자 이미 간담이 서늘해졌으리라고 생각하고 공손지에게 말했다.

[이분 곽아가씨는 곽대협과 황방주의 딸이요, 도화도 도주 황약사의 외손녀이다. 그녀의 가전의 절세 무예는 온몸에 창과 칼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녹슨 구리덩어리로 아무렇게나 만든 너의 그 검으로 장

난을 친다고 해서 그녀를 해칠 수 있을 것 같으냐?]

공손지는 노하여 말했다.

[흥, 방금은 그대로 내가 봐 준 것이다. 내가 정말로 그녀를 해치지 못할 줄로 아느냐?]

하고 말하며 흑검을 휘둘러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곽부는 생각했다.

(내가 이미 그의 도검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으니 나서서 맹공을 퍼붓는 것이 좋겠다. 그에게 이기면 이겼지 지는 경우는 없을 테니 이렇게 유리한 순간을 어찌 놓친단 말이냐?)

[작은 무오빠, 오빠의 검을 내게 좀 빌려 줘요. 이 늙은이가 우리 도화도의 무공을 믿지 않으니 그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 줘야겠어요.]

무수문은 장검을 거꾸로 하여 검자루를 그녀에게 건네 주었다.

[공손 노인, 다시 한번 덤벼 보시지!]

득의양양하고 유시무공(有恃無恐)이라, 마치 고수가 하수를 희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모습이었다.

공손지는 그녀가 검화(儉花)를 그리는 것을 보고 그녀의 검술의 깊이가 매우 얕음을 알고 외쳤다.

[좋다, 다시 한 수 배워 볼까!]

금도를 들어 그녀의 면문을 찌르자 곽부의 몸이 옆으로 휘청하는가 했더니 일검을 반격했다. 공손지의 흑검이 이리저리 뒤집히며 그녀의 검을 향하여 쳐들어왔다. 곽부가 생각했다.

(아차! 내가 몸에는 연위갑을 입었지만 검에는 검을 보호하는 보갑이 없으니 쌍검이 일단 교차하면 내 수중의 장검이 또 부러지겠구나.)

곽부는 즉시 검을 되돌려 피했다. 공손지는 두 손을 맞부딪치더니 도검을 모두 오른손에 움켜잡고 이어서 좌장을 쳐냈다. 곽부는 크게 기뻐했다.

(너의 이 좌장이 나의 연위갑을 치면 도리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장력이 무시무시하여 몸을 칠 때 내장이 손상을 당할까 봐 몸을 옆으로 약간 비껴서 먼저 그의 장력의 7할을 흩뜨려 놓은 다음

에 다시 그의 이 장력을 받으려고 했다.

[정말 놀랍구나, 몰래 화살을 쏘아 해치다니!]

하더니 곧장 앞으로 고꾸라졌다. 곽부는 깜짝 놀라 말했다.

[나는 당신을 해친 적이 없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나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설마 연위갑에 정말로 이런 묘용(妙用)이 있었단 말이냐? 그의 수장이 나의 몸에 닿기도 전에 이미 부상을 당하다니.)

그녀가 어찌 공손지가 교활하고 간사하여 마음속으로는 오직 절정단을 가져다 어서 이막수에게 먹일 생각뿐이라는 것을 알았으랴! 그는 한가하게 곽부 같은 조그만 여자와 싸워 이기려는 마음이 없었다. 그는 거짓으로 부상을 당하고 쓰러져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것처럼 떼굴떼굴 우당탕탕, 후당을 향해 굴러갔다. 그는 이 잠깐의 순간에 이미 적의 정세를 똑똑히 살펴 놓았다. 정면의 양과와 황용은 무시무시한 인물이요, 게다가 그 긴 눈썹의 노승도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쉽게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결코 아니어서, 마침 곽부가 득의양양해 있는 기회를 틈타 후당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이다.

공손녹악은 그가 절정단을 가지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급히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아버지, 천천히 가세요!]

바로 이때 바람소리가 일어나며 2 개의 대추씨가 공손지를 향해 날아왔다. 구천척은 공손지가 재빨리 몸을 피했기 때문에 암기가 딸에게 맞을까 봐 기세를 매우 높게 하여 대추씨를 그의 뒷골을 향해 쏘았다. 공손지가 고개를 숙이자 2 개의 대추씨가 녹악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 띵띵, 하는 소리와 함께 석벽에 맞았다. 공손지가 외쳤다.

[비켜라!]

그러면서도 발을 조금도 멈추지 않았다. 녹악이 말했다.

[절정단을......]

녹악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공손지가 손을 앞으로 뻗어 그녀의 팔

목의 맥문을 움켜쥐고 몸을 돌려 녹악으로 가슴팍을 막으며 소리쳤다.

[못된 여편네 같으니, 정말로 죽이려면 모두 함께 죽자!]

구천척은 2개의 대추씨를 이미 입술까지 내뿜었다가 돌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지자 차마 거두지를 못하고 급히 고개를 옆으로 돌려 2개의 대추씨를 옆으로 쏘아 냈다. 이 위기 일발의 순간을 맞자 그녀는 오직 대추씨가 딸의 몸에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준도 할 겨를이 없었다. <으악!> 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2명의 녹의 제자가 하나는 뇌문에 맞고, 하나는 앞가슴에 맞아 즉시 목숨을 잃었다.

공손지는 절정곡을 도로 빼앗으려면 이막수의 도움 이외에 반드시 제자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일을 뭇 제자들을 격분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큰소리로 외쳤다.

[못된 여편네, 네가 악랄한 수법으로 나의 제자를 죽였으니 절대로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이때 양과가 이미 그의 퇴로를 차단하고 말했다.

[우리는 만사에 맺고 끊는 것이 있어야 한다. 서둘러 달아나지 마라!]

공손지는 딸을 안아 올리며 교활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네가 감히 나를 막을 테냐?]

공손지는 왼발을 축으로 하여 빙그르르 원을 그리더니 이어서 다시 오른발을 축으로 하여 다시 한바퀴 돌았다. 그러자 이미 앞으로 네 자 정도 뛰어간 셈이 되어 양과와 가까와졌다. 양과는 그가 다시 빙그르르 도는 것을 보고 녹악을 다치게 할까 봐 서둘러 옆으로 뛰었다.

공손녹악은 몸이 부친의 수중에 있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동그라미 하나를 채 그리기도 전에 돌연 양과가 피하여 퇴로를 열어 주는 것을 보고 눈빛에 감동하는 표정이 가득했다. 녹악은 저도 모르게 마음이 크게 위안이 되었다.

(그는 나를 위하여 해약까지도 포기하는구나! 나는 이제죽어도 괜찮다.)

그녀는 비록 수족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고개는 돌릴 수 있었다.

[양도령, 양도령!]

하고 나지막이 외치고는 공손지가 치켜드는 흑검을 이마로 막았다. 흑검은 너무나도 예리하여 공손녹악은 그만 아버지의 손에 죽고 말았다.

[아차!]

양과가 크게 소리 지르며 그녀를 구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공손지도 깜짝 놀라 마음이 약간 쓰린데 등뒤에서 노한 호통소리가 들리며 3개의 대추씨가 번개같이 날아왔다. 그는 딸의 시체를 뒤로 내던졌다. 3개의 암기는 모두 그녀의 몸에 꽂혔다.

사람들은 녹악이 죽은 뒤에도 공손지에 의해 이렇게 유린당하는 것을 보자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분분이 무기를 뽑아 들고 나섰다. 공손지가 외쳤다.

[제자들아, 못된 여편네가 외적과 결탁하여 우리 절정곡의 남녀 노소를 모두 죽이려고 한다. 어망도진(漁網刀陣)으로 일제히 포위해라.]

제자들은 이제껏 그를 신명처럼 받들어 왔었다. 그날 그가 구천척에게 눈을 맞고 달아날 때 제자들은 쫓아갈 방도가 없어서 오직 구천척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때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듣자 제자들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도어망(帶刀漁網)을 들고 사방에서 포위했다.

그물 하나하나가 모두 사방 2장에다가, 그물 위에는 휘황찬란하고 날카로운 칼들을 묶어 놓았다. 중인들은 무공이 비록 강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사방에서 그물이 중간으로 조여드는데 모두 몸에 10여 군데의 구멍이 뚫릴 판이었다. 이렇게 포위해 들어오자 구천척도 그 안에 갇혔다. 그녀는 큰소리로 호통쳤다.

[제자들은 노적의 망언을 듣지 마라. 모두 멈추어라. 어서 멈추지 못할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의 귀에는 오직 공손지의 호령만이 들렸다.

[곤망(坤網)을 앞으로, 감망(坎網)을 왼쪽으로, 진망(震網)을 오른쪽

으로!]

제자들은 소리에 따라서 하나하나의 대도어망을 점점 가까이 접근시켰다.

황용은 품속에서 강침을 한 줌 꺼내어 서쪽의 8명의 제자를 향하여 뿌렸다. 거리도 가깝고 강침도 또한 많아서 8명 중에 적어도 5,6명은 부상을 당할 것이니 어망진에 결함이 생기면 이곳을 통하여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띵띵띵, 하는 소리와 함께 황용이 쏜 강침과 구천척이 뿜어 낸 대추씨가 모두 어망진에 있는 흡철석(吸鐵石)에 빨려 들어갔다.

(큰일났구나!)

황용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이어서 소리쳤다.

[부야, 검을 들어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고 강공으로 그들을 부숴라.]

곽부는 모친의 호령을 듣고 장검을 휘두르며 동북쪽 모퉁이로 질풍같이 달려들었다. 4명의 제자가 그물을 펼쳐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5,6개의 날카로운 칼이 그녀의 몸에 있는 연위보갑에 부딪쳐 도로 튕겨 나갔다. 그러나 그물을 잡은 제자들이 좌우로 다가서며 그녀를 덮치려고 했다.

양과는 공손지의 뒤에 서 있어서 본래는 어망진의 밖에 있었다. 그러나 8장의 그물이 공손지의 호령에 따라 좌우에서 돌아와 이미 그를 진 속으로 포위했다. 양과는 정세가 위급하자 현철중검을 들어 곽부의 앞에 있는 어망을 베었다. 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어망은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그물 끝을 잡고 있던 4명의 제자가 동시에 쓰러졌다. 무삼통.야율제 등은 더 이상 늦추지 않고 권(拳)과 장(掌)을 나란히 내어 근육을 치고 뼈를 부러뜨려 4명의 제자의 수족을 꼼짝못하게 하여 그들이 다시 새 그물을 가지고 와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다. 양과는 길게 소리를 지르며 두 차례 검을 휘둘러 다시 2장의 그물을 찢었다. 이 그물은 금사(金絲)와 강선(鋼선)으로 짠 것이어서 극히 견고하고 질겼지만 현철중검은 아무리 단단한 것이라도 부러뜨리지 못하는 것이 없어서 세 번 검을

내어 공격하자 3개의 그물이 즉시 부서진 것이다. 제자들은 놀라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공손지가 외쳤다.

[다섯 장의 그물로 일제히 공격해라! 그는 일검에 다섯 장의 그물을 부수지는 못할 것이다!]

양과는 생각했다.

(다섯 장의 어망이 일제히 대든다면 당해 내기가 어렵겠군.)

그는 왼쪽으로 걸음을 옮겨 적의 기선을 제압한 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하나를 베어 부수었다. 어망은 매우 팽팽하게 짜여져 일검에 그물이 베어지는 소리가 마치 금석이 갈라지는 것 같았다.

바로 이때 홀연 대청 밖에서 누군가 사납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노란 그림자가 번뜩하더니 한 사람이 대청 문으로 들어와 검을 짚고 우뚝 섰다. 바로 적련선자 이막수였다.

그녀가 서자마자 대청 문으로 또 한 사람이 뛰어 들어왔는데 온몸이 피투성이였고 머리도 산발한 채였다. 바로 주자류였다. 그는 빈 손인 좌지우장(左指右掌)으로 이막수에게 사납게 대들었다. 이막수는 수중에 비록 무기가 있었지만 주자류가 거의 미친 듯이 목숨을 내걸고 달려들자 감히 맞서지 못하고 대청 모퉁이로 돌아 피했다. 두 사람은 모두 극히 높은 경공을 지니고 있어 잠깐 사이에 이미 대청을 6,7바퀴 맴돌았다. 양과는 매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막수의 무공도 결코 그에게 못 미치지는 않을 텐데, 왜 이토록 그를 두려워하는 걸까? 그 천축승은 어떻게 됐을까?)

두 사람의 무공은 각기 장점이 있었지만, 경공만은 이막수가 훨씬 뛰어나 몇 차례 맴을 돌자 사람들은 모두 주자류가 결코 그녀를 따라잡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게다가 그의 몸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피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보니 부상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 같았다. 무삼통 부자 세 사람이 좌우로 나누어 포위했다. 주자류가 외쳤다.

[사형, 이 독부(毒婦)가 사숙을 죽였읍니다. 우리는 여하를 막론하

고......]
하더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계속 몸을 떨었다.

일등은 천축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아무리 깊은 수양을 했다고는 하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즉시 몸을 일으켰다.

양과는 머리가 한차례 어지러워 고개를 돌려 소용녀를 바라보았다. 소용녀도 마침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모두 마음이 철렁하여 온몸이 얼음굴에 떨어진 것 같았다. 소용녀는 천천히 걸어가서 양과의 몸에 기대었다. 양과는 장탄식을 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곧장 밖으로 나갔다.

원래 천축승은 평소에 늘 독약을 가까이 하여 체내의 독에 대항하는 힘이 매우 강했다. 그는 대량의 정화를 스스로 찌르고 사흘 낮, 밤을 기절한 뒤 깨어나리라고 예측했는데, 이틀 밤 이틀 낮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정신이 들었다. 그는 한참 동안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이 정화의 독이 비록 매우 무시무시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벼우니 마땅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주자류는 크게 기뻐하며 일등이 이미 절정곡에 온 것과 화완실(火浣室)의 석문도 이미 양과가 부수었다고 알려주었다. 천축승이 말했다.

[일이 지체되면 안 되니 어서 가서 해약을 구하여 사람을 구할 방법을 강구해 보자.]

두 사람이 화완실을 나오자 천축승은 정화나무 아래에 가서 약초를 찾았다. 그는 독사가 출몰하는 곳에는 반드시 독사의 독을 풀 수 있는 약초가 있는 것처럼, 정화의 해약을 조제하는 데 필요한 약초 중의 중요한 것은 아마도 정화나무 아래에서 자라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꽃나무 옆의 돌에 숨어 있던 이막수가 천축승이 고개를 숙이고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까닭도 묻지 않고 빙백은침 하나를 발사했다. 천축승은 무공을 할 줄 몰라 은침이 그의 가슴을 뚫고 들어가서 즉시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치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숙이 꼼짝하지 않자 주자류는 돌 뒤에 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천축승이 이미 죽은 것을 모르고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도 않고 앞으로 나서서 구하려고 했다. 이막수는 그의 의도를 알고 다시 은침 하나를 천축승의 시신을 향하여 던졌다. 주자류가 수중에 무기가 없어 급히 앞으로 나서며 일장을 비껴 쳐서 은침을 떨어뜨리자 어깨와 등이 이로 인하여 적에게 노출이 되었다. 이막수는 여세를 몰아 장검을 휘두르며 그의 오른쪽 어깨를 쳤다. 주자류는 급히 어깨 깊숙이 경력을 움직였지만 끝내 1촌 이상 검이 박혔다. 즉시 연속으로 손가락을 뻗어 적의 허리를 찌르며 일초 일초마다 선제 공격을 가했다. 그는 어깨에 이미 부상을 당하여 만약 뒤로 다시 물러나 피한다면 천축승을 구할 수 없게 되고 적은 계속하여 초수를 날릴 것이니 실로 후환이 극심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검과 손가락을 교환하며 몇 초를 겨루었다. 주자류는 천축승이 땅바닥에 엎드려 전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사숙, 사숙!]

천축승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막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의 대답을 듣고 싶단 말이냐? 그건 쉬운 일이지. 너도 나의 이 독침을 맞고 저 세상으로 가서 그를 부르면 안 될 것도 없지.]

주자류는 비통한데다가 적개심이 더하여 일초 일식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손가락을 낼 때는 도리어 경력을 더했다. 별과 달이 은은히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막수는 그의 눈빛이 번개처럼 빠르고 일초 일초 나서서 공격하는 것이 모두 동귀어진(同歸於盡)으로 목숨을 버리는 타법이라, 다시 몇 초를 겨루자 저도 모르게 두려워서 장검으로 급히 두 차례 공격하고는 몸을 돌려 달아났다. 주자류는 몸을 굽혀 사숙의 팔목을 짚어 보았다. 맥박과 호흡이 멈춰 있어 이미 죽은 지가 오래였다. 그는 비통한 소리를 한차례 내지르고는 숨을 몰아쉬고 이막수를 재빨리 추격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앞 뒤로 대청으로 뛰어 들어온 것이었다.

공손지는 이막수가 들어온 것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외

쳤다.

[이도우(李道友), 이쪽으로 오시오!]

하고 말하며 그녀를 맞으러 갔다. 황용은 공손지의 기색을 보고 이미 알아차리고는 외쳤다.

[과야, 이 두 마두를 떨어지게 해라. 그들이 접근하게 해서는 안된다!]

양과는 천축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온갖 사념이 사라져, 절정단을 공손지가 가져도 좋고 그는 가지지 않아도 좋다는 듯 전혀 개의치 않게 되어 황용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슬며시 쓴 웃음 만 지을 뿐 손을 쓰지 않았다.

[야율제가 반 조각 난 대도어망을 들고 외쳤다.

[돈유형, 이쪽을 잡아요.]

그와 무돈유.완안평.야율연 등 네 사람이 각기 어망의 한쪽 끝을 잡고 공손지와 이막수의 사이를 가로막았다.

대청에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자 제자들은 진세가 흐트러졌다. 구천척이 이 틈을 타서 암기를 뿜어 내자 제자들은 그물을 펼쳐 암기를 거두어들일 새도 없이 계속하여 다섯 사람이 암기에 맞아 목숨을 잃고 대도어망진은 즉시 무너져 버렸다. 공손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도우, 우리 길을 나누어 나가서 방금 만났던 곳으로 다시 모입시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소리를 지르더니 좌우로 나누어 양과와 소용녀 곁을 스치고 대청을 빠져나갔다. 양과는 보고도 못 본 체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황용이 외쳤다.

[용아우, 공손지를 막아! 절정단이 그의 몸에 있어!]

소용녀는 깜짝 놀라 생각했다.

(천축승이 이미 죽었으니 과의 몸에 있는 정화의 독은 오로지 이 반 조각 절정단만이 풀 수 있다.)

즉시 양과의 손을 뿌리치고 나는 듯한 걸음으로 공손지를 추격했다.

양과가 외쳤다.

[그를 가게 내버려 둬요!]

소용녀가 말했다.

[어떻게 그를 가게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이에요?]

양과는 뒤를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공손지와 이막수는 하나는 동북방으로, 하나는 서북방으로 가서 사람들도 둘로 나누어 추격했다. 소용녀.양과.정영.육무쌍 등 네 사람은 공손지를 추격했다. 무씨 부자.주자류.완안평 등 다섯 사람은 이막수를 추격했다. 야율제 오누이와 곽부는 일등과 황용 곁에 남아서 구천척을 감시했다.

무씨 부자 일행 다섯 사람 중에 주자류는 어깨에 검을 맞아 상처를 입은데다가 방금 분전(奮戰)을 하여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한참을 뛰자 점차 지탱하기가 어려움을 느꼈다. 일행은 걸음을 멈추고 그의 상처를 싸매 주느라 잠시 지체했다. 그때 이막수는 이미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주자류가 한스러운 듯 말했다.

[우리가 만약 오늘 이 마두를 달아나게 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사숙을 대하겠읍니까?]

다섯 사람은 꽃더미와 나무 사이를 이리저리 헤매며 찾았지만 끝내 이막수를 찾을 수 없었다. 무삼통은 노기충천하여 있는 힘껏 나무 하나를 뽑아서 주위의 꽃나무를 이리저리 쳐서 쓰러뜨렸다. 주자류가 말했다.

[그 공손지가 그녀에게 방금 만났던 곳으로 모이자고 했읍니다. 우리가 비록 두 사람이 어디에서 만났었는지는 모르지만 공손지를 찾아가면 그 여마두가 해약을 구하기 위하여 조만간에 그를 찾아갈 것입니다.]

무삼통이 말했다.

[사제의 말이 옳아. 자, 우리 이제 공손지를 찾으러 가지.]

그리하여 다섯 사람은 서북방을 향하여 달려갔다.

얼마 가지 않아 과연 앞에서 은은하게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삼통은 주자류를 부축하고걸음을 빨리 했다. 그러나 고함소리는 갑자기

멀어졌다가 갑자기 가까와지더니 다시 고요해지면서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다섯 사람은 길을 찾아가면서 한밤을 다 보내 하늘이 점차 밝아 오고 있었다. 한참을 가는데 정면의 높은 곳에서 누군가가 소리내어 길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가 섬뜩섬뜩하여 마치 올빼미가 우는 것 같았다. 일행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앞쪽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한 사람이 서서 하늘을 보며 웃고 있었다. 바로 공손지가 아니면 누구이겠는가? 그 깎아지른 절벽 아래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고 위로는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데 정상이 구름 속에 가려서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었다. 주자류는 그가 마치 미친 것처럼 보여 은근히 놀랐다.

(만약 그가 자칫 실족이라도 하여 아래에 있는 만장의 깊은 골짜기로 떨어진다면 큰일이다. 공손지가 죽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그 반 조각의 절정단도 그와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주자류가 즉시 날듯 뛰어 굽이를 도니 양과.소용녀.정영.육무쌍 네 사람이 산모퉁이에 서서 일제히 공손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소용녀는 주자류 등이 오는 것을 보고 나지막이 말했다.

[주대숙, 어서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를 끌어내려 오죠?]

주자류는 주변의 정세를 한 번 살펴보니 너비가 한 자를 넘지 않는 돌다리가 공손지가 서 있는 곳과 통하고 있었다. 돌다리와 절벽에는 온통 이끼가 자라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미끄러지면 안 될 일 이어서 그 혼자만이 가기를 원했다.

무삼통은 양과가 두 아들의 목숨을 건져 준 것을 생각하고는 그들 형제의 정은 차치하고라도 오늘의 일은 결코 사양해서는 안 될일이라 여겨 즉시 소매를 걷어붙이고 말했다.

[내가 가서 그를 붙잡아 오지요.]

하며 두 걸음을 성큼 나서는데 옆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번뜩 움직이더니 정영이 이미 그의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제가 가겠읍니다!]

그녀는 신법이 상당히 빨라서 몸을 날리자마자 이미 돌다리를 밟고 올라섰다. 그녀가 아무리 빨라도 양과의 빠르기에 어찌 비하랴! 정영은 허리가 꽉 조여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몸은 이미 양과의 소매에 말려 되돌아왔다. 귓가에 양과가 하는 말이 들렸다.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들 고생을 하려고 하는 거요?]

정영은 얼굴이 온통 붉게 상기되어 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이때 소용녀가 말했다.

[검을 잠깐 빌려 주세요!]

재빨리 무돈유와 완안평의 곁으로 가 그들의 수중에 있던 장검을 빼앗았다. 이 수법은 그야말로 번개처럼 빨라서 무돈유와 무수문이 깜짝 놀라는 사이에 이미 소용녀는 사뿐히 돌다리를 뛰어 건너 공손지의 앞으로 다가섰다.

공손지는 막다른 곳에 처해 있는데 소용녀가 감히 나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돌다리가 끝나는 곳으로 나서며 길을 막은 뒤, 교활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는 정말로 목숨이 아깝지 않단 말이냐?]

소용녀는 생각했다.

(어쨌든 나는 절정단을 뺏아야만 죽겠다.)

소용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공손선생, 당신은 내게 목숨을 구해 준 은혜가 있는데 나는 도리어 몇 차례나 당신에게 곤욕을 치르게 만들었으니...... 매우 미안하게 생각해요. 나는 당신과 목숨을 다투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하러 왔느냐?]

[나는 당신에게 내 남편의 목숨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러 왔어요. 절정단은 당신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내게 준다면 소녀 당신의 대은대덕에 감격할 거예요.]

양과가 돌다리 저쪽에서 외쳤다.

[용이, 돌아와요. 반 조각의 단약으로는 우리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없어요. 가지고 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오.]

공손지는 돌다리 위에 우뚝 서 있는 소용녀의 옷깃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보며 마치 구름을 타고 날아갈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아름다운 자태를 이막수가 어찌 만의 하나라도 따라갈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하나밖에 없는 눈을 크게 뜨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말했다.

[너는 양가라는 어린 놈을 남편이라고 하느냐?]

[그래요, 나는 그와 결혼했어요.]

[나에게 한 가지를 만약 허락한다면 이 단약을 너에게 주마.]

소용녀는 그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미 그 뜻을 알아차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이미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시집갈 수가 있겠어요? 공손선생, 당신이 내게 정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한 번 호의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것뿐이에요.]

공손지는 애꾸눈은 굴리며 호통을 쳤다.

[그렇다면 어서 물러서라. 만약 다시 나와 적이 되면 나의 도검의 무정함을 원망하지 마라.]

[당신이 굳이 대결을 원해 나와 원수가 되겠다면 우리가 서로 안 것은 헛된 것이 되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고 온화하여 심중에는 아직도 공손지가 이전에 구해 준 덕을 기억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공손지는 냉소를 날리며 말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양과라는 이 어린 놈이 독이 발작하여 신음하며 죽는 모습을 봐야겠다. 그가 고통스러워 땅바닥에서 이리저리 뒹구는 모습을 말이다. 그리고 이 현명하고 덕 많은 아내가 마침내 머리를 풀어헤치고 상복을 입은 과부가 된 모습까지 말이다.]

그는 말을 하면 할수록 악독해져 이를 악물면서 흉악한 표정을 지었다. 양과는 쉬지 않고 외쳤다.

[용이, 돌아와요. 그 따위 사람과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요?]

만약 돌다리가 두 사람이 도저히 발을 들여놓지 못할 정도로 좁지만 않았다면 그는 이미 뛰어가서 그녀를 잡아 되돌아왔을 것이었다. 소용녀는 처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들어 보세요! 그는 나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는 오직 나만을 생각하여 자기 몸의 극심한 독이 치료되는지 안 되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공손지는 소용녀와 서로 반 장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아 만약 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그녀를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 있는 곳이 실로 지세가 너무나 험하여 그녀가 조금이라도 몸부림을 친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그녀를 사로잡아 인질로 삼지 않는다면 자기는 이 단장애에 갇혀서 어떻게 몸을 빼내겠는가? 앞에 있는 적 중에서 오직 양과 한 사람만이 무시무시하지만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하여 돌진한다면 그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용녀가 돌다리를 지나오게 한 뒤에 손을 써 그녀를 사로잡고 이막수와 만나는 것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결정을 내렸다. 도검이 서로 부딪치자 금철이 울리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진동하여 메아리가 울려퍼졌다.

[그래도 물러나지 않겠단 말이냐?]

하고 외치며 공손지는 일초를 내뻗었다. 소용녀는 왼쪽의 검으로 그의 공격을 막아내고 오른쪽의 검으로 반격을 했다.

그녀는 주백통으로부터 분심합격(分心合擊)의 기술을 배운 뒤에 무공이 배로 증가되었다. 비록 몽롱하게 독이 배어 있어 내력은 감소되었지만 두 손으로 동시에 옥녀소심검법을 사용하니 그 신묘함에 어찌 공손지의 금도흑검이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의 도검이 비록 변화무쌍하지만 사실 도(刀)는 여전히 도요, 검은 여전히 검이어서 무기 하나가 더 많은 것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순식간에 소용녀 수중의 쌍검이 2 개의 하얀 그림자를 뿌리며 공격하고 방어하고 치고 찌르는 것이 그야말로 양대 고수가 연합하여 공격하는거나 마찬가지여서, 공손지는 싸우면 싸울수록 놀

라 은근히 후회하기 시작했다.

(일찍이 그녀가 이런 무시무시한 검술을 배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녀와 대결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옥녀소심검법의 초수가 비록 정묘하다고는 하지만 사람을 해치는 위력은 미약했고 소용녀도 그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공손지는 그런 대로 한동안 버틸 수가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이 절벽에서 한창 급하게 싸우고 있을 즈음 일등대사.황용.곽부.야율제.야율연 등도 모두 이르렀다. 절벽이 이토록 험한데 두 사람이 저렇게 무섭게 싸우는 것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곽부가 야율제에게 말했다.

[우리 어서 가서 도와 줘요!]

야율제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돌다리에는 단 두 사람밖에 발디딜 틈이 없어요.]

곽부는 공손지와 대결을 한 적이 있어 그의 무공이 극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조차도 적수가 안 되는데 소용녀 한 사람이 어떻게 그와 싸울 수 있겠는가? 곽부가 급히 외쳤다.

[엄마, 엄마. 빨리 용언니를 도와 줄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녀가 소리칠 필요도 없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소용녀가 위험을 벗어나게 할 방법을 어서 빨리 생각해 내기를 바랐다. 그러나 맞은편에 있는 절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발을 디딜틈이 없었던 것이다. 공손지의 금도와 흑검은 계속하여 살수를 내고 소용녀는 쌍검을 종횡으로 움직이며 빙빙 돌려 막아내는데 부드럽고 힘이 없어 보여 시간이 더 길어지면 마침내 공손지의 손에 목숨을 잃을 것만 같았다. 오직 일등.양과.황용.주자류, 네 사람만이 소용녀의 초수가 사실 우세를 점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격투하는 사이에 발이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면 즉시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것이니 매 한순간 순간에 모두 생사의 큰 위험이 달려 있었다. 2개의 흰그림자가 한 줄기 황광(黃光)과 한 줄기 흑광(黑光)을 감싸고 도는 것을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손바닥

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배었다.

다시 얼마를 싸우자 비로소 황용은 소용녀가 사용하는 것이 분심합격의 기술임을 알았다. 이 무공은 세상에서 주백통과 곽정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소용녀는 주백통으로 부터 전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쌍검합벽(雙劍合璧)은 본래 위력이 강대했지만 그녀는 중상을 당한 뒤에 다시 중독되어 내력에 크게 손상을 입어서 검을 낼 때 힘이 부족하여 시종 이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황용이 한 가지 묘안이 생각난 듯 말했다.

[과야, 너와 내가 동시에 공손지에게 말을 하는데 너는 위협하여 겁주는 말을 하고 나는 그를 흥이 나게 하여 그의 마음이 혼란되도록 하자.]

즉시 큰소리로 말했다.

[공손선생, 구천척 그 악부가 이미 내게 죽임을 당했소.]

공손지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흠칫하며 반신반의했다. 양과가 소리쳤다.

[공손지, 이막수는 네가 그녀에게 해약을 갖다 주려고 하지 않으니 괘씸하기 짝이 없다고 하더라.]

황용이 말했다.

[아니오, 이막수는 당신이 그녀의 몸에 있는 정화의 독만 치료해준다면 당신에게 시집가겠다고 했소.]

양과가 외쳤다.

[우리 모두는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를 잡기만 하면 너에게 정화지독의 처참한 맛을 보여 주겠다.]

황용이 외쳤다.

[이 일은 해결할 수 있을 거요. 공손선생, 우리 모두 적대 관계를 버리고 친구가 되는 게 어떻겠소?]

양과가 외쳤다.

[네가 방금 죽인 유아(柔兒)가 귀신이 되어 너를 잡으려고 한다. 어어어, 유아가 바로 너의 등뒤에 있다. 어서 뒤돌아보아라!]

그들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마디씩 하는데, 황용이 말을 한 뒤에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다가 양과가 말을 하면 그는 다시 깜짝 놀라고는 했다. 소용녀도 모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지만 자기와는 관계 없는 일이고, 분심합격을 사용하는 때라서 마음이 텅 빈 듯하여 검의 위세는 조금도 늦추어지지 않았다. 공손지는 본래부터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틈이 생겨 막아내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되자 마음이 더욱 어지러워져서 큰소리로 외쳤다.

[너희들은 뭘 그렇게 이것저것 지껄여 대는 거냐? 어서 입을 닥치지 못할까?]

양과가 외쳤다.

[어이! 공손지. 너의 등뒤에 있는 머리를 산발한 그 아가씨는 누구냐? 그녀는 왜 혀를 길게 빼 물고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지? 아아, 그녀의 길다란 손톱이 너의 목을 할퀴려고 하는구나!]

돌연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그래, 유아! 공손지의 목을 할퀴어라.]

공손지는 그가 자기의 마음을 어지럽히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아 고개를 돌려 살짝 쳐다보았다. 바로 이때 소용녀의 장검이 나아가 검끝이 떨리면서 이미 그의 팔목을 찔렀다. 공손지의 금도는 곧장 날아서 이제 막 떠오른 아침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금빛을 번쩍이며 절벽 아래의 깊은 골짜기로 떨어졌다. 한참이 지나서야 미미한 소리가 울리는데 가만히 들어 보니 물소리 같았다. 골짜기 아래에는 아마 연못인 것 같았다. 무삼통.주자류 등은 서로 쳐다보고 깜짝 놀라면 그 금도가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한참이나 있다가 들려오니 이 골짜기는 얼마나 깊을까 하고 생각했다.

공손지는 금도가 손에서 벗어나자 공격은 고사하고 방어조차도 어려웠다. 소용녀가 좌로 일검, 우리 일검 연속하여 4검을 찌르자 공손지는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더니 오른손에 있던 검을 맞아서 흑검마저 골짜기로

떨어졌다. 소용녀는 우검을 그의 앞가슴에 들이대고 좌검을 그의 배에 들이댄 뒤 말했다.
[공손선생, 절정단을 내게 주면 나는 당신의 목숨을 해치지 않겠어요]
공손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비록 봐 주려는 마음이 있다고 한들 다른 사람은?]
[모두 당신을 해치지 않으면 될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르자 공손지는 더이상 이막수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품속에서 그 조그만 자기병을 꺼내어 건네 주었다. 소용녀는 왼손의 검을 여전히 그의 배에 대고 오른손으로 자기병을 받았다. 절정단을 손에 넣은 소용녀의 심중은 달콤하기도 하고 쓰리기도 했다.
(나 자신은 비록 살기가 어렵게 됐지만 마침내 절정단을 빼앗아 손에 넣었으니 이제 그를 구할 수 있게 됐구나.)

용녀화(龍女花)를 꽂은 여인

무삼통.주자류 등은 소용녀의 무공이 대단하다는 것은 일찍이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신출귀몰의 경지에 이르렀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두 손으로 동시에 쌍검을 사용하면서 검법은 전혀 다른 분심합격은 실로 평생에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들은 일찍이 주백통과 곽정이 두 손으로 능히 서로 다른 무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지만 듣고 나서도 반신반의했었는데, 오늘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자 탄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 오묘함과 흉험함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 혼이 달아나게 할 정도였다. 야율 오누이.무씨 형제.정영.육무쌍.곽부 등의 젊은 사람들은 더욱 눈앞이 어지러운 게 그녀의 나이가 자기들과 서로 비슷한데 무공의 높음은 실로 형용할 길이 없어 모두들 흠모와 탄복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손에는 자기병을 들고 사뿐히 마치 신선처럼 돌다리를 건너오는 것을 보고 모두들 일제히 환호성을 올렸다.
양과가 앞으로 나가 그녀를 잡았다. 사람들은 빙 둘러서서 위로를했다. 소용녀는 자기병의 병마개를 뽑아서 반 조각의 단약을 꺼내어 어여

쁘게 웃으며 말했다.

[여보, 이 약이 가짜는 아니겠죠?]

양과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듯 한번 쳐다보고는 말했다.

[가짜는 아니오. 그런데 용이, 어디가 이상하오? 왜 얼굴이 이토록 창백하오? 한번 운기를 해 보시오.]

소용녀는 담담하게 웃었다. 그녀는 돌다리로 돌아올 때 이미 단전의 기혈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느꼈다. 몇번이나 구토를 할 것 같아 진기를 움직여 억지로 눌렀지만 결국 숨이 고르지 못해 자기도 독이 이미 깊이 침투했음을 알았다. 천만 다행히도 반 조각의 절정단을 빼앗아 왔으니 이것 외에는 다른 어느것도 관심이 없었다.

양과가 그녀의 오른손을 잡으니 손바닥이 차디차 놀라서 물었다.

[좀 어떻소?]

[별 것 아니에요. 여보, 어서 단약을 먹어요.]

양과는 자기병을 받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반 조각의 단약이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하지는 못할 텐데 무슨 소용이 있소? 당신이 죽은 뒤에 나 혼자서 살아갈 것 같소?]

여기까지 말하자 양과는 가슴이 찢어질 듯 비통하여, 왼손으로 이 세상에 단 반 조각밖에 남지 않은 그의 체내의 독질을 제거할 수 있는 단약을 절벽 아래 만장의 깊은 골짜기 속으로 던져 버렸다.

이러한 변고가 일어나자 사람들은 모두 전혀 뜻밖이어서 일제히 놀라 소리를 질렀다.

소용녀는 그가 자기와 동생공사하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악투를 겪은 끝에 극심한 독이 발작하여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결국 양과의 품속으로 쓰러져 기절했다.

곽부.무씨 형제.완안평.야율연 등은 영문을 몰라 너도 나도 수군거렸다. 바로 이때 무삼통이 큰소리로 외쳤다.

[이막수, 오늘은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을 말아라.]

소리를 지르고 나서 걸음을 날려 왼쪽 절벽가로 급히 뛰어갔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보니 공손지가 산등성이 사이로 난 조그만 길을 따라 서쪽으로 재빨리 뛰어가고 있었고, 그쪽 산등성이의 경사진 언덕에 한 도고(道姑)가 서 있었는데, 바로 이막수였다. 두 사람이 막 만나려 하고 있는데 무삼통은 그녀에게서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홀연 산 뒤에서 한 노인이 하하, 하고 크게 웃는 소리가 들리며 한 사람이 돌아 나오는데 어깨에는 커다란나무상자 하나를 메고 흰 수염이 어깨까지 휘날렸다. 바로 노완동 주백통이었다.

황용이 외쳤다.

[노완동, 저 도고를 빨리 잡아 와요!]

주백통이 외쳤다.

[재미있군! 모두들 이 노완동의 솜씨를 한번 보라구.]

나무상자의 뚜껑을 열고 두 손을 휘두르자 한 떼의 꿀벌이 곧장 이막수를 향하여 공격했다. 원래 몽고 대군이 종남산에 불을 놓았을 때 전진교 도사들은 몸을 보호하여 물러나면서 가지고 간 것은 모두 교 안에 있던 도장(道藏)과 경적이었다. 주백통은 나무상자 하나를 어깨에 메고 소용녀가 훈련시킨 옥봉을 잔뜩 담아 가지고 왔다. 그는 여러 날 동안 가지고 놀면서 옥봉을 지휘하는 약간의 법문을 깨달았는데 지금 황용이 외치는 소리를 듣자 마침 능력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었다.

공손지는 벌떼를 보자 깜짝 놀라 감히 더 이상 이막수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산의 움푹 패인 구덩이에 몸을 움츠려 숨었다. 이막수는 옥봉이 웅웅거리며 날아오는 것을 보고 앞에는 갈 길이 없어 산길을 따라 동쪽으로 물러나는 수밖에 없었다. 무씨 부자.정영.육무쌍 등은 각기 무기를 들고 이막수를 맞이했다. 야율제가 외쳤다.

[사부님, 사부님의 능력은 훌륭하시군요. 어서 꿀벌떼를 거두어 들이세요!]

주백통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벌떼를 거두어 들이려 했지만 그가 벌을 모는 기술을 아직 완전히 터득하지 못한데다 바람까지 세게 불고,

마음속으로 득의양양하여 외치는 소리가 맞지 않으니 벌떼가 그의 명령을 들을 리 만무했다. 벌떼는 여전히 윙윙, 날개를 치며 이막수를 좇아갔다.

양과는 소용녀를 안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용이, 용이.]

소용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귓가에 옥봉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종남산의 옛 거처에 돌아온 것 같아 기쁜 얼굴로 물었다.

[우리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신을 차려 방금 전의 일을 비로소 떠올린 소용녀가 낮게 몇 번 휘파람을 불고 이어서 몇 번 소리를 지르자, 그 옥봉은 즉시 이막수의 주위를 빙빙 맴돌며 더 이상 어지러이 날지 않았다. 소용녀가 말했다.

[사자, 당신이 평생토록 한 일들을 오늘에서야 후회하게 될 거요.]

이막수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물었다.

[절정단은?]

소용녀는 처량하게 웃더니 말했다.

[절정단은 이미 골짜기의 깊은 연못 속에 버렸어요. 당신은 왜 천축승을 죽였나요? 만약 그가 죽지 않았다면 양과와 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독도 풀 수 있었을 텐데요.]

이막수는 가슴이 납덩어리처럼 무거워짐을 느꼈다. 소사매의 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다. 빙백은침 하나로 천축승은 죽인 것이 결국은 자기를 해친 것임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이때 무씨 부자.정영.육무쌍 등은 이미 사방에서 포위를 하고 주백통은 여전히 손짓 발짓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소용녀가 말했다.

[주노야(周老爺), 이렇게 소리를 내세요.]

소용녀가 입술을 오므려 휘파람을 불었다. 주백통이 그대로 몇 마디를 따라 하자 수많은 옥봉이 과연 분분히 나무상자로 들어갔다. 주백통은 매우 기뻐하며 소리쳤다.

[용아가씨, 가르쳐 주어서 정말 고맙소!]

일등대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백통형, 몇 해 동안 보지 못했는데 당신은 여전히 옛날처럼 건재하군요.]

주백통은 깜짝 놀라 얼굴이 온통 발갛게 되어 급히 상자 뚜껑을 닫으며 말했다.

[당신도 잘 있고, 나도 잘 있고......모두들 다 잘 있지요.]

그는 나무상자를 어깨에 메고 고개를 돌리지 않고 떠나갔다.

이막수가 주위의 정세를 살피니 황용.양과.소용녀 중의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는 도저히 적수가 되지 못하는데 하물며 많은 적들이 한꺼번에 모였음에랴! 마음을 독하게 먹고 말했다.

[모두들 자칭 의협의 인물이라 하면서, 후훗, 오늘은 이토록 사람 수가 많은 것을 믿고 나 한 사람을 몰아붙이려고 하는군! 사매, 나는 고묘파의 제자이니 다른 사람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어서 와서 덤벼라!]

하고 말한 뒤, 장검을 거꾸로 하여 검끝으로 자기의 가슴을 겨냥했다. 소용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일이야 이미 이렇게 됐지만 내가 당신을 죽여서 뭘 하겠어요?]

무삼통이 돌연 외쳤다.

[이막수, 한 가지 물어 볼 것이 있다. 육전원과 하원군의 시체는 어디에 갖다 놓았느냐?]

이막수는 별안간 육전원과 하원군의 이름을 듣자 온몸이 떨리며 얼굴의 피부까지 꿈틀거렸다.

[모두 타서 재가 되었다. 하나의 뼛가루는 화산 봉우리에 뿌리고, 다른 하나의 뼛가루는 동해에 흘려 보내서 두 사람이 영생토록 만나지 못하게 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이를 갈며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원망이 그야말로 뼛속에 새겨진 듯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육무쌍이 말했다.

[용언니는 마음이 착하여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나

의 온가족이 너에게 죽임을 당했고, 닭이나 개조차도 살아남지 않았었다. 오직 나 한 사람만이 살았으니 오늘에야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었구나. 언니, 우리 공격해요.]

무씨 형제도 나란히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너의 손에 돌아가셨으니, 다른 사람은 너를 용서할지 몰라도 우리 형제는 결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이막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일생 동안 사람을 죽인 것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만약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나의 목숨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 천 가지 원한, 만 가지 억울함이 있다고 해도 나는 결국 하나의 목숨밖에 없을 뿐이다.]

육무쌍과 무수문이 외쳤다.

[그건 네 사정이다!]

두 사람이 하나는 칼을 들고 하나는 검을 들고 동시에 걸음을 옮겨 앞으로 나아갔다.

이막수가 손목을 흔들자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수중의 장검이 부러져 나갔다. 그녀는 입술가에 경멸하는 표정을 띤 채 두 손을 등뒤로 잡으며 방어 태세를 취하지 않고 오직 상대방이 공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홀연 동쪽에서 검은 연기와 붉은 불꽃이 하늘로 치솟는 것이 보였다. 황용이 외쳤다.

[아차, 장자(莊子)에 불이 났구나.]

주자류가 말했다.

[그녀를 죽이는 것은 잠시 뒤로 미루지요. 사숙의 유해를 구하는 것이 급합니다.]

하고 말한 뒤, 몸을 날려 일양지의 수법으로 이막수 몸의 세 곳의 혈도를 연달아 눌러 그녀가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정영이 말했다.

[공손아가씨의 유해도 있어요.]

뭇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그렇군!]

모두들 급히 뛰어갔다. 무씨 형제는 이막수를 호송했다. 양과.소용녀. 황용. 일등대사는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갔다.

장자와의 거리가 아직 반 리나 떨어져 있는데도 얼굴에 뜨거운 열기가 몰려오고 툭탁 툭탁, 하며 대들보와 기왓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무삼통이 말했다.

[공손지 그 늙은이가 저토록 간악할 줄이야. 용아가씨가 마땅히 그놈을 죽였어야 옳았어.]

주자류가 말했다.

[이 불은 아마도 공손지가 지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대머리 노파 구천척의 짓인 것 같군요.]

무삼통이 놀라 말했다.

[구천척이라구? 그녀가 자기의 그 튼튼한 기반을 왜 다 태워 버린단 말이지?]

[곡중의 제자들이 모두 그녀의 말을 따르지 않고, 우리들은 공손지를 죽이려고 하니, 그 노파는 더 이상 이곳에서 편안히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보니 그 부인은 마음이 너무 좁아서......]

말을 하는 사이에 이미 정화꽃더미 부근의 천축승이 목숨을 잃은 곳에 가까이 왔다. 주자류가 천축승의 유해를 안아 드니 그의 얼굴은 마치 살아 있는 듯이 웃음을 띄고 있었다. 무삼통이 말했다.

[사숙께서는 빨리 돌아가셨으니 그다지 고통은 당하지 않으셨겠군.]

주자류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사숙께서는 그때 한창 정화의 독을 치료할 약초를 찾고 계셨는데......]

이때 황용과 일등도 이미 이르러 있었다. 황용은 주자류의 말을 듣고 천축승의 몸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이상한 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손을 뻗어 천축승의 주머니를 뒤져 보아도 아무런 물건이 나오

지 않자 주자류에게 물었다.

[사숙께서 무슨 유언을 남기지는 않으셨는지요?]

[없읍니다. 저와 사숙은 그 동굴을 나올 때 어느 누구도 대적이 옆에서 엿보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황용은 미소를 띈 천축승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돌연 한 가지 생각이 난 듯 몸을 굽혀 천축승의 손바닥을 뒤집었다. 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식지 사이에 짙은 자색의 조그만 풀을 쥐고 있었다. 황용은 살며시 그의 손가락을 펼쳐 풀을 집어들고 물었다.

[이게 무슨 풀이죠?]

주자류는 고개만 내저을 뿐 알아보지를 못했다. 황용은 자색 풀을 코가까이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니 악취가 풍겨서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일등이 황망히 말했다.

[곽부인,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단장초(斷腸草)인데 극심한 독이 있읍니다.]

황용은 깜짝 놀라며 실망을 금치 못했다.

무씨 형제가 막 이막수를 호송하고 왔는데, 무수문은 일등이 이 풀에 극심한 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말했다.

[사랑(師浪), 이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이마두에게 먹이는 것이 좋겠읍니다.]

일등이 말했다.

[애야, 너무 그렇게 독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무수문이 급히 말했다.

[사조할아버지, 설마 이 악마에게도 자비를 베풀자는 것은 아니겠죠?]

이때 사방의 수목에 온통 불이 붙어서 퍽, 팍,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열기는 갈수록 참기가 어려웠다. 황용이 말했다.

[모두 우선 동북쪽의 들산에 올라가 다시 이야기하지요.]

각자 경사진 언덕으로 뛰어올라가 보니 연이어 있던 집들은 이미 모두 맹렬한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이막수는 걸을 수는 있었지만 혈도를 눌려 무공은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몰래 기를 움직여 살그머니 혈도를 통하게 하고, 방비하지 않는 틈을 타서 돌연 혼란을 일으키면 적을 해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몸을 빼내어 달아날 수는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진기(眞氣)를 한번 움직이자 가슴과 배 사이에 즉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와 참지 못하여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온몸을 정화에 찔려 이전에는 진기로 몸을 보호하여 독이 일시에 발작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혈도가 제압되자 진기가 모두 흩어져 독은 온몸에 급속도로 퍼졌다. 그녀는 가슴과 배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와 멀리 양과와 소용녀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오는 것을 바라보니 하나는 빼어나게 단정한 미소년이요, 하나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아가씨였다. 눈앞이 어지러워 그녀는 자기가 꿈에도 그리워하던 육전원이요, 다른 하나는 그의 처인 하원군인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되는 대로 소리쳤다.

[전원, 당신은 정말로 무정해요. 지금 무슨 면목으로 날 보러 오는 거예요?]

마음에 격한 감정이 일어나자, 독은 더욱 무섭게 발작하여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의 근육까지 요동쳤다.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무서워 모두들 저도 모르게 몇 걸음 물러섰다.

이막수는 일생 동안 오만하여 줄곧 다른 사람에게 약한 면을보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몸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이구, 죽겠다. 어서 날......, 날 좀 구해 줘요.]

주자류는 천축승의 유해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사숙께서 살아 계셨다면 너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네가 그 분을 죽였어.]

이막수는 이를 악물려 말했다.

[그래, 내가 그를 죽였다. 세상의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나는 모두 죽일 것이다. 아니고 나 죽겠네! 나 죽겠네! 너희들은 왜 살아 있

는 거야? 너희들도 모두 같이 죽어 버려라!]

그녀는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돌연 두 팔을 떨더니 무돈유가 손에 가지고 있던 장검을 향하여 사납게 달려들었다. 무돈유는 일검에 그녀를 찔러 죽여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원수를 갚을 것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녀가 자기의 검끝을 향하여 달려들자 전혀 뜻밖이어서 깜짝 놀라 저절로 검을 움츠려 피했다. 이막수는 떼구르르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순식간에 그녀의 옷자락에 붙어서 붉은 화염의 혓바닥이 그녀의 온몸을 춤추듯 휘감았다. 그러나 그녀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소용녀는 사문의 정을 생각하여 외쳤다.

[사자, 어서 나와요!]

그러나 이막수는 거대한 불 속에 우뚝 서서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순식간에 화염은 이미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다. 돌연 불 속에서 처량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세상 사람들에게 묻노니 정이란 무엇이길래 생사를 가름하느뇨? 천지남북(天地南北)에......]

이윽고 노랫소리가 마치 실가닥처럼 가늘게 이어지더니 마침내 조용히 끊어졌다.

소용녀는 양과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사람들은 이막수가 일생 동안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오늘 이렇게 죽어도 사실 그 죄는 남음이 있지만 그녀가 천성적으로 악독함을 타고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랑이 장벽에 부딪쳐 다른 길로 들어선 후 빠지면 빠질수록 죄의 수렁이 깊어져서 마침내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하니 측은하고 가련한 마음이 일었다. 정영과 육무쌍은 온 가문이 피해를 입은 원한을 오매불망 잊지 않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토록 처참하게 세상을 하직하는 것을 보고 원한은 비록 깊었지만 심중으로는 전혀 기쁜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황용은 이때 곽양을 품에 안고 있었는데, 일찍이 이막수가 저지르지 않은 악행이 없었지만 평생에 그래도 한 가지 선함이 있어서 곽양을 한달 이상이나 보살펴 준 은혜를 생각하고는 곽양의 조그만 두 손을 잡고 화염 속을 향하여 몇 번이나 예를 올렸다.

양과는 단장애 앞에서 급히 돌아왔을 때 본래는 대청으로 가서 공손녹악의 유해를 들고 나오려고 했었다. 그러나 불이 대청에서부터 일어나 반도 못 가서 이미 대청의 사방에서 뜨거운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고 지금은 불길이 더욱 커져서 녹악과 이막수는,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한데 정(情) 때문에 죽어서 동시에 불 속에 장사를 지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어두워져서 저도 모르게 장탄식이 터져나왔다.

바로 이때 갑자기 동북쪽 모퉁이에 있는 산꼭대기에서 누군가 소리내어 괴이한 웃음을 날리는데 마치 올빼미가 우는 듯한 게 몹시 귀를 찔렀다. 양과가 소리쳤다.

[구천척이에요! 그녀가 어떻게 저 산꼭대기에 올라갔지?]

소용녀가 한 가지 생각이 난 듯 말했다.

[우리 가서 그녀에게 다시 한번 물어 봐요. 아직 남아 있는 절정단이 있는지 말이에요.]

양과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용이, 용이. 아직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소?]

황용.무삼통.주자류 등은 소용녀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생각했다.

(어서 그녀에게 가서 물어 봐야겠다. 만약 다시 단약을 구한다면 반드시 양과에게 먹도록 하여, 다시는 그렇게 자포자기로 약을 버려서 죽을 길을 찾도록 하지는 말아야지.)

생각들이 한결같아서 몇 사람이 일제히 말했다.

[가 봅시다!]

무씨 부자.야율제.완안평 등이 먼저 발길을 재촉하여 뛰어갔다. 양과는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고개를 흔들며 생각했다.

(당신들이 선단영약을 구해도 우리 부부를 동시에 살릴 수는 없어요.)

정영이 줄곧 옆에서 묵묵하게 지켜보다가 갑자기 말했다.

[양오빠, 사람들의 한결같은 호의를 거절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 같이 가 봐요.]

그녀는 줄곧 양과를 매우 두터운 정으로 대해 주어 양과도 마음속으로는 몹시 감격하고 있었다. 비록 그가 깊은 정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으로 옮겨 갈 수는 없었지만, 이 홍안의 아가씨는 자기를 알아주고 공경함이 특히 깊었다.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된 이래로 그녀는 줄곧 그에게 무슨 일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이때 갑자기 이 몇 마디를 하자, 양과는 극구 거절하기 힘들어 오직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좋다, 모두 가서 저 노파가 산꼭대기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자.]

일행은 구천척의 웃는 소리를 따라 산꼭대기로 뛰어올라 갔다. 양과가 보니 이 산꼭대기에는 초목이 드문드문 자라 있어 바로 당일 그와 공손녹악.구천척, 세 사람이 동굴에서 빠져나와 살아나게 된 곳이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이 없는데 녹악은 이미 이 세상에 없고, 자신 또한 세상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행은 산꼭대기에서 약 1리 남짓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미 구천척이 산꼭대기의 태사의(太師椅)에 혼자 앉아서 하늘을 보고 미친 듯 웃는 모습이 보였다. 육무쌍이 말했다.

[그녀가 정신을 잃어 미쳐 버린 것 같아요.]

황용이 말했다.

[모두 가까이 접근하지 마라. 이 여자는 마음이 악독하니 무슨 술책을 꾸미고 있을지 모른다. 내가 보기에 그녀는 정말로 미친 것 같지가 않다.]

일행은 그녀의 대추씨 암기가 무서워 멀리서 발길을 멈추었다. 황용이 숨을 몰아쉬고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돌연 맞은편 돌 뒤에서 한 사람이

돌아 나왔다. 남색 옷에 네모난 두건을 쓰고 있었는데 바로 공손지였다.

그가 장포를 벗어 오른손에 쥐고 휘두르자 옷자락 끝에 경력이 들어가 장포가 즉시 곧게 뻗쳤다. 일행은 은근히 탄복을 했다. 그가 큰소리로 무섭게 웃으며 말했다.

[악독한 노부 같으니, 네가 불을 놓아 우리 선조로부터 수백 년동안 전해 오는 훌륭한 기반을 모조리 태워 버렸으니, 오늘 내 너를 용서할 줄 아느냐?]

하고 말한 뒤, 장포를 휘두르며 구천척을 향하여 뛰어갔다.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구천척이 대추씨 하나를 공손지를 향하여 쏘았다. 공중을 가르는 소리가 높은 산 위에서 일어나고 암기를 쏜 거리도 또한 멀어서 그 소리는 더욱 날카롭고 사나왔다. 공손지는 장포를 휘둘러 대추씨를 감쌌다. 대추씨는 힘이 극히 강했지만 장포가 그 경력을 한쪽으로 쏠리게 하여 장포가 몇 겹 찢어졌을 뿐 몸에 맞지는 않았다. 공손지는 처음에는 장포가 정말로 그녀의 암기를 당해 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다만 극도로 화가 나서 그녀가 산꼭대기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그녀를 죽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재빨리 돌격한 것이었다. 그래서 대추씨가 자기를 해치지 못하자 뛰는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다. 구천척은 그가 가까이 뛰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외쳤다.

[어이쿠, 사람 살려요!]

그녀의 표정이 두렵기 짝이 없었다. 곽부가 말했다.

[엄마, 저 노인네가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황용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노부는 분명히 미치지 않았는데, 왜 큰소리로 웃어서 그를 불렀을까?)

휙,휙, 하는 소리와 함께 구천척이 연속하여 2 개의 암기를 발사했다. 두 사람은 서로간의 거리가 가까와 대추씨의 위세는 더욱 급했다. 공손지가 장삼을 휘두르며 하나하나 막아내다가 홀연 크게 소리를 지르더니 몸이 갑자기 땅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가 않았다. 구천척은 하하, 하고

크게 웃었다.

[하하......]

웃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땅 속에서 홀연 장포 하나가 튀어나와 구천척이 앉은 의자를 감아 그녀를 연인대의(連人帶椅)의 수법으로 땅 밑으로 끌어들였다. 구천척의 웃음소리가 돌연 고함소리로 변하고 공손지의 비명소리가 땅 밑에서 전해 왔다. 이 소리는 한참을 끊이지 않다가 갑자기 일편 정적이 찾아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일행은 산허리에서 똑똑히 보고 분명히 듣고도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오직 양과만이 그 연고를 알아차리고 저도 모르게 속으로 탄식을 했다.

(응보다, 응보야!)

일행이 발걸음을 빨리 하여 산꼭대기에 이르르니 시녀의 시신 4개가 이 바닥에 누워 있고, 그 옆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그 아래에는 어두컴컴하고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원래 구천척은 심중에 극도의 원한이 쌓여 먼저 절정장에 불을 놓아 모두 태워 버리고 다시 시녀에게 명하여 자기를 이 산꼭대기로 들고 올라가도록 한 것이었다. 그날 양과와 녹악이 지하 동굴에서 그녀를 구하여 나올 때 바로 이 산꼭대기의 구멍을 통하여 빠져나왔었다. 그녀는 4명의 시녀에게 명하여 나뭇가지를 꺾고 마른 풀을 뽑아서 구멍을 살짝 덮도록 한 뒤에 시녀들을 죽였다. 소리내어 웃는 것에서 암기를 쏘고 놀라고 한 것들까지는 모두 거짓 꾸민 것으로 공손지가 의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공손지는 이 황량한 산 꼭대기에 이런 구멍이 있을 줄은 모르고 나는 듯 달려오다가 마침내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떨어져 죽을 때에 몸부림을 쳐 장포를 휘둘러 구천척이 앉은 의자를 감아 몸을 끌어 올리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감자마자 두 사람이 함께 떨어진 것이었다. 두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이를 갈며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결국은 같은 시각에 죽어서 같은 구멍에 스스로를 장사 지낸 것이었다. 이 동굴은

깊이가 1백여 장이나 되어 한쌍의 원수 부부가 한 진흙덩어리가 되어 너의 몸 속에 내가 있고 나의 몸 속에 네가 있어 더 이상 가를 수 없게 된 것이다.

양과가 그 곡절을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탄식을 금치 못했다. 정영.야율제 오누이는 큰 구덩이를 파서 4명의 시녀를 장사 지냈다. 절정곡에 불길이 맹렬하게 타올라 이미 편안히 거처할 곳도 없는데다 일행은 하루 사이에 적지 않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이 골짜기에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어서 떠나기를 원했다. 주자류가 다시 말했다.

[양형제가 독을 맞은 뒤에 아직 해약을 얻지 못했으니 우리 모두 빨리 명의(名醫)를 찾아가서 그를 치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행은 모두 옳은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황용이 말했다.

[아니에요. 오늘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주자류가 말했다.

[곽부인께서는 무슨 고견이 있으신지요?]

황용이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나는 구천척의 대추씨 공격을 받고 줄곧 내식이 고르지 못하니 오늘 밤은 각자 이 골짜기에서 하루를 묵고 내일 다시 내려가는 것이 어때요?]

일행은 그녀가 몸이 불편하다는 말을 듣고 이의가 없어서 즉시 서로 나누어 그들이 묵을 수 있는 동굴 같은 곳을 찾기 시작했다.

소용녀와 양과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산을 내려가려는데 황용이 말했다.

[용이, 이리 좀 와 봐. 내가 네게 몇 마디 할 말이 있어.]

황용은 곽양을 곽부에게 건네 주고 소용녀의 손을 잡고 양과에게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과야, 마음놓아라. 그녀는 이미 너와 결혼을 했으니 나는 절대로 그녀에게 네 곁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테니......]

양과는 웃으며 대답을 하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곽백모가 용이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산 아래의 커다란 나무 밑에 가서 앉는 것을 보고 걱정은 되었지만 따라가지는 않았다.

(용이는 무엇이든지 내게 속이지 않으니, 무슨 얘기든 나중에 말해 줄 거야!)

황용은 소용녀의 손을 잡고 앉아서 말했다.

[용이, 나의 버릇 없는 딸이 너와 양과에게 많은 죄를 지어서 나를 정말로 면목이 없어.]

[괜찮아요.]

그렇지만 소용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독침 하나로 우리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는데 당신이 미안하다는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황용은 그녀의 안색이 어두운 것을 보고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당시에 고묘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 연유를 모두 알지 못하고, 단지 은침에 비록 독은 있지만 치료하기가 어렵지 않다고만 알고 있었다. 당년에 무삼통.양과 등이 모두 그 독을 맞았을 때는 나중에 하나하나 치료가 되었지만, 소용녀가 경맥을 역전시킬 때 곽부가 쏜 침에 맞은 것은 실제로는 이미 그녀를 죽게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음을 어찌 알랴!

[한 가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동생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네가 고생 고생하여 빼앗은 절정단을 과아는 도리어 먹으려고 하지 않고 결국 만장의 깊은 연못에 던져 버린 것은 무슨 까닭이지?]

소용녀는 가벼이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나의 목숨이 이미 경각지간에 달려 있으니 그토록 정의가 두터운그가 어찌 혼자서 살려고 하겠는가? 다만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또 무슨 이런저런 말을 하여 헛되이 풍파를 일으키랴!)

소용녀는 단지 한마디만 했다.

[그는 성격이 약간 이상한 데가 있어요.]

[과아는 지성지정(至性至情)의 사람이니 내 생각에는 공손 아가씨가 이 약 때문에 목숨을 버린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약을 먹지 않음으로써 이 홍안지기(紅顔知己)의 아가씨에게 보답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 동생, 그의 이런 생각은 참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을 일으키게 할 정도야. 하지만 사람은죽으며 다시 태어날 수 없으니 그가 이렇게 고집만 부리면 도리어 공손 아가씨가 몸을 버려 약을 구한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

소용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황용이 다시 말했다.

[과아는 너 한 사람의 말만은 들으니 네가 잘 권해 봐.]

소용녀는 처연하게 말했다.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한다고 해도 이 세상 또 어디에 절정단이 있단 말이에요?]

[절정단은 비록 없지만 그의 체내의 정화의 독은 제거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그가 약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소용녀는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 그게 어떤 해약인데요?]

황용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앉아.]

황용은 품속에서 짙은 자색의 조그만 풀을 꺼내며 말했다.

[이건 단장초야. 그 천축승이 죽을 때 손에 이 조그만 풀을 가지고 있었어. 주자류 대형이 말하길, 천축승이 나가서 해약을 찾다가 돌연 침에 맞아 죽었다고 했어. 너도 그 사람이 숨은 비록 끊어졌지만 얼굴에는 오히려 웃음을 띠고 있는 것을 보았을 거야. 아마 이 풀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서 그랬을 거야. 나의 사부이신 홍칠공 어르신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 무릇 독사가 출몰하는 곳에는 일곱 걸음 이내에 반드시 그 독사의 독을 제거하는 약이 있으니 기타의 독물도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이야. 이것은 천지간의 만물 생극(生剋)의 지극한 이치라고 말이야. 이 단장초는 바로 정화나무 아래에서 자라고 있었으니 비록 이 풀에 극

심한 독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풀은 독으로 독을 공격하는 것으로, 바로 정화의 상극인 셈이지.]

이 말을 들으면서 소용녀는 계속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황용이 말했다.

[이 독초를 먹는 것은 물론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미 구제할 약이 없으니 구사일생으로 한번 시험을 해봐야지. 내 생각엔 열에 아홉은 필경 효과가 있을 거야.]

소용녀는 평소에 황용이 지혜가 많음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이미 이와 같이 단정을 내리는데다가 하물며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막수가 몸에 정화의 독이 발작하여 죽는 것을 보니 그토록 심한 고통을 겪는 참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이 빠져 달아나게 하는 듯했다. 만일 단장초가 정화의 독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양과는 도리어 초약의 독에 즉사할 것이니 그것은 정화의 독이 발작하여 죽는 것보다 더 심할 것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기더니 결국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말했다.

[좋아요, 내가 그에게 먹도록 권해 보겠어요.]

황용은 품속에서 다시 그 단장초를 한 줌 꺼내어 소용녀에게 주며 말했다.

[내가 오는 길에 뜯어 왔어.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우선 그에게 소량을 먹여 운기를 하고 내장을 보호하게 하여 효과가 어떤지를 본 다음에 다시 양을 짐작하여 늘이든지 줄이든지 해.]

소용녀는 단장초를 품속에 집어넣고 황용에게 공손한 자세로 깊이 절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그는 일생을 괴롭게 지내서 일을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곽부인께서 그를 잘 보살펴 주세요.]

황용은 황망히 손을 뻗어 소용녀를 부축하여 일으키고 웃으며 말했다.

[네가 그를 보살피는 것이 나보다는 백 배 나아. 양양의 포위가 풀리면 우리 함께 도화도에 가서 지내자.]

황용이 비록 총명하지만, 소용녀가 생명이 길지 않음을 스스로 알고, 황용에게 양과를 보살펴 주도록 전심전력으로 부탁하는 것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황용이 고개를 드니 양과가 멀리 맞은편 산에 서서 소용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양과는 줄곧 소용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와 황용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었는데 황용이 가는 것을 보고 천천히 다가왔다. 소용녀는 몸을 일으키고 말했다.

[오늘은 처참한 일을 많이 보았는데다가 우리들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다른 사람의 일은 상관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요]

[좋소, 나도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산허리의 깊숙한 산길을 따라서 걸어갔다.

얼마 가지 않아 한쌍의 남녀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돌 옆에서 소곤거리고 있었는데 바로 무돈유와 야율연이었다. 양과는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빨리 하여 두 사람 곁을 지나갔다. 갑자기 앞의 수풀에서 기뻐서 웃는 소리가 들리며 완안평이 뛰어나오고 뒤에서 누군가가 웃으며 말했다.

[네가 어디까지 도망가나 보자.]

완안평은 양.융, 두 사람을 보자 얼굴이 붉어지며 불렀다.

[양오빠, 용언니!]

몸을 돌려 왼쪽의 수풀 속으로 뛰어들어가니 이어서 무수문이 수풀 속에서 나와 따라 들어갔다.

양과는 나지막이 되뇌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묻노니, 정이란 무엇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씨 형제는 곽아가씨를 위하여 죽을 둥 살 둥 하더니 한번 눈을 돌리자 두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정을 옮기는군요. 어떤 사람은 일생토록 오직 한 사람에게만 정을 주는데, 공손지.구천척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 아, 세상 사람들에게 묻노니 정이란 무엇인가? 이 한마디 말은 정말로 물어 보지 않을 수 없는 말이오.]

소용녀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생각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산 아래에 이르러 고개를 돌려 보니 석양이 산에 걸려 하늘의 반쪽을 비추고 구름은 붉게 물들고, 푸른 하늘의 옅은 안개가 산꼭대기에 쌓인 눈과 어울려 실로 그 아름다움은 말로 형용하기가 어려웠다. 두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날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이런 아름다운 광경이 더욱 아쉬움을 남겨 주었다.

소용녀는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물었다.

[사람이 죽은 뒤에는 정말로 저승으로 가야 하고, 정말로 염라대왕(閻羅大王)이 있을까요?]

[그렇기만을 바랄 뿐이오. 저승에 도산(刀山) 기름솥 등의 모든 괴로운 형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승이 있는 것이 좋소. 그렇지 않다면 끝없이 막막하여 우리 둘은 영원히 서로 만날 수 없을 것이 아니오?]

[그래요. 정말로 오직 저승이 있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듣자 하니 황천으로 가는 길에는 어떤 노파가 있는데 그녀가 탕 한 그릇을 먹으면 이승의 갖가지 일들을 모두 잊어버릴 수 있다고 말한다더군요. 하지만 그 탕을 나는 마실 수가 없어요. 여보, 나는 영원토록 당신의 은정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녀는 비록 마음은 찢어지는 듯 슬펐지만 자제를 잘 하여, 말투는 여전히 평온하고 담담했다. 양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몸을 돌려 눈물을 닦았다. 소용녀가 한탄을 하며 말했다.

[죽음의 일은 그야말로 따져 보기가 어려우니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안 죽는 것이 좋아요. 여보, 이 꽃송이를 봐요. 얼마나 예쁜지......]

양과가 그녀의 손가락을 따라서 보니 길가에 한 송이 짙은 붉은 꽃이 이제 막 피어났는데, 크기는 밥그릇만 하고 바람에 살며시 흔들리자 모란 같기도 한데 모란은 아니고, 작약 같기도 한데 작약은 아니었다.

[이런 꽃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한겨울에도 이렇게 찬란하게 피는군요. 내가 이 꽃에 이름을 붙여서 용녀화(龍女花)라고 하지요.]

라고 말하며 양과는 꽃을 꺾어서 소용녀의 머리에 꽂아 주었다. 소용녀

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 고마와요. 나에겐 좋은 꽃을 주고 꽃에게는 좋은 이름을 지어 주었군요.]

두 사람은 다시 한참을 가서 어떤 풀밭에 앉았다. 소용녀가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그날 나를 사부로 모시던 광경을 기억하고 있나요.]

[왜 기억을 못 하겠소?]

[당신은 맹세를 한 적이 있지요. 일생 동안 영원히 나의 말을 잘 듣겠다고. 내가 무엇을 하라고 하든 당신은 결국 거절할 수 없다고. 지금은 내가 당신의 처가 되었으니 당신은 나에게 <출가종부(出嫁從夫)를 해야 한다고 할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불위사명(不違師命) : 사부의 명을 어기지 않음)>을 할 거예요?]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대로 해야지요. 사부의 명을 감히 어길 수 없지만 처의 명은 더욱 어겨서는 안 되죠.]

[음, 방금 한 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군요.]

두 사람이 풀밭에서 서로 기대고 앉아 있는데 멀리서 무삼통이 어서 와서 식사를 하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양과와 소용녀는 서로 쳐다보며 한번 씩 웃었다.

(밥 한끼 때문에 이토록 아름다운 경치를 놓쳐야 한단 말인가!)

잠시 후 하늘이 점차 어두워지자, 두 사람은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피로했고 몸에도 각기 부상을 당하여 결국은 둘 다 천천히 잠이 들었다.

한밤중까지 자다가 양과가 어렴풋이 정신이 든 상태에서 말했다.

[용이, 추워요?]

손을 뻗어 그녀를 품에 꼭 안으려 했는데 허공을껴안고 말았다. 양과가 깜짝 놀라 눈을 뜨니 몸 옆은 텅 비어 있고 소용녀는 이미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급히 뛰어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차가운 달만이 하늘에 걸려 있어 은빛이 땅에 가득하고, 빈 산은 적막하여 꽃그림자만 겹겹이 쌓여 있는데 소용녀는 아무데도 없었다. 양과는 급히

산을 뛰어오르며 큰소리로 외쳤다.

[용이, 용이!]

그는 산꼭대기에서 크게 불렀다.

[용이, 용이!]

사방의 골짜기에 소리가 울려 <용이, 용이!>하고 부르는 소리가 메아리쳤지만 소용녀는 끝내 대답이 없었다. 양과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 산중에는 무슨 맹금괴수도 보이지 않았고, 있다 해도 그녀를 해칠 수는 없는데......, 혹시 밤중에 자다가 갑자기 강적을 만났는데 내가 알아채지 못했단 말인가?)

그가 소용녀를 부르는 소리에 일등.황용.주자류 등도 모두 놀라서 깼다. 사람들은 소용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모두 깜짝 놀라 각자 흩어져 절정곡의 사방을 찾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양과는 미친 듯 급히 뛰고 달리며 왔다갔다했다. 마침내 각자 모이자 양과도 안정을 되찾아 생각했다.

(그녀는 필시 스스로 떠나갔기 때문에 내가 조금도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왜 달아나려고 했을까? 이 일은 분명히 어제 곽부인과 그녀가 한 말과 관계가 있을 거야. 옛날에 그녀가 몰래 먼길을 와서 마침내 절정곡에 이르른 것도 곽부인 뭐라고 한마디 했기 때문이야.)

[곽백모, 어제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황용도 소용녀가 왜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는지 알 길이 없는데 양과의 이마에 핏발이 선 것을 보고 더욱 마음이 떨려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네가 그 단장초를 먹도록 권해 보라고 했지. 혹시 너의 체내에 있는 정화의 독을 해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양과는 마구 내뱉았다.

[그녀도 이미 살 수가 없는데 나 혼자 이 세상에 남아서 뭘 어쩌겠단 말입니까?]

황용이 위로하며 말했다.

[서두를 것 없다. 용아가씨는 잠시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무

공이 높고 강한데 뜻밖의 일이야 생기겠느냐? 살 수 없다는 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양과는 초조한 나머지 자제할 수가 없어 큰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보배 같은 따님이 빙백은침으로 그녀를 맞추었을 때, 그때 마침 그녀는 경맥을 역전시켜 상처를 치료하고 있던 중이어서 극심한 독이 모두 단전과 내장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녀가 신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황용이 어찌 이 일을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녀도 비록 딸이 고묘 안에서 잘못하여 빙백은침으로 양.용, 두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들 부부는 모두 고묘파의 전수를 받은 사람들이고 본문의 해약이 있어서 일시의 통증에 불과할 뿐 결코 후환은 없으리라고 생각했었다. 이때 양과의 말을 듣자 황용은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버렸다. 그녀는 생각하는 것이 매우 빨라 즉시 알아차렸다.

(원래 과아가 그 절정단을 먹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내의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게 되자 혼자서 살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용이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고개를 들어 공손지와 구천척이 실족하여 깊은 동굴로 빠진 그 산봉우리를 한번 쳐다보고는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쳤다.

양과는 눈동자도 돌이지 않고 그녀를 쳐다보는데, 황용은 그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온몸을 떨고 있으니 그 심경을 그가 어찌 모르겠는가? 순식간에 놀랍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여 말했다.

[그녀는 이미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게 되자 당신이 그녀에게 자살하도록 권하여 나 하나의 목숨을 구하도록 한 것이군요, 그렇죠? 당신은 나를 위하여 한번 선심을 베풀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 나는......, 나는 당신을 미워......]

여기까지 말하자 양과는 기가 막혀 하늘을 보고 쓰러져 마침내 기절해 버렸다. 일등이 손을 뻗어 그의 등을 한번 밀고 당기자 양과는 서서히 깨어났다. 황용이 말했다.

[나는 오직 그녀에게 너의 목숨을 구하라고만 권했을 뿐 결코 자살하라고 권하지는 않았다. 네가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그만이지만......]

사람들은 서로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실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황용이 말했다.

[우리 이 산봉우리에 올라가 보자.]

사람들은 즉시 봉우리로 올라가 깊은 동굴을 내려다보았지만 어두컴컴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정영이 문뜩 말했다.

[우리 나무껍질을 벗겨 길다란 끈을 만들어요. 내가 동굴 속에 들어가 살펴보겠어요. 용언니가 정말......, 만일 불행히도 실족을 했다면...]

황용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샅샅이 찾아봐야 한다.]

즉시 각자 칼을 들고 검을 휘둘러 나무껍질을 벗겨 밧줄을 꼬았다. 사람이 많고 힘이 강하여 날이 밝아 올 때가 되어서는 이미 1백여 장의 밧줄이 만들어졌다. 그들은 분분히 자기가 동굴로 내려가기를 청했다. 양과가 말했다.

[내가 내려가 보지요.]

일행은 황용을 쳐다보며 그녀의 지시를 기다렸다. 황용은 양과가 이미 자기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음을 알고 있으니 만약 저지하는 말을 하면 그는 반드시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요, 만약 그가 내려가서 만의 하나 소용녀가 정말로 떨어져 죽었다면 그가 어찌 다시 올라오려고 하겠는가! 잠시 주저하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정영이 의연하게 말했다.

[양오빠, 내가 내려가겠어요. 당신은 나를 믿잖아요?]

소용녀를 제외하고 양과가 가장 따르는 사람은 바로 정영이었다. 양과는 가슴이 탈 듯 걱정이 되어 수족에 힘이 없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무씨 부자와 야율제가 밧줄을 잡고 정영을 천천히 아래로 내려놓았다. 밧줄이 몇 장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야 정영은 바닥에 닿았다.

사람들은 동굴입구 주위를 빙 둘러서서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동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오직 정영이 가지고 올라올 소식만을 기다렸다. 각자 갈수록 마음이 초조해지는데 정영은 시종 늦장을 부리며 올라오지 않았다. 황용과 주자류의 눈이 마주치면서 두 사람은 똑같이 생각했다.

(만약 소용녀가 정말로 아래에서 죽었다면 양과도 분명히 동굴로 뛰어들려고 할 것이니 그때 그를 잡아야 한다.)

양과는 황용과 주자류를 한번 쳐다보며 생각했다.

(내가 만약 죽으려면 스스로 조용히 목숨을 끊을 방법을 찾지, 여기서 당신들과 밀고 당기며 그 우부우부(愚夫愚婦)의 소행을 본받을 것 같소?)

무삼통이 손에 쥐고 있던 밧줄이 돌연 흔들리자 곽부.무씨 형제 등이 일제히 소리쳤다.

[어서 그녀를 당겨 올려요.]

각자 힘을 모아 밧줄을 당겨 정영을 끌어올렸다. 정영은 입구로 나오기도 전에 큰소리로 외쳤다.

[없어요, 용언니는 없어요.]

일행은 모두 기뻐하며 약속이나 한 듯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잠깐 사이에 정영은 동굴을 빠져나왔다.

[양오빠, 내가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아래에는 공손지 부부의 유해만이 있을 뿐 더 이상 다른 것은 없었어요.]

주자류가 말했다.

[우리가 사방을 두루 찾아보아도 없으니 용아가씨는 이 시각 분명히 이미 골짜기를 나간 것 같습니다.]

육무쌍이 갑자기 말했다.

[아직 가 보지 않은 곳이 있어요. 혹시 그녀가 지금 그 절정단을 끌어올릴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

＊ 註 : <세상 사람들에게 묻노니, 정이란 무엇이길래 생사를 가름하느

뇨?>, 이 노래(詞)는 매파당(邁陂塘) 이라는 곡조에 맞추어 지은 것으로서 작자는 금인(金人)인 원호문(元好問)이도. 금나라 태화(泰和) 5년에 지은 것으로, 이때 양과의 부친 양강(楊康)은 다섯 살이었다.

16년의 이별

양과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단장애로 뛰어갔다. 그는 급히 뛰어가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용이, 용이!]

절벽 앞에 이르러 깊은 골짜기를 내려다보니 짙은 안개만 끝없이 펼쳐 있을 뿐 사람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용이는 심사가 단순하여 만약 무슨 생각이 있으면 결코 내게 숨기지를 않는데......)

양과는 소용녀가 했던 말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단지 내게 영원토록 그녀의 분부를 듣겠다는 맹세를 기억하라고만 했다. 나는 당연히 영원토록 그녀의 마음을 거역하지 않을 텐데 왜 살며시 얘기했을까? 그녀는 내게 아무런 분부도 하지 않았잖은가!)

그는 고개를 들고 나지막이 말했다.

[용이, 용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요? 내가 당신의 어떤 말을 따라야 한단 말이오?]

맞은편에 있는 단장애에서 희미하고 한 백의의 여자가 머리에 붉은 꽃을 꽂고 형체도 날렵하고 손에는 쌍검을 든 채 공손지와 결투를 벌이는 것 같았다. 그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용이!]

정신은 가다듬어 보니 소용녀는 아무데도 없었다. 한무더기 하얀 안개가 바람에 이리저리 날릴 뿐이었는데 그 붉은 꽃은 정말로 맞은편 절벽에 있었다. 그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어제 용이가 공손지와 여기서 다툴 때는 분명히 이 꽃을 보지 못했

다. 이곳은 온통 돌뿐이요. 초목이 자라지 않는데 어떻게 꽃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설사 바람에 실려 왔다 해도 어쩌면 이렇게 교묘할 수가 있을까?)

즉시 숨을 몰아쉬고 돌다리를 지나 절벽으로 뛰어갔다. 가까이 가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것은 바로 그가 어제 소용녀의 머리에 꽂아 준 그 꽃이었다. 왼쪽에 있는 꽃잎 2 개가 약간 시들었지만 그는 똑똑히 알아보았다. 어젯밤 잠이 들 때 이 붉은 꽃은 분명히 소용녀의 머리에 꽂혀 있었는데 그 꽃이 여기에 와 있으니 소용녀가 어젯밤 이곳에 온 것이 틀림없었다.

양과가 몸을 굽혀 꽃을 집어드니 꽃 아래에 종이로 싼 것이 있어 즉시 펼쳐 보았다. 안에는 짙은 자색의 조그만 풀 한 묶음이 있었는데 바로 정화나무 아래에 있던 단장초였다. 그는 가슴이 쿵쿵 뛰었다. 얼른 풀을 쌌던 종이를 이리저리 뒤집어서 자세히 보았지만 종이에는 아무런 글자도 씌어 있지 않았다. 홀연 절벽 저쪽에서 육무쌍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양오빠,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양과가 고개를 돌리는데 언뜻 절벽에 검끝으로 두 줄의 글씨가 세겨진 것이 보였다. 한 줄은 큰 글씨로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16 년 뒤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요. 부부는 정이 깊으니 약속을 지키는 일을 잊지 마세요.>

다른 한 줄은 더 작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소용녀가 부군 양도령에게 부탁하오니 소중한 몸 부디 잘 보전하여 서로 만나도록 해요.>

양과는 멍하니 그 두 줄의 글씨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혼란하여 실로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가 내게 16 년 후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면 그녀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녀는 몸이 극심한 독에 중독되어 치료하기가 어려워서 열흘이나 반 달도 기다리지 못할 텐데 어떻게 16 년 후의 약속

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녀는 내가 이미 절정단을 버린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나에게 16 년 후를 기약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어지러워지며 몸이 흔들흔들거려 절벽으로 떨어지려고 했다.

사람들은 맞은편 절벽에서 그의 미친 듯한 모습을 보고 그가 까딱 잘못하여 실족해서 골짜기 아래의 깊은 연못에 떨어질까 봐 심히 걱정되었다. 가서 그를 달래려고 해도 그 절벽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더 설 수 있을 정도여서 만약 양과가 정말로 미쳤다면 그는 무공도 높으니 그를 제압할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와 함께 깊은 연못으로 떨어질 판이었다. 황용은 눈썹을 약간 찌푸리며 정영에게 말했다.

[사매, 그가 너의 말은 잘 들을 것 같은데......]

정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제가 가 보죠.]

하고 말한 뒤, 정영은 몸을 날려 돌다리를 건너 양과를 향하여 걸어갔다.

양과는 등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나자 큰소리로 호통을 쳤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마!]

갑자기 몸을 돌리는데 눈에서는 무서운 빛이 뿜어 나왔다. 정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양오빠, 나에요. 나는 오직 용언니를 찾는 것을 도와 주려 왔을 뿐이에요. 다른 의도는 없어요.]

양과는 정영을 응시하더니 차츰 있다가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정영은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서 말했다.

[이 빨간 꽃은 용언니가 남겨 놓은 건가요?]

[그래, 왜 16 년일까? 왜 16 년일까?]

정영은 천천히 절벽까지 걸어가 양과의 눈빛을 따라서 석벽에 씌어 있는 두 줄의 글을 나지막이 한번 읽었으나 그녀도 역시 이해하지 못하여 말했다.

[곽부인은 지모가 뛰어나고 매사를 보는 눈이 신과 같아서 어느 누구도 그녀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가서 그분께 물어 보면 반드시 분명한 해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 돌다리가 미끄러우니 발밑을 조심해라.]

곧장 몸을 날려 맞은편 산으로 가서 절벽에 씌어진 두 줄의 글자를 황용에게 말해 주었다.

황용은 잠시 묵묵히 생각에 잠기더니 돌연 두 눈이 반짝 하며 손뼉을 치고 웃으며 말했다.

[과야, 정말 기쁜 일이다. 기쁜 일이야.]

양과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기쁜 소식이라구요?]

[물론이지. 용이는 남해신니(南海神尼)를 만난 거야. 정말로 광세기연(曠世奇緣)이로구나.]

양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남해신니라구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남해신니는 불문(佛門)중의 대성(大聖)으로, 불법과 무공을 모두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경지까지 수련하셨지. 다만 그녀는 중토를 밟는 일이 거의 없어서 중원 무림의 인사들 중에 그녀의 대명(大名)을 아는 사람이 극소수일 뿐이야. 나의 아버님도 당년에 그녀를 한번 만나신 적이 있는데 장법 한 가지를 배워서 일생 동안 무궁하게 사용하셨지. 음, 그것은 16,32......그래, 32 년 전의 일이야.]

양과는 반신반의하면서 중얼거렸다.

[32 년이라구요?]

[그래, 그분 신니는 이미 100 세의 고령에 가까왔을 거야.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지. 매번 16 년을 단위로 그분께서 중토에 한 번 오시는데 선인을 만나면 그녀는 반드시 자비를 베푸신대. 용이는 마치 선녀처럼 아름다운 사람이나 그녀가 분명히 매우 좋아하시고, 용이를 제자로 삼으셔서 남해로 데리고 갔을 거야.]

양과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16 년마다, 16 년마다? 일등대사, 이 말이 정말입니까?]

일등은 <음> 하는 소리만 내뱉았다.

황용이 나서서 말했다.

[이분 신니는 불법이 비록 깊지만 성격이 약간 이상한 점이 있지요. 대사, 그녀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등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노승은 인연이 없어서 아직 만난 적이 없읍니다.]

황용이 탄식하며 말했다.

[그분 어르신께서 하는 일 중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소년 부부들이 막 꽃처럼 피어나려고 하는 것만 보면 그들을 16 년 동안 생이별을 시키려고 하니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용이는 무공이 이미 이토록 높은데 다시 16 년을 수련한다면 그야말로 남편을 완전히 능가할까 염려되는군요.]

황용은 말을 마치고 나서 하하, 웃었다. 양과가 말했다.

[아니에요, 곽백모. 그건 맞지 않아요.]

[왜?]

[용이는 독이 벌써 내장에 침투하여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어요. 만약 정말로 그분 신니 어르신의 총애를 받는다고 해도 이 16 년 안에 신니의 신통함으로 그녀의 체내에 있는 극심한 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황용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부아가 버릇없이 굴어 사람을 해쳤으니 나......, 나는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과야, 너의 이 추측이 더욱 이치에 맞을 것 같다. 용이는 독이 내장에 침투했으니 신니가 선단묘약이 있다고 해도 단시일 내에 독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을 거야. 다만 그녀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신니가 홀연 선심을 써서, 그토록 오래 있을 것 없이 그녀와 너를 다시 만나게 해 주기만을 바랄 뿐이지.]

양과는 <남해신니>라는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혼란하여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풀이 손에 있고 글씨가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소용녀가 만약 나쁜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16년의 약속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곽백모, 당신은 어떻게 해서 남해신니가 그녀를 거두어 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녀는 또 왜 석벽에 사실대로 자세히 쓰지 않아서 내가 이토록 걱정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나는 <16년 후>라는 네 글자에서 생각해 낸 거야. 나는 오직 남해신니가 16년마다 한 번씩 중토를 밟는다는 것만을 알고 있을 뿐이야. 그녀를 제외하고는 이런 기이한 습관을 가진 다른 사람이 없어. 일등대사, 당신은 생각나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요?]

일등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없읍니다.]

[이분 신니께서는 그녀의 이름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데 어찌 용이에게돌에 그녀의 이름을 새기도록 허락했겠니? 애석한 것은 이 단장초가 너의 체내에 있는 독을 해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인데, 만약......아, 16년 후에 용이가 기쁘게 돌아왔는데 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녀도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을 거야.]

양과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눈앞이 희미하여 어렴풋이 맞은편 절벽에 하얀 그림자가 배회하는 것 같았다. 마치 16년 후에 소용녀가 이곳을 찾아왔다가 자기를 찾지 못하여 실망하고 상심한 듯한 모습이었다. 한줄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는 몸을 부르르 떨며 의연하게 말했다.

[곽백모, 그러면 제가 남해에 가서 그녀를 찾겠어요. 하지만 신니 그 어르신께서 어디서 묵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너는 절대로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남해신니가 살고 있는 대지도(大智島)에 다른 사람이 발을 들여놓는 것을 그녀가 용납할 리가 없다. 더군다나 남자가 일단 이 섬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즉각 살신의 화를 부르게 된다. 나의 아버지께서도 자못 신니의 총애를 받으셨지만 감히

대지도에 가서 배알할 생각은 하지 못하셨다. 용이가 이미 신니 어르신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으니 만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16년은 손가락 하나 튕기면 지나갈 텐데 왜 그렇게 급히 서두르느냐?]

양과는 황용을 노려보며 사나운 목소리로 말했다.

[곽백모, 당신의 이 말을 도대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네가 다시 가서 석벽에 있는 글씨체를 보아라. 만약 용이가 쓴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한 말도 자연히 진실이 아닐 것이다.]

[그 글씨체는 이상한 점이 없어요. 그녀가 제 이름의 <양(楊)>자 를 쓸 때 우변의 <일(日)>자 아래를 언제가 한 획을 적게 쓰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황용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렇다면 정말 잘된 일이로구나. 솔직이 말하자면 나는 이 일이 너무나 공교로와, 줄곧 주대형이 몰래 글을 새겨 놓고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었지.]

양과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한 다음 말했다.

[좋아요. 나는 이 단장초를 먹어서 시험을 해 보겠어요. 만약 효과가 없다면 16년 후에 곽백모께서 나의 모진 목숨을 아내에게 말해 주세요!]

고개를 돌려 주자류에게 말했다.

[주대숙, 그런데 이 풀을 어떻게 먹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자류는 이 단장초가 극독무비하다는 것만을 알고 있었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여 독으로 독을 공격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가 일등에게 물었다.

[사부님, 이 일은 사부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등은 오른손 식지를 뻗어 양과의 <소해(少海)>.<통리(通理)>.<신문(神門)>.<소충(少沖)>, 네 곳의 혈도를 각각 천천히 한 번씩 눌렀다. 이 네 혈은 모두가 양기(陽氣)가 처음 생기는 <수소양심경(手少陽心經)>에 속하는 곳이었다. 양과는 한 줄기 느긋한 기가 네 혈로 부터 가슴으로 통하는 것을 느끼며 마음속의 괴롭고 막혔던 심사가 즉시 크게 줄어들었

다. 일등이 말했다.

[정화의 독은 이미 마음의 뜻과 서로 통하고 있어서, 단장초가 해독할 때에도 반드시 심장을 공격할 것이다. 내가 너의 네 혈을 눌러서 심맥을 보호했다. 우선 한 줄기 먹어서 시험해 보아라.]

양과는 몸을 굽혀 감사를 표했다. 일등이 탄식하며 말했다.

[나의 사제가 만약 있었다면 그는 반드시 군신조화(君臣調和)의 좋은 약을 조제해 주어 우리가 이토록 마음을 졸이고 애를 태우며 암중모색할 필요가없었을 텐데......]

양과는 천축승이 이막수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소용녀를 치유할 방법이 없음을 알고 죽으려는 결심이 이미 굳어졌었다. 그러나 이 순간 16년의 약속을 생각하니 살고 싶은 의욕이 다시 강하게 솟아나 단장초 하나를 들어 입에 집어넣고 천천히 씹었다. 그러나 그 냄새가 고약하기 짝이 없는데다 지독하게 써서 황련(黃蓮)보다도 더했다. 그는 풀줄기까지 간신히 삼켰다. 이전에 그는 혼자 살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오직 먼저 죽을까 봐 두려웠다. 16년 후에 소용녀가 다시 단장애에 왔을 때 자기를 찾지 못한다면 그녀의 상심과 실망이 오죽하겠는가? 즉시 무릎을 꿇고 앉아 내력을 움직여서 심맥과 단전을 보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뱃속이 갑자기 요동치더니 이어서 몹시 아프기 시작했다.

이 고통은 마치 천만 개의 강침이 동시에 뱃속을 찔러 대고 창자가 한 마디 한 마디 끊어지는 듯하여, <단장(斷腸)>이라는 말이 실로 헛된 말이 아니었다. 양과는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이를 악물고 참았다. 대략 차 한잔 마실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통증은 다시 온몸으로 퍼져 사지백해(四肢百骸)가 모두 풀의 독을 맞은 듯했다. 그러나 가슴만은 시종 온화하고 편안하여 일등대사의 일양지 신공이 실로 정심 탁절함을 족히 알 수 있었다. 이 통증이 반 시간 정도 지속되고 나자 비로소 통증이 점차 배로 돌아감을 느꼈다. 그때 그는 갑자기 우악, 하는 소리와 함께 피를 한입 토해 냈다. 이 피는 은홍빛이 찬란하여 보통 사람들의 피보다 훨씬 선명하고 예뻤다.

정영.육무쌍 등은 그가 피를 토하는 것을 보고 모두 <아!> 하고 가볍게 소리를 질렀다. 일등대사는 도리어 희색이 만면하여 나지막이 말했다.

[사제, 사제. 자네가 비록 몸은 죽었지만 여전히 사람에게 은혜를 남겼구만.]

양과는 펄쩍 뛰어 일어나서 말했다.

[저의 이 목숨은 천축신승, 대사, 그리고 곽백모, 세 분께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육무쌍이 기뻐하며 말했다.

[몸의 독성이 모두 제거되었나요?]

[그렇게 빨리 될 리가 있나? 하지만 이 풀이 효과가 있음을 이미 알았으니 매일 한 뿌리씩 먹으면 독성이 점차 줄어들 거야.]

[독성이 언제 깨끗이 제거될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 체내에는 이미 독이 없는데도 오빠가 여전히 단장초를 먹는다면 뱃속의 내장이 모두 망가질 텐데요?]

[그건 내가 알 수가 있어. 독성이 깨끗이 제거되지 않으면 만약......, 만약 심중에 정욕이 있어 깨끗하지 않으면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와.]

곽부는 줄곧 옆에서 하나하나 듣고 있다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양오빠는 오직 용언니만을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오빠를 생각하지 못할걸요.]

어제 공손지가 흑검으로 베어 올 때 곽부는 육무쌍이 일깨워 준 덕에 팔을 들어 막았다. 당시에는 오직 그녀가 호의로 그랬는 줄 알고 자못 감격하기까지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것이 아닌 것 같았다. 육무쌍이 호의로 일깨워 주었을 리도 없고 더우기 자기 몸에 연위갑을 입었다는 것도 알 리가 없으니 분명히 양과가 팔이 잘린 원한을 갚으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마음속에 노기가 쌓인 것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 순간 참지 못하고 기롱(譏弄)하는 말을 한 것이다. 황용이

황망히 말했다.

[부야, 너 무슨 버릇없는 말을 하는 거냐?]

육무쌍은 얼굴이 온통 붉어졌다. 곽부는 여전히 말을 멈추지 않았다.

[16 년 후에 용언니가 돌아온다구? 그런 어리석은 망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육무쌍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유엽도(柳葉刀)를 꺼내어 호통을 쳤다.

[만약 네가 아니었다면 양오빠가 왜 용언니와 16 년이나 떨어져 있어야 한단 말이냐? 네 스스로 생각을 해 봐라. 네가 양오빠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가를......!]

곽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다시 되쏘려고 했다. 황용이 사나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부야, 너 다시 한번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면 즉시 혼자 도화도로 돌아가라. 네가 양양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곽부는 감히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오직 성난 눈으로 육무쌍을 쏘아 볼 뿐이었다.

양과는 장탄식을 하고 육무쌍에게 말했다.

[이 일은 운이 안 좋아 그런 것이지, 곽아가씨도 일부러 사람을 해치려고 한 것은 아니야. 무쌍 동생, 이 일에 대해서는 이후로 더 이상 말하지 마.]

육무쌍은 그가 자기를 <무쌍 동생>이라고 부르고 곽부를 <곽아가씨>라고 부르자 분명히 자기를 더욱 친근하게 여기는 것이라서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으며 곽부에게 혀를 날름 내밀었다. 일등이 말했다.

[양소협이 단장초를 먹고도 몸이 괜찮은 것을 보니 이 풀이 확실히 해독의 효과가 있군. 하지만 만전을 기하려면 연속으로 먹으면 안 되고 7 일 동안 기다린 뒤에 다시 두번째 복용을 해라. 그때도 스스로 네 곳의 혈도를 눌러 심맥을 보호하고 분량도 약간 줄여야 한다.]

양과는 몸을 굽히며 말했다.

[삼가 대사의 가르침에 따르겠읍니다.]

황용은 태양이 이미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우리가 양양을 떠난 지도 이미 오래 되어 군정이 어떤지 몹시도 궁금하니 오늘은 돌아가야겠다. 과야, 너도 함께 양양으로 가자. 곽백부가 너를 몹시 생각하신단다.]

[저는 여기서 제 아내를 기다려야 합니다.]

곽부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여기서 그녀를 16 년이나 기다려요?]

[나도 몰라. 아직은 별 다른 갈 만한 곳도 없어.]

황용이 말했다.

[여기서 열흘을 기다리든 반 달을 기다리든 좋다. 만약 용이가 정말로 소식이 없으면 양양으로 와라.]

양과는 맞은편 절벽만 쳐다보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일행은 곧장 양과와 작별을 했다. 곽부는 육무쌍이 가려는 뜻이 없음을 보고 참지 못하여 말했다.

[무쌍, 너도 여기서 양오빠와 같이 있을 거야?]

육무쌍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정영이 갑자기 말했다.

[양오빠가 아직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으니 저와 동생이 남아서 며칠 그를 돌보겠어요.]

황용은 이 소사매가 외유내강함을 알고 딸이 그녀의 화를 돋우면 후환이 끝없을지도 모를 일이어서 급히 곽부에게 눈을 흘겨 그녀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사매와 육아가씨가 그를 돌본다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지. 그의 체내의 독성이 전부 풀리면 세 분이 함께 양양으로 오기를 졸부(拙夫)와 소매(小妹)는 학수고대하겠어.]

양과.정영.육무쌍 세 사람은 산 위에 서서 일등.황용 등의 일행이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갈수록 멀어지더니 마침내 수풀에 가려 사라져 버렸다. 산불이 밤새도록 번지다가 점차 사그라들고 있었다. 양과가 말했다.

[동생들, 내가 한 가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말을 해도 이상하게 여기진 말아 줘!]

육무쌍이 말했다.

[누가 이상하게 봐요?]

[우리 세 사람이 만난 것도 깊은 인연인데 나는 형제 자매가 하나도 없으니 두 분과 금란의 결의를 맺어 이후로는 오누이로 칭하며 골육과 같이 지내고 싶은데 두 분의 의향은 어떤지?]

정영은 마음이 시렸다. 소용녀에 대한 그의 정이 생사를 넘나드는 것이어서 16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오누이의 명분을 세워서 오래 함께 지내면서 서로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다. 육무쌍은 고개를 숙이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여 황망히 말했다.

[우리 두 사람에게 이런 오빠가 계시다면 그야말로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요.]

육무쌍은 정화나무 아래로 가 단장초 세 뿌리를 뽑아서 나란히 꽂고 웃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결의의 배례를 한 때는 흙을 한 움큼 모아 향을 피우지만 우리 세 사람은 생면불식도 아니니 꽃을 꽂아 향으로 삼아요.]

그녀는 비록 억지로 즐거운 표정을 지었지만 뒷부분까지 말하자 목소리에 흐느낌이 섞이어 양과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사뿐히 절을 했다. 양과와 정영도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여덟 번 절을 하여 각자 예를 올렸다. 양과가 말했다.

[이매(二妹), 삼매(三妹). 천하에 가장 악독한 물건 중에 이 정화 나무보다 더한 것이 없어. 만약 씨앗이 골짜기 밖으로 퍼져 나간다면 그 독이 끝없이 흘러 퍼질 거야. 우리, 그것들을 모두 없애 버리자, 어때?]

정영이 말했다.

[이토록 착한 오빠의 소망에 보살께서도 반드시 도와, 어서 빨리 용언니와 만나게 해 주실 거예요.]

양과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자못 안정이 되었다.

곧 세 사람은 불탄 자리로 가 타고 남은 연장 3개를 찾아내어 나뭇가지를 잘라서 손잡이를 만들어 골짜기 안의 아직 타지 않은 정화나무를 하나하나 베었다. 골짜기에 있는 나무는 그수가 적지 않고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느라 6일 동안 바삐 움직여서야 깨끗이 베어 냈다. 세 사람은 한 그루라도 남았다가 다시 번식할까 봐 골짜기 이곳저곳을 찾아서 정화나무의 자취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서야 일손을 멈추었다. 이렇게 되자 이 세상에 화를 가져다 주었던 기이한 나무는 마침내 양.정.육, 세 사람의 손에 멸종되어 후인들이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에 육무쌍이 단장초 뿌리를 꺼내어 말했다.

[오빠, 오늘은 이 독초를 먹어야 해요.]

양과는 7일 전에 그것을 먹어 본 적이 있어서 단장초가 비록 독이 있지만 자기는 당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심장을 보호하는 네 곳의 혈도를 스스로 누르고 단장초를 씹어 삼켰다. 이번에는 체내의 독성이 이미 감소된 뒤여서 고통도 지난번처럼 무시무시하지는 않았다. 반 시간 정도 지나자 선혈을 한입 토해 내고 통증도 곧 멎었다.

양과가 몸을 곧게 세워 손과 발을 펴니 정영과 육무쌍이 모두 희색이 만면한 것을 보고 생각했다.

(이 두 의동생이 이렇게 나를 지극히 위하니......평생에 이런 홍안지기가 하나만 있어도 유감이 없을 텐데, 하물며 둘씩이나 있다니.....! 다만 내가 보답을 할 수가 없는 게 안타깝구나.)

다시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매는 훌륭한 사부를 만나 배운 것이 결코 평범하지 않으니 이제 시일만 빌려서 차례에 따라 정진한다면 일류 고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삼매의 경우도 그녀와 큰 차이가 없다.)

이윽고 양과가 말했다.

[삼매, 너의 사부와 나의 사부는 사자매이니, 말하자면 우리 둘은 오누이나 마찬가지야. 우리 고묘파의 가장 정심한 무공은 옥녀심경에 실려 있어. 이막수가 평생토록 원한 것이 이 경을 한 번 읽어 보았으면 하는 것이었는데 죽을 때까지도 소원을 이루지 못했지. 좌우에 별다른 일이 없으니 내가 너에게 본문의 무공을 전수하여 주지, 어때?]

육무쌍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 고마와요. 오빠. 다음에 다시 곽부를 만나더라도 그녀가 무례하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군요.]

양과는 살며시 웃으며 옥녀심경의 구결을 얕은 것에서부터 깊은 것까지 차례로 그녀에게 말해 주었다.

[너는 우선 구경을 충분히 기억하고, 연공할 때는 이매에게 도와달라고 청하도록 해. 이 골짜기에는 외인이 오지 않으니 마침 연공하기에는 아주 절묘한 곳이군.]

이로부터 며칠 동안 육무쌍은 전심 전력으로 옥녀심경을 암송했다. 그녀가 배운 것은 본래 고묘파의 무공이라 일맥상통하여 이해하기가 쉬웠다. 점차 심오한 곳에 이르러 육무쌍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양과는 그녀에게 무조건 외어 두기만 하면 시일이 오래 가면 저절로 통하게 된다고 말해 주었다. 이렇게 거의 한 달을 가르치자 육무쌍은 심경 전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여 외서 하나도 빠트리지 않게 되었다. 양과도 매번 7일 간격으로 단장초를 한차례씩 먹어 해독을 하고 먹는 양도 점차 감소되었다.

어느날 아침 육무쌍과 정영이 아침을 지어 놓고 한참을 기다려도 양과가 오지 않자 두 사람은 그가 묵고 있는 동굴로 가 보았다. 바닥의 진흙에 몇글자가 적혀 있었다.

<잠시 작별하여 후일을 기약한다. 오누이의 정은 해와 달처럼 희디희다.>

육무쌍이 깜짝 놀라 말했다.

[그......, 그는 마침내 가 버렸어.]

즉시 산꼭대기로 올라가 사방을 바라보는데 정영도 뒤따라왔다. 두 사람은 한껏 멀리까지 바라보았지만 산에는 오직 구름만아득히 펼쳐져 있을 뿐 양과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육무쌍은 마음이 너무나 아파 흐느끼며 말했다.

[오......, 오빤 어디로 갔을까? 우리는 이후에......, 이후에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삼매, 이 하얀 구름을 봐.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고 흩어졌다간 다시 모이잖아? 인생 이합(離合)도 이와 같아. 뭘 그리 마음 아파 하는 거야?]

정영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양과는 단장애에서 한달 이상 머무르며 옥녀심경을 육무쌍에게 전수해 주었는데, 끝내 소용녀의 소식이나 종적을 알 길이 없자 더 이상 기다려 봐야 소용이 없음을 알고 한 묶음의 단장초를 품속에 넣고 흙위에 글을 남긴 후 표연히 떠나갔다. 그는 소용녀가 죽지 않았다면 다시 종남산으로 돌아갔기를 바라며 즉시 고묘로 갔지만 침상에 놓여 있는 봉관(鳳冠)과 바닥에 떨어져 있던 혼례복 때문에 공연히 한차례 상심만 더 했을 뿐이었다.

산을 내려와 강호를 동서로 유랑하다 홀연 몇 개월이 지나 양양에 가까이 오니 몽고군이 온통 불태워 버렸던 땅에 다시 초가집을 짓고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근 몇 달 동안 몽고의 말발굽이 남하하지 못했음이 분명했다. 그는 비록 곽정이 걱정되었지만 곽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생각했다.

(조형과 헤어진 지도 이미 오래 되었는데 어찌 한번 방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곧장 길을 찾아 황곡으로 갔다.

검마 독고구패가 옛날에 은거했던 곳에 가까이 이르러 소리내어 휘파람을 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앞쪽 산허리에서 구구,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드니 신조가 한 커다란 나무 아래서 두발톱으로 승냥이 한 마리를 잡고 있었다. 신조는 양과가 온 것을 보자 승냥이를 놓아주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 승냥이는 꼬리를 재빨리 풀더미에 감추었다. 양과는 신조를 껴안고 몹시도 기뻐하며 석실로 돌아왔다. 그는 이곳을 떠나 불과 몇 달 동안 삶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왔다갔다했고,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무수한 변고를 겪은 셈이었다. 애석한 것은 신조가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그에게 심회(心懷)를 한바탕 털어놓았을 것이었다.

이렇게 며칠 동안을 그는 황곡에서 신조와 함께 지냈다. 하루는 한가하고 아무 일도 없어 천천히 독고구패가 검을 묻은 벼랑 앞에 이르렀다. 벼랑으로 뛰어오르니 썩어 버린 목검 아래에 석각이 보였다.

<40 세 이후에는 사물에 얽매이지 않아 초목죽석(草木竹石)을 모두 검으로 삼을 수 있었다. 이로부터 수련을 거듭하여 점차로 검이 없이 검을 이기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도다.>

(내가 현철중검을 가지고도 이미 천하에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독고 선배의 유언을 읽어 보니 목검이 현철중검을 이길 수 있고 최후에는 검이 없이도 목검을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용이가 이미 16 년 후에야 서로 만날 수 있다고 하였으니 10 여 년 세월 동안 나는 이 목검승철검<木劍勝鐵劍>.무검승유검<無劍勝有劍>법을 연마해야겠다.

그리하여 나뭇가지를 꺾어서 목검의 모양으로 깎았다.

(현철중검은 거의 70 근인데 가볍기 짝이 없는 이 목검이 무거움을 제압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검법이 정묘하여 빠름으로 느림을 공격하는 것이요, 하나는 내력이 가득 차고 넘쳐 강함으로 약함을 이기는 것이다.)

이후부터 그는 밤낮으로 부지런히 내공을 수련하고 검술을 정련하였으며, 매번 큰 비가 온 뒤에는 홍수와 맞서 버티며 출초의 힘을 길렀다. 어느새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되었다. 양과는 비록 부지런히 애를 썼지만 내력과 검술은 조금밖에 진전되지 않았다. 그

러나 그는 이미 자못 높은 경지에 도달해 있고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다시 진보하기란 실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다지 초조해 하지는 않았다.

이날 하늘에서 큰 눈이 내리자 신조는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드넓은 대지로 뛰어가 날개를 펼쳐 한 줄기 거센 바람을 불러일으켜 눈송이를 날렸다. 양과는 생각했다.

(겨울에는 홍수도 없으니 눈 속에서 검을 연마하는 것도 절묘한 법문이 되겠군.)

신조가 두 날개로 말아 올리는 힘은 갈수록 더욱 커져 눈송이가 비록 빽빽하게 내리고 있었지만 몸에는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양과는 신이 나서 목검을 들고 눈이 내리는 속으로 뛰어들어 춤을 추며 동시에 오른쪽 소매도 함께 휘둘러 눈송이가 나부껴 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혹은 검풍으로 혹은 소매바람으로 눈송이를 흩뜨려 놓았다. 이렇게 반나절을 놀자 목검과 소매의 힘이 모두 제법 증가되었음을 느꼈다.

눈은 계속하여 사흘 동안이나 내렸다. 양과는 매일 눈 속에서 검을 연마했다. 세째날 오후가 되자 눈은 더욱 많이 내렸다. 양과는 정신을 집중하여 검을 휘두르며 눈을 쳐 내는데 신조가 돌연 날개를 휘둘러 그에게 쓸어 왔다. 양과는 즉시 몸을 날려 급히 피했지만 이마가 약간 차가운 것이 이미 눈덩이 2 개가 이마에 떨어진 것이었다.

(그날 절벽에서 조형이 날개를 휘두르며 나와 다투어서 나로 하여금 검술이 크게 진보하도록 했는데 오늘 또 내게 검을 연마하도록 하는구나.)

그리하여 양과가 목검을 뻗어 반격을 하니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목검이 날개와 부딪치자 즉시 부러져 나갔다. 신조는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않고 날개를 거두고 서서 구구, 하고 낮게 울었다. 그 표정이 마치 꾸짖는 것 같았다.

(목검으로 너의 놀랄 만한 신력과 대항하려면 오직 몸을 옆으로 재빨

리 피하여 틈을 노려 반격하는 수밖에 없겠군.)

즉시 목검을 한 자루 다시 깎아서 설원에서 신조와 싸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10여 초까지 지탱하고 나서야 목검이 부러졌다.

이렇게 쉬지 않고 부지런히 연마하는데 양과는 신조가 조금도 태만한 기색이 없이 매우 엄하게 독책하는 것 같아 심중으로 감격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내가 만약 목검을 연마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조형의 이 훌륭한 뜻에 보답하겠는가? 또한 드넓은 세상에 만나기 힘든 이런 기이한 인연을 어찌 되는 대로 흘려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이로 인하여 꿈 속에서조차도 어떻게 하면 초수를 피하고 초수를 내며, 어떻게 하면 내력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연공을 부지런히 하게 되자 소용녀에 대한 그리움도 몇 달 전처럼그렇게 마치 타는 듯 마음을 졸이지는 않게 되었다. 이때는 체내의 정화의 독도 이미 모두 제거되고 내력도 증가하여 체격이 날로 장대해서 이미 예전의 초췌한 용모가 아니었다.

날씨가 차고 땅이 얼어붙은 것을 보니 이미 소용녀와 헤어진 지 1주년이었다. 양과가 말했다.

[조형, 나는 절정곡에 한번 가 봐야 하니 오늘 잠시 이별해야겠읍니다.]

이리하여 목검을 들고 골짜기를 나섰다. 신조도 함께 나와 갈림길에 이르르자 양과는 신조를 향하여 한번 읍을 하고 북쪽을 향한 큰길로 성큼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뜻밖에도 신조가 그의 옷깃을 물고 남쪽으로 잡아 끌었다. 양과가 말했다.

[조형, 나는 북쪽으로 가야 할 일이 있으니 여기서 이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조는 그를 남쪽으로만 잡아끌었다. 양과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조형이 예전에는 모든 것을 잘 이해하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 그와 함께 남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신조는 그가 함께 오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그의 옷깃을 잡지 않았다. 그러나 양과가 북쪽으로 몸을 돌리려고만 하면 그의 옷깃을 물고 놓아 주지 않았다.

(조형은 지극히 신통하니, 나를 남쪽으로 끄는 것은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여 절정곡으로 가려는 뜻을 버리고 신조와 함께 곧장 동남쪽을 향하여 갔다.

10여 리를 가자 양과는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조형은 나이가 많고 신통하니 혹시 나를 남해에 데리고 가 용이와 만나게 하려는 것은 아닐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가슴에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 없어 즉시 걸음을 빨리 하여 신조를 따라 질풍같이 달렸다. 한달이 채 못 되어 그들은 이미 동해가에 이르렀다.

그는 해변의 돌 위에 서서 멀리 망망대해를 바라보니 파도가 용솟음쳐 심중에는 근심과 기쁨이 교차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물결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마치 우뢰소리와 같았다. 그는 어릴 때 도화도에서 산 적이 있기 때문에 해변에는 조석 간만이 어김없이 일어나 매일 자(子)시 오(午)시에 두 차례 밀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은 붉은 해가 공중에 떠 있으니 밀물 때인 것 같았다. 파도소리는 갈수록 더욱 크게 울려 쿠르릉 쿠르릉, 하는 것이 마치 천만 마리의 말발굽이 동시에 땅을 박차고 달리는 것 같았지만 한가닥 하얀 띠가 해안을 향해 급히 달려오는 것만이 보일 뿐이었다. 이런 성세는 천둥 번개보다도 더욱 무시무시했다. 양과는 천지지간에 이런 위엄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안색이 변했다.

순식간에 파도는 이미 몸 앞까지 밀려와 바위를 칠 듯했다. 양과는 몸을 날려 뒤로 뛰는데 돌연 한 줄기 거대한 힘이 등을 미는 것을 느꼈다. 바로 신조가 날개를 펴서 친 것이었다. 그는 몸이 공중에 떠서 어쩔 줄

을 모르다가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을 삼킬 듯한 하얀 물결 속으로 빠져 버렸다. 갑자기 입안에 짠맛이 느껴지며 바닷물을 두 모금 들이마셨다.

이는 극히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다행히도 홍수 속에서 검을 연마한 지가 이미 오래 되어 즉시 <천근추>의 수법으로 바다 밑에 있는 돌 위에 몸을 우뚝 세웠다. 해면은 파도가 산처럼 휘몰아치는데 바닷속은 도리어 비교적 평온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다.

(원래 조형이 나를 바닷가로 이끌고 온 것은 내가 성난 파도 속에서 검을 연마하도록 하기 위해서였구나.)

즉시 두 발을 찍어 해면으로 솟아오르니 거센 바람이 얼굴을 치며 산만한 큰 물결이 머리를 덮어 왔다. 그는 팔에 힘을 주어 물 속을 저으며 헤엄쳐 넘은 뒤, 급히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여 성난 파도가 물러갈 때까지 계속하자 그는 이미 피로하여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저녁이 되어 밀물이 다시 밀려오자 그는 목검을 가지고 하얀 물결 속에서 뛰어들어 춤추듯 휘둘렀다. 그러나 조수는 사면 팔방에서 일제히 밀려와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던 홍수 때와는 전혀 달라서 매번 당해 내지 못하고 양과는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

이렇게 매일 두 차례를 연습하자 한달도 못 되어 스스로 공력이 크게 진보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땅에서조차 손에 목검을 들고 치고 찌르면 은은하게 파도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이후로 신조는 그와 치고 받으며 놀 때 감히 날개로 받아내지를 못했다.

하루는 양과가 흥이 나서 검을 휘둘러 베는데 온힘을 다 쏟았다. 신조가 구,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옆으로 재빨리 피했다. 양과는 세를 거두지 못하여 한 그루 조그만 나무에 일검이 부딪치고 말았다. 목검이 부러지고 조그만 나무의 기둥도 중간에서 부러져 나갔다. 양과는 부러진 검의 손잡이를 들고 생각했다.

(이 목검이 아무 힘이 없는데도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것은 나의 손의

경력에 의한 것이다. 앞으로 나무는 잘리고 검은 잘리지 않는다면 독고 선배 당년의 신기에 거의 가깝게 되겠지.)

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세월은 유수같이 흘렀다. 양과는 날마다 파도 속에서 검을 연마하기를 아침이나 저녁이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쉬지를 않았다. 목검을 찌르고 치는 소리는 연마할수록 크게 울려 얼마 후 쿠르릉,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소리는 점차 가벼워져 마침내는 고요하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시 몇 달을 연마하자 검 소리는 다시 점차 크게 울렸다. 이로부터 소리가 가벼워졌다가 크게 울리고 크게 울렸다가 가벼워지기를 일곱 차례 반복하자 마침내는 가볍게 하고 싶으면 가볍게 되고 소리가 울리게 하고 싶으면 울리게 되었다. 양과가 해변에서 검을 연마한 지도 어느덧 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때 양과는 목검만을 가지고도 파도를 맞받아 치고 찌르는데, 검에서 나오는 거센 바람은 이미 거대한 파도의 정면을 치며 맞설 수 있었다. 신조도 놀랄 만한 힘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미 양과의 목검의 두세 초도 당해 낼 수 없었다. 마침내 양과는 검마 독고구패의 말년의 심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검술을 지니고 있다면 천하에 어느 누가 대적할 수 있단 말인가! 독고 선배가 스스로 상심하여 조용히 지내며 깊은 골짜기에 검을 묻은 것도 이상할 것이 없구나.)

다시 생각했다.

(만약 조형이 당년에 독고 선배가 검을 연마하는 법문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나 또한 어떻게 이 신기를 얻을 수 있었겠는가? 내가 심중으로는 그를 조형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나의 훌륭한 사부이다. 나이를 따지더라도 그가 나보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으니 그늘 조 할아버지, 조 어르신네라고 불러야만 될 것이다.)

양과는 바닷가에서 검을 연마할 때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손에게 대지도에 있다는 신니의 소식을 계속해서 물어 보았다. 그러나 몇 년 동안 1천여 명의 사공이나 뱃손에게 물어 보아도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 없었

다. 양과는 점차, 16년 기한이 지나지 않으면 소용녀와 만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어둑어둑한 가운데 비바람이 휘몰아치자 양과는 느껴지는 바가 있어 곧장 허리에 목검을 차고 다 떨어진 옷을 걸치고 서쪽으로 갔다. 이로부터 양과와 한 마리의 수리는 발길 닿는 대로 중원과 강남을 두루 돌아다니게 되었다.

나룻터의 야화(夜話)

대송의 이종(理宗) 황제 개경(開慶) 원년은 몽고의 대한(大汗) 몽케가 즉위한지 9년째 되는 해였다. 때는 이른봄인 2월 초순으로 황하의 북안(北岸)인 풍릉(風陵)의 나룻터에는 말 울음소리와 마차소리, 사람들의 아우성이 뒤섞여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다. 이 며칠 동안 날씨가 돌연 따뜻해졌다 추워졌다 해서 황하의 얼음이 녹았다가 다시 북풍이 몰아치고 눈이 내리면서 다시 얼곤 했다. 이 때문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으며 더우기 얼음판 위로는 마차가 갈 수 없어 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풍릉의 나룻터에 묶여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다. 풍릉의 나룻터에는 비록 몇 개의 여관이 있었지만 북쪽으로부터 오는 손님이 계속 끊이지 않아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여관은 금세 만원을 이루어 뒤늦게 찾아오는 손님들은 방이 없을 지경이었다.

이곳에서 가장 큰 여관은 <안도노점(安渡老店)>이라 불리는 곳인데, 그 뜻은 편안하게 물을 건너가는 여관이라는 뜻이었다. 여관은 매우 컸지만 방을 구하지 못한 손님들이 밀려오자 여관 밖까지 소란하게 되었다. 주인의 입술은 말라서 타 들어갔고 모든 방마다 서너 사람씩 들어차서 나머지 20여 명은 잠을 잘 만한 방이 없어서 대청에 둘러앉았다. 하인이 화로와 의자를 가져와 대청 한가운데에 불을 피웠다. 문 밖의 북풍이 매서운 소리를 내면서 문틈으로 스며 들어서 불길을 더욱 뜨겁게 했다. 손님들은 아마도 내일도 길을 떠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는 얼굴 가득 수심(愁心)의 표정이 지워지지를 않았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눈은 점점 많이 내렸다. 이때 돌연 말발굽소리가 들리며 3마리의 말이 달려와 여관 문 앞에 멈췄다. 대청에 있던 하인은 눈썹을 찡그렸다.

[또 손님이 오셨군.]

과연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인장, 넓고 깨끗한 방을 두 개만 마련해 주시오.]

주인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집은 이미 만원이 되어 비워 드릴 만한 방이 없는데요.]

[좋아요. 한 개라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곳을 찾아 주셨는데 이미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는 말의 채찍을 허공에 한번 휘두르며 신경질을 냈다.

[쓸데없는 소리 작작 하시오! 당신은 여관을 하면서 방도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오? 사람들에게 방을 양보하도록 하시오. 돈은 주인장이 원하는 만큼 주겠소.]

하고 말하고는 대청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쳐다보다가 눈앞이 번쩍했다. 30여 세 정도 되어 보이는 그녀는 하얀 얼굴에 불그스레한 뺨을 가진 용모가 뛰어난 미인이었으며, 깃에는 속으로 넣은 담비 가죽이 보이는 남색의 비단옷을 입어 복장이 매우 화려했다. 이 젊은 부인의 뒤에는 15,6세 정도 되는 남녀가 서 있었다. 남자는 짙은 눈썹에 큰 눈으로, 모습이 매우 시원스럽게 생겼으며, 여자는 우아하고 아름다왔다. 이 소년과 소녀는 모두 엷은 녹색의 비단옷을 입고 있었다. 소녀의 목에는 모두 작은 손가락만한 진주로 된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 3명의 기세(氣勢)에 놀라서 입을 벌리고 멍청하게 그들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주인은 몸을 굽혀 웃으면서 말했다.

[부인, 보십시오. 여기 계신 손님들도 모두 방을 잡지 못하신 분들입

니다. 만약 세 분께서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제가 이분들께 조금씩 자리를 양보하시라고 부탁하겠읍니다. 이곳에서 불을 쬐면서 오늘밤을 적당히 지내시면 내일 아침 강이 얼면 능히 강을 건너 가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젊은 부인은 속으로 매우 불쾌했지만 이 광경이 현실임을 알고는 단지 눈썹을 찡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 가까이 앉아 있던 중년 부인이 말했다.

[부인, 여기 앉아서 불을 쬐면서 추위를 피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 중년 부인 옆에 앉아 있던 남자 손님이 옆으로 자리를 당겨서 적당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이윽고 음식이 나왔다. 음식과 안주는 풍성했고, 닭고기도 마련되었다. 잠시 후에는 한 항아리의 술이 나왔다. 이 미모의 젊은 부인은 주량이 대단해서 한 사발을 마시고 다시 한 사발을 마셨다. 소년과 소녀도 그녀를 따라서 술을 마셨는데 그들이 서로 부르는 호칭을 듣자 하니 남매지간인 것 같았다. 소년의 나이가 소녀의 나이보다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그녀를 <누나>라 불렀다.

사람들은 불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았으나 문 밖에서 부는 바람소리 때문에 잠시도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산서(山西)의 사투리를 쓰는 사나이가 입을 열었다.

[날씨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군요. 얼음이 잠시 녹았다가는 다시 얼어붙으니 하늘은 정말 우리에게 강을 건널 만한 좋은 날을 주시지 않으려나......]

호북(湖北)의 사투리를 쓰는 난장이가 나섰다.

[당신은 하늘과 땅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 몸을 녹일 만한 불이 있고 굶주리지 않을 만큼의 음식이 있읍니다. 당신이 만약 우리가 포위되었던 양양성(襄陽城)에 살았다면 당신은 천하의 어떤 괴로운 곳도 모두가 낙원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 젊은 부인은 <포위되었던 양양성>이라는 말을 듣고는 동생들을 쳐다보며 눈짓을 했다.

광동(廣東)의 사투리를 쓰는 손님이 물었다.

[노형(老兄)! 포위되었던 양양의 풍경은 어떠했읍니까?]

호북의 손님이 대답했다.

[몽고달자의 잔악함은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니 더 이상 말하지 않겠읍니다. 그 해 몽고의 10여만 대군이 양양을 쳐들어왔을 때 군을 통제하던 여대인(呂大人)은 매우 무능했읍니다만 다행히 곽대협 부부께서 용감하게 적을 맞아 싸우셔서......]

이 젊은 부인은 <곽대협 부부>라는 말을 듣자 순식간에 표정이 변했다. 호북 사람의 말이 계속되었다.

[양양성에 있던 수십만의 군민(軍民)들은 모두 힘을 다해 성을 지키고 한 사람도 물러나지 않았읍니다. 저같이 수레에 물건을 파는 사람까지 돌을 나르며 일신의 온힘을 성을 지키는 데 쏟았읍니다. 내 얼굴의 이 커다란 상처는 바로 몽고달자의 화살에 맞아서 생긴 것이지요.]

사람들이 모두 그의 얼굴을 쳐다보자 과연 왼쪽 눈 밑에 찻잔 정도 크기의 상처가 있었다. 그들은 저절로 숙연해졌다.

광동 사람이 말했다.

[우리 대송은 땅이 넓고 사람이 많으니 만약 모든 사람들이 노형처럼 행동한다면 몽고놈들이 지금보다 열 배 정도 더 흉악해진다 한들 어찌 감히 우리의 강산을 넘볼 수 있겠읍니까!]

호북 사람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몽고의 대군이 양양성을 계속해 공격해도 점령할 수 없었지만 다른 지방은 이미 그들의 수중에 떨어졌읍니다. 듣자하니 서역의 몇십 개 나라가 모두 몽고에게 망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양양은 시종일관 산처럼 우뚝 솟아 있읍니다. 몽고의 4왕자 쿠빌라이가 직접 성 밑에 와서 독전(督戰)을 해도 우리 양양 사람들은 끄떡도 안 했읍니다.]

광동 사투리의 손님이 말했다.

[모든 백성들이 몽고놈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만약 그놈들이 광동에까지 공격해 온다면 우리 광동 백성들도 역시 한판 치를 것입니다.]

그 호북 사람이 다시 말했다.

[달자와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결코 살아 남을 수 없어요. 몽고달자가 양양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성 밖에 있던 한인(漢人)을 잡아 한사람씩 목을 베었습니다. 심지어 4,5세나 6,7세의 어린아이들을 끈으로 묶어서 말에 매달아 끌고 성의 주위를 돌았습니다. 물론 얼마 가지 못해 아이들은 숨이 끊어졌지요. 성 위에 있었던 우리들은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자 마치 칼로 가슴을 도려 내는 듯했습니다. 달자놈들은 이처럼 잔혹한 방법으로 우리를 겁주고 항복하도록 했읍니다. 그러나 그들이 흉악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강해져 갔읍니다. 양양성의 양식이 떨어지고 마실 물조차도 없어 마지막에는 나무의 액과 더러운 물까지 마서 가며 몽고놈들과 싸움을 벌였읍니다. 결국 몽고놈들은 어찌할 수 없어 물러나고 말았지요.]

광동 사람이 말했다.

[아, 십 년 동안 만약 양양성이 견디지 못했다면 아마 반쪽 남은 대송의 강산도 보존하기 어려웠을 것이오.]

사람들은 계속해서 양양성을 어떻게 지켰는가 물었다. 이 호북인은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곽정과 황용을 마치 천신(天神)처럼 과장했다. 사람들은 모두들 찬사를 보냈다.

사천(四川)의 사투리를 쓰는 손님이 돌연 탄식을 하며 말했다.

[사실 성을 지킨 훌륭한 관리는 각지에 있었는데 단지 조정에서는 충신과 간신이 뒤섞여서 왕왕 간신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충신은 억울하게 죽어 갔답니다. 전조(前朝)의 악비(岳飛)장군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우리 사천만 해도 조정에서는 강토를 굳건히 지킨 대충신을 무고하게 몇명이나 죽였읍니다.]

호북인이 물었다.

[그분이 누구신지요? 가르쳐 주실 수 있읍니까?]

[몽고놈들은 우리 사천을 십여 년 동안 공격했는데 우리는 모두 여개여 대수(大帥)를 생불(生佛)처럼 의지하며 강토를 지켰읍니다. 그러나 황상께서는 간신 정대전(丁大全)의 말을 믿어 여대수가 무슨 모반을 꾸몄다고 하여 사약을 내려서 그에게 자살하도록 했읍니다. 그리고는 나약한 간신의 무리가 와서 원수가 되었읍니다. 후에 달자놈들이 공격해 오자 사천은 함락되고 말았읍니다. 군진에 있던 장군과 병졸들은 모두 여대수의 옛 부하로, 힘껏 싸우다가 전사했읍니다. 그러나 원수란 사람은 싸움이 일어나도 병사를 조달하지 않고 장수들을 파견하지도 않아 자연히 그들을 막아낼 수가 없게 되었지요. 정대전.진대방(陣大方) 등의 간악한 무리들은 그 나약한 원수놈을 여전히 비호해서 오히려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왕유충(王惟忠) 장군을 적과 내통했다는 죄를 뒤집어씌워 그의 모든 가족을 서울로 잡아 가고 왕장군의 목을 베었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끝내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사람들은 모두 탄식을 했다. 광동인은 화가 치밀었다.

[국가의 대사가 그놈의 간신배 손에서 망쳐지다니......, 듣자 하니 조정에 세 명의 간신이 있다고 하던데 그 중 정대전이 으뜸 간다고 합디다.]

얼굴이 깨끗한 소년은 계속 옆에서 지켜보며 아무 말이 없다가 이때 끼어들었다.

[네 맞습니다. 조정의 간신으로는 정대전, 진대방, 호대창(胡大昌)등 세 명이 으뜸입니다. 임안(臨安)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 가운데 <대(大)>자에 일점을 더해서는 정견전(丁犬全), 진견방(陳犬方), 호견창(胡犬昌)이라 부르고 있지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서 웃음을 터뜨렸다. 사천인이 입을 열었다.

[당신의 말투를 들어 보니 경도(京都)인 임안 사람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왕유충 장군이 처형당할 때의 광경을 우리들에게 말해주지 않겠읍니까?]

[제가 직접 보았읍니다. 왕장군께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눈하나 깜짝하시지 않고 위풍당당하셨읍니다. 오히려 간신인 정대전과 진대방이 국가를 망치고 백성을곤경에 빠트렸다고 꾸짖었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물었다.

[왕장군은 분명히 진대방의 손에 해를 입었읍니다. 왕장군은 포승에 묶여서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은 후 반드시 옥황상제에게 이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겠다고 크게 외쳤읍니다. 관연 진대방은 집에서 급사하였고, 그의 수급(首級)은 임안 동문의 장대에 높이높이 걸렸읍니다. 그처럼 높은 곳은 원숭이라도 기어오르지 못하는데 사람이 어찌 올라갈 수가 있겠읍니까. 만약 옥황상제께서 천신천장(天神天將)을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읍니까?]

사람들은 이상한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소년이 말했다.

[이 일은 임안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결코 내가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임안에 한번 가셔서 물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사천인이 말했다.

[이 소년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대방을 죽인 사람은 결코 천신천장이 아니고 걸출한 영웅입니다.]

그 소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진대방의 조정의 고관으로, 집에는 많은 사병(私兵)이 있어서 주위를 엄밀히 방어하는데 보통 사람이 어찌 들어갈 수가 있읍니까? 또한 이 간신의 수급이 높은 장대 끝에 걸렸는데 날개가 있지 않고서는 이같이 될 수가 없읍니다.]

[재주가 비범하신 기인협사(奇人俠士)가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면 정말로 믿기 어렵지요.]

소년은 이상한 듯 말했다.

[그러면 노형께서는 그 영웅이 진대방의 수급을 장대 끝에 매다는 것

을 직접 보셨나요? 만약 보셨다면 어떻게 보시게 되었는지요?]

그 사천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왕유충 장군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왕장군이 체포될 때 그는 밖으로 도망쳐 피해 있었읍니다. 조정의 사악한 무리들은 왕장군 집안의 뿌리를 뽑아 화근을 없애려 부하를 보내서 그 아들을 추격했읍니다. 그 왕장군의 아들도 군관이어서 비록 무예를 했지만 중과부적으로 곧 그들에게 추격당해 붙잡히게 되었읍니다. 이때 적수공권의 구원자가 한 분 나타나자 수십 명의 추격자들은 바람에 꽃잎이 흩어지듯 떨어져 나갔답니다. 소왕장군(小王將軍)은 아버지가 나라를 지키다가 간신배의 모함에 빠지게 된 경위를 그에게 말했읍니다. 이 대협(大俠)께서는 밤 동안 임안에 달려가서는 왕장군을 구하려 했지만 결국 이틀의 차이로 왕장군은 이미 처형이 되셨읍니다. 이 대협께서는 매우 화가 나서 그날 저녁 진대방의 목을 베었던 것입니다. 그 동문의 장대 끝이 비록 높아서 원숭이조차 오를 수 없다고 하였지만 대협께서는 가볍게 한걸음에 올라가서 그의 수급을 걸고서 내려왔읍니다.]

광동인이 물었다.

[그 대협이 누구신가요? 어떻게 생겼나요?]

[나도 대협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단지 그가 팔이 하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모습......, 모습은 매우 이상합니다. 그는 한 마리의 말을 타고, 또 한 마리의 말을 끌고 다니는데 그 말의 등에는 생김새가 괴상한 큰 새가 앉아 있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모습이 호탕한 사나이가 말했다.

[맞아요. 그 사람은 바로 강호에서 이름을 날리는 저 유명한 <신조협>입니다!]

사천인이 물었다.

[그분을 <신조협>이라 부른다고요?]

[네, 그 대협은 의로운 일을 행하지만 결코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강호의 사람들은 그가 한 마리 괴상한 새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별명을 지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조협>입니다. 그는 <대협>이라는 두 글자가 자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신조협>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하는 행동으로 보자면 <대협>이라는 호칭이 어찌 그에게 어울리지 않겠읍니까? 그에게 만약 대협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그 말이 어울리겠읍니까?]

미모의 젊은 부인이 돌연 말을 막았다.

[당신도 대협이고 나도 또한 대협입니다. 흥, 대협이 너무나 많군요.]

사천인은 다시 엄숙하고 늠름하게 말했다.

[이 젊은 부인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강호상의 일은 제가 비록 모른다고 하지만 그 신조대협께서는 왕장군의 생명을 구하고자 강서(江西)에서 임안에 이르기까지 4일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달렸읍니다. 그가 비록 왕장군과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단지 그의 충성스런 마음이 간신배에게 모함을 받아 해를 입는 것이 애석해서 그처럼 자신의 위험은 돌보지도 않고 왕장군의 억울함을 풀어 주려 하였는데 당신은 어찌 그를 대협이라 하지 않습니까?]

젊은 부인은 흥, 소리를 내며 그 말에 다시 반박을 하려 하자 그녀의 옆에 있던 소녀가 말했다.

[언니, 그 영웅께서 그 같은 일을 하셨다면 그것은 당연히 <대협>이라 불러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명쾌하고 부드럽게 울렸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그리고는 고개를 사천인에게 돌려서 말했다.

[당신은 어찌 이처럼 똑똑하게 알 수 있읍니까? 혹시 거짓말을 들은 것은 아닌지요? 강호상의 소문은 십중팔구 믿을 수가 없읍니다.]

사천인은 잠시 동안 생각을 하더니 정색을 하며 말했다.

[저의 성은 왕(王)입니다. 왕유충 장군은 바로 저의 아버님이십니다. 소인의 생명은 신조협께서 구해 주셨지요. 소인은 황제께 죄를 범하여

조정에서는 저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읍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해 준 은인의 명성을 알린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실을 숨김 없이 말하겠읍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 말을 듣고서 모두 멍청해졌다. 광동인은 엄지를 위로 치켜 세우고는 큰소리로 말했다.

[소왕장군!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나이입니다. 만약 이 중에 뻔뻔스러운 놈이 있어 관가에 가서 당신을 밀고한다면 우리는 그의 목에 칼을 대겠읍니다.]

사람들은 이에 모두들 동의를 표했다. 젊은 부인은 그의 이 말을 듣고는 감히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다.

아름다운 소녀는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불꽃을 바라보면서 정신이 아득해져 중얼거렸다.

[신조대협, 신조대협......]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소왕장군에게로 돌렸다.

[왕아저씨, 그 신조대협의 무공이 그처럼 뛰어나다면 어찌 팔이 하나가 없읍니까?]

그 젊은 부인의 표정이 홱 변하며 입술을 삐죽거려 마치 무슨 말을 하려는 듯했으나 참고 있었다. 소왕장군이 말했다.

[나도 신조대협의 이름조차 물어 보지 못했는데 어찌 그분의 다른 일을 알 수가 있겠읍니까?]

그 젊은 부인이 <흥> 하는 소리를 냈다.

[자연히 모르겠지요.]

임안에서 온 소년이 말했다.

[신조협이 간신을 죽이는 것을 소왕장군이 직접 보셨다면 자연 천신천장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신 정대전이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푸르러졌는데 이것은 반드시 하늘이 내린 벌 때문입니다.]

광동인이 말했다.

[그가 어찌해서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푸르러졌는지 참 이상한 일이로

군요.]

임안의 소년이 말했다.

[지금까지 임안의 사람들은 모두 정대전을 정견전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그를 <정청피(丁靑皮)>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희고 깨끗한 얼굴을 갖고 있었는데 돌연 하룻밤 사이에 푸른색으로 변해서 이후 푸른색이 사라지지 않고 유명한 의원조차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황상께서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죠......있는 힘을 다해 황상께 충성하고, 국사를 걱정해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더니 안색이 푸른색으로 변했읍니다. ......그러나 임안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국가를 망치고 백성을 괴롭히는 이 간신에게 옥황상제께서 천장(天將)을 보내서 그의 얼굴을 때려서 푸르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광동인은 웃으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그거 참,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욱 이상하군요.]

호탕하게 생긴 사나이가 돌연 하하, 하고 크게 웃으며 넓적다리를 쳤다.

[그 일도 신조협이 한 것입니다. 헤헤, 통쾌하다, 통쾌해!]

사람들은 급히 물었다.

[어찌해서 신조협이 한 일입니까?]

그 사나이는 크게 웃으면서 계속해 중얼거렸다.

[통쾌하다, 통쾌해......!]

광동인은 이 일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주인에게 술을 더 가져오라고 해서는 사나이에게 술을 권했다.

그 사나이는 술을 한 사발 마시고서 더욱 호탕해져서 큰소리로 말했다.

[이 사건은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요. 저도 약간의 공로가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신조협이 돌연 임안에 오셔서 저에게 패거리를 거느리고 임안 전당현(錢塘縣)의 아문에 있는 포졸들을 모두 잡아서는 그들의 옷을 벗겨서 패거리들에게 입혀 포졸로 가장하라고 했읍니다. 패거리

들은 한편 놀랍고 또한 기뻤지만 신조협이 어찌해서 이 같은 분부를 하는지는 알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일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랐지요. 삼경(三更)이 지나자 신조협이 전당현의 아문에 도착해 그 자신도 현관(縣官)의 복장을 갖추고는 정당에 앉아서 경당목(驚堂木)을 치며 말했읍니다. <간신배 정대전을 데리고 오너라!>]

그는 이 말을 마치고 침을 뱉고서 술을 들이켰다. 광동인 말했다.

[노형께서는 그때 임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요?]

그 사나이는 그를 한눈으로째려보며 큰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을 했겠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서 본전이 안 드는 장사를 했소이다.]

광동인은 겁을 집어먹고서 감히 다시 묻지 못했다. 사나이가 다시 말했다.

[그때 나는 <정대전>이라는 세 글자를 듣고서 놀라 잠시 생각을 했읍니다. <정대전, 그놈은 조정의 재상인데 신조협이 어찌 그를 잡아 왔겠는가?> 신조협이 다시 경당목을 치자 두 명의 사나이가 과연 대신의 복장을 하고 있는 놈을 끌고 나왔읍니다. 저는 일찍이 정대전을 우성도관(佑聖道觀)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때 그를 보고는 누가 정대전인지 얼른 알 수가 없었읍니다. 그는 놀라서 온몸을 벌벌 떨면서 꿇어앉으려 해도 앉을 수가 없었읍니다. 한 사나이가 그의 다리를 치자 그는 땅에 나뒹굴었읍니다. 하하, 통쾌하다! 신조협이 그에게 물었지요. <정대전, 너의 죄를 알겠느냐?> 정대전이 말했다. <모르겠다!> 신조협이 화를 냈읍니다. <너는 자신을 위해서 충신을 죽이고 백성을 해쳤으며 적과 내통해 국가를 망쳤다. 이 모든 간악한 일들을 모두 나에게 말해라.> 정대전이 다시 대꾸했지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감히 대신에게 이처럼 무례하다니 네놈은 왕법도 모르느냐?>,<너는 왕법을 알겠구나. 여봐라, 이놈에게 곤장 40 대를 쳐라!> 패거리들은 원래 이 간신을 싫어했기에 이때 더욱 힘을 가해서 곤장을 쳤지요. 이 간신은 몇 번씩 기절하며 계속해 용서를 빌었읍니다. 신조협이 그에게 한마디 물으면 그도 한마디 대답을

하면서 다시는 감히 부인하지 못했읍니다. 신조협은 종이와 붓을 가져오게 해서는 그에게 자인서를 쓰도록 했읍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자 신조협은 우리들에게 그의 궁둥이와 따귀를 때리라고 명령했지요.]

그 아름다운 소녀는 가볍게 웃으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재미있는데!]

그 사나이는 다시 꿀꺽꿀꺽 술을 들이켰다.

[네 그래요. 실제 매우 재미있었읍니다. 정대전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인서를 썼읍니다. 그러나 그가 우물거리며 천천히 써 나가자 신조협은 계속 소리쳐 재촉했지요. 그래도 그는 결코 빨리 쓰려고 하지 않았읍니다. 잠시 후 날이 밝아 오자 대문 밖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도착했읍니다. 아마도 이 사실이 밖으로 새나갔던 모양입니다. 신조협은 화가 치밀었읍니다. <그놈의 머리를 베어라!> 그리고 제게 눈짓을 했읍니다. 나는 신조협이 결코 가벼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을 알고는 칼을 뽑아서 정대전의 목을 내리쳤읍니다. 그러나 칼을 휘둘러 내려치기 전에 공중에서 원을 그려 그의 목을 내려친 것은 칼날이 아니고 칼등이었읍니다. 그러나 정대전은 너무나 놀라서 얼굴빛이 돌연 푸르게 변하며 기절해 버렸읍니다. 신조협은 하하하, 하고 웃으며 말했읍니다. <이만하면 그놈에게는 충분하다. 죽일 필요는 없다. 조정에도 훌륭한 법이 있음을 보여 주자.> 그리고는우리들에게 포졸의 옷을 입은 채로 옆 문으로 빠져나가 각자 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읍니다. 그 자신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읍니다. 듣자 하니 다음날 신조협은 친히 황궁에 들어가서 정대전이 쓴 자인서를 황제에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대전이 어떠한 교묘한 말로써 아첨을 떨어 황제가 그를 믿고, 또한 재상으로 삼았는지를 알지 못하겠읍니다.]

소왕장군이 탄식했다.

[만약 황제께서 어리석고 무도하지 않다면 간신배가 날뛰지 못할 것입니다. 진회(秦檜)가 가더니 한탁주(韓 胄)가 오고,한탁주가 가니 사미원(사彌遠)이 오고,사미원이 가자 다시 정대전이 왔읍니다. 지금 가사도

(賈似道)가 점점 득세를 하는데 이 또한 나라를 해치는 무리가 아닙니까! 아, 간신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니 우리의 대송강산은 보전하기가 점점 어렵겠읍니다]

사나이가 말했다.

[신조협을 재상으로 삼는다면 능히 몽고의 달자를 물리치고 천하가 평온해질 수 있읍니다.]

미모의 젊은 부인이 끼어들었다.

[흥, 그를 재상으로 삼는다고?]

사나이가 화를 냈다.

[그가 되지 못한다면 설마 당신을 재상으로 하자는 말이오?]

젊은 부인도 노기가 충천했다.

[당신은 누구이길래 감히 나에게 이처럼 무례하오?]

그녀는 그 사나이가 손에 발화철봉(撥火鐵棒)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땅에서 땔 나무를 한개 집어서 발화봉을 쳤다. 그 사나이는 손이 떨리며 반신이 마비됨을 느꼈다. 탕, 하는 소리에 화봉이 손에서 떨어지며 불꽃이 사방으로 튕겨서 그의 긴 수염이 타 버렸다. 사람들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이 사나이는 성질이 난폭했으나 그녀의 무공이 대단함을 알고서 겁을 먹고는 단지 수염을 쓰다듬으며 술조차 마실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소녀가 말했다.

[언니, 사람들은 그 신조협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매우 좋아하는데 어찌해서 언니는 계속 듣기 싫어하나요?]

그녀는 그 사나이에게 고개를 돌려서 애교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 너무 불쾌하게 생각지 마세요.]

사나이는 원래 매우 화가 나 있었으나 그녀의 달콤한 미소를 보자 돌연 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무슨 말로 사과를 해야 좋을지 몰라서 망설였다. 소녀가 다시 말했다.

[아저씨, 신조협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나요?]

그 사나이는 젊은 부인을 쳐다보며 잠시 망설였다.

[아저씨가 말을 해야지 우리 언니에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신조협의 나이는 얼마나 되는지요? 그의 신조는 예쁜가요?]

그녀는 사나이의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그 젊은 부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언니, 그의 신조와 우리의 한쌍의 백조(白조)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젊은 부인이 말했다.

[우리의 백조 말이냐? 천하에 어떤 수리도 우리의 쌍조를 능가하지는 못한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무림의 사람은 반드시 하늘 밖에 또 하늘이 있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읍니다. 그 신조협의 사람됨이 이같이 훌륭하니 우리의 쌍조보다 좋은 새가 있을 수도 있읍니다.]

[네가 아직 어려서 뭘 알겠느냐? 우리들이 길을 떠날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말을 잘 들으라고 하신 것을 너는 잊지 않았겠지.]

[그러나 언니의 말이 옳지 않을 때가 많아요. 동생, 내 말이 옳은지 아니면 언니의 말이 옳은지 말해 보아라.]

그녀의 옆에 있던 소년은 비록 기골이 장대했으나 얼굴에는 아직 어린 티가 남아 있었다. 그가 잠시 망설였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둘은 큰누나의 말을 잘 듣고 결코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젊은 부인은 이 말에 매우 흡족해 했다.

[그렇지 않니?]

소녀는 동생이 언니를 도와 주는 것을 보고도 결코 화를 내지는 않았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며 고개를 돌려서 그 호탕한 사나이를 쳐다보았다.

[아저씨, 신조협의 이야기를 계속해 주세요!]

그 사나이가 입을 열었다.

[좋아, 아가씨가 듣기를 원한다면 내가 말을 해 주지. 송씨인 나는 원래 별 볼 일은 없지만 당당한 사나이로서 평생 한마디 한마디에 결코 거짓이 없었소. 만약 아가씨가 믿지 못하겠다면 들을 필요가 없지요.]

그 아름다운 소녀는 술병을 기울여 그에게 한잔 가득히 채워 주었다.

[제가 어찌 믿지 못하겠어요? 자, 빨리 이야기 좀 해 주세요!......주인장, 술과 고기 안주를 더 주세요. 우리 언니가 여러 아저씨께 술을 대접해 추위를 쫓고자 하십니다.]

주인은 계속해 대답을 하면서 하인에게 분부했다. 사람들은 점차 얼굴이 밝아지며 모두들 고마와했다. 잠시 후 3 명의 하인이 술과 고기 안주를 가지고 왔다.

미모의 젊은 부인이 엄숙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결코 허튼소리를 하는 손님은 초대하지 않습니다. 주인장, 이 술과 고기의 값은 내가 계산할 수 없읍니다.]

주인은 놀라서 멍청하게 젊은 부인을 쳐다보고 다시 소녀를 쳐다보며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했다. 그러자 그 소녀는 머리에서 금비녀를 뽑아 주인에게 건네 주었다.

[이것은 순금 비녀로 10 여 냥 정도의 은과 같은 값입니다. 이것으로 계산을 하겠으니 다시 술과 양고기를 주세요.]

젊은 부인은 화를 냈다.

[동생아, 너 나를 화나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금비녀와 진주목걸이는 1 백여 냥의 은값인데 어찌 이렇게 마음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술을 대접하느냐? 양양으로 돌아가 어머니께서 물어 보시며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그 소녀는 혀를 내밀고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길에서 그것을 떨어뜨렸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씀드리면 되지요.]

[나는 너처럼 거짓말을 하지는 못하겠다.]

소녀는 젓가락을 내밀어 고기를 집어 입 속에 넣으면서 말했다.

[먹을 것은 먹어야지 어떻게 물릴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사양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사람들은 그들 자매가 싸우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꼈다. 또한 이 소녀가 천진난만한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술잔을 들어서 몇 모금 마시며 속으로 그녀를 응원해 주었다. 그 젊은 부인은 눈을 감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아 버렸다. 그 소녀가 웃으며 말했다.

[송아저씨, 우리 언니가 잠을 자니 큰소리로 떠들어서 우리 언니를 깨우지는 마세요.]

젊은 부인은 눈을 뜨며 화를 냈다.

[내가 언제 잠을 잤느냐?]

[그것 참 잘됐네요. 더 이상 작은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젊은 부인은 큰소리로 말했다.

[양아, 내 너에게 말하겠는데 네가 또 내 속을 썩이면 내일 아침부터 나는 너하고 함께 가지 않겠다.]

[나도 무섭지 않아요. 나와 동생이 함께 가면 되지.]

[동생은 나하고 함께 갈 거야.]

[동생! 너는 누구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

그 소년은 매우 난처해 했다. 큰누나를 도우면 둘째 누나가 화를 낼 것이고 둘째 누나를 돕자니 다시 큰누나가 화를 낼 판이었다.

[어머니는 우리들 세 사람이 함께 가야지.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읍니다.]

그 젊은 부인은 잔뜩 화가 나서 여동생을 노려보았다.

[네가 이처럼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네가 어렸을 때 나쁜 사람에게 잡혀 갔어도 그처럼 열심히 너를 찾아서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것이다.]

소녀는 그녀의 이 말을 듣고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젊은 부인의 어깨

에 살며시 기대었다.

[언니, 화내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젊은 부인은 기세가 등등해서 모르는 체했다.

[언니가 웃지 않으면 내가 간지럼을 피울 거예요.]

젊은 부인은 오히려 고개를돌려 버렸다. 소녀는 오른손을 뻗어 부인의 등뒤에서 돌연 그의 겨드랑이를 잡으려 했다. 부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왼손으로 뒤쪽을 뿌리쳤다. 소녀는 왼손을 뻗어서 그녀의 손목을 잡고는 오른손은 여전히 앞으로 내밀었다. 부인의 팔꿈치가 흔들거리며 동생의 팔을 누르려고 했다. 소녀의 손이 원을 그리면서 부인의 압박을 피하려 하자 그 모습이 매우 보기가 좋았다. 잠시만에 두 사람은 서로 7,8 동작을 펼쳤다. 그들이 사용한 것은 모두 기묘한 소금나수법(小擒拿手法)이었다. 소녀도 결코 언니의 겨드랑이를 잡을 수 없었지만 부인도 결코 동생의 손목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때 저쪽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단한 공부다!]

자매는 동시에 손을 멈추고 구석을 쳐다보자 한 사람이 몸을 구부린 채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묻고는 조용히 잠을 자고 있을 뿐이었다. 자매가 불 옆에 앉아 있을 때도 그는 이처럼 자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결코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도 이들 자매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리는 그가 낸 것 같지 않았다. 소년이 말했다.

[큰누나, 둘째 누나! 아버지께서 우리들은 함부로 무공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소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동생아, 네 말이 정말로 옳다.]

하고 고개를 돌려서 호탕한 사나이를 쳐다보고 말했다.

[송아저씨, 미안합니다. 언니와 잠시 말다툼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잊었으니 자, 빨리 해 주세요.]

성이 송씨인 사나이가 말했다.

[나는 결코 허황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지난 얘기를 해 주려는 것이라오.]

[네, 송아저씨가 말하는 것은 당연히 사실입니다.]

사나이는 술을 한잔 들이켰다.

[아가씨가 이같이 많은 술과 고기 안주를 먹게 해 주셨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만약 엊저녁 주사위 놀이만 패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가씨에게 보답을 했을 텐데...... 내가 신조협을 알게 된 것은 이 소왕장군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신조협이 나의 생명을 구해 주셨읍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결코 무공을 사용해서 구해준 것이 아니고 돈으로 나를 구해 주셨지요.]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거 참 이상하군요. 그가 돈으로 당신을 사들였다고요? 당신은 얼마 정도의 값어치로 샀을까? 은 한 근?]

그 사나이는 크게 웃었다.

[내 몸의 살점도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하면 비싼 것입니다. 신조협께서 2천 냥의 은을 쓰셨으니까요. 5년 전 내가 산동(山東)의 제남(濟南)에서 불만을 품고 그 지방 깡패 한 명을 죽였읍니다. 사람을 죽이며 나 또한 마땅히 죽어야 하므로 무슨 말을 하겠읍니까! 며칠이 지난 뒤 역성현(歷城縣)의 현관이 극악한 토호(土豪)를 신문하는데 제가 끌려 나가서 곤장을 맞으며, 토호가 재산을 모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납치해 돈을 요구하고, 부녀자를 희롱하며 도박을 한 모든 나쁜 일을 내가 했다고 말하게 하고는 즉시 그 토호를 풀어 주었읍니다. 뒤에 옥문을 지키는 포졸이 말하기를 원래 그 토호는 1천 냥을 현관에게 주었고, 현관은 그의 죄명을 모두 나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말해 주었읍니다. 나는 이미 죽을 죄를 지어 죽게 되었으니 다시 죽을 죄를 지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두 사람이 일을 꾸민 것이었읍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서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 옥 안에서 큰소리로 울면서 부패한 현관을

욕했으나 무슨 소용이 있겠읍니까? 며칠이 지난 후 나는 다시 불려 나가서 재심을 받았는데 이 토호는 다시 내 옆에 꿇어 앉아 있었읍니다. 나는 험악하게 욕을 했읍니다. <이 썩을 놈아, 재물을 탐내어 법을 어겼으니 뒤에 좋게 죽지는 못하리라!> 그러나 그 부패한 현관은 웃고만 있었읍니다. <송오(宋五), 너는 그처럼 화를 낼 필요가 없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알아 보니 너는 과연 억울하다. 그 깡패는 결코 네가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놈이 죽인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 토호를 가리켰어요. 곧 포졸에게 명령해서는 그 사람의 주리를 틀면서 그가 깡패를 죽였다고 자백하라고 강요하면서 나를 풀어 주었읍니다. 나는 잠시 영문을 몰랐읍니다. 그 깡패는 분명히 내가 죽였는데 어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죄를 뒤집어쓸 수 있을까 말입니다.]

소녀는 이 말을 듣고서 소리를 질렀다.

[그 현관은 정말로 멍청하군요.]

송오가 말했다.

[그는 결코 멍청한 것이 아니었읍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집사람에게 이 말을 했읍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죄를 지은 이후 우리 집사람은 매일매일 길가에 나가서 통곡을 했읍니다. 때마침 이때 신조협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그 원인을 물었읍니다. 신조협은 그 이유를 듣고 까닭을 자세히 알았읍니다. 그러나 그는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당장 그 부패한 관리를 상대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2천 냥을 주어서 나를 구하라고 했읍니다. 3개월이 지난 후 현에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현관이 매우 화가 나서 피를 토했다고 합니다. 그 전날 밤 강도에게 4천 냥을 강탈당했기 때문이지요. 나는 확실히 신조협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자 감히 이곳에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곧바로 강남의 임안부로 이사를 갔읍니다. 1년이 지난 후 누군가 나에게 전하기를, 해변에서 팔이 하나 없는 사나이가 한 마리 괴상한 새를 데리고 멍청하게 파도를 바라보며 며칠간을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더군요. 급히 달려갔더니 과연 그가 서 있었읍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는 감사를 표했지요.]

젊은 부인이 갑자기 물었다.

[당신이 무슨 감사를 해요? 그는 2천 냥을 내고서 4천 냥을 벌었으니 2천 냥을 이익 본 것이 아닙니까? 성이 양(楊)인 그 사람이 어찌 밑지는 일을 할 턱이 있겠읍니까?]

소녀가 말했다.

[성이 양이라고? 언니, 신조협의 성이 양입니까?]

젊은 부인이 말했다.

[나도 몰라. 나는 결코 양씨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내가 분명하게 들었는데두요!]

[그러면 네가 확실히 잘못 들었을 것이다.]

[좋아요! 언니하고 계속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 신조협은 2천냥을 벌어서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는 정직한 대협인데 설마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아가씨의 말이 옳습니다!]

그 소녀가 물었다.

[송아저씨, 신조협이 바다를 쳐다보며 무엇을 했나요? 그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송오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그 일은 나도 감히 물어 볼 수가 없었읍니다]

소녀는 2개의 나뭇가지를 불 속에 집어던지고는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신조협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풀어 주고 도와 주셨는데 설마 그 자신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라고? 그는 왜 멍청하게 바다를 쳐다보고 있었을까?]

서쪽에 앉아 있던 한 중년 부인이 돌연 말했다.

[저에게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그녀가 어느날 우연히 신조협을 본적

이 있었대요. 그때도 그는 멍청하게 바다를 쳐다보며 이상한 모습으로 있어서 직접 그에게 물어 보았다고 합니다. 신조협이 말하기를, <내 아내가 바다 건너편에 있어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오.> 라고 하더라는군요.]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아!> 하는 탄성을 질렀다. 소녀가 말했다.

[원래 그의 아내가 있다면 어찌해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의 재주가 뛰어난데 왜 바다를 건너가 그녀를 찾지 않습니까?]

중년 부인이 말했다.

[제 사촌 동생은 원래 빼어난 미인입니다. 신조협은 그녀의 어머니를 구하고 아버지를 죽였읍니다. 제 동생이 속으로 신조협을 좋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그녀는 건실한 농부에게 시집가서 잘살고 있지요. 신조협이 그녀에게 많은 돈을 준 것은 시간이 흘러도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소녀가 말했다.

[신조협이 그녀의 어머니를 구하고 어버지를 죽였다니 그 일은 정말로 이상하군요.]

미모의 젊은 부인이 말했다.

[그사람의 성격은 매우 이상해서 좋을 때에는 사람의 생명을 구해 주지만 악할 때에는 칼을 휘둘러 사람을 죽인다고 그래요. 그는 어릴 때부터 그 모양이었다죠!]

소녀가 말했다.

[그가 어릴 때부터 그 모양이라니요? 언니가 그것을 어찌 알아요?]

[내가 잘 알지.]

소녀는 계속해 질문을 해서 그 이유를 캐물었으나 부인은 결코 말하지 않았다. 소녀가 말했다.

[좋아, 말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아요. 나도 이제 듣고 싶지 않으니......! 오히려 말을 한다고 해도 내가 더 이상 믿지 못하겠어요.]

소녀는 고개를 돌려서 중년 부인을 쳐다보았다.

[아주머니, 당신 사촌 동생의 일을 저에게 들려주시지 않겠읍니까?]

[네, 좋습니다. 저와 동생은 사촌지간으로 제가 열 일곱 살 위입니다. 그 애의 어머니가 바로 저의 고모......]

소녀가 웃으며 말했다.

[어버지는 당신의 고모부가 되겠군요.]

[그런데 말이 너무 복잡해도 아가씨는 싫증을 내지 마세요. 고모부는 하남(河南) 사람으로, 그 해 몽고의 달자들이 황하 지방에 쳐들어왔을 때 그는 포로로 잡혀 가 노예로 살았읍니다. 제 고모님은 사촌 동생을 데리고 밥을 빌어 가면서 하남에서 산동까지, 산동에서 산서까지 길을 찾아 헤매며 고모부의 행방을 찾았읍니다.]

소왕장군이 길게 탄식을 했다.

[만리길을 남편을 찾아 나섰으니 그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읍니까?]

그 중년 부인이 말했다.

[또한 우리 고모와 사촌은 용모가 괜찮아 길을 가기가 더욱더 힘들었읍니다. 두 사람은 진흙을 얼굴에 발라서 나쁜 사람이 예쁜 여자를 보고 생기는 마음을......]

소녀가 돌연 물었다.

[예쁜 여자를 보고 생기는 마음이 어떤 건데요?]

불가에 둥글게 앉아 있던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미모의 젊은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동생, 모르면 쓸데없는 소리를 지껄이지 말아야지. 공연히 여러 사람을 웃기는 말을 하고 그러느냐?]

소녀는 약간 심술이 생겼다.

[내가 모르니까 묻지, 알면 왜 묻겠어요?]

중년의 부인이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이처럼 어려운 말은 아가씨가 모르는 게 좋습니다. ......음, 고모와 사촌은 4 년 동안이나 찾아 헤맸죠. 결국 하늘은 고생하는 사람을 저버리

지 않아 마침내 회북(淮北)에서 고모부를 찾았읍니다. 원래 그는 몽고천호(蒙古千戶) 밑에서 노예가 되어 있었읍니다. 그 천호는 이를 데 없이 흉악해서 우리 고모가 고모부를 찾았을 때는 방금 그에게 다리 하나를 잘린 이후였읍니다. 고모는 가슴이 매우 쓰려서 천호에게 고모부를 집으로 돌려 보내 달라고 애원을 했읍니다. 천호는 승낙을 했으나 고모부를 1백 냥에 사 왔고, 그 동안의 여러 비용을 합쳐 5백 냥을 내지 않으면 차라리 때려서 죽이더라도 결코 놓아 줄 수 없다고 했읍니다. 우리 고모는 다섯 냥조차도 낼 수가 없었는데 어디서 5백 냥을 낼 수가 있겠읍니까? 이래저래 생각을 하다가 결국 자기와 딸이 모두 기생이 되기로 했읍니......]

소녀는 다시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다시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까 두려워서 감히 다시 묻지 못하고 가만히 부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같이 몇 년이 지나자 모녀는 5백 냥의 돈을 모았으나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읍니까? 마침 다행스럽게 손님들이 그 모녀가 남편이고 아버지인 그를 구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알고는 그들에게 돈을 더 주게 되었읍니다. 모녀는 갖은 굴욕과 고생을 해 가며 마침내 5백 냥을 모았읍니다. 두 사람은 천호부(千戶府)에 가서는 돈을 지불하고 일가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기쁘고 희망차게 신년을 맞으리라 생각했지요.]

소녀는 이 말을 듣고 그 모녀처럼 좋아했다. 부인의 말이 계속되었다.

[그 몽고의 천호는 5백 냥을 받고서 고모부를 나오게 해 그들 부부가 상면하도록 했읍니다. 우리 고모의 일가 세 사람은 천호에게 고개를 숙여 작별 인사를 했는데 그 천호가 사촌 동생을 보고 흑심이 생겨서 말했읍니다. <좋다, 너희들이 가지고 온 속죄금 5백 냥을 다시 가져가거라!> 우리 고모는 잔뜩 겁을 먹었읍니다. 5백냥은 이미 천호의 회계에게 주었는데 어찌 돌려준단 말인가? 그 천호의 얼굴이 변했읍니다. <나는 당당한 몽고의 천호로 어찌 천한 노예의 돈을 받겠느냐?> 우리 고모는 두렵고 가슴이 아파서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큰소리로 울었읍니다. 그러

자 다시 천호가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밤이니 너희들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러나 네놈이 안 돌아 올지도 모르니 너희들의 딸은 여기에 잠시 놓겠다.> 우리 고모는 그가 좋지 않은 의도가 있음을 알고는 어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 천호는 부하를 불러서 고모 부부를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 고모는 딸을 버릴 수가 없어서 천호부 앞에서 동네가 시끄럽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녀가 굴욕을 당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때 회북의 땅은 이미 우리 송나라의 것이 아니어서 몽고 관병이 한인을 죽이는 것은 파리를 죽이기보다 쉬웠으니 누군들 감히 나서서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고모부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호 어르신께서 우리 딸을 아주 잘 보신 모양인데 이것은 다시 올 수 없는 행운이오. 당신은 왜 우시오?> 원래 그는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해서 노예 근성이 온몸에 베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5백 냥이 어디서 생겼는지 물었습니다. 고모님은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으나 너무나 재촉을 하자 마침내는 모든 사실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고모부는 버럭 화를 내면서 우리 고모가 정절을 지키지 못했고, 부도(婦道)를 위반해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걸어서 이처럼 천한 일을 했으니 당장 이혼장을 써서 이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탄식을 하면서 그 고모의 일생이 불행한 사건의 연속이라고 하였다. 중년 부인이 말을 이었다.

[우리 고모는 7,8년 동안 갖가지 고생을 해서 겨우 이 모양이 되자 더 이상 살 마음이 생기지 않아 숲속으로 들어가 허리띠로 목을 매었습니다. 하늘도 눈이 있으셔서 마침 신조협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고모님을 구해 주시고 그 이유를 물어서 듣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저녁 천호부에 들어가서 그 천호가 막 내 사촌을 위협하고, 고모부는 옆에서 그녀가 천호의 뜻에 따르기를 종용하며, 몇 년 동안 기생 노릇을 하여 다시는 양가의 규수가 될 수 없으니 정절이니 정조니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었지요. 신조협은 한주먹에 고모부를 때려 죽이고

천호를 붙잡아서는 회하에 빠뜨리고 우리 사촌 동생을 구해 주셨읍니다. 그는 고모가 몸을 팔아서 지아비를 구하고자 한 것은 보통의 부인보다도 훨씬 훌륭하다고 말했읍니다. 또 그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바로 은혜를 배반하는 비겁한 무리인데, 우리 고모부는 이 두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으니 그의 손으로 죽였다고 말했읍니다.]

소녀는 이 말을 듣고서 정신이 아득해져 술을 한모금 마셨다.

[당신들은 모두 신조협을 보았군요. 저는 운이 없어서 아직 보지 못했읍니다. 만약 그를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능히 그의 몇 마디를 들을 수 있을 텐데......그러면 나......, 나는 무엇보다도 기쁘련만!]

[젊은 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의 무공이 비록 대단하지만 아버지와 비교하면 아직도 멀었다. 너는 아직 세상 일을 잘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럴 듯하게 이야기하면 곧 대단하게 생각한다. 사실 너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있고, 안겨도 보았다.]

소녀는 얼굴을 붉혔다.

[언니라는 사람이 이처럼분명하지 않으니 누가 믿겠어요?]

[네가 믿지 않아도 좋다. 그 무슨 신조협이라는 사람은 성이 양이고, 이름은 과이다. 어릴 적에 우리의 도화도에 산 적이 있지. 그의 팔은 바로......, 바로...... 음, 네가 태어나고 채 하루도 되기 전에 그는 너를 안았었지.]

그 미모의 젊은 부인은 바로 곽부이고 그 소녀는 그녀의 여동생 곽양(郭襄)이고, 소년은 곽양의 쌍둥이 남동생인 곽파로(郭破虜)였다. 어느덧 10여 년이 흘러 곽부는 이미 야율진과 결혼했고, 곽양과 곽파로는 이미 장성한 것이었다. 남매 셋은 부모의 명령을 받아 진양(晋陽)에 가서 전진교의 기숙(耆宿)인 장춘자 구처기에게 양양에서 개최되는 영웅대회에 참가해 달라고 요청하고서 이날 진양에서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물이 얼고 눈이 내려서 이곳 풍릉 나룻터에 묶여 이같이 한밤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다.

곽양은 얼굴 가득 기쁨에 넘쳐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가 태어난 지 채 하루도 되기 전에 그가 나를 안아 주었다고?]

고개를 돌려 곽부에게 말했다.

[언니, 그 신조협이 어렸을 때 정말로 우리 도화도에서 살았나요? 어찌해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네가 뭘 알겠느냐?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코 너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니......]

원래 양과의 팔이 끊어지고 소용녀가 중독된 것은 모두 곽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언급할 때마다 곽정은 크게 화를 냈다. 딸이 이미 시집을 갔지만 그는 여전히 화를 내서 곽가(郭家)는 더이상 이 일을 언급하지 않아 곽양과 곽파로는 한 번도 양과의 이 일을 들어 보지 못했던 것이다. 곽양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와 우리 집은 친분이 있었는데 어찌 한 번도 내왕이 없었나요? 음, 삼월 십오 일 양양성에서 영웅대회가 열리니 그가 반드시 참석하겠지요?]

곽부가 말했다.

[그 사람은 행동이 괴팍하고, 성격이 오만해서 아마도 오지 않을 것이다]

[언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게 좋겠어요] 하며 고개를 돌려서 송오를 쳐다보았다.

[송아저씨, 초대장을 가지고 신조협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신조협은 구름을 타고 천하를 방랑해 행적이 모호합니다. 그가 일이 있으면 형제들은 찾아와 말로 분부를 내리지만 우리가 그를 찾으려고 한다면 한평생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곽양은 매우 실망했다.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가 어떻게 왕유충의 아들을 구해 주었으며, 진대방을 주살하고, 정대전을 심판하고, 송오를 구해 주었으며, 중년 부인의 사촌 여동생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구해 주었는지의 갖가지 모험담을 듣고서 정신이 아득한데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 그의 품에 안겼다고 언니가 말하자 더욱 가슴이 뜨거워져 그를 한번 만나 보고 싶었는데 그가 아마 영웅대회에 참석하지 않으리라는 말을 듣고는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었다.

[영웅대회의 인물들은 모두 영웅을 볼 수가 없겠구나. 진정한 영웅대호걸이 오지 않으니......]

십귀(十鬼)와, 맹수를 부리는 오형제

돌연 끙, 하는 소리와 함께 구석에 있던 한 사내가 몸을 뒤집어 일어섰다. 바로 지금까지 몸을 둥그렇게 구부려 자고 있던 그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귓가에서 윙윙,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윽고 그 사람이 입을 열었다.

[아가씨, 신조협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가 그를 만나게 해 주지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매우 놀랐으나 그의 모습을 쳐다보고는 더욱 이상했다. 그의 키는 4척도 되지 않았으며 몸은 말랐다. 그러나 머리는 컸고, 팔.손.다리가 보통 사람보다 매우 길어서 서로 잘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머리가 보통 사람처럼 잘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몸이 작은 것은 더욱 기이했다. 곽양은 몹시 기뻐했다.

[좋아요. 원래 나는 신조협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솔하게 뵙기를 원한다면 실례를 범할 수도 있었는데 잘 됐군요. 오늘 그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 난장이는 큰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만약 오늘 그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후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왜 그렇지요?]

곽부는 몸을 일으켜 난장이에게 물었다.

[귀하의 높으신 이름이 어찌 되시는지요?]

난장이는 차가운 미소를 흘렸다.

[천하에 나같이 추하게 생긴 사람이 또 있으리오? 당신은 비록 모른다고 해도 돌아가서 부모님께 여쭈어 보면 알 수 있읍니다.]

바로 이때 멀리서 가느다란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서산(西山)의 일굴귀(一窟鬼) 열 가운데 아홉이 왔다. 대두귀(大頭鬼)! 대두귀!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이냐?]

이 말은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이어지며 장난기가 넘쳤다.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하게 들렸다.

그 대두의 난장이는 깜짝 놀라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 순간 펑, 하며 불꽃이 어두워지자 난장이는 종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사람들은 모두 겁을 먹었으나 그가 벌써 물을 뚫고 나간 것을 알았다. 뚫어진 나무조각은 남아 있지 않았다. 그 조각은 그 사람이 뛰어나갈 때 밖으로 튕겨 나갔던 것이다. 곽파로가 소리 질렀다.

[누나, 이 난장이가 대단한데요!]

곽부는 부모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림 중의 인물을 많이 보았는데 이 난장이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해 잠시 멍청하니 아무 말이 없었다. 곽양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무예를 전수해 준 강남칠협 가운데 키가 작은 분이 있지 않아요? 파로야, 함부로 난장이라 부르지 말아라. 아버지가 아시면 크게 꾸중하실라!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그를 반드시 선배님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곽정은 강남칠협의 은덕을 평생 잊지 못하고 어떤 맹인이고 난장이든간에 모두 공손하게 대접했으며 평소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시켰다.

곽파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돌연 후, 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두의 난장이가 다시 옆에 서 있었다. 북풍의 눈보라가 뚫어진 문 사이로 불어 들어와 불꽃이 튀었다. 곽부는 난장이가 손을 써서 동생들을 해칠까 걱정되어 한 걸음 나서서 곽양과 곽파로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 난장이는 대두(大頭)를 흔들어 곽부의 허리 옆으로 머리를 빼고는

뒤에 서 있던 곽양에게 말했다.

[조그만 아가씨, 아까 신조협을 보고 싶다고 했지요? 나와 함께 갑시다!]

[네! 큰언니, 동생, 우리 함께 가지요.]

곽부가 말했다.

[신조협이 무슨 볼 것이 있어? 가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들은 저 분을 알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럼, 내가 잠시 갔다가 돌아올 테니,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

송오가 돌연 일어났다.

[아가씨,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바로 서산 일굴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간다면 아마 좋지 않은 일이......]

그 난장이는 입이 찢어져라 흉악하게 웃었다.

[네가 서산 일굴귀를 아느냐? 네가 어찌 우리가 좋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단 말이냐?]

돌연 왼손을 날려서 송오의 어깨를 쳤다. 퍽, 하는 소리에 송오는 뒤로 밀려가서는 벽에 부딪쳐 곧 기절해 버렸다.

곽부는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제 동생은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찌 이처럼 눈 오는 밤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며 고개를 돌려서 동생을 꾸짖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갈 수 없다!]

바로 이때에 그 실같이 가느다란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서산 일굴귀 열 가운데 아홉이 왔다. 대두귀, 대두귀. 왜 지금까지 오지 않느냐? 걱정되는구나!]

이 음성은 잠시 멀리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고, 혹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다. 돌연 앞에서, 뒤에서, 동에서, 서에서 들려와 모든 사람들은 모골이 송연해졌다.

곽양은 이미 마음을 결정했다.

(오늘밤 비록 요마귀(妖魔鬼)를 만난다고 해도 나는 그 신조협을 한번 만나 보아야 하겠다.)

[선배님, 제발 저를 데리고 가 주세요.]

하고 말하고는 두 발을 모아서 그 난장이가 대문에 뚫어 놓은 구멍으로 빠져나갔다. 곽부가 급히 소리 질렀다.

[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하며 손을 내밀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으나 그 동작이 너무 빨라서 잡지 못하자 대문을 통해서 그녀를 쫓으려 했다.

그녀는 대문 앞에 나서자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 난장이의 몸이 문을 막고 있어서 자기와 그와의 거리는 불과 수 촌이고, 그의 코끝이 거의 자기의 가슴에 닿을 지경이었으니 어찌 그녀가 놀라지 않겠는가? 급히 뒤로 물러나 한차례의 차가운 눈보라가 온몸을 휘감자 그 사이에 대두의 난장이는 사라져 버렸다. 곽부가 소리쳤다.

[양아, 돌아오너라!]

문 앞으로 뛰어나갔지만 단지 멀리서 큰 웃음소리만 들려올 뿐, 어디에서도 곽양의 그림자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난장이는 곽부가 놀라서 뒤로 물러서자 몸을 돌려서 다시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흐음, 좋다! 어린 아가씨가 겁도 없구나.]

곽양의 손목을 잡고 그는 앞으로 달려갔다. 그는 보통의 경신 무공과는 다른 것을 사용해, 마치 한 마리의 큰 개구리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앞으로 나갔다. 몸은 비록 작았지만 매번 뛸 때마다 매우 멀리 갔다.

곽양은 왼쪽 손목을 그에게 끌며 마치 띠에 묶인 것처럼 뼛속까지 통증이 전해 오자 가슴이 쿵쿵 뛰면서 이 난장이가 자기를 잡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곽정과 황용에게 직접 무예를 전수받아서 무공은 이미 갖추고 있어 처음에는 난장이와 함께 뛰었으나 나중에는 그에게 완전히 의지해서 그와 함께 뛰어올랐다가 떨어지곤 했다.

이처럼 얼마를 가자 돌연 산 뒤에서 사람의 말 소리가 들려왔다.

[대두귀, 어째서 이처럼 늦게 왔지? 하하, 아름다운 계집아이를 데리고 오셨군요.]

[이 아이는 곽정과 황용의 딸로서 신조협을 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데리고 왔읍니다.]

그 사람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곽정.황용의 아이라고?]

산 뒤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이 음침하게 말했다.

[곧 삼경이 된다. 서둘러 길을 가자!]

말발굽소리가 잠시 들리며 산 뒤에서 수십 필의 말이 나타났다.

이때도 큰눈은 쉬지 않고 내려, 땅 위에 쌓인 눈에서는 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곽양은 수십 필의 말에 모두 9명의 크고 작은 사람이 타고 있고 대부분의 말등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았다. 그 난장이는 2마리의 말을 끌고 와서는 한 마리의 고삐를 곽양에게 주고, 자기도 한 마리에 올랐다.

[가자!]

휘파람소리에 수십 필의 말이 돌연 서북쪽을 향해서 치달렸다.

곽양은 그들 9명 가운데 두 사람의 여자가 있음을 보았다. 한 사람은 매우 늙었으며, 또 다른 사람은 붉은 치마를 입어서 마치 온몸이 타오르는 불 같아서 그녀의 모습은 흰 눈 속에서도 똑똑히 드러났다. 그 나머지 일곱 사람의 모습은 똑똑히 보이지 않았다. 곽양은 잠시 생각에 빠졌다.

(조금 전 이들의 부르는 소리를 듣자 하니 무슨 서산의 일굴귀가 열 가운데 아홉이 왔다고 했었지. 눈앞에 지금 열 명이 있으나 이 사람들이 바로 서산의 일굴귀인 모양이구나. 송아저씨가 내가 그들과 함께 가면 좋지 않다고 말하자 그를 단번에 기절시켰으나 과연 흉악하구나. 그는 나에게 신조협을 보여 준다고 했는데 결코 나를 속이지는 않겠지. 그들이 이미 신조협과 서로 아는 사이라면 분명히 나쁜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순식간에 이미 10여 리를 달렸다. 맨 앞에 있던 사람이 <됐다!> 하고 외치자 수십 필의 말들이 일제히 정지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말을 날려 조그만 언덕을 넘었다가 곧 돌아왔다. 곽양은 그의 모습을 보고는 놀랍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 원래 그도 난장이어서 말에 앉아 있는 상체는 불과 2척이었는데, 수염은 3척 정도로 길어서 말의 배에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얼굴은 주름이 잡히고 두 눈이 찌그러져 매우 고생을 한 듯이 보였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가면 도마평(倒馬坪)까지 30리도 남지 않았다. 강호상에 신조협의 무공이 실로 대단하다고 하니 우선 계획을 세워서 서산 일굴귀의 기세가 꺾이지 않도록 합시다.]

늙은 여자가 말했다.

[큰형님께서 명령을 내려 주세요.]

그 장호자(長호子)가 말했다.

[우리는 그의 차륜과 싸울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덤벼들까요?]

곽양은 겁을 먹었다.

(그들의 말투를 들어 보니 그들은 신조협과 적이었구나.)

늙은 여자가 다시 말했다.

[신조협의 재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칠제(七第), 한번 명확하게 말해 봐요.]

몸이 건장한 사나이가 입을 열었다.

[내가 비록 그를 보았다고는 하지만 그와 겨루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그는 사문(邪門)인 것 같습니다.]

붉은 치마를 입은 젊은 부인이 말했다.

[칠형(七兄), 당신은 어째서 신조협과 원수가 되었는지 이 기회에 자세히 이야기해 보시죠. 당신은 늘 애매하게 말을 하고, 한 마디를 하면 세 마디를 속였읍니다.]

[서산 일굴귀는 같이 죽고 사는데, 우리가 싸우지 않고 어찌 물러날 수가 있겠읍니까?]

키가 크고 매우 마른 사람이 음침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러나기는 누가 물러나? 만약 구매(九妹)가 묻지 않았다면 나라도 물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가 어째서 우리 서산 일굴귀를 산서(山西)로 쫓아내겠다고 했는가?]

그 사나이가 화를 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내 두 귀를 베어 갔읍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면 어찌 좋은 형제간이라 할 수 있겠읍니까?]

하고 말하고는 머리의 모자를 벗자 눈빛 아래 번쩍번쩍 빛나는 대머리 양쪽 옆에는 두 귀가 없었다. 나머지 서산의 일굴귀 9명은 모두 화를 냈다. 어떤 이는 소리를 내어 욕하고, 어떤 이는 천둥처럼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신조협과 일전을 치르자고 아우성을 쳤다.

붉은 옷의 부인이 말했다.

[칠형, 그런데 어째서 귀를 베었지요?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아니면 양가(良家)의 유부녀를 희롱했나요?]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띄고 있는 사람이 화를 냈다.

[칠형이 비록 양가집 유부녀를 희롱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나설 필요가 없지요.]

이 사람의 모습은 매우 이상해 비록 화를 냈지만 얼굴은 조금도 웃는 표정이 가시지 않았다. 곽양이 그를 살펴보니, 원래 그의 입은 위쪽으로 올라갔고 두 눈은 가늘어서, 비록 상심해 통곡을 할 때라도 옆에 있는 사람은 그의 웃는 모습을 보게 됨을 알았다.

그 사나이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얘기하리다! 그날 나의 부인과 네 명의 첩들이 사소한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서로 칼을 들었읍니다. 이때 마침 그 무슨 신조협이란 놈이 그곳을 지나다가 이것을 보았지요. 그놈은 원래 쓸데없는 일을 간섭해 좋은 말로써 싸움을 멈추게 했읍니다. 그런데 제 세번째 첩이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미소를 보냈지 뭡니까?]

붉은 치마의 부인이 말했다.

[하하, 알겠어요. 칠형이 질투를 해서 그녀에게 웃지 못하게 하셨군요.]

사나이가 말했다.

[무슨 질투는? 나는 이웃 사람이 우리 집 일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소첩에게 한 대를 쳐서 이빨 세 개를 부러뜨리고 그 잡종놈에게 꺼지라고 했지요.]

곽양은 여기까지 듣고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좋은 뜻을 갖고 싸움을 말렸는데 당신은 어찌 그처럼 무례하게 말할 수 있나요? 당신 잘못했군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서 그녀를 쳐다보며 이 조그만 계집애가 이처럼 대담할 줄은 미처 몰랐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사나이는 과연 노기가 충천하여 말했다.

[너같이 조그만 게 감히 어른들의 일에 참견하다니! 오형(五兄), 이 계집아이는 당신의 것입니까?]

대두의 난장이가 말했다.

[그가 신조협을 보고 싶다고 하기에 데리고 왔을 뿐 다른 것은 나도 모르오.]

[좋아요. 내가 요것의 버릇을 고쳐 주지요.]

말채찍을 휘둘러 그는 곽양의 머리를 내리쳤다.

곽양도 말채찍을 들자 두 채찍이 서로 만나며 함께 엉켰다. 그 사나이가 힘을 주어 당기자 곽양은 센 힘이 자기를 끌어당기는 것을 느끼고 더 이상 잡고 있을 수 없어서 채찍을 놓았다. 손바닥은 이미 상처를 입어 아팠다. 사나이는 말채찍을 빼앗고 다시 휘두르려 했다. 장수노옹(長鬚老翁)이 말했다.

[칠제, 시간이 없다. 빨리 길을 가야지, 어찌 조그만 아이와 싸움을 벌이고 있느냐?]

사나이의 채찍은 공중에서 멈추고 다시 내려오지 않았다. 장수노옹이 웃으면서 말했다.

[서산 일굴귀는 하늘도 두렵지 않고 땅도 두렵지 않은 인물들로, 곽정과 황용의 명성이 대단해도 우리들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조그만 계집애가 다시 무슨 말을 하면 즉시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는 머리를 비스듬히 하며 말했다.

[칠제, 대장부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야. 나 장수귀(長鬚鬼)의 긴 수염도 예전에 적에게 한번 잘렸었지. 너의 두 귀는 도대체 어찌해서 잘렸느냐?]

사나이가 말했다.

[내가 신조협에게 빨리 사라지라고 말하자 그는 순순히 웃으며 몸을 돌려서 갔읍니다. 제 세번째 첩년이 잘못했읍니다. 그녀는 다시 울면서 나에게 억지로 잡혀서 첩이 되었으며, 자기는 결코 원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녀를 맞은 후 다시 네번째 첩을 얻으니 양심도 없다고 나를 책망했읍니다. 이때 신조협이 다시 돌아와 정색을 하고 물었읍니다. <이 여인의 말이 정말입니까?> 내가 말했지요. <정말이라면 어찌하겠소? 당신의 별명이 살신귀(殺神鬼)라 눈도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인다고 하던데, 당신은 그것을 아시오?> 그는 잠시 생각을 하더군요. <당신이 만약 그녀를 좋아한다면 어찌 그녀 말고 또다시 첩을 얻었소? 만약 그녀를 싫어한다면 처음부터 왜 그녀를 맞이했소?> 나는 크게 웃었지요. <나는 처음에는 그녀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싫증이 났다오. 사나이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당신도 한번 네 명의 첩을 거느려 보시지요!> 그가 말했읍니다. <너같이 정도 없고 의리도 없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여자를 울리는지 모르겠다.> 하며 돌연 내게 다가와 내 허리춤에 있는 비수를 뽑아 내 두 귀를 베었답니다. 그리고 비수를 내 가슴에 겨냥하면서<너의 간을 꺼내서 무슨 색깔인지 한번 보자.> 하고 말했읍니다.]

곽양은 눈썹을 찡그리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서산 일굴귀의 얼굴이 시시각각 침울하고 모습이 흉악해지는 것을 보고는 입술까지 나온 <잘했군!> 하는 말이 쑥 들어갔다.

그 사나이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때 내 부인과 네 명의 첩은 땅에 꿇어앉아 사정을 했읍니다. 세번째, 네번째 첩은 큰소리로 울었읍니다. 그녀들은 차라리 그들이 죽을지언정 나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애원했으며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녀들도 지아비를 따라서 죽겠다고 했읍니다. 내가 화가 나서 크게 외쳤읍니다. <자, 빨리 나를 죽여라! 서산 일굴귀가 너에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눈썹을 찡그리며 다섯 명의 제 첩에게 말했읍니다. <이 무정하고 의리도 없는 놈에게 당신들은 아직 정이 남아 있읍니까?> 다섯 명의 여인들은 단지 머리만 조아리더군요. 그가 다시 세째 첩에게 물었읍니다. <당신은 방금 전 그에게 억지로 잡혀서 결코 그에게 시집오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째서 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지요?> 그 첩이 말하기를,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제발 그를 죽이지 마세요.> 나는 화가 치밀어 외쳤다오. <네가 나 하나를 죽여도 아직 아홉이 남아 있다.> 그가 말하더군요. <좋다! 오늘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서산 일굴귀가 무엇이냐? 한달이 지난 후 내가 도마평(倒馬坪)에서 기다리겠으나 너는 일굴귀를 모두 데리고 나에게 오너라. 만약 오지 않으면 서산 일굴귀를 내가 모두 산서(山西)로 쫓아 버려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다 듣고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잠시후 늙은 여자가 입을 열었다.

[그가 무슨 무기를 쓰는지? 무공은 어느 파에 속하는지?]

그 사나이가 말했다.

[그는 단지 오른팔만 있고, 빈 손에 무기가 없었읍니다. 무공은...... 아무리 보아도 모르겠어요.]

[큰형, 그는 단번에 칠제를 제압했으니 아마 손발이 민첩하고 무공은 사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수자로 그를 제압해야 합니다. 당신은 머리를 맡고, 나와 오제(五弟)가 옆에서 도와 삼 대 일로 싸우며 그가 공부를 펼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 장수노옹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신조협의 명성은 대단하다. 지난 십여 년 간 그의 손에 의해 처단된 사람이 결코 적지 않으니 놀랄 만한 무예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싸움은 실로 위험한 것이다. 나와 이매(二妹)가 정면에서 공격하고 삼제(三弟)와 사제가 몸 가까이 붙어 하체를 공격해라. 오제와 육제는 뒤에서 공격하고, 칠제와 팔제는 밖에서 무기를 휘둘러 그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구매는 암기를 발사하고, 십제는 독무(毒霧)를 펼쳐라. 서산 일굴귀가 생긴 이후 열 사람이 함께 싸움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니 만약 그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가짜 귀신에서 진짜 귀신이 될 수도 있다!]

대두의 난장이가 말했다.

[큰형, 우리들 열 명이 한 명을 상대한다면 우리가 이겨도 만약 이 소문이 퍼지면 강호 호걸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늙은 부인이 말했다.

[우리가 신조협을 처단하고 이 계집아이를 제거한다면 오늘 저녁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말을 마치자 그녀의 손이 가볍게 흔들렸다. 이때 대두의 난장이는 왼소매를 휘둘러서 곽양의 몸 앞을 가로막고 이어 소매에서 가느다란 침을 손으로 집어냈다.

[이자(二姉), 내가 그녀를 데리고 왔지만 그녀의 목숨을 해칠 수는 없읍니다.]

하고 말하며 고개를 돌려서 곽양에게 말했다.

[조그만 아가씨, 만약 신조협을 보고자 한다면 오늘 저녁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시 돌아가세요.]

곽양은 놀랍고 분노가 치밀어 잠시 생각했다.

(이 노파의 동작이 매우 음흉해 만약 난장이가 구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흔적도 소리도 없는 그녀의 가는 침에 죽었을 것이다.)

[절대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시 몇 마디를 했다.

[당신들은 열 형제나 되는데 설마 그에게는 아무런 동반자가 없을까요?]

그 대두는 하하, 웃었다.

[신조협이 강호에 출현한 지 이미 십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 그에게 동반자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지. 그는 고작 말 못 하는 큰새를 데리고 다닐 뿐이오.]

라고 말하고는 채찍을 휘둘렀다.

[갑시다!]

사람들이 달려나가자 난장이는 곽양에게 말했다.

[싸움을 할 때 당신은 결코 내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곽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산 일굴귀 가운데 이 대두의 난장이가 자기를 돌보아 주어 동료의 독수로부터 자기를 구해 준 것을 알았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작아서 나머지 아홉 사람은 이 말을 듣지 못했다.

곽양은 말을 타고 그들을 따라서 달리며 이들 일굴귀의 무리 하나하나가 모두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신조협의 무공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어찌 혼자서 10명을 상대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곳에 계신다면 결코 방관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이때 눈앞에 있던 어둠침침한 숲속에서 돌연 호랑이의 울부짖음이 들려오자 말들은 겁을 집어먹고 움직이지 않거나 고개를 돌려서 도망가려 했다. 마르고 키가 큰 사나이가 채찍을 휘두르며 맨 먼저 숲으로 들어갔다. 늙은 여자는 욕설을 내뱉았다.

[못난 놈의 말 같으니라구. 이 조그만 고양이가 너희를 잡아먹을까 두려워서 그러느냐?]

말들은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모두 숲속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수십 장을 들어가자 돌연 한 사람의 사나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들이 간도 크게 이 한밤중에 마음대로 만수산장(萬獸山莊)

에 들어왔는가?]

서산 일굴귀의 무리들은 급히 고삐를 잡았다. 길을 가로막는 사람은 혼자였는데, 그 옆에는 각각 한 마리의 맹호가 주저앉아 있었다. 말들은 2마리 맹호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다시 소란을 피웠다. 장수노옹이 말 위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말했다.

[서산 일굴귀가 길을 지나가다가 이곳을 침입했읍니다. 미리 알리지 못한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앞에 있는 사람이 말했다.

[서산 일굴귀라고? 당신은 장수귀(長鬚鬼)인 번야(樊爺)가 아니시오?]

장수노옹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급한 일이 있어서 도마평에 가는 길이니 돌아오는 길에 찾아 뵙고 사죄를 하겠읍니다.]

그는 만수산장의 인물들은 매우 장난기가 있음을 알고 있어, 이때는 전력으로 신조협을 상대해야 하는지라 다른 소란을 피우고 싶지않아 이처럼 공손하게 응대했던 것이다. 앞에 있던 사람이 말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시오.]

한 뒤, 큰소리로 외쳤다.

[큰형, 서산 일굴귀들이 도마평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죄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몹시 불쾌했다.

(우리가 돌아오다 사죄한다고 말한 것은 단지 인사치레일 뿐이다. 설마 서산 일굴귀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겠는가?)

서산의 십귀(十鬼)는각자가 모두 놀랄 만한 무예를 지니고 있어 각각 이처럼 의기가 투합해 모이기 전에도 이미 적지않은 소란을 피웠고, 10명이 모인 이후에는 그 기세가 더욱 등등해 진협(晉狹) 일대를 횡행하자 무림의 사람들은 그들을 퍽 꺼려 했다. 만약 오늘 저녁 신조협과의 선약이 없었다면 단지 그들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말투만으로도 핑계삼아 목소리가 들려왔다.

숲속 깊은 곳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죄해도 소용없으니 그들은 숲을 돌아서 길을 가라고 해라.]

일굴귀들은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었다. 장대같이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 쓴 웃음을 지었다.

[서산 일굴귀의 행로에는 돌아가는 법이 없다!]

채찍을 휘둘러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갔다.

그 사람이 왼손을 흔들자 몸 옆에 앉아 있던 2마리의 호랑이가 즉시 뛰어들었다. 그가 타고 있던 말이 겁을 먹자 말등에서 그가 일어났다. 이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의 말 타는 기술은 절묘해 몸을 안장에 붙이고 쨍, 하며 두 손에 각각 짧은 창을 잡고 2마리 호랑이를 향해 찔렀다. 왼쪽의 맹호는 옆으로 피했으나 오른쪽의 맹호는 그가 타고 있던 말의 배를 발톱으로 움켜쥐고 한바탕 소리를 질렀는데 이미 창에 찔려 상처를 입었다. 그는 땅으로 내려와 말했다.

[좋은 무기야!]

그는 왼쪽 창은 높고, 오른쪽 창은 낮은 쌍룡복연세(雙龍伏淵勢)를 가볍게 흔들었지만 결코 앞으로 나가지는 않았다.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외쳤다.

[당신이 우리 집의 짐승을 해쳤으니 길을 돌아서 지나간다 해도 이미 소용이 없지. 무상귀(無常鬼), 두 손에 있는 쌍창을 꽉 쥐고 있어라.]

무상귀는 그가 자기의 별명을 알고 있는 것을 알고 말했다.

[그대는 누구신지? 만수산장은 서량(西凉)에 있는데 어찌해서 이곳 진남(晉南)으로 옮기셨나요? 당신이 손에 창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데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만수산장이 이사를 하는데 서산 일굴귀에게 알릴 필요는 없잖은가? 서량에 사는 것이 싫증나서 진남으로 놀러 왔다. 우리 큰형이 당신들에게 숲을 돌아서 가라고 한 것은 공손한 말이었어. 세째 형이 지금 병들어 있어 외부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이 말을 하고 그는 돌연 왼손을 내밀어 무상귀의 오른쪽 창을 잡았다. 무상귀는 그의 동작이 이처럼 신속할 줄은 예상하지 못해 급히 왼쪽 창으로 찌르며 오른손도 힘을 주어 창을 당겼다. 그 사람은 다시 무상귀의 왼손 창을 잡았다. 두 사람의 힘은 비슷해 누구도 상대방의 무기를 뺏지 못했다. 이때 툭툭, 하며 2 자루의 창이 끊어졌다.

이것을 보고 서산 일굴귀는 놀랐다. 별명을 <장수귀>라 하는 노옹이 말했다.

[그대는 팔수선후사(八手仙후史)가 아니시오? 청갑사왕(淸甲獅王)의 몸이 불편하시다고요? 지금 우리들은 급한 일이 있으니 내일 이 시간에 이곳에서 만납시다.]

만수산장의 주인은 5 형제로, 큰형은 백액산군(白額山君) 사백위(史伯威), 둘째는 관견자(管見子) 사중맹(史仲猛), 세째는 청갑사왕 사숙강(史叔剛), 네째는 대력신(大力神) 사계강(史季强), 막동이가 바로 눈앞에 있는 팔수선후 사맹첩(史孟捷)이었다. 다섯 형제는 조상대대로 맹수를 훈련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서 이 다섯 사람도 모두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었다. 맹수를 훈련시키는 것이 이미 신의 경지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그들은 맹수가 뛰어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무공의 법문(法門)을 깨달았다. 사씨 형제는 어려서부터 맹수와 벗을 삼고 결국에는 그들의 스승이 되어 각자의 재주를 연마했다. 사숙강은 약관 20 세 때 산으로 들어가 맹수를 잡고, 기인(奇人)을 만나서 다시 정묘한 내공을 배웠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 형제들에게 이것을 다시 전수해 주었다. 다섯 사람의 야수는 기르면 기를수록 많아지고 무공도 날로 강해졌다. 만수산장의 명성도 점점 강호에 알려져 무림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호표사상후(虎豹獅象후) 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다. 다섯 사람 가운데 청갑사왕 사숙강이 가장 뛰어났다. 이때 장수귀는 사숙강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서 우선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 장수귀는 사씨 형제가 비록 무섭지만 서산 일굴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호표사상후 가운데 사왕이 병들었으니 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내일 저녁의 결투를 약속했다.

팔수선후 사맹첩이 말했다.

[좋습니다. 내일 저녁 자시(子時)에 우리 형제는 숲 밖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지요.]

하고 말하고 두 손을 모으며 2개의 부러진 창끝은 장수귀의 옆에 있는 숲속으로 집어던졌다. 장수귀는 놀랐다.

(그는 어째서 우리들이 숲을 지나가는 것을 막는단 말인가? 사씨 형제가 이 숲속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는 말인가?)

그는 즉시 손을 모으고 말했다.

[서산 일굴귀 인사드립니다!]

하며 두 발로 말을 차 앞으로 달려갔다. 사맹첩이 소리를 질렀다.

[잠깐! 큰형이 여러분에게 숲을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설마 여러분이 귀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장수귀는 말고삐를 잡고 대답을 하려 했으나 숲의 동북쪽과 서북쪽에서 동시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리며 연기가 났다. 한 사람이 말했다.

[너희들은 숲속에서 무슨 못된 짓을 하느냐? 결코 서산 일굴귀를 속일 수는 없다.]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못된 짓을 하다가 귀조종(鬼祖宗)을 만났다!]

원래 일굴귀 가운데 8번째의 상문귀(喪門鬼)와 10번째의 소검귀(笑검鬼)가 사맹첩과 장수귀가 대화를 나누는 틈을 이용해 길을 돌아 그의 뒤에서 불을 지른 것이었다.

불길이 번지면서 상문귀와 소검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놀라고 매우 당황한 모습으로 황급히 달려왔다.

[무슨 일이냐?]

상문귀가 황급히 대답했다.

[호랑이, 호랑이! 백 마리 이백 마리......]

사맹첩은 숲속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외쳤다.

[큰형, 둘째형! 일이 급하게 됐읍니다. 이놈들을 쫓아 버리지요!]

이 순간 사람들의 눈앞이 번쩍하며 조그만 개만한 야수가 숲속에서 튀어나와 숲 밖으로 뛰어갔다. 이 야수의 몸집은 그리 크지 않았으나 네 다리는 매우 길었고 온몸은 눈같이 하얗고 꼬리만 새까만 게, 고양이 같기도 하고 개 같기도 했다. 사맹첩이 외쳤다.

[구미영호(九尾靈狐)가 나타났다!]

그는 곧 몸을 날려서 쫓아갔다. 그의 소리에는 놀라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돌연 숲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호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사자의 울부짖음 같기도 했다. 여기에 다시 한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자 곽양은 이 소리를 듣고 몸에서 가벼운 한기가 돌았다. 이 소리가 들려온 후 사방에서 온갖 야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사자, 호랑이, 표범, 이리, 코끼리, 원숭이, 이리......일시에 똑똑하게 분별할 수 없었다. 여러 동물의 발굽소리가 들려오며 수많은 야수가 숲속에서 뛰어나왔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큰형은 동북쪽, 둘째형은 서북쪽, 네째 동생은 서남쪽으로......!]

말소리는 조금 전의 소리와 비슷했다.

곽양은 몇 개의 검은 그림자가 번쩍번쩍 하면서 밀림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위급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호기심이 생겨서 급히 말을 타고 쫓아갔다. 대두귀가 소리쳤다.

[곽아가씨,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그는 말을 타고 곽양의 뒤를 쫓았다.

곽양이 숲속을 나오자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보였다. 다섯 명이 각자 한무리의 야수를 이끌고는 백설이 덮인 평원을 다섯 방향에서 달려오고 있었다. 이 야수들은 훈련이 되어 서로를 알아 보아 물어뜯거나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열을 지어 동에서, 서에서 조금의 혼란도 없이 달려왔다. 곽양은 두렵기도 했지만 또한 재미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섯 무리의 야수들은 점점 가까와지며 큰 원을 만들었다.

그때 돌연 흰빛이 번쩍 하며 조그만 개처럼 생긴 야수가 무리를 뚫고

나와 곽양의 눈앞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신법이 매우 빨라서 마치 번갯불과 같았다. 곽양은 겁을 먹은 채 고개를 숙여 손을 뻗어 다리를 잡으려 했지만 야수는 이미 그녀의 몸에서 여러 장 떨어진 곳에 있었다. 야수는 그 자리에 서서 돌연 고개를 돌려서 곽양을 쳐다보며 둥글둥글한게 마치 불 같은 두 눈을 쉬지 않고 돌려서 깜깜한 밤중에 불꽃 같은 2개의 눈을 빛냈다.

이윽고 사씨 형제의 외침이 들렸다.

[구미영호, 구미영호!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야수들은 마치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듯 달려들었다.

곽양은 말을 재촉해 옆으로 피하려 했으나 말은 이같이 많은 맹수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두 발이 풀려서 그만 땅에 주저앉고 말았다. 곽양은 매우 당황했다.

(야수의 무리가 나에게 달려오면 나는 밟혀서 떡이 되어 죽을 텐데......!)

즉시 말에서 뛰어내려 잠시 옆으로 피하자 비린내가 풍겨 오며 야수의 무리가 마치 큰 강물처럼 그녀의 곁을 지나가 잠시 후 멀어졌다.

이때 서산 일굴귀도 모두 말을 달려 숲 밖으로 빠져나왔다. 장수귀가 말했다.

[사씨 형제의 무공이 비록 강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단지 이 많은 짐승들을 힘으로 대항하기가 쉽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오늘 저녁은 그냥 놔 두고, 우리는 힘을 아껴 신조협을 상대해야 한다. 자, 가자!]

늙은 여자가 말했다.

[좋아요, 오늘 저녁 신조협을 죽이고 내일 다시 사자를 불에 태우고, 호랑이를 구워 먹도록 하죠!]
하고 말하고는 채찍을 휘둘러 숲을 돌아서 가려 했다.

돌연 사자와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야수들이 길을 나누어 돌아왔다. 이번의 울음소리는 우렁차지 않아서 달려오는 것도 신속하지 않

았다. 장수귀의 안색이 갑자기 변했다.

[안 되겠다. 더 빨리 가자!]

그러나 사면팔방에서 야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그들은 이미 야수의 포위 속에 빠진 것을 알아차렸다. 장수귀가 휘파람을 불자 10 명은 일제히 말에서뛰어내려 다섯 방향으로 나누어 서서 각자 무기를 뽑아 쥐고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적이 공격해 오기를 기다렸다. 대두귀가 조용히 말했다.

[조그만 아가씨! 자, 빨리 돌아가요. 여기에서 쓸데없이 위험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신조협은요? 당신은 나를 데리고 가서 그를 만나게 해 준다고 했잖아요?]

대두귀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렇게 많은 흉악한 야수들이 보이지 않나요?]

[당신이 야수의 주인에게 사정을 말해서 이미 신조협과 약속이 되어 조금도 여기서 지체할 수 없다고 알려요.]

[흥, 서산 일굴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사정을 하지 않았소.]

이 말을 나누는 동안에 사씨 형제는 이미 야수를 데리고 돌아왔다. 다섯 사람은 모두 야수의 가죽으로 된 짧은 옷을 입고 서산 일굴귀와는 약 4,50 장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다섯째인 사맹첩이 말했다.

[만수산장과 서산 일굴귀는 원래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여러분은 왜 숲속에 불을 질러서 구미영호를 쫓으려 했습니까?]

곽양은 그의 말투로 보아 매우 화가 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조그만 짐승은 귀엽기는 하지만 뭐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이처럼 화를 내는지 모르겠군. 그놈은 분명히 꼬리가 1 개 밖에 없는데 어찌해서 구미영호라 부르는지 모르겠구나.)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이 말했다.

[오늘의 일은 모두 사씨 형제로 인해서 일어났소. 만수산장이 원래 서량 일대에 있었는데 돌연 우리들의 산서로 옮겨 와 이 어두운 밤에 길을

막았소. 이러한 횡포를 부리고 어찌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겠소?]

사백위가 입을 열었다.

[사정이 이미 이렇게 되었는데 더 이상 말을 해서 무엇 하겠느냐? 서산 일굴귀는 하나도 살아서 지나갈수 없다.]

큰소리를 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적수공권으로 장수귀에게 덤벼들었다. 두 손은 마치 호랑이 발톱과 같은 기세였는데, 사람의 힘이 와 닿기도 전에 바람이 일었다. 진짜 호랑이도 이처럼 위풍이 세지는 못했을 것이다.

장수귀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왼쪽으로 비켜서서 후, 하고 긴 무기를 사백위에게 휘둘렀다. 사백위가 호랑이 발톱을 내밀어 긴 무기의 끝을 잡고 손으로 움켜쥐려 했다. 원래 이 무기는 쇠지팡이였다. 그의 손이 움켜쥐기도 전에 돌연 팔이 뜨거워져 급히 손을 놓고 왼손으로 신공(神功)을 가해 쇠지팡이를 막았다. 만약 이 동작이 신속하지 않았다면 그의 가슴은 지팡이에 명중되었을 것이다. 사백위는 겁을 먹었다.

(서산 일굴귀의 명성이 최근 대단하다더니 과연 그렇군!)

그는 즉시 나서지 못하고 일단 무기를 뽑았는데, 그것은 한쌍의 호두(虎頭) 쌍갈고리였다. 이 한쌍의 갈고리는 오른쪽이 18근, 왼쪽이 17근으로, 매우 무거운 무기였다. 쌍갈고리는 누런 빛을 내며 장수귀의 지팡이와 싸움을 벌였다.

이때 관견자 사중맹은 손에 은점이 있는 강관(鋼管)을 들고 1대 2로 최명귀(催命鬼)의 지당도(地堂刀)와 상문귀의 쇠사슬을 상대하고 있었다. 대력신 사계강은 늙은 여자인 조사귀(弔死鬼)의 수중에 있는 긴 띠와 상대하고 있었는데, 그의 힘이 대단해도 조사귀의 긴 띠가 길고 부드러워 힘을 쓰지 못하고 단지 소리만 지르며 도저히 신공을 펼칠 방법이 없었다. 팔수선후 사맹첩의 상대는 바로 팔각동추(八角銅鎚)를 사용하는 대두귀였다. 눈앞에 펼쳐지는 사맹첩의 동작이 오묘해 대두귀가 약간씩 밀리자 붉은 치마의 초귀(초鬼)가 칼을 들고 앞으로 나서서 그를 도와주었다.

눈이 내린 땅에 10명이 네 패로 나뉘어 싸움을 벌였는데 일시에 승패를 결정지을 수는 없었다.

서산 일굴귀 가운데 아직 6명이 남아 있었으나 그쪽은 단지 청갑사왕이 혼자 남아 한 마리 수컷 사자의 몸에 기대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일굴귀가 수자의 우세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사씨 형제가 소리를 한번 지르기만 하면 야수들이 울부짖으며 달려들려고 하니 일굴귀는 즉시 열세에 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곽양은 야수들이 둘러싸고 있자 속으로 두려웠으나 한편으로는 신조협을 볼 수 없을까 봐 걱정이 되었다.

[대두귀 아저씨, 싸우지 마세요.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 비록 이겨도 떳떳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죄를 지었으니 사과를 하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찌 그녀를 쳐다보겠는가?

열 사람은 한참 동안 싸움을 벌였다. 장수귀와 사백위는 시종 백중지세였고, 늙은 여자의 긴 띠는 변화가 무쌍해 크고 작은 원을 이루자 사계강은 정신이 혼미해져 그녀가 만든 올가미에 목이 걸릴 뻔했으나 그의 힘이 워낙 대단해 조사귀도 그를 두려워했다. 대두귀와 초귀는 강하고 유연해 서로를 도와 주었으나 사맹첩의 동작이 너무나민첩해서 그는 결코 열세에 놓이지 않았다. 대두귀가 천둥과 같은 소리를 지르고, 초귀는 음침하게 웃어서 적의 정신을 분산시키려 했다. 사맹첩은 귀를 막고 정신을 집중해서 계속 싸웠다.

한편 최명귀와 상문귀는 사중맹의 은관(銀管)을 당해 내지 못했다. 그의 동작은 매우 이상해 세 사람이 나누어 싸움을 벌이자 상문귀는 창을 찔렀다. 사중맹은 그의 창끝은 겨냥해 은관을 찌르자 그 창은 관 속으로 빠져 들었다. 상문귀는 크게 놀랐으나 손을 놓아서 무기를 뺏길 수는 없었다. 토채귀(討債鬼)가 뛰어나와 패(牌)를 휘둘러 사중맹의 은관을 치려 했다. 사중맹이 관을 뽑아 물러나가자 상문귀는 비로소 연자창(연子槍)을 되찾을 수 있었다. 토채귀의 무기는 마치 철패(鐵牌)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강철로 만든 장부였다. 모두 5장으로, 매 장은 뒤집어 움직일

수 있었고 그 테두리는 칼보다 예리해 실로 무서운 무기였다.

서산의 십귀는 각자 원래 성과 이름이 있었으나 <서산 일굴귀>의 이름이 강호에 크게 알려지자 열 사람은 진짜 이름을 버리고 각각 귀신으로 호칭되었다. 그들의 생김새와 행동거지는 원래부터 매우 이상했다. 이 토채귀는 지금껏 작은 원수도 모두 갚아서 그에게 아주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도 모두 용서하지 않아 무림에서 그의 별명을 <토채귀>라 붙였던 것이다. 그는 이것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비록 무기는 철로 만든 장부의 모양이지만 매 장의 철편에는 날카로운 송곳으로 원수의 이름을 새기고 반드시 원수를 갚은 이후 장부에서 이름을 지우곤 했다.

은점의 강관도 이상한 모형의 무기였지만 철장부(鐵帳簿)의 모양은 더욱 이상해 매 장의 철편(鐵片)들은 서로 부딪쳐 소리를 냈다. 최명.상문.토채 등 삼귀가 사중맹을 상대하자 정세가 점점 유리하게 보였다.

곽양은 한쪽에 서서 일굴귀와 사씨 형제들이 쉬지 않고 싸우는 것을 보고는 신조협과의 약속에 늦어 그를 만나지 못할까 걱정되어 혼자라도 갈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생각하면 할수록 다급했지만 싸움을 중지시킬 만한 힘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수많은 맹수들이 땅에 쭈그리고 앉아서 빽빽한 원을 이루었다. 서산의 일굴귀는 한밤중에 곳곳에서 푸른 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는 만약 사씨 형제를 모두 죽인다고 해도 이 야수의 포위망을 뚫기는 매우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늙은 여자인 조사귀는 띠를 사용해 대력신 사계강을 사로잡아 사씨 형제에게 야수의 무리를 이끌고 돌아가 길을 비키라고 강요하려 했다. 그러나 사계강의 무공이 원래 조사귀보다 한 수 위이고, 그녀는 단지 이상한 무기의 힘으로 우세를 점하며 겨우 상대가 되고 있었는데 그를 사로잡는 것이 어찌 말처럼 쉽겠는가? 소검귀가 소리쳤다.

[이자(二姉), 나를 도와 줘요.]

하며 허리춤에서 무기를 뽑아 사계강에게 덤벼들었다.

사계강은 싸움이 치열한데 소검귀가 달려드는 것을 보고 마음과뜻을 모아 소리쳤다.

[자, 오너라!]

청동저(靑銅杵)가 그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다. 소검귀는 몸을 옆으로 피하며 두 채찍을 옆으로 휘두르자 푸, 하며 두 채찍이 끊어졌다. 소검귀는 깜짝 놀라 땅에 굴렀다. 퍽, 하며 청동저도 땅에 꽂혔다. 소검귀는 손을 품속에 넣어 한 봉지 독분을 쥐고 일어나며 사계강을 향해서 뿌렸다. 사계강은 돌연 눈앞에 한무리의 분홍색 안개가 나타나자 즉시 흔들거리며 땅에 쓰러졌다. 조사귀는 긴 띠로 그의 온몸을 감았다.

사백위.사중맹.사맹첩 세 사람은 대력신이 실수를 하여 일굴귀에게 묶여 그를 구할 수 없게 되자 놀랍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곽양이 말했다.

[당신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독계(毒計)를 써서 사람을 해치는 건 호걸이라 할 수 없어요!]

그녀는 그들 양쪽 누구도 도와 주지 않았지만 소검귀의 동작이 비열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비난을 한 것이다. 바로 이때 옆에서 낮은 소리가 들리며 청갑사왕 사숙강이 천천히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내 네번째 동생을 놓아 주어라!]

사계강은 기절해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조사귀는 긴 띠를 이용해 그의 온몸을 묶고 난 후, 그의 힘이 너무 강해서 깨어난 후 띠를 끊을까 두려워서 다시 옆구리의 혈도를 눌렀다.

[네가 이 야수를 치워 길을 열어 준다면 놓아 주겠다!]

사숙강의 눈이 쑥 들어가고 얼굴이 노란 게 걸음도 비틀비틀 하며 증세가 가볍지 않게 보이자 그들은 그를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곽양은 사숙강이 일굴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자 병이 있는데도 적을 맞이하는 것은 실로 사나이라는 생각이 들어 급히 소리쳤다.

[이봐요, 당신은 환자이니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사숙강은 곽양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사계강을 향해 걸었다.

소검귀는 조사귀를 향해 눈짓을 하고 좌우에서 달려들어 이 병든 귀신을 사로잡으려 했다.

두 사람은 사숙강을 향해 달려들며 손을 뻗자 돌연 사숙강의 낮은 숨소리가 들리더니 왼손은 조사귀의 어깨를 치고 오른손은 소검귀의 등을 밀자 두 사람은 거대한 힘이 돌연 몸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거의 쓰러질 뻔했다. 급히 그곳을 빠져나오자 다행히도 사숙강은 그들을 뒤쫓지 않았다. 두 사람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온몸이 땀에 젖었다. 그들은 이 병든 귀신이 이처럼 대단할 줄을 생각조차 못했다.

사숙강은 몸을 숙여서 네째 동생의 혈도를 풀어 주고 가볍게 끌자 조사귀의 긴 띠가 끊어졌다. 사계강은 독무(毒霧)에 중독되어 깨어나지 못했다. 사숙강은 얼굴을 찡그렸다.

[해약을 가지고 와라!]

소검귀가 말했다.

[당신이 야수를 이끌고 돌아가면 해약을 주겠다.]

사숙강은 흥, 하며 비틀비틀 소검귀에게 갔다. 소검귀는 감히 그와 정면에서 대적하지 않고 재빨리 피했다. 사숙강은 몸에 병이 있어서 뛰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그를 향해 갔다. 한쪽에 서 있던 4명이 동시에 그를 둘러싸자 소검귀도 고개를 돌려 다가왔다 사숙강의 동작은 매우 느렸으나 그 힘은 대단해 5명의 일굴귀가 그를 포위하고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소검귀는 독이 자기 형제에게 해를 입힐까 두려워 감히 독무를 뿌리지 못했다.

곽양은 잠시 생각했다.

(이 사람이 독계에 걸렸으나 참 안 됐구나!)

그녀는 땅에서 눈을 한줌 집어서는 사계강의 이마에 대고 비볐고 다시 한 줌의 눈으로 그의 입을 막았다. 사계강은 신체가 건장하여, 그의 이마가 시원해지자 독무의 효력은 오래 가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깨어나더니 곽양이 자기의 이마에 눈을 비비고 있음을 알았다.

[아가씨, 고맙습니다.]

그는 급히 몸을 일으켜 손등으로 눈을 비비고는 사숙강이 일굴귀에게 포위되어 공격당하는 것을 보았다.

[세째형, 물러나요!]
하며 손을 내밀어 소검귀의 목을 비틀려고 했다.

사백위는 2개의 갈고리를 움직여 장수귀의 쇠지팡이와 맹렬히 싸우고 있다가 사계강이 깨어난 것을 보고 기뻐서는 긴 휘파람을 불었다. 쭈그리고 앉아 있던 맹수들이 휘파람소리를 듣자 즉시 일어나 덤벼들려고 했다. 사백위가 다시 소리를 지르자 맹수들은 울부짖기 시작했다.

서산 일굴귀는 비록 수많은 싸움을 치러 왔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자 몸이 오싹해지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맹수들의 울부짖음이 끊어지지 않고 천천히 서산 일굴귀를 향해서 달려왔다.

곽양은 <아!> 하는 비명을 지르며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숙강은 손을 뻗어 곽양에게 달려드는 맹호를 물리치고 자기의 머리에 있는 가죽 모자를 벗어 곽양의 머리에 씌워 주었다. 맹수들은 오랫동안 훈련이 되어 그녀가 가죽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달려들어 물지 않고 고개를 돌려 일굴귀를 공격했다. 맹호.이리.표범.사자.원숭이.검은 곰......, 모든 맹수들이 일굴귀에게 달라붙어 할퀴거나 물어뜯었다. 서산 십귀는 힘을 다해 7,8마리의 맹수를 죽였지만 사씨 형제가 옆에서 견제하고, 맹수의 수자가 너무 많아서 순식간에 십귀는 모두 상처를 입고, 갈기갈기 옷을 찢겼으며,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얼핏 보기에는 도망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곧 목숨을 잃을 것 같았다.

곽양은 3마리의 사자가 대두귀 한 사람을 공격하여 그의 손에 있던 팔각동추는 땅에 떨어지고, 사자가 오른발을 물고 놓지 않아 왼손으로 장풍을 일으켜 겨우 다른 2마리의 사자를 상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곽양은 그녀를 데리고 온 그가 이처럼 낭패를 당하자 속으로 참지 못해 더 생각할 여유도 없이 가죽모자를 벗어서 그에게 날렸다. 그의 머리에 모자가 떨어지기는 했으나 그의 머리는 크고 모자는 작아 그 모양이 매우 우스꽝스럽고 흔들흔들 떨어질 것 같아 몹시 불안했다. 사씨 형제들은

야수를 훈련시킬 때 머리에 모두 특수하게 만든 가죽모자를썼었다. 짐승은 무지하니 어찌 적과 친구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대두귀의 머리에 모자가 씌워져 있자 즉시 몸을 돌렸다. 한편 곽양은 4마리의 표범에게 포위당했다.

이때 사숙강은 그의 짐승이 너무 많이 다칠까 두려워 장수귀의 쇠지팡이를 빼앗고 있었는데, 곽양의 비명을 듣고 고개를 돌려 보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4마리 표범은 곽양을 물지 않고 그녀의 주위를 돌면서 냄새를 맡는 등 그 표정이 매우 친밀한 듯 보였다. 곽양은 매우 놀랐으나 4마리의 표범이 아무런 악의가 없음을 알고서 의아해 했다. 그러나 잠시 후 자기가 어릴 때 어미 표범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말해 주었던 어머니와 언니의 말이 생각났다. 보아하니 4마리의 표범은 곽양의 몸에서 나는 체취가 이상해 무리들을 끌어들인 것 같았다. 그녀는 놀랍고도 기뻐서 2마리의 표범의 목을 껴안고 쓰다듬자 다른 2마리 표범도 혀를 내밀어 그녀의 손등과 뺨을 핥았다. 곽양은 간지러워서 히히히, 웃었다. 사씨 형제는 훈련시켜 온 이후 지금껏 이같이 이상한 광경을 보지 못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두귀는 비록 가죽모자를써서 잠시 화를 면할 수 있었지만 형제 자매 아홉 사람이 곤란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보고서 어찌 혼자 살아나려고 하겠는가! 그들 서산 일굴귀는 결코 성인군자가 아니어서 평소에 저지르는 일이 대부분 사악하지만 서로의 의리는 대단히 깊어서 즉시 모자를 벗어 붉은 치마를 입은 초귀를 향해 던졌다.

[구매(九妹), 이것을 쓰고 목숨을 건져요!]

그 초귀는 모자를 잡고 즉시 장수귀에게 던졌다.

[큰형, 먼저 가세요. 우리들을 위한 복수는 나중에 해 주면 됩니다.]

장수귀는 모자를 소검귀에게 넘겼다.

[십제(十弟), 군자가 복수를 하려면 십 년이 걸리는데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가 없다.]

그들 10명은 누구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물건을 원하지 않았다.

소검귀는 5마리의 악독한 이리에 붙잡혀 모자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었다. 이리는 매우 탐욕스럽고 사악한 짐승이라 입으로 물어서 피 맛을 보자 소검귀의 머리에 가죽모자가 있어도 이 맛있는 음식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소검귀는 큰소리로 욕을 지껄였으나 얼굴은 여전히 웃는 모습이었다.

돌연 머리 위에서 가벼운 휘파람소리가 들리면서 누군가 낭랑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서산 일굴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를 반나절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더니, 이제 보니 이곳에서 맹수들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 있었구나!]

곽양은 이 소리를 듣고 몹시 기뻤다.

[아! 신조협이 왔구나!]

고개를 들자 큰 나무 옆으로 난 가지에 한 사람이 앉아 있고, 그 옆에는 한 마리의 크고 못생긴 수리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은 회색의 장포를 입고 있었는데 오른쪽 팔소매를 허리춤에 집어 넣은 것이 과연 한쪽 팔이 없었다. 다시 고개를 들어그의 모습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안색은 누렇고 몸은 말라비틀어져 어찌 산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실 하나의 시체였다. 서산 일굴귀가 모두 보기 싫은 모습이었지만 결코 이 사람처럼 못생기지는 않았다.

곽양이 그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녀는 그의 모습이 멋있고 기품 있을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했었는데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찌 실망하지 않겠는가!

(세상에 이처럼 못생긴 사람이 있을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다시 한번 그를 보자 그의 두 눈은 빛을 발하고 있었고, 영기(英氣)가 다른 사람을 압도했다. 그의 번개 같은 눈빛이 그녀의 얼굴에 잠시 멈추자 약간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다. 곽양의 마음은 달아올라 자기도 모르게 두 볼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이 신조협이 결코 못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다.